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199-01

ISBN 979-11-5598-079-8(93390)

The Korean War

6·25전쟁 주요 무기 I

유엔군편

박동찬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The Korean War

6·25전쟁 주요 무기 I

유엔군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간사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간 진행된 전쟁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한반도는 국제 냉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지적 열전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지역적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었지만,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초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세계대전에 버금갔습니다.

한반도라는 단일지역에서 세계 초강대국들이 참여한 만큼 전쟁의 강도도 매우 컸습니다. 특히 3년간의 전쟁에는 제1·2차 세계대전에서 검증된 각종 무기는 물론 전후에 개발된 신형 무기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서 ‘최첨단 신무기의 경연장’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어 그 종류와 숫자를 제대로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무기는 병력 및 작전과 함께 전쟁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사 연구에서는 무기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6·25전쟁사 연구의 한 분야로 유엔군과 공산군이 전쟁에서 사용한 주요 무기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로 『6·25전쟁 주요 무기』 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 주요 무기』(전2권)는 우리 연구소가 2016년부터 진행한 사전편찬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6·25전쟁사 책자 발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60여 년간 축적된 전쟁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정리하여 사전식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 주요 작전과 전투 316개를 선별·정리하여 『6·25전쟁 주요 전투』 I·II로 발간한 것이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하는 『6·25전쟁 주요 무기』 I·II가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6·25전쟁 주요 무기』(전2권)에 수록된 무기 항목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전11권)를 바탕으로 전쟁에서 자주 사용된 무기를 경중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책의 구성은 제1권이 유엔군 편이며, 제2권이 공산군 편입니다.

제1권 유엔군 편에서는 소화기(18종)·대전차무기(5종)·화포(10종)·전차(7종)·장갑차(5종) 등 총 45종의 지상무기, 항공모함(7종)·전함(1종)·순양함(7종)·구축함(7종)·상륙함(4종)·소해함(2종)·기타함정(8종) 등 총 36종의 해상무기, 전투기(7종)·폭격기(2종)·수송기(5종)·연락기(4종)·훈련기(1종)·헬리콥터(2종)·함재기(9종)·수상기(3종) 등 총 33종의 항공무기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권 공산군 편에서는 소화기(16종)·대전차무기(6종)·화포(30종)·전차(2종)·장갑차(1종)·전투차량(6종) 등 총 61종의 지상무기, 소해함정(2종)·구잠정(1종)·어뢰정(1종) 등 총 4종의 해상무기, 전투기(4종)·폭격기(2종)·훈련기(2종) 등 총 8종의 항공무기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우리 연구소 연구원이 제1권 집필을 담당하였으며, 제2권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완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서술방식은 개요, 연혁 및 제원, 운용, 참고문헌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개별 무기의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6·25전쟁 당시에 실제 사용되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 일반 독자들에게 6·25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에 대한 좋은 정보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6·25전쟁사와 무기 발달사 연구에 작은 밑거름이 되는 연구 성과이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박동찬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윤시원 박사, 그리고 인쇄를 맡아준 국군 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원고를 감수해 주신 연구소 연구원들과, 특히 외부감수위원으로 집필 항목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 (전)해군역사기록관리단 군사편찬과장 임성채 박사, 공군역사기록관리단 이원석 역사편찬과장, 전쟁기념관 고한빈 학예연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3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대리 심 현 용

일러두기

1. 『6·25전쟁 주요 무기』 I·II는 전쟁에 사용된 무기를 통해 6·25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전쟁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편찬 목적을 두었다.
2. 이 책은 전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권이 유엔군 편, 제2권이 공산군 편이다. 각 권은 지상무기, 해상무기, 항공무기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무기의 명칭은 가능한 한 생산국가의 제식 명칭을 따르고자 하였다.
4.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6·25전쟁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수록하려 하였다.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며, 사진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
5. 본문의 각 표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표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표의 내·외에 비고란을 두어 보충 설명하였다.
6. 이 책에서 사용한 국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표기법을 따랐으며, 인용된 자료의 원문을 번역 수록할 경우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현대문으로 번역하고, 원문 제작 당시 관용어나 제도어는 가급적 원문을 준용하였다.
7.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고유명사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은 원어를 ()안에 삽입하였다.
8. 현재의 중국(군)과 러시아(군)는 편의상 주로 중공(군)과 소련(군)으로 표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혼용했다.
9. 본서에서는 6·25전쟁 시기 사용된 대표적인 무기만을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무기들이 존재함을 밝혀둔다.



The
Korean
War

목 차

- 발 간 사
- 일러두기

I. 지상 무기

13

01. 소화기

15

- M1911A1 권총 17
- 웨블리 엔 스콧 Mk.6 리볼버, 엔필드 No.2 Mk.1 리볼버 20
- M1903 소총 23
- M1 거랜드 소총 26
- M1/M2/M3 카빈 소총 29
- 리-엔필드 소총 32
- 38식 보병총, 99식 소총 35
- M3/M3A1 기관단총 38
- 스텐 기관단총 42
- 오웬 기관단총 45
-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 48
- M1917 브라우닝 기관총 51
- M1919 브라우닝 기관총 54
- M2 브라우닝 기관총 57
- 브렌 경기관총 60
- 빅커스 중기관총 63

02. 대전차무기

65

- M9 2.36인치 '바주카' 로켓포, M20 3.5인치 '슈퍼바주카' 로켓포 66
- M18 57mm 무반동총, M20 75mm 무반동총 71
- M1 57mm 대전차포 76

03. 화포 80

- M2 및 M19 60mm 박격포 82
- M1 81mm 박격포 85
- M2 및 M30 4.2인치 박격포 88
- 오드년스 SBML 2인치 박격포 92
- 오드년스 ML 3인치 박격포 94
- M1 75mm 경곡사포 96
- M3 105mm 곡사포 99
- M2 105mm 곡사포 102
- M1 155mm 곡사포 105
- M1 8인치 곡사포 108
- M36 대전차자주포 111

04. 전차 116

- M4 ‘셔먼’ 중형전차 117
- M24 ‘채피’ 경전차 122
- M26 ‘퍼싱’ 중형전차 126
- M46 ‘패튼’ 중형전차 130
- 크롬웰 순항전차 133
- 센추리온 전차 137
- 처칠 보병전차 140

05. 장갑차 144

- M3 반궤도차 145
-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150
- M39 다용도 장갑차 154
- 범용 수송차 157
- 다임러 장갑차 160

01. 항공모함 165

- 에섹스급 항공모함 167
-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 173
- 커멘스먼트 베이급 호위항공모함 177
- 카사블랑카급 호위항공모함 182
-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 186
- 유니콘급 경항공모함 191
- 마제스틱급 항공모함 195

02. 전함 199

- 아이오와급 전함 200

03. 순양함 206

-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208
- 오리건 시티급 중순양함 214
-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218
- 우스터급 경순양함 222
- 주노급 경순양함 226
- 타운급 경순양함 230
-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235

04. 구축함 239

- 기어링급 구축함 244
-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251
- 플래처급 구축함 257
- 배틀급 구축함 263
- C급 구축함 267
- N급, S급, V급 구축함 270
- 트라이블급 구축함 273

05. 호위구축함	276
•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277
•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	281

06. 기함	285
• 마운트 맥킨리급 기함	286

07. 유조함	290
• 시마론, 케네벡, 패타스코급 유조함	291

08. 프리깃함	296
• 타코마급 프리깃함	299
•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	305
• 리버급, 로취급, 베이급 프리깃함	308

09. 상륙함	313
• 선거상륙함	317
• 전차상륙함	323
• 중형상륙함	330
• 로켓상륙함	333

10. 잠수함	338
• 발라오급, 텐치급 잠수함	339

11. 수송함	344
• 공격화물함	346
• 공격수송함	351
• 고속수송함	356

12. 소해함	360
•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	362
• 에드미러블급, 오크급 소해함	366

13. 기타 함정	371
• PC-461급 구잠함	372
• YMS, AMS, JMS급 소해정	376
• 상륙용 주정	381

Ⅲ. 항공무기 385

01. 전투기	387
• F-51 머스탱	388
• F-80 슈팅스타	394
• F-82 트윈머스탱	399
• F-84 썬더제트	404
• F-86 세이버	410
• F-94 스타파이어	415
• 미티어 F-8	419

02. 폭격기	422
• B-26 인베이더	423
• B-29 슈퍼포트리스	428

03. 수송기	435
• C-46 코만도	436
• C-47 스카이트레인	442
• C-54 스카이마스터	448
• C-119 플라잉 박스카	453
• C-124 글로브마스터 II	457

04. 연락기, 훈련기	462
• L-4 글래스하퍼	463
• L-5 센티넬	467
• L-16 글래스하퍼, L-19 버드 독	471
• T-6 텍산	474

05. 헬리콥터	478
• H-5 드래곤플라이(Dragonfly)	479
• H-19 치카소(Chickasaw)	482

06. 함재기	485
• AD 스카이 레이더	486
• F2H 밴시	491
• F3D 스카이나이트	494
• F4U 코세어	497
• F7F 타이거 캣	502
• F9F 팬서	505
• 파이어플라이, 시파이어, 시퓨리	509
• PBM 마리너, PBY 카탈리나	515



The Korean War

I 지상 무기



- 01. 소화기
- 02. 대전차무기
- 03. 화포
- 04. 전차
- 05. 장갑차



소화기

Small Arms

소화기는 구경이 작은 총기로 권총, 소총, 기관총 등이 이에 포함되며, 통상 구경이 0.6인치 이하인 화기이다. 또한 개인 및 공용화기로 이용하는 무기로서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등 다양한 무기체계로, 기관총까지는 대개 구경 15mm 이하를 소화기에 포함시킨다.

6·25전쟁 기간에는 각국의 다양한 소화기가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제식 무기로는 다음과 같다. 권총은 미국의 M1911A1 자동권총과 영국의 웨블리 Mk.6 및 엔필드 No.2 리볼버, 소총은 미국의 M1903, M1 거랜드, M1/M2/M3 카빈, 영국의 리-엔필드, 일본의 38식 및 99식, 기관단총은 미국의 M3/M3A1, 영국의 스텐, 호주의 오웬, 기관총은 미국의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 M1917·M1919·M2 브라우닝 중기관총, 영국의 브렌 경기관총과 빅커스 중기관총 등이다.

〈표〉 6·25전쟁 시 사용된 주요 소화기

구분	생산국	무기 명칭
권총	미국	M1911A1 권총(Automatic Pistol, Cal. 45, M1911A1)
	영국	웨블리 엔 스코트 Mk.6 리볼버, 엔필드 No.2 Mk.1 리볼버(Webley & Scott Mk.VI .455 Revolver, Enfield .38 No.2 Mk.1 Revolver)
소총	미국	M1903 소총 (Rifle, Caliber .30, M1903)
		M1 거랜드 소총(M1 Garand Rifle or Rifle, Caliber .30, M1)
		M1/M2/M3 카빈 소총(Carbine, Caliber .30, M1/M2/M3)
	영국	리-엔필드 소총(Rifle, Caliber .303 Lee Enfield)
	일본	38식 보병총(三八式歩兵銃 : Type-38 Arisaka Rifle)
99식 소총(九九式小銃 : Type 99 Arisaka Rifle)		

구분	생산국	무기 명칭
기관단총	미국	M3/M3A1 기관단총(Submachine Gun, Cal. .45, M3/M3A1)
	영국	스텐 기관단총(Sten Submachine Gun)
	호주	오웬 기관단총(Owen Submachine Gun)
기관총	미국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Browning Automatic Rifle, Caliber .30, M1918)
		M1917 브라우닝 기관총(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M1917)
		M1919 브라우닝 기관총(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HB, M1919)
		M2 브라우닝 기관총(Browning Machine Gun, Caliber .50, HB, M2)
	영국	브렌 경기관총(Bren Light Machine Gun)
		빅커스 기관총(Vickers Machine Gun)

참고문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M1911A1 권총

Automatic Pistol, Cal. 45, M1911A1

개요

M1911A1은 미국 콜트사가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사용된 M1911을 개량하여 생산한 자동권총으로 1926년부터 1986년까지 미군의 제식 권총이었다. 국군도 6·25전쟁 발발 당시 4,603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연혁 및 제원



M1911A1 권총.

© Historic-Firearms.com

M1911A1 권총은 미국 콜트(Colt)사가 1911년산 M1911을 개량하여 제작한 반자동 권총으로 1926년에 미군의 제식 권총이 되었다. M1911과의 차이점은 손잡이가 얇아지고 그립 안전장치가 조금 더 길어졌으며, 방아쇠와 공이치기가 짧아졌다는 것이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M1911의 성능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내부 구조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M1911A1은 장점들이 많아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우선 크기가 작아 취급이 쉬웠으며, 신뢰성과 견고성이 탁월하고, 높은 명중률과 강한 타격력, 재장전의 수월함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탄환은 .45ACP탄(11.43×23mm)을 사용하며, 7발 들이 분리형 박스탄창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1940년 1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총 1,878,742정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986년까지 미군의 제식 권총으로 사용될 만큼 성능이 탁월했으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했다.

M1911A1 권총 제원

Automatic Pistol, Cal. 45, M1911A1			
구경	11.43mm	중량	1.11kg (탄환 7발 장착시)
길이	21.9cm	사격속도	분당 85발
사거리	50m	조작인원	1명

출처 : War Department, *FM 23-35 Automatic Pistol Clliber .45, M1911 & M1911A1*.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528.

비고 : 사격속도는 최대이며, 사거리는 유효사거리임(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 총기류 무기제원에 동일하게 적용함).

6·25전쟁 기간 영연방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전국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국군도 6·25전쟁 발발 전에 미국으로부터 4,603정을 이양받았는데, 당시의 보유량은 육군이 4,142정, 해군이 418정, 공군이 43정이었다. 국군은 전쟁 기간에도 유실분이나 부족분을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보충받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M1911A1 자동권총의 보유량은 6,604정이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Historic-Firearms.com, "Colt M1911a1", <http://www.historic-firearms.com>, 2021. 1. 5.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War Department, *FM 23-35 Automatic Pistol Clliber .45, M1911 & M1911A1*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0).



웨블리 앤 스콧 Mk.6 리볼버, 엔필드 No.2 Mk.1 리볼버

Webley & Scott Mk.VI .455 Revolver, Enfield .38 No.2 Mk.1 Revolver

개 요

웨블리 앤 스콧 Mk.6 리볼버는 영국군이 1915년에 제식 채용한 .455 웨블리탄을 사용하는 연발 권총이었고, 그 후속모델이 .38엔필드탄을 사용하는 엔필드 No.2 Mk.1 리볼버였다. 웨블리와 엔필드 리볼버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 6·25전쟁 때에도 애용한 권총이었다.

연혁 및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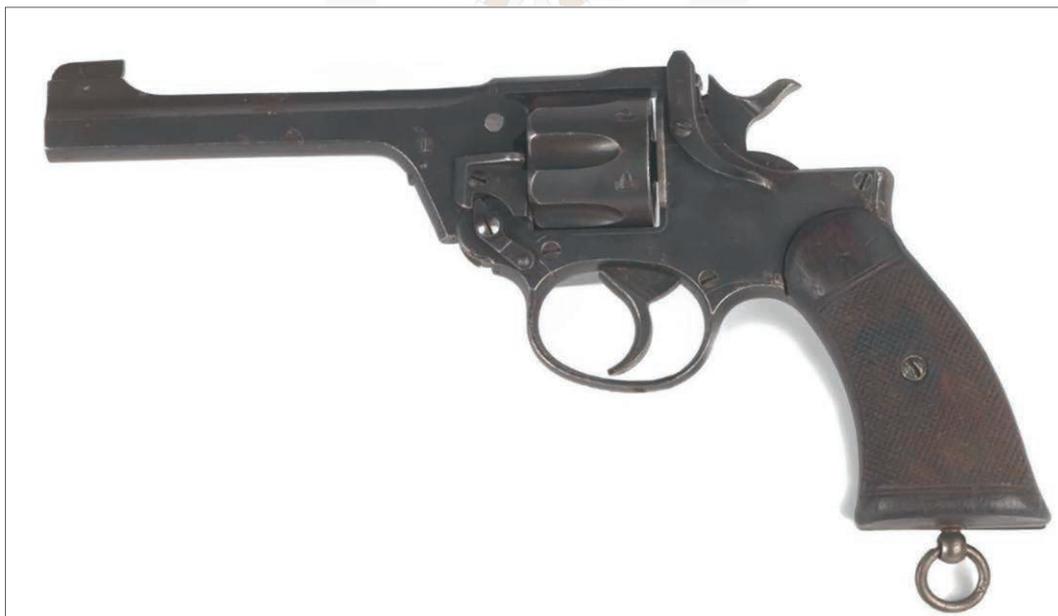


웨블리 앤 스콧 MK.6 리볼버

© IWM

웨블리 엔 스코트 리볼버는 1915년에 영국군이 제식 채용한 권총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참호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이 총을 위해 총검이 개발되기도 했다. 회전식 연발권총으로 .455웨블리탄(11.55mm)을 6발 장전하여 사용한다. 1932년 엔필드 리볼버가 제식 채용되면서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영국의 대표 권총이었던 만큼 6·25전쟁까지도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즐겨 사용했던 권총이었다.

엔필드 리볼버는 영국군이 .38엔필드탄(9.65mm)을 제식 탄환으로 채용하면서 이에 맞도록 웨블리 엔 스코트 리볼버를 개량한 회전식 연발권총이었다. 영국 엔필드(Enfield) 조병창에서 생산되었으며, 기존의 웨블리 엔 스코트 리볼버와 비교해 무게가 가볍고 길이가 짧으며, 총열도 8각형에 날형 가늠쇠를 단 것이 특징이었다. 1932년 6월에 영국군이 제식 채용한 후 1938년까지 2개의 개량형이 추가되었으며, 1957년까지 약 270,000정이



엔필드 No.2 리볼버

© IWM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에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제식 권총으로 사용했다.

웨블리 엔 스코트 리볼버 제원

Webley & Scott Mark VI .455 Revolver			
구경	11.18mm	중량	1.08kg
길이	28.58cm	사격속도	분당 20~30발
사거리	45.7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159.

비고 : 사거리는 <https://guns.fandom.com/> 참조.

엔필드 리볼버 제원

Enfield .38 No.2 Mk.1 Revolver			
구경	9.65mm	중량	0.72kg
길이	26.04cm	사격속도	분당 20~30발
사거리	45.7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161.

비고 : 사거리는 <https://guns.fandom.com/> 참조.

참고문헌

크리스 맥나브 편집/진승현·김동현 옮김, 『총 백과사전』 (서울 : Human & Books, 2008).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IWM Picture Catalogue No. FIR 55”, “IWM Picture Catalogue No. FIR 2843”, Imperial War Museums(웹사이트 주소 : <https://www.iwm.org.uk/>).



M1903 소총

Rifle, Caliber .30, M1903

개요

M1903 소총은 1903년에 미 육군이 제식 채용한 볼트액션식 소총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소총 중의 하나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보병과 해병대에서 일부 사용하였으며, 특히 명중률이 뛰어나 저격용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군 병사가 M1903 소총의 망원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하고 있는 장면.

© IWM

M1903 소총은 미 육군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M1893 스페니쉬 마우저(Spanish Mauser)를 모방하여 제작한 소총이었다. 아메리카 마우저 또는 스프링필드 '03으로도 불리며, 1936년 M1 소총이 제식 채용될 때까지 미군의 제식 소총이었다.

수동식 노리쇠가 있는 볼트액션(Bolt Action) 소총이었던 M1903은 5발 내장식 탄창을 사용하며, 탄약은 초기에 .30-03스프링필드탄(.30-03 Springfield cartridge)을 사용하다가 1906년 .30-06스프링필드탄(.30-06 Springfield cartridge)이 제식 탄환으로 지정되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다. 1903년에 M1903이 제작된 후 M1903A4까지 여러 개량형들이 제작되었으며, 1944년 2월에 공식적으로 모든 생산이 중단되었다.

M1903A1은 C형 그립의 개머리판을 채택하고, M1903A2는 야포의 조준점 확인용으로 사용되는 모델이었다. 그리고 M1903A3은 가장 많이 생산된 모델로 가늠자의 위치와 강선 구조를 바꾸고,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프레스 가공부품이 다수 사용되었다는 특징을 지녔다. M1903A4는 M1903A3의 저격용 모델로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다. M1903계열의 총 생산량은 약 1,900,000정도로 추산되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만 총 1,415,593정이 생산되었다. M1903 소총에는 총구에 M1총류탄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M1903 소총 제원

Rifle, Caliber .30, M1903A3			
구경	7.62mm	중량	3.63kg
길이	110.5cm	사격속도	분당 15발
사거리	1,000m	조작인원	1명

출처 : Bruce N. Canfield, ,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p. 281 ; War Department, FM23-10 U.S. Rifle, Caliber .30, M1903.

M1903 소총은 일반적으로 M1 소총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6·25전쟁 기간에도 M1 소총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M1903 소총을 보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특별히 저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자동인 M1보다 수동식 노리쇠가 있는 볼트액션(Bolt Action)의 M1903이 정확도에서 뛰어나 즐겨 사용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은 육군에서 M1903A3 소총 216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50년 12월 말에 2,413정, 1951년 말에 3,611정, 1952년 말에 1,105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393정을 보유했다. 이 통계를 통해 1952년을 기점으로 M1903A3의 보급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저격용인 M1903A4가 1952년에 100정, 1953년에 109정 도입되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IWM Picture Catalogue No. Q85303”, Imperial War Museums, U.K.(웹사이트 주소 : <https://www.iwm.org.uk/>).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War Department, *FM23-7 U.S. Carbine, Caliber .30, M1*(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M1 거랜드 소총

M1 Garand Rifle or Rifle, Caliber .30, M1

개요

M1 거랜드 소총은 흔히 M1 소총으로 불리는 개인화기로 1938년 미 육군이 제식 채용한 후 500만 정 이상이 생산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 6·25전쟁 기간 미군과 국군이 기본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신병훈련소에서 M1소총 사격 자세 훈련 장면(1950. 9. 15).

© 국사편찬위원회

M1 거랜드 소총은 미 육군 스프링필드(Springfield) 조병창에서 민간 기술자로 근무하던 거랜드(John. C. Garand)가 개발한 개인용 무기이다. 1920~30년대에 시험 생산되었으며, ‘M1 거랜드 소총’ 또는 ‘M1 소총’으로 널리 알려졌다. 또한 ‘M1 30구경 소총(U.S. Rifle Caliber .30, M1)’으로도 불린다. 미 육군은 M1 소총을 1936년 1월 9일에 제식 소총으로 정하고, 1937년 말부터 스프링필드 조병창에서 제한된 수량만을 생산하다가 1939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최초의 반자동 소총으로 중량은 4.31kg이고 8발 들이 클립으로 장전한다. 총구에는 M7총류탄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M1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만 약 4,040,000정이 생산되었다. 1957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총 5,468,772정이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파생형 모델들이 생산되었다. 연사속도는 분당 40발이었으며, 유효사거리는 549m였다. 저격용으로도 성능이 우수하고, 대검을 장착하면 백병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였다.

미군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면허생산 방식으로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였으며, 향토예비군에서 1990년대까지 사용되다가 M16으로 대체되었다.

M1 소총 제원

Rifle, Caliber .30, M1			
구경	7.62mm	중량	4.31kg
길이	110.7cm	사격속도	분당 40발
사거리	549m	조작인원	1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45.

운 용

6·25전쟁 기간 영연방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전국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국군도 전쟁 발발 전인 1950년 6월 1일 현재 40,378정(육군 40,377정, 해군 1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쟁 기간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아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1950년 12월 말 152,328정, 1951년 12월 말 189,704정, 1952년 12월 말 221,079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266,633정으로 증가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Department of the Army and the Air Force, *FM23-5, TO 39A-5AC-11 U.S. Rifle Caliber .30, M1*(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 Department of the Army, *Technical Manual No. 9-1005-222-12 Rifle, Clliber .30, M1*(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M1/M2/M3 카빈 소총

Carbine, Caliber .30, M1/M2/M3

개요

카빈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후방부대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개인 방어용 화기를 보급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600만 정 이상이 생산될 만큼 우수한 성능을 지녔다. 6·25전쟁 기간 M1 소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 개인화기였다.

연혁 및 제원



M1 카빈 소총을 들고 있는 국군 장병.

© 국사편찬위원회

카빈 소총은 미국 윈체스터사가 개발한 소총으로 1941년 8월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이 소총은 무전병·운전병·보급병·박격포병·의무병·공수부대원 등을 대상으로 권총으로만 무장시키기에 부족함을 느껴 개발된 개인화기였다.

카빈 소총의 개발 배경에는 독일군의 전격전 전술(Blitzkrieg warfare tactics)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빠르게 기동하는 기계화 부대로 전선을 신속히 돌파하는 전술이 등장하면서 고정된 진지와 정적인 전선이라는 기존의 전쟁 개념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전에 비전투원으로 분류되었던 후방제대의 장병들이 불의에 기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또한 공수부대에 의한 입체포위작전(vertical envelopment)이 자주 실시되는 상황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적합한 소총의 개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량의 소총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카빈 소총이었다.

카빈 소총은 15발 또는 30발 분리형 박스탄창을 사용하며, 탄약은 .30-06스프링필드탄(7.62×63mm)을 카빈총에 맞도록 개조한 .30-06카빈탄(7.62×33mm)을 사용했다. 총구에는 카빈용 M8총류탄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1941년 10월에 M1을 미 육군이 제식 채용한 후 1942년에 공수부대원들을 위한 접이식 철제 개머리판의 M1A1이, 1944년에 전자동 사격이 가능한 개량형 M2가 생산되었다. 그리고 M2에 조준경을 단 것이 M3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까지 카빈 소총은 M1A1 약 140,000정, M2 217,500정을 포함하여 총 6,079,648정이 생산되었다. M2 카빈을 기준으로 할 때, 연사속도는 분당 750~775발이었으며 유효사거리가 274m였다. 카빈 소총은 미군뿐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2014년까지 향토예비군에서 사용했다.

카빈 소총 제원

Carbine, Caliber .30, M2			
구경	7.62mm	중량	2.36kg
길이	90.4cm	사격속도	분당 750~775발
사거리	274m	조작인원	1명

출처 : Bruce N. Canfield, ,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pp. 284~285 ;
War Department, *FM23-7 U.S. Carbine, Caliber .30, M1*.

운 용

6·25전쟁 기간 영연방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전국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은 M1과 M2 카빈 소총 19,402정(육군 16,555정, 해군 2,747정, 공군 100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쟁 기간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M1과 M2 카빈 소총이 159,393정이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War Department, *FM23-7 U.S. Carbine, Caliber .30, M1*(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리-엔필드 소총

Rifle, Caliber .303 Lee Enfield

개요

리-엔필드 소총은 1895년에 영국 육군이 제식 채용한 볼트액션 소총으로 여러 개량형이 개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호주연대 제3대대 C중대원이 중공군 진지를 향해 돌격하던 중 리-엔필드 소총에 탄환을 장전하는 모습.
© IWM

리-엔필드는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볼트액션 소총이었다. 1880년 대 제임스 리(James P. Lee)가 M1871 마우저(Mauser) 소총을 참조하여 연사속도를 향상시킨 것이 리-엔필드 개발의 효시였다. 1888년에 제임스 리는 메드포드(William E. Metford)가 개발한 총신을 사용하여 리-메드포드(Lee Metford)를 제작했다. 리-메드포드는 4가지 개량형이 생산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총신이 길고 마모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영국 육군의 엔필드 조병창이 나서 대대적인 개량화 작업을 시도한 끝에 개발에 성공한 것이 리-엔필드였다. 영국 육군은 1895년 11월에 매거진 리-엔필드(Rifle, Magazine, Lee Enfield)로 제식 채용했다. 매거진 리-엔필드 소총은 장탄량과 연사능력이 우수했지만, 총의 길이가 긴 것이 단점이었다. 이에 총의 길이를 줄인 것이 쇼트 매거진 리-엔필드(Rifle, Short Magazine, Lee Enfield)였다.

리-엔필드는 공식적으로만 23개의 파생형이 생산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았고, 성능도 우수했다. 탄환은 .303브리티쉬탄(7.7×56mm)을 사용하며, 1발 장전은 물론 클립과 탄창 장전이 가능했다. 유효사거리는 549m였으며, 분당 10발의 연사가 가능했다. 리-엔필드는 6·25전쟁 기간 영국군과 영연방군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었다.

리-엔필드 소총 제원

Short Magazine, Lee Enfield No.4 Mk.1			
구경	7.7mm	중량	4.08kg
길이	113cm	사격속도	분당 10발
사거리	549m	조작인원	1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49.

참고문헌

남도현, '영국 걸작 소총 리-엔필드',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218.html, 2021. 2. 4.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IWM Picture Catalogue No. MH 32781", Imperial War Museums, U.K.





38식 보병총, 99식 소총

三八式歩兵銃 : Type 38 Arisaka Rifle, 九九式小銃 : Type 99 Arisaka Rifle

개요

38식 보병총과 99식 소총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에서 제작한 소총으로 일본 패망 후 국군이 창군기에 인수하여 6·25전쟁 때까지 사용한 볼트액션 소총이었다.

연혁 및 제원



38식 보병총(Type 38 Arisaka Rifle).

© IWM

38식 보병총은 일본 메이지(明治) 38년(1905년)에 제작된 총이라 ‘38식 보병총’으로 불린다. 이 총은 러일전쟁 때 사용한 30식(1897년) 소총을 대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일본 육군은 이 총을 1906년에 제식 채용했다. 6.5mm아리사카탄(6.5×50mm)을 사용하며, 5발 클립으로 장전한다. 총 340만정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99식 소총(Type 99 Arisaka Rifle).

© 전쟁기념관

99식 소총은 1939년 일본에서 개발한 개인화기이다. 38식 소총탄인 6.5mm탄의 위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1930년대 초에 신형 7.7mm탄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을 새로운 소총에 적용한 것이 99식 소총이었다. 이 총은 1939년에 일본 육군이 제식 채용하였으며, 대공 사격을 위해 최적화된 조준 장치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었다.

99식 소총은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총의 길이가 14cm 짧은 소총이었다. 길이가 짧아 사용상 간편한 이점이 있으나 전시 백병전에서 불리하자 일본 육군은 99식 소총을 장·단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99식 소총의 탄환장전은 38식과 마찬가지로 5발 클립 방식이었다. 약 350만정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99식 소총이라는 명칭은 이 총의 제작 연도인 1939년이 일본 황기(皇紀) 2599년이라 황기의 끝 두 자리 숫자를 따서 붙여진 것이다.

38식 보병총 제원

Type 38 Arisaka Rifle			
구경	6.5mm	중량	4.2kg
길이	127.5cm	사격속도	분당 10~15발
사거리	366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410.

비고 : 사격속도와 사거리는 <https://m.blog.naver.com/ds1jxm/220411155103> 참조.

99식 소총 제원

Type 99 Arisaka Long Rifle			
구경	7.7mm	중량	4.13kg
길이	127cm	사격속도	-
사거리	656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410 ; https://en.wikipedia.org/wiki/Type_99_rifle.

운 용

38식 보병총과 99식 소총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후 국군 창설 과정에서 널리 사용된 소총들이었다. 38식 보병총의 경우 일본 패망 후 미군이 압수한 것을 인수하여 국군이 6·25전쟁 때까지 사용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이 9,435정, 해군이 58정, 공군이 10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99식 소총은 패전한 일본군으로부터 미군이 노획하여 인계한 경우도 있고, 일본 패망 후 99식 소총 생산라인을 갖춘 인천조병창에서 획득한 경우도 있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99식 소총은 육군이 16,673정, 해군이 2,230정, 공군이 200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기간 M1 카빈과 M1 거랜드 소총이 대량 보급되면서 38식 보병총과 99식 소총은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육군 병기감실에서 작성한 ‘보급실적통계’에 6·25전쟁 기간 38식 보병총과 99식 소총의 보급실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투 부대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네이버 블로그, “한국전쟁에 사용된 구일본군 무기”, <https://m.blog.naver.com/ds1jxm/220411155103>, 2020. 11. 22.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IWM Picture Catalogue No. FIR 7802”, Imperial War Museums, U.K.
- Wikipedia, “Type 99 rifle”, https://en.wikipedia.org/wiki/Type_99_rifle, 2020. 11. 21.



M3/M3A1 기관단총

Submachine Gun, Cal. .45, M3/M3A1

개요

M3 기관단총은 1942년에 미 육군이 제식 채용한 45구경 기관단총이다.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6·25전쟁 시기 미군이 표준 기관단총으로 사용하였으며, 국군에도 대량 보급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병대원이 M3A1 기관단총을 사격하는 모습(1950. 9. 20).

© 국사편찬위원회

M3 기관단총은 기존에 사용되던 톰슨(Thompson) 기관단총의 비싼 제작비와 복잡한 생산과정, 무거운 중량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기관단총이었다. 미 육군 병기국은 1942년 10월에 영국군이 사용하던 스텐(Sten)형과 같은 기관단총의 개발을 결정하고 개발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때 미 병기국은 생산속도가 빠르고 경제성이 뛰어나도록 스탬핑(Stamping) 방식으로 제작하며, 총기 전체가 금속이면서 작동방식이 간단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1942년 4월에 톰슨 기관단총을 개량하여 M2 기관단총을 만든 경험이 있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사가 신형 기관단총 개발사업자로 최종 선택되었으며, M2를 고안한 하이드(George Hyde)가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기관단총을 개발했다. 이것은 개머리판을 비롯해 총기의 상당부분이 목재였던 기존의 기관단총과는 달리 총기의 대부분이 금속으로 이루어졌다. 무게도 가벼웠으며, 스탬핑 방식으로 제작되어 생산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형 기관단총을 미 육군은 1942년 12월 24일에 M3 45구경 기관단총(Submachine Gun, Caliber .45, M3)으로 제식 채용했다. M3 기관단총은 외형이 윤활유를 주입하는 그리스(Grease) 주입기와 유사하다고 하여 그리스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방식의 철제 개머리판은 M3 기관단총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한 만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605,664정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았다. 탄창불량, 사격 정확도 저하, 사격불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크랭크식 장전손잡이에 대한 장병들의 불만도 컸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M3의 크랭크식 장전손잡이 대신 손가락을 볼트에 넣어서 장전하는 방식의

M3A1이 개발되었지만,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에 따라 M3A1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15,469정만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단점으로 장병들 사이에서는 M3보다 톱슨 기관단총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M3 기관단총 제원

Submachine Gun, Cal. .45, M3			
구경	11.43mm	중량	3.70kg
길이	75.7cm (개머리판 수납시 57.9cm)	사격속도	분당 350~450발
사거리	91m	조작인원	1명

출처 : Hq. Department of the Army, TM9-1005-229-35, *Submachine gun, Caliber .45, M3, W/E(1005-672-1767)*, *Submachine gun, Caliber .45, M3A1, W/E(1005-672-1771)*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587.

운 용

M3형 기관단총은 6·25전쟁 기간 미군과 국군이 많이 사용한 기관단총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이 해외로 대량 공여했던 톱슨 기관단총을 6·25전쟁 때 공산군이 주력 개인화기로 사용하자, 미군은 톱슨 기관단총 대신 M3을 기본 기관단총으로 사용했다. 전쟁 기간 미국은 한국군에도 M3형 기관단총을 대량 보급했다. 육군을 기준으로 할 때, 6·25전쟁 발발 당시 748정의 보유량이 1950년 12월 말에 4,565정, 1951년 12월 말에 7,350정, 1952년 12월 말에 23,311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39,626정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참고문헌

- 남도현, 'M3 보급형 기관단총',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s://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02/2015120202635.html, 2021. 3. 6.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Department of the Army, *TM9-1005-229-35, Submachine gun, Caliber .45, M3, W/E (1005-672-1767), Submachine gun, Caliber .45, M3A1, W/E(1005-672-1771)*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2).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스텐 기관단총

Sten Submachine Gun

개요

스텐 기관단총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이 제작한 것으로 신뢰성과 내구성보다는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춰 생산한 기관단총이었다. Mk.1부터 Mk.6까지 만들어졌으며, 그 중 Mk.2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연혁 및 제원



영국군 병사가 들고 있는 총이 스텐 Mk.5 기관단총이다(6·25전쟁 시기).

© IWM

스텐 기관단총은 1941년에 영국군이 제식 채용한 파라블럼탄(9×19mm)을 사용하는 기관단총으로 스텐 건(Sten Gun)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덩케르크(Dunkirk) 철수작전 때 각종 무기를 유럽 본토에 대량 유기하고 철수했던 영국군은 무기의 부족현상에 직면했다. 특히 개인화기의 부족현상이 심했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개인화기를 구상했고, 그 결과물이 스텐 기관단총이었다.

영국군은 개발 단계에서 9mm파라블럼탄 사용, 부품 대부분의 철판프레스 제작, 조립·분해와 제작이 쉬울 것 등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엔필드(Enfield) 조병창의 셰퍼드(Reginald. V. Sheperd)와 터핀(Harold. J. Turpin)이 스텐 기관단총의 기본형을 개발했다. 스텐이란 명칭은 개발자인 셰퍼드의 ‘S’와 터핀의 ‘T’, 그리고 엔필드 조병창의 ‘EN’을 합쳐 만들어졌다.

스텐 기관총은 저비용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한 만큼 신뢰성과 내구성이 낮았지만, 부품 개수가 50개 미만으로 5명이 한 시간만에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1941년에 Mk.1이 제식 채용된 후 Mk.6까지 개량형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Mk.2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스텐 기관단총은 노골적으로 ‘배관공의 사산아’, ‘할인매장용 총’, ‘악취 나는 총’ 등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작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 독일·중국·벨기에

스텐 기관단총 제원

Sten Submachine Gun Mk.2			
구경	9mm	중량	3kg
길이	76.2cm	사격속도	분당 90~100발
사거리	183m	조작인원	1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7.

등에서 모방되었으며, 미국의 M3 기관단총 개발에 원형이 되기도 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IWM Picture Catalogue No. FIR6349", "IWM Picture Catalogue No. KOR 601", Imperial War Museums, U.K.
- Wikipedia, "Sten", <https://en.wikipedia.org/wiki/Sten>, 2020. 3. 2.





오웬 기관단총

Owen Submachine Gun

개요

오웬 기관단총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호주가 제작하여 1941년에 제식 채용한 기관단총으로 영국의 스텐 기관단총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25전쟁 기간에는 호주군이 주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호주연대 제3대대의 스미스(R. F. A. Smith) 상병이 미군 스티어(Robert Steare) 일등중사에게 오웬 기관단총을 보여주고 있다.

© IWM

오웬 기관단총은 무기 생산 전문업체나 육군의 병기창 등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개발한 기관단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웬 기관단총의 초기 모델은 1939년 에블린 오웬(Evelyn Owen)이라는 24세의 청년이 호주 국방부가 주관한 신무기 선발전에 출품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오웬이 개발한 기관단총은 총기 자체에 여러 결함이 있었으며, 또 당시 호주군에서는 영국의 스텐 기관단총을 도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군납업체 ‘Lysaghts Newcastle Works’의 관리인 바텔(Vincent Wardell)이 오웬의 기관단총을 접하고, 오웬을 비롯한 총기기술자들을 모아 군납용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오웬 기관단총이었다.

호주 육군은 1941년에 오웬 Mk.1으로 제식 채용했다. 오웬 기관단총은 파라블럼탄(9×19mm)을 사용하며, 30발 막대탄창을 위에서 끼우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의 M3 기관단총이 아래에서, 영국의 스텐 기관단총이 옆에서 탄창을 끼우는 것과 비교해 외형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이었다. 스텐 기관단총보다 무게가 무거웠지만, 성능에서 스텐을

오웬 기관단총 제원

Owen Submachine Gun Mk.1			
구경	9mm	중량	4.25kg
길이	80.77cm	사격속도	분당 700발
사거리	123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 122 ; https://en.wikipedia.org/wiki/Owen_gun.

능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총 40,000정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호주군이 개인화기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IWM Picture Catalogue No. MH31540”, Imperial War Museums, U.K.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Wikipedia, “Owen gun”, https://en.wikipedia.org/wiki/Owen_gun 2020. 3. 7.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

Browning Automatic Rifle, Caliber .30, M1918

개요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미 육군의 휴대용 경기관총으로 1918년에 첫 선을 보인 후 M1918A1, M1918A2로 개량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분대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한국으로 향하는 해군 수송선 위에서 M1918 자동소총 사격 연습을 하는 미군 병사들(1950. 7. 22).
© 국사편찬위원회

M1918 브라우닝 자동소총은 1917년 12월에 M1909 베닛-메르시에 (Benet-Merice) 경기관총을 대체할 목적으로 존 브라우닝(John M. Browning)이 개발한 휴대용 경기관총이었다. 흔히 BAR로 불리는 경기관총이다. 초기형인 M1918은 1918년 2월에 양산 체제에 들어가 9월에 첫 실전에 투입되었다. 반자동과 자동 연사가 가능하였으며, 소총수가 어깨에 견착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85,000정이 생산되었다. M1918A1은 M1918의 후속 모델로 1937년 6월에 생산되었으며, 총열에 스파이크가 달린 양각대가 부착되고 개머리판에 경첩이 달린 것이 특징이었다. 브라우닝 자동소총의 마지막 모델인 M1918A2는 1940년에 첫 선을 보였으며, 반자동 기능 대신 연사 기능이 저속(분당 300~450발)과 고속(분당 500~600발)의 두 가지로 나뉘었다. 또한 양각대의 스파이크가 제거되었으며, 소염기가 추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총열에 운반용 손잡이가 추가되었다.

M1918A2 브라우닝 자동소총 제원

Browning Automatic Rifle, Caliber .30, M1918A2			
구경	7.62mm	중량	8.8kg
길이	121.4cm	사격속도	분당 300~600발
사거리	1,372m	조작인원	1명

출처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p. 286 ; War Department, FM23-15 Browning Automatic Rifle, Caliber .30, M1918A2 with Bipod.

은 용

6·25전쟁 기간에 미군과 국군의 분대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국군은 6·25전쟁 발발 전 미국으로부터 1,198정을 인도받아 보병의 주요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전쟁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의 M1918 브라우닝 경기관총 보유량이 11,768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War Department, *FM23-15 Browning Automatic Rifle, Caliber .30, M1918A2 with Bipod*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0).





M1917 브라우닝 기관총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M1917

개 요

M1917 브라우닝 기관총은 수랭식 기관총으로 미 육군이 제2차 세계 대전과 6·25전쟁 시기 화기중대의 보병 지원화기로 사용한 무기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국군을 비롯해 많은 참전국들이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터키군이 중공군을 향해 M1917 브라우닝 기관총을 사격하는 장면(1951. 7.).

© 국사편찬위원회

M1917 브라우닝 기관총은 1917년 존 브라우닝(John M. Browning)이 개발한 수랭식 기관총으로 미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여 그 위력을 입증한 무기이다.

보병부대를 비롯해 차량과 일부 항공기에서 고정식으로 거치해 사용하기도 했다. 30구경 스프링필드 250발 탄띠를 사용하였으며, 분당 450발에서 600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생산 직후 미 육군은 이것을 주력 기관총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7만정이 생산되었다. 1935년부터 개량작업에 들어가 신형탄(30-06 스프링필드탄)에 적합하고 총 하단부 강화와 삼각대 개량, 가늠자 교체 등을 실시하여 M1917A1을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총 55,859정이 생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은 보병대대 화기중대에 4정을 배치하였으며, 기관총 1정당 4명의 병력과 27개의 250발 탄약통 그리고 4통의 냉각수를 기본으로 편제하였으며, 이를 운반할 2/3톤 트럭을 기관총 1정당 배정했다. 6·25전쟁 기간에도 중대급 지원화기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 M60기관총이 생산되면서 대체되었다.

M1917 브라우닝 기관총 제원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M1917A1			
구경	7.62mm	중량	42.3kg (거치대와 냉각수 포함)
길이	97.8cm	사격속도	분당 450~600발
사거리	1,000m	조작인원	4명

출처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p. 286 ; https://en.wikipedia.org/wiki/M1917_Browning_machine_gun.

6·25전쟁 기간 보병대대 화기중대의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국군은 6·25전쟁 발발 전 미국으로부터 M1917A1 316정을 인도받아 육군에서 운용하였으며, 전쟁 기간에도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이 M1917A1 751정을 보유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Wikipeda, "M1917 Browning machine gun", https://en.wikipedia.org/wiki/M1917_Browning_machine_gun, 2020. 12. 6.



M1919 브라우닝 기관총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HB, M1919

개요

M1919 브라우닝 기관총은 수랭식 기관총 M1917을 공랭식으로 바꾼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시기에 소대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전투차량·항공기·함정 등에도 탑재되었으며, 대공화기로도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군 병사가 한국군 병사 2명에게 M1919 브라우닝 기관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950. 10. 13).
© 국사편찬위원회

M1919 브라우닝 경기관총은 1919년 미 육군이 전차에 탑재할 용도로 만든 기관총이다. 본래 미 육군은 무게 10kg, 길이 96.5cm를 넘지 않고, M1917A1보다 명중률이 높은 새로운 기관총을 만들고자 계획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로는 이러한 계획을 충족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미 육군은 기존에 사용되던 M1917 수랭식 기관총을 공랭식으로 바꾸고, 개량형 삼각대나 양각대를 장착한 기관총을 제작했다. 1919년 초기형인 M1919가 양산된 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M1919A1부터 M1919A6까지 개량형이 생산되었다.

M1919A1은 M1919의 총열을 경량화하고 양각대를 부착하였으며, 1922년에 개발된 M1919A2는 A1보다 총열을 짧게 개량하고 전용 삼각대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었다. M1919A3은 1931년에 개발되었으며, 보병을 위해 더욱 경량화한 것이 특징이었다. 1936년에 개발된 M1919A4는 M1919 계열의 기관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이었다. 동그란 구멍의 24인치 총열이 이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이후 M1919A6이 개발되었음에도 가장 신뢰받던 무기였다. M1919 계열의 브라우닝 기관총은 약 438,900여정이 생산되었으며, 이 중 M1919A4가 389,859정이었다. 전투차량·항공기·함정 등에도 탑재되었으며, 대공화기로도 사용되었다.

M1919 브라우닝 기관총 제원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HB, M1919A4			
구경	7.62mm	중량	20.4kg(거치대 포함)
길이	104.1cm	사격속도	분당 400~550발
사거리	1,372m	조작인원	2명

출처 : War Department, *FM23-45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HB, M1919A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 p. 287.

문 용

6·25전쟁 기간 M1919 브라우닝 기관총은 소대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은 육군에서 M1919A4 186정과 M1919A6 293정을, 해군에서 M1919A6 32정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에도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 육군의 경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M1918 계열의 브라우닝 기관총이 M1919A4가 4,402정, M1919A6 2,675정 등 총 7,077정이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War Department, *FM23-45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30, HB, M1919A4*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0).



M2 브라우닝 기관총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50, HB, M2

개요

M2 브라우닝 기관총은 수랭식으로 개발되었다가 이후 공랭식으로 개조하여 사용된 중기관총으로 미 육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시기 보병대대 화기중대의 지원화기로 사용한 무기이다. 전차·장갑차·차량·항공기·군함 등에도 탑재된 표준 기관총이라고 할 수 있다.

연혁 및 제원



천안 부근 철도를 경계 중인 미 제24사단 소속의 M2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1950. 7. 11).

© 국사편찬위원회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존 브라우닝(John M. Browning)이 항공기용 기관총으로 설계하였으며, 1932년 M1921이라는 제식명으로 미 육군이 채택했다. M1921은 기존의 M1917에서 사용하던 30-06 스프링필드 탄환 대신 새로 개발한 12.6mm 탄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M1921은 본래 수랭식으로 개발되었다가 공랭식으로 개조되었는데, 이것이 제식명 M2 기관총이었다. 그리고 1933년에 총신을 강화한 M2HB로 개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때까지 총 347,524정이 생산되었다.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미군의 주력 기관총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많은 우방국에도 이양되어 주력 기관총으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만들어진 기관총이었지만, 현재까지도 미국과 그 우방국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M2 브라우닝 중기관총 제원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50, HB, M2			
구경	12.7mm	중량	58.1kg(거치대 포함)
길이	165.4cm	사격속도	분당 450~550발
사거리	1,830m	조작인원	2명

출처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23-65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50, HB,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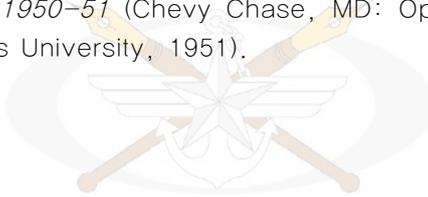
운 용

6·25전쟁 기간 보병대대 화기중대의 지원화기로 사용되었으며, 전차·장갑차·차량·항공기·군함 등에도 탑재되었다. 미군뿐 아니라 국

군도 6·25전쟁 발발 당시 664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쟁 기간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보급을 받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이 총 4,445정이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M23-65 Browning Machine Gun, Caliber .50, HB, M2*(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2).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브렌 경기관총

Bren Light Machine Gun

개요

브렌 경기관총은 1930년대 영국에서 제작되었으며 여러 개량형이 개발되어 1990년대까지 사용될 만큼 성능이 우수한 기관총이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분대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미 제1기병사단 소속의 병사가 영국군 주둔지에서 브렌 경기관총 사격 자세를 취한 모습.

© IWM

브렌 경기관총은 영국이 체코슬로바키아의 7.92mm ZB26 경기관총을 면허 취득하여 자국의 제식 탄환인 .303브리티쉬탄에 맞춰 개량한 것이다. 1937년부터 영국 엔필드(Enfield) 조병창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엔필드 조병창의 생산시설 대부분이 브렌 기관총 생산에 사용되었다. 영국 외에도 캐나다의 잉그리스(Inglis)사가 면허 생산하였는데, 1943년까지 잉그리스사의 생산량이 브렌 기관총 전체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했다.

‘브렌’이라는 이름은 ZB26을 생산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Brno) 조병창의 앞 글자 ‘Br’과 영국 엔필드 조병창의 앞 글자 ‘En’을 합쳐서 만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Mk.4까지 개량형이 생산되었고, 1958년부터 나토(NATO)군의 제식 소총탄인 7.6×51mmNATO탄에 맞춘 L4형이 생산되었다. 브렌 경기관총은 탄창을 위에서 끼우도록 되어 있으며, Mk.형이 곡선형 탄창을, L4형이 직선형 탄창을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 6·25 전쟁에서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분대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브렌 경기관총 제원

Bren Light Machine Gun(Mk.4)			
구경	7.7mm	중량	8.68kg
길이	109cm	사격속도	분당 110~115발
사거리	549m	조작인원	1명

출처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p. 189~193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75.

참고문헌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King’s Own Scottish Borderers in Korea 1951~1952”, Imperial War Museums, U.K.
- Encyclopaedia Britannica, “Bren Machine Gun”, <https://www.britannica.com/technology/Bren-machine-gun>, 2020. 3. 17.





빅커스 중기관총

Vickers Machine Gun

개요

빅커스 중기관총은 1912년 영국이 제식 채택한 후 1960년대 초까지 사용된 영국의 대표적인 기관총이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중대급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6·25전쟁 시기 영국군 병사가 빅커스 중기관총을 시험하는 장면.

© IWM

빅커스 기관총은 기존에 사용되던 맥심 기관총을 경량화하고 머즐 부스터(Muzzle Booster)를 다는 개량화를 통해 만들어진 수랭식 기관총이었다. 영국은 1912년 11월 26일 제식 채용하였으며, 본래의 명칭은 빅커스 맥심(Vickers Maxim)이었다. 빅커스 기관총은 제1·2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군의 핵심 자동화기로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 초 L7A1 다목적 기관총이 제식 채용될 때까지 약 50년간 영국의 제식무기로 사용될 만큼 성능이 우수했다. 오랜 시간 사격을 가해도 급탄 불량이나 사격 불량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였으며,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 공랭식으로 구조를 변경한 개량형도 개발되었다. 빅커스 중기관총의 탄환은 .303브리티쉬탄(Mk.8)이었으며, 250발 들이 탄띠(canvas belt)가 사용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중대급 지원화기로 사용했다.

빅커스 중기관총 제원

Vickers Machine Gun			
구경	7.7mm	중량	14.97kg (냉각수 포함시 약 18.14kg)
길이	109.2cm	사격속도	분당 500발
사거리	1,006m	조작인원	3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81 ;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 pp. 183~187.

참고문헌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Edward C. Ezell, *Small Arms of the World*(Ontario, Canada: Stackpole Books, 1977).

"IWM Picture Catalogue No. KOR515", Imperial War Museums, U.K.

Military Factory, "Vickers Machine Gun(Gun, Machine, Vickers, .303in, Mk.1)", https://www.militaryfactory.com/smallarms/detail.asp?smallarms_id=62, 2020. 3. 30.



대전차무기

Anti-tank Weapons

대전차 무기는 적의 전차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화기로 대전차 로켓, 무반동총, 대전차포 등이 포함된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대전차 무기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대전차 로켓으로는 M9 2.36인치 ‘바주카’ 로켓포(Rocket Launcher, M9 ‘Bazooka’)와 M20 3.5인치 ‘슈퍼바주카’ 로켓포(Rocket Launcher, M20 ‘Super Bazooka’), 무반동총으로는 M18 57mm 무반동총과 M20 75mm 무반동총, 대전차포로는 M1 57mm 대전차포(57mm Gun, M1)가 대표적이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Ⅳ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M9 2.36인치 '바주카' 로켓포, M20 3.5인치 '슈퍼바주카' 로켓포

Rocket Launcher, M9 'Bazooka' / Rocket Launcher M20 'Super Bazooka'

개요

2.36인치와 3.5인치 로켓포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개발된 미 육군의 휴대용 대전차무기로 '바주카(bazooka)'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졌다. 6·25전쟁 발발 직후에는 2.36인치, 1950년 7월부터는 3.5인치 로켓포가 국군과 유엔군에게 널리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북한군 전차에 2.36인치 로켓포를 발사하는 장면(1950. 7. 5).

© 국사편찬위원회

‘바주카’ 로켓포는 미국에서 1942년에 첫 개발된 휴대용 대전차무기였다. 과거 미 육군은 보병이 전차를 근접 공격할 수단으로 성형작약(shaped charge)으로 제작된 M10 대전차수류탄을 제작하였는데, 그 중량이 1.6kg에 달해 그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학자로 로켓병기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레슬리 스킨너(Leslie Skinner) 대령과 에드워드 얼(Edward Uhl) 소위가 M10 수류탄에 로켓 추진체를 달고 이것을 한 사람이 어깨 위에 얹을 수 있는 관(管) 모양의 발사기로 사격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1942년 말에 최초의 휴대용 로켓포인 ‘M1 로켓포’가 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양한 개량을 거쳐 1944년에 2단 분해가 가능하고 전기식 뇌관을 개량한 ‘M9 로켓포’가 등장했다. 당시 미군들 사이에서는 1930년대에 유행하던 관악기의 이름을 따서 ‘바주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졌다.



북한군을 향해 3.5인치 로켓포를 발사하는 장면(1950. 7. 25).

© 국사편찬위원회

M9 로켓포는 2.36인치(59.9mm) 구경의 M6 대전차고폭탄(HEAT)을 최대 640m까지 사격할 수 있었다. 포탄은 내부가 고깔 모양으로 비어 있는 성형작약탄으로 적 장갑차량에 명중하였을 때 작약의 폭발력이 한 점에 집중되어 최대 4인치(101.6m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다. 또한 장갑을 관통한 후 폭발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의 진지나 건물 내부를 제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조작용 포를 휴대하는 사수와 탄약을 휴대하는 부사수 등 2명이 하였지만, 필요한 경우 사수 1명이 모두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 육군은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적 전차의 추세에 따라 기존의 2.36인치보다 대구경의 로켓포를 개발하고자 했다. 미군은 같은 시기 독일군이 사용하던 88mm 구경의 ‘판처슈렉(Panzerschreck)’ 로켓포에 착안하여 1944년 10월부터 3.5인치(88.9mm) 구경의 M20 ‘슈퍼바주카’ 로켓포를 설계하였으나 이내 종전을 맞아 국방예산 삭감으로 양산되지 못했다. M20은 M28A2 대전차고폭탄과 백린고폭탄을 사격할 수 있었고, 대전차고폭탄의 경우 관통력이 11인치(279.4mm)로 크게 향상되었다.

1950년 6·25전쟁의 발발을 맞아 본격적으로 양산된 M20 로켓포는 베트남전쟁 초기까지 일선에서 운용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M67 무반동총과 M72 LAW 등에 의해 대체되었다.

2.36인치 로켓포 제원

Rocket Launcher, M9A1 ‘Bazooka’			
전장	155cm	중량	6.87kg
유효사거리	183m	사격속도	분당 10발

출처 : War Department, *TM 9-294 2.36-inch rocket launchers M9, M9A1, and M18.*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125.

3.5인치 로켓포 제원

Rocket Launcher, M20 'Super Bazooka'			
전장	160cm	중량	6.8kg
유효사거리	183m	사격속도	분당 10발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TM 9-297 3.5-inch Rocket Launchers M20 and M20B1.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133.

운 용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은 1948~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인계한 M9A1 로켓포 1,958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국군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 유일한 대전차화기로서 각 소총중대마다 6문이 배치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국군은 북한군 기갑부대를 상대로 로켓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북한군의 T-34-85 전차의 전면장갑을 상대로 2.36인치 로켓포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군은 매복을 통해 로켓탄을 전차의 측·후면이나 궤도를 사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같은 시기 미군은 국군의 2.36인치 로켓포로 북한군 전차를 파괴할 수 없다는 보고를 신뢰하지 않은 채 한반도에 첫 파병을 했다.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한 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는 2.36인치 로켓포와 75mm 무반동총을 배치해 북한군 전차를 저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지 못했다. 한 북한군 전차는 불과 10여 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측·후면에 22발을 명중당하고도 파괴되지 않았다. 7월 8일에는 천안 시가지에서 미 제24사단 제34연대장 마틴(Robert R. Martin) 대

령이 북한군 전차를 막기 위해 2.36인치 로켓포를 직접 조작하다가 전사하기도 했다.

더욱 강력한 로켓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 육군은 즉시 가용한 소량의 M20 로켓포를 미국 본토에서 긴급히 공수했다. 7월 18일 대전에서 첫 실전에 투입된 이 로켓포들은 20일 대전 시가지로 진입한 북한군 전차를 다수 파괴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다. 이로써 미 육군은 서둘러 더 많은 M20 로켓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낙동강 방어전투 기간에 900여 문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국군은 1950년 8월 초에 M20 로켓포를 처음 지급받았다. 8월 9일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가 갖 지급된 M20 로켓포를 대전차특공대 형태로 운용하여 철곡 석적국민학교 일대에서 북한군 전차 4대를 파괴하는 전공을 세웠다. 1950년 말 이후 북한군의 기갑전력이 급감하자 국군과 유엔군은 로켓포를 무반동총과 함께 대진지용으로 주로 사용했다. 국군은 로켓포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M9A1 로켓포 609문, M20 로켓포 4,907문을 보유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②~⑤(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0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Department of the Army, *TM 9-297 3.5-inch Rocket Launchers M20 and M20B1*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0).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War Department, *TM 9-294 2.36-inch Rocket Launchers M9, M9A1, and M18*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6).



M18 57mm 무반동총, M20 75mm 무반동총

Rifle, Recoilless, 57mm, M18 / Rifle, Recoilless, 75mm, M20

개 요

57mm와 75mm 무반동총은 6·25전쟁 초기에 미군이 사용한 대전차화기였으나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대전차용보다 적의 병커나 참호를 파괴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국군은 1951년부터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미 제2사단 제24연대 소속의 병사들이 57mm 무반동총을 사격하는 모습(1951. 4. 5).

© 국사편찬위원회

무반동총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새롭게 등장한 신형 무기로 사격 시에 앞으로 향하는 탄환과 같은 운동량의 화약가스를 후방으로 분사시켜 포신의 반동을 없앤 대전차무기였다.

1943년 초에 미 육군 병기국 산하 소화기(Small Arms) 연구개발과가 프랭크포드(Frankford) 조병창의 도움을 받아 무반동총 연구를 시작하면서 개발이 착수되었다. 소화기 연구개발과는 1943년 7월 27일 첫 번째 모의시험을 시작한 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개선 작업을 거쳐 그해 10월에 시제품을 완성했다. 미 육군은 이것을 ‘T15E1 57mm 무반동총(Rifle, Recoilless, 57mm, T15E1)’이라고 명명했고, 곧이어 발사장치 일부를 개선한 후 ‘M18 57mm 무반동총’으로 제식 채용했다.

57mm 무반동총은 반동이 거의 없어 사람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격하거나 M1917A1 브라우닝 기관총에 사용되는 삼각대에 거치하여 사용할



미군 병사들이 75mm 무반동총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1950. 7. 25).

© 국사편찬위원회

수도 있었다. 57mm 무반동총에는 M26 조준경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격 가능한 포탄으로는 5.3파운드(2.4kg) 고폭탄, 5.64파운드(2.56kg) 대전차고폭탄, 5.66파운드(5.58kg) 연막탄 등이 있었다.

M20 75mm 무반동총은 57mm 무반동총보다 크기와 파괴력을 강화한 것이다. 1944년 3월에 개발이 시작되어 9월에 시제품이 완성되었다. 미 육군은 이 시제품을 ‘T21 75mm 무반동총(Rifle, Recoilless, 75mm, T21)’으로 명명했고, 곧이어 격발장치 일부를 개선한 후 ‘M20 75mm 무방동총’으로 제식화했다.

75mm 무반동총은 47.6kg에 달하는 무게로 57mm 무반동총처럼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신 M1917A1 브라우닝 기관총에 사용되는 삼각대를 이용하거나 지프차 뒤에 거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75mm 무반동총은 21.86파운드(9.92kg) 고폭탄, 20.54파운드(9.32kg) 대전차고폭탄, 22.61파운드(10.26kg) 백린탄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57mm 무반동총과 75mm 무반동총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까지 각각 951문과 1,238문이 생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무반동총은 일본의 경전차를 상대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종전 이후 전차의 장갑 성능이 향상되면서 그 위력이 크게 축소되었다.

57mm 무반동총 제원

Rifle, Recoilless, 57mm, M18			
전장	152.4cm	중량	18.26kg
발사각	-27~65°	사거리	최대 3,968m

출처 : War Department, *Rifle, 57-MM, T15E13 and T15E9, Rifle, 75-MM, T21, Howitzer, 105-MM, T9 and Carriage, T9.*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123.

75mm 무반동총 제원

Rifle, Recoilless, 75mm, M20			
전장	207.7cm	중량	47.6kg
발사각	-27~65°	사거리	최대 6,419m

출처 : War Department, *RIFLE, 57-MM, T15E13 and T15E9, RIFLE, 75-MM, T21, HOWITZER, 105-MM, T9 and CARRIAGE, T9.*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129.*

은 용

M18 57mm 무반동총과 M20 75mm 무반동총은 6·25전쟁 초기에 주로 미군들이 사용한 대전차무기였다. 1950년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2.36인치 로켓포와 더불어 75mm 무반동총 2문을 대전차화기로 사용한 것이 6·25전쟁 최초의 무반동총 사용 사례였다. 그러나 2.36인치 로켓포나 75mm 무반동총으로 북한군 T-34-85전차를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군은 신속히 3.5인치 로켓포의 보급을 추진했다. 7월 중순 이후 3.5인치 로켓포가 보급되면서 75mm 무반동총은 대전차화기로서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주로 보병 지원화기로 사용되었다. 75mm 무반동총뿐 아니라 전쟁 발발 후에 전선으로 보급된 57mm 무반동총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들 무반동총은 대전차화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적의 병커나 참호를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비교적 가벼워 운반이 쉬웠고, 대전차화기인 만큼 파괴력도 강했기 때문이었다.

국군은 전쟁 초기에 무반동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육군 병기감실 ‘보급실적통계보고’에는 1951년도에 미국으로부터 M18과 M20 무반동총을 인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3년 7월 27일

육군의 무반동총 보유량은 M18 57mm가 1,578문, M20 75mm가 601문 등 총 2,179문이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Christopher Foss, *Jane's Pocket Book of Towed Artillery*(New York: Collier, 1977).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 War Department, Office of the Chief of Ordnance, *Rifle, 57-MM, T15E13 and T15E9, Rifle, 75-MM, T21, Howitzer, 105-MM, T9 and Carriage, T9*(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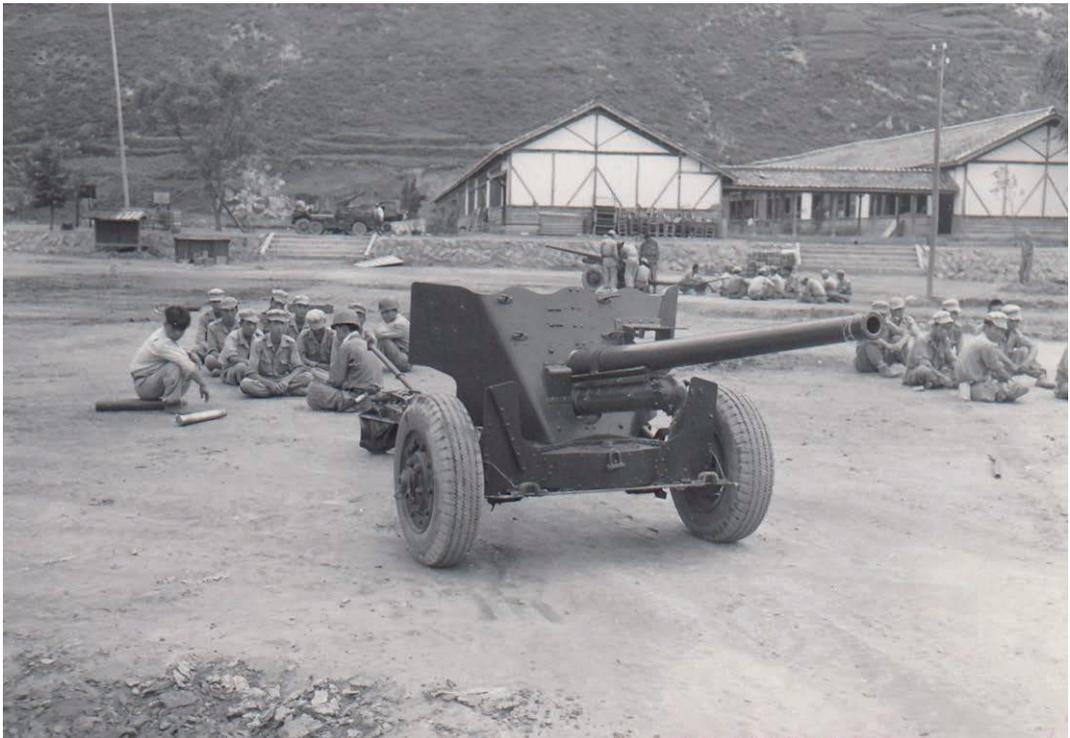
M1 57mm 대전차포

57mm Gun, M1

개요

M1 57mm 대전차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육군이 사용한 대전차포로 6·25전쟁 초기에 국군이 주요 대전차화기로 운용했지만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 도태되었다.

연혁 및 제원



영덕 후방 약 2.4km 지점에서 출동 준비 중인 57mm대전차포(1950. 7. 29).

© 국사편찬위원회

M1 대전차포는 1942년 영국에서 개발된 6파운드 속사포(Ordnance Quick-Firing 6-pounder 7 cwt)를 이듬해 미 육군에서 도입한 것이다. 영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각국의 전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기존의 주력 대전차포였던 2파운드 속사포(구경 40mm)보다 구경이 큰 화포 제작을 구상하여 당시 해군 함포에서 착안한 구경 57mm의 6파운드 속사포를 개발했다. 영국이 개발한 6파운드 속사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1941년부터 미국 내에서도 생산되었는데, 이는 무기대여법(land lease)에 따라 영국군에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1943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6파운드 속사포의 위력을 확인한 미군은 뒤늦게 이 속사포를 자신들의 주력 대전차포로 도입하고 여기에 'M1 57mm 대전차포'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반부터 미 육군은 각 보병연대마다 대전차포중대(9문)를, 보병대대마다 대전차포소대(3문)를 편제하고 M1 대전차포를 배치했다.

M1 대전차포는 본래 목적인 대전차 용도에 맞는 M70 철갑탄(AP)과 M86 피모철갑탄(APC)뿐 아니라 대인용 M303 고폭탄(HE), M305 산탄(canister)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철갑탄을 사격할 경우 100m 거리에서 철갑 135mm, 1,000m 거리에서 89mm를 관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은 이 포가 개발되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뛰어난 것이었으나 전쟁 말기가 되자 독일군의 중(重)전차를 상대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개발된 지 불과 3년 만에 더욱 대구경인 75mm 대전차포에 주력을 내준 M1 대전차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 대부분 퇴역했다.

M1 57mm 대전차포 제원

57mm Gun, M1			
전장(포열)	254cm	전고	128cm
전폭	180cm	중량	1,140kg
발사각	-5~15°	사격속도	분당 15발
사거리	4,600m	조작인원	6명

출처 : Christopher Foss, *Jane's Pocket Book of Towed Artillery*(New York: Collier, 1977).

운 용

M1 대전차포는 6·25전쟁 기간, 특히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였던 대전차 화기였다. 1948~49년 주한미군이 철수할 당시 국군은 이들로부터 M1 대전차포 117문을 인수하였고, 국군은 이것을 각 보병연대 대전차포중대에 6문씩 배치했다. 이미 미군의 도태장비였던 대전차포조차 그 수량이 부족하자 국군은 혹시 모를 북한군의 전차 보유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했지만, 국군을 지원하던 미 군사고문관들은 ‘한국의 도로와 교량 상황이 열악해 효과적인 전차 작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국군의 이러한 약점을 소홀히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은 북한군 전차 및 자주포를 상대로 M1 대전차포를 적극 활용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철갑탄은 대부분 북한군 전차의 전면장갑을 관통할 만큼 충분한 화력을 갖지 못하였고, 그나마 전체 보유 포탄 35,000여 발 중 70% 가까이가 대전차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인용 고폭탄이었던 탓에 북한군 전차를 막을 수 없었다. 국군은 북한군 전차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사격하거나 궤도와 같은 약점을 집중 사격하는 방식으로 화력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전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군은 1950~1951년에 M1 대전차포를 보병 지원화기로 운용하다가 3.5인치 ‘수퍼바주카(Super Bazooka)’ 로켓포와 M20 75mm 무반동총 등으로 대체하면서 점차 퇴역시켰다. 결국 M1 대전차포는 6·25전쟁 초기 북한군 전차부대를 상대로 운용된 국군의 가장 강력한 대전차 화기였으나 그 성능의 부족으로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도태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Christopher Foss, *Jane's Pocket Book of Towed Artillery*(New York: Collier, 1977).





화 포

Artillery Gun

화포는 장약을 사용하여 탄환을 투발시키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화기이다. 구경장(Caliber Length : 포신 길이와 포구 직경의 비율)에 따라 박격포, 곡사포와 평사포로 구분하며, 구경에 따라 경포, 중간포, 중포, 초중포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수송방법에 따라 견인포와 자주포로 분류한다.

6·25전쟁 기간에는 다양한 화포들이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인 화포로는 다음과 같다. 박격포는 미국의 M2 및 M19 60mm 박격포, M1 81mm 박격포, M2 및 M30 4.2인치 박격포, 영국의 오드넨스 SBML 2인치

〈표〉 6·25전쟁 시 사용된 주요 화포

구분	생산국	무기 명칭
박격포	미국	M2 및 M19 60mm 박격포(60mm Mortar, M2 and M19)
		M1 81mm 박격포(81mm Mortar, M1)
		M2 및 M30 4.2인치 박격포(4.2inch Mortar, M2 and M30)
	영국	오드넨스 SBML 2인치 박격포(Ordnance SBML Two-inch Mortar)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Ordnance ML Three-inch Mortar)
곡사포	미국	M1 75mm 경곡사포(75mm Pack Howitzer M1 (M116))
		M3 105mm 곡사포(105mm Howitzer M3)
		M1 155mm 곡사포(155mm Howitzer M1 (M114))
		M1 8인치 곡사포(8inch Howitzer M1 (M115))
자주포	미국	M36 대전차자주포(90mm Gun Motor Carriage, M36)

박격포,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 등이며, 곡사포는 미국의 M1 75mm 경곡사포, M3 105mm 곡사포, M1 155mm 곡사포, M1 8인치 곡사포 등이다. 그리고 자주포로 M36 대전차자주포가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Ⅳ(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S. L. A. Marshall,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M2 및 M19 60mm 박격포

60mm Mortar, M2 and M19

개요

M2 60mm 박격포는 미군의 소총중대급 박격포로 1940년부터 대량생산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주력 박격포로 사용되었다. M2 박격포에 방아쇠를 추가한 개량형이 M19 60mm 박격포이다.

연혁 및 제원



경기도 청평 후방지역에서 M2 60mm 박격포를 사격하는 미 제24사단 제19연대 소속 병사들(1951. 3. 21).

© 국사편찬위원회

M2 60mm 박격포는 1930년대 말 미 육군에서 시험 중이던 81mm 박격포에서 착안하여 보병과 기병이 신속하게 진격하는 상황에 적합한 경량 박격포로 첫 제안되었다. 81mm 박격포를 제작한 브랜트(Brandt)사는 미 육군 병기국의 요구에 따라 60mm급 박격포를 제작하였고, 미 육군은 이를 1938년 ‘M2’라는 명칭으로 정식 채택했다. M2 박격포는 M1 81mm 박격포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였지만, 포열(5.8kg)·포판(5.8kg)·포다리(7.4kg) 등 세 부분으로 분해할 경우 도수운반이 용이할 정도로 경량이었다. 사거리는 최소 90m에서 최대 1,844m로 보병부대에서 수류탄이나 총류탄의 사거리를 넘어서면서 81mm 박격포의 통상 사거리인 2km 미만의 표적을 사격하는 데 적합했다. 제2차 세계대전(1939~45년) 기간 미군의 소총중대급 박격포로 크게 활약하였으며, 특히 숙달된 인원이 운용할 경우 간편한 설치와 휴대성을 이용해 수 백 미터 남짓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적에게 직접 포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M2 60mm 박격포에 방아쇠를 추가하여 유탄발사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M19 박격포’가 개발되기도 했다.

M2 박격포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쳐 미국과 우방국 군대에서 널리 운용되다가 1978년 도입된 같은 구경의 신형 M224 박격포에 의해

60mm 박격포 제원

60mm Mortar, M2			
전장(포열)	72.6cm	중량	19kg
발사각	40~85°	사격속도	분당 18발(최대 30~35발)
사거리	90~1,800m	조작인원	3명

출처 : War Department, *FM 23-85 Basic Field Manual: 60-mm Mortar M2* (November 28, 1942).

대체되었다. M2 박격포는 M49A2 고폭탄을 사격하여 적의 인명과 시설을 무력화하거나 M302 백린연막탄, M83 조명탄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최대사거리는 고폭탄 기준으로 1,800m이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미군은 소총중대 이하의 화기소대 박격포반에 3문의 60mm 박격포를 배치하여 같은 중대의 소총소대들을 지원하게 했다. 특히 미군은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운반과 설치가 용이하고 고저차가 큰 지형을 극복하여 사격할 수 있으며, 지형에 의해 고립된 소부대까지 화력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박격포의 효용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국군은 1948~49년 철수하는 주한미군으로부터 60mm 박격포를 첫 인수하였으며,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이 576문, 해군이 3문을 보유했다. 편제는 미군과 동일하여 소총중대마다 3문이 운용되었다. 전쟁기간 중 보유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의 전체 보유수량이 총 2,263문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오랜 기간 M2 및 M19 박격포를 주력으로 운용하다가 1970년대 중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KM19 박격포에 의해 점차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Canfield, Bruce N.,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Marshall, S. L. A.,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 War Department, FM 23-85 *Basic Field Manual: 60-mm Mortar M2*(November 28, 1942).



M1 81mm 박격포

81mm Mortar, M1

개요

M1 81mm 박격포는 미군의 보병대대급 박격포로 1939년부터 대량생산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주력 박격포로 사용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군뿐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도 주력 박격포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1951년 8월 14일, M1 81mm 박격포를 조작하고 있는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의 병사들.

© 국사편찬위원회

M1 81mm 박격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박격포를 원형으로 하여 1931년 개발된 T4 81mm 스톡스 브랜트(Stokes Brandt) 박격포에서 비롯되었다. 1939년 미 육군은 T4 박격포를 ‘M1’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했다. 기존의 스톡스 박격포와 달리 M1 박격포는 강력한 신형 포탄에 적합하도록 포열이 강화되었고, 좌측 포다리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되었으며, 조준기가 향상되는 등 현대적인 박격포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기간 미군의 보병대대급 박격포로 크게 활약하였으며, 1952년에 같은 구경의 신형 M29 박격포에 의해 점차 대체된 이후에도 많은 양이 운용되어 일부는 베트남전쟁에까지 사용되었다.

M1 박격포는 미 육군 내에서 ‘보병의 포병무기’로 큰 활약을 했다. 박격포는 M43A1 경(經)고폭탄, M45·M56 중(重)고폭탄 등을 사격하여 적의 인명과 시설을 무력화하거나 M57 백린연막탄, M301 조명탄 등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최대사거리는 경(經)고폭탄 기준으로 약 2,926m였으며, 포탄의 살상반경은 약 23m였다.

81mm 박격포 제원

81mm Mortar, M1			
전장(포열)	125.7cm	중량	61.68kg
발사각	40~85°	사격속도	분당 10~30발
사거리	최대 2,926m	조작인원	3명

출처 : War Department, *FM 23-90 Basic Field Manual: 81-mm Mortar M1.*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103.

6·25전쟁 기간 미군은 보병대대 예하의 박격포소대에 총 6문의 81mm 박격포를 배치하여 같은 대대의 소총중대들을 지원하게 했다. 국군도 1948~49년 철수하는 주한미군으로부터 81mm 박격포를 처음 인수하여 운용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384문, 해군은 2문을 보유했다. 편제는 미군과 동일하여 보병대대마다 6문이 운용되었다. 전쟁기간 중 보유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육군의 전체 보유수량은 총 822문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오랜 기간 M1 박격포를 주력으로 운용하다가 베트남전쟁 파병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 미제 M29A1 박격포, 또 이를 국산화한 KM29A1 박격포로 점차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1958).
 Marshall, S. L. A.,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 (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War Department, *FM 23-90 Basic Field Manual: 81-mm Mortar M1*(May 7, 1942).
 Canfield, Bruce N.,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M2 및 M30 4.2인치 박격포

4.2inch Mortar, M2 and M30

개 요

M2 4.2인치 박격포는 미군의 보병연대급 중(重)박격포로 1943년부터 대량생산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주력 박격포로 사용되었다. 6·25전쟁에는 1951년부터 같은 구경의 신형 M30 박격포가 함께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중공군 진지를 향해 4.2인치 박격포 사격을 가하는 장면(1951. 9. 20).

© 국사편찬위원회

미군의 4.2인치(106.7mm) 박격포는 본래 화학탄을 적 참호에 투발하기 위한 ‘화학박격포(chemical mortar)’로 개발되었다. 1928년에 같은 구경의 M1 박격포가 첫 개발되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포탄의 장약량을 늘려 사거리를 향상시키고 이에 맞춰 포열과 포관을 강화한 M2 박격포가 1943년에 양산되었다. M2 박격포는 60mm나 81mm 박격포와는 달리 단각(單脚) 포다리를 사용하였고, 포열 역시 일반적인 활강식이 아닌 강선식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전장에서 화학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적어지자 4.2인치 박격포는 곡사포에 버금가는 대구경 고폭탄을 사격할 수 있는 ‘보병의 포병무기’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M2 박격포 제원

4.2inch Mortar, M2			
전장(포열)	121.9cm	중량	151kg
발사각	-	사격속도	분당 5발
사거리	520~4,020m	조작인원	4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FM 23-92 4.2-Inch Mortar M2* (January 1, 1951).

M30 박격포 제원

4.2inch Mortar, M3			
전장(포열)	152.4cm	중량	304.9kg
발사각	-	사격속도	분당 3발(최대 18발)
사거리	770~6,840m	조작인원	4명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FM 23-90 Mortars* (March 1, 2020).

이에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하는 화학박격포대대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전방사단에 배속되어 직접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4.2인치 박격포의 효용성이 입증되자 미 육군은 화학박격포의 설계상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보병용 중(重)박격포로 설계를 혁신했다. 그 결과 6·25전쟁 기간인 1951년에 사거리와 파괴력을 향상시킨 같은 구경의 M30 박격포가 개발되었다. M30 박격포는 미 육군에서 1990년대까지 사용했다.

M2 4.2인치 박격포는 화학박격포로 원래 수포작용제인 겨자가스(mustard gas)를 장입한 M2 화학탄을 사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M3 고폭탄과 백린연막탄 등을 사용했다. 최대사거리는 고폭탄 기준으로 약 4km였다. M30 박격포는 M329 고폭탄과 M328 백린연막탄, M335 조명탄 등을 사용하였으며 사거리는 M329A2 고폭탄 기준으로 약 6.8km였다.

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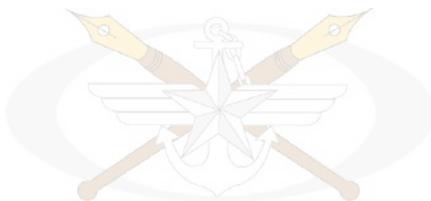
6·25전쟁 기간 4.2인치 박격포는 미군과 국군의 보병부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화기로써 고지쟁탈전에서 큰 활약을 했다. 전쟁 기간 미 육군은 각 보병연대 예하의 중박격포중대에 총 8문의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하여 같은 연대의 보병대대들을 지원했다. 전방부대에서는 4.2인치 박격포의 화력이 105mm 곡사포와 동일하고, 운용의 편의성은 이를 능가한다고 호평했다.

국군은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M2 4.2인치 박격포를 도입하여 전쟁 첫 해인 1950년 12월에 34문,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254문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미군과 같이 보병부대의 편제화기로 활용할 만큼 그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주로 각 보병사단의

포병부대에서 활용했다. 이후 국군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계기로 도입된 M30 박격포와 1977년 이를 국산화한 KM30 박격포로 기존의 박격포를 점차 대체했다.

참고문헌

-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 Bruce N. Canfield, *U.S. Infantry Weapons of World War II*(Lincoln, RI: Andrew Mowbray Incorporated, 1998).
- Department of the Army, *FM 23-92 4.2-Inch Mortar M2*(January 1, 1951).
- Department of the Army, *FM 23-90 Mortars*(March 1, 2020).
- Marshall, S. L. A., *Commentary on Infantry Operations and Weapons Usage in Korea, Winter of 1950-51*(Chevy Chase, MD: Operation Research Offic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51).





오드넨스 SBML 2인치 박격포

Ordnance SBML Two-inch Mortar

개요

오드넨스 SBML 2인치 박격포는 영국 육군의 소총소대급 경(經)박격포로 1937년에 개발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때 영국군과 영연방군의 주력 박격포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군의 오드넨스 2인치 박격포.

© IWM

SBML 2인치 박격포는 1937년 영국에서 개발되었다. 2인치(50.8mm) 구경의 이 박격포는 일반적인 박격포와 달리 포다리가 없고, 포열과 간단한 포관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박격포보다 현재의 유탄발사기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조준 역시 별도의 호형 가늌자를 부착하여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수의 감각만으로 사각(射角)을 조절해 사격했다. 포탄은 고폭탄과 백린연막탄, 조명탄, 신호탄 등을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군은 소총소대마다 2인치 박격포 1문을 운용하여 소대나 중대의 근접 화력지원을 담당했다. 6·25전쟁 기간에도 영국군은 소총소대급 박격포로 운용했다. 영국 내에서는 1980년대 말 신형의 L9A1 51mm 경박격포가 도입됨에 따라 퇴역하였고, 인도에서는 현재까지 이것의 개량형인 E1 박격포를 사용하고 있다.

2인치 박격포 제원

Ordnance SBML Two-inch Mortar			
전장(포열)	53cm	중량	4.8kg
발사각	45~90°	사격속도	분당 8발
사거리	최대 457m	조작인원	2명

출처 : Chris Bishop, *The Encyclopedia of Weapons of World War II*.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97.

참고문헌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 of the Army, July 1958).

Chris Bishop, *The Encyclopedia of Weapons of World War II* (New York: Orbis Publishing Ltd, 1998).

John Norris, *Infantry Mortars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2). "IWM Picture Catalogue No. H 23359", Imperial War Museums, U.K.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

Ordnance ML Three-inch Mortar

개요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는 영국 육군의 보병대대급 박격포로 1930년대 초에 개발되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기간에 영국군과 영연방군의 주력 박격포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

© IWM

오드넨스 ML 3인치 박격포는 1930년대 초 영국에서 기존의 Mk. I 스톡스(Stokes) 3인치 박격포를 개량하여 개발되었다. 박격포는 포열과 포관, 포다리 등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3인치’라는 구경 명칭과 달리 실제 구경은 3.209인치(81.5mm)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독일군의 동급 박격포인 8cm GrW 34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포탄의 장약을 개선해 사거리를 기존의 1,500m에서 2,560m로 크게 향상시켰다. 포탄은 고폭탄과 연막탄, 조명탄 등을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영국 육군 보병대대 예하 지원중대에 6문이 배치되었고, 주로 ‘범용 수송차(Universal Carrier)’에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군의 보병대대급 박격포로 운용되었다. 1965년 L16 81mm 박격포에 의해 대체되어 퇴역했다.

3인치 박격포 제원

Ordnance ML Three-inch Mortar			
전장	130cm	중량	52.4kg
발사각	45~ 80°	사격속도	분당 10~30발
사거리	최대 2,560m	조작인원	3명

출처 : Chris Bishop, *The Encyclopedia of Weapons of World War II*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99.

참고문헌

Chris Bishop, *The Encyclopedia of Weapons of World War II* (New York: Orbis Publishing Ltd, 1998).

John Norris, *Infantry Mortars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2).
 “IWM Picture Catalogue No. H 23502”, Imperial War Museums, U.K.



M1 75mm 경곡사포

75mm Pack Howitzer, M1

개 요

M1 75mm 경곡사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미 육군의 경량 곡사포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10월에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에서 20여 문이 운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수도사단 장병들이 75mm 경곡사포에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1950. 8. 27).

© 국사편찬위원회

M1 경곡사포는 1927년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일반적인 곡사포와 달리 ‘경곡사포(pack howitzer)’로 설계된 이 포는 6개 부품으로 분해할 경우 각 부품의 중량이 73~107kg으로 인마수송이 가능하여 산악과 같은 험지에도 전개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어 1940~1944년 사이에 8,400여 문이 제작되었고, 대부분은 미 육군 공수사단 예하 글라이더 및 강하포병대대의 주요 화포로 활용되었다. 같은 시기에 영국과 호주, 중국 등에도 원조되어 주로 산포(山砲)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형 곡사포들의 자주화로 인하여 점차 퇴역하였고 소수만이 남겨져 현재까지도 의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75mm 경곡사포 제원

75mm Pack Howitzer, M1A1			
전장	368cm	전고	94cm
전폭	122cm	중량	653kg
발사각	5~45°	사격속도	분당 6발
사거리	8,800m	조작인원	6명

출처 : War Department, TM 9-1320 75mm Howitzers and Carriages(April 10, 1944).

운 용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북한군에게 수적으로 크게 열세 하던 국군은 미군으로부터 다수의 곡사포를 제공받았다. 이 곡사포들은 대부분 당시 미군의 사단급 포병화기였던 M2 105mm 곡사포였으나 그 수량이 부족하여 일부를 M1 경곡사포로 대신했다. 미 군사고문단은 M1 경곡사포가 상대적으로 구경이 작은 화포지만 북한군의 주력 화포인 76mm

곡사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낙동강 방어전투 당시 국군이 담당한 산악지형에 적합하는 등 운용상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1950년 8월 초에 첫 인수된 M1 경곡사포는 제3사단에 18문, 수도사단에 6문 등 총 24문이 배치되어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활약했다. 두 사단에서 운용되던 M1 경곡사포는 같은 해 10월 M2 곡사포로 교체됨에 따라 점차 전방에서 도태되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HQ KMAG, “Distribution of Korean Army Artillery”(7 August 1950) ; “Employment of Howitzer, Pack, 75mm, M1A1”(18 August 1950) ; “Disposition of Korean Army Artillery”(24 August 1950) ; “Annex I to Logistical Estimate(Requirements for Artillery)”(8 September 1950), RG 338, Box 12, NARA.

War Department, *TM 9-1320 75mm Howitzers and Carriages*(April 10, 1944).





M3 105mm 곡사포

105mm Howitzer, M3

개 요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미 육군의 곡사포로 6·25전쟁 발발 직전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곡사포로써 전쟁 초기에 활약했다.

연혁 및 제원



국군 야전포병부대원들이 M3 105mm 곡사포를 정비하고 있는 장면(1949. 7. 19).

© 국사편찬위원회

M3 곡사포는 미국이 1942년, 기존의 105mm 곡사포와 동일한 화력을 가지면서도 공중수송이 가능한 수준의 경량인 화포가 필요해짐에 따라 개발되었다. M3 포는 M2 곡사포의 포열을 690cm로 단축시키고, 기존의 M1 경곡사포의 반동제어장치와 가신(포를 견인하거나 지면에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다리 부분)을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45년 사이에 총 2,580문이 제작되었고, 1944년부터는 미 육군 보병연대 예하 포중대(cannon company)와 공수사단 포병대대의 화기로 널리 운용되었다.

M3 곡사포는 M2 곡사포용 포탄에서 장약을 교체한 것을 사용했다. M1 고폭탄을 주로 사용하며 M67 대전차예광고폭탄(HEAT-T), M60 백린연막탄(WP)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고폭탄을 기준으로 사거리는 M2 곡사포의 60~70% 수준인 7.6km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대형 곡사포들이 자주화되어 경량 곡사포의 용도가 축소됨에 따라 점차 퇴역했다.

M3 105mm 곡사포 제원

105mm Howitzer, M3			
전장	394cm	전고	127cm
전폭	170cm	중량	1,130kg
발사각	-9~30°	사격속도	분당 4발
사거리	7,600m	조작인원	10명

출처 : War Department, *TM 9-1326 105 mm Howitzer M3 and Howitzer Carriages M3 and M3A1*(January 20, 1944).

운 용

M3 곡사포는 1948년 국군의 첫 포병부대가 창설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력 화기였다. 1948년 6월부터 용산과 진해에서 미군에게 교육훈련을 받은 포병 기간요원들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인계한 M3 곡사포 91문을 인수하여 1949년 2월 6개 포병대대를 창설했다. 같은 해 6월, 각 포병대대(M3 곡사포 15문 보유)는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이들을 직접 지원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각 사단 포병대대는 북한군 포병에 비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남진을 지연하는 데 크게 활약했다. 춘천지구 전투(1950년 6월 25~28일)에서는 국군 제6사단 소속 제16포병대대가 M3 곡사포를 이용해 북한군 공격제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6월 26일 의정부 전투에서는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장 김풍익 소령과 장세풍 대위가 직접 곡사포로 직사를 가해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고 전사하는 투지를 보여주었다. 지연전과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국군 화력의 중추 역할을 해온 M3 곡사포는 7월부터 도입된 M2 곡사포에 의해 점차 대체되어 퇴역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포병학교, 『포병의 발자취』 (육군포병학교, 1963).

War Department, *TM 9-1326 105 mm Howitzer M3 and Howitzer Carriages M3 and M3A1*(January 20, 1944).



M2 105mm 곡사포

105mm Howitzer, M2

개 요

M2 105mm 곡사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사용된 미 육군의 곡사포로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국군에게도 첫 도입되어 사단급 화포로 널리 활약했다.

연혁 및 제원



미군 포병대원들이 M2 105mm곡사포를 사격하는 장면(1950. 7. 28).

© 국사편찬위원회

M2 곡사포는 미국에서 1932년에 개발되었으나 실제 양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인 1941년 4월부터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8,500여 문이 생산된 M2 곡사포는 미 육군이 가장 널리 사용한 화포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미군의 각 보병사단은 M2 곡사포를 장비한 3개 포병대대를 두어 예하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도록 편제를 조직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200여 개의 포병대대가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했다.

M2 곡사포는 M1 고폭탄(HE)을 주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M67 대전차예광고폭탄(HEAT-T), M84 연막탄, M60 백린연막탄(WP)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고폭탄을 사격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1.27km였다. 강력한 고폭탄 능력과 신속한 방열 등으로 야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M7 자주곡사포나 M4 ‘셔먼’ 전차의 주포로도 탑재되어 자주화되었다. 1941년부터 1953년까지 총 10,200문이 생산되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미 육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되었으며, M119 곡사포의 도입으로 1989년에 퇴역했다. 1962년에 ‘M101 곡사포’로 재명명되었다.

M2 105mm 곡사포 제원

105mm Howitzer, M2			
전장	600cm	전고	173cm
전폭	214cm	중량	2,260kg
발사각	-5~66°	사격속도	분당 2~4발
사거리	11,270m	조작인원	6명

출처 :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운 용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맞닥뜨린 국군은 즉시 미국에 화포를 포함한 각종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이에 미 극동군 사령부는 우선적으로 국군에 각종 화기를 공급하였고, 1950년 7월 6일 국군에 최초로 M2 곡사포 13문을 인계했다. 육군은 포병 피해가 극심했던 전방사단 포병대대를 재편 및 창설하면서 기존의 M3 곡사포를 M2 곡사포로 교체하기 시작했고, 9월까지 총 10개 포병대대가 M2 곡사포를 장비하고 낙동강 방어전투를 지원했다. 1950년 154문, 1951년 200문, 1952년 274문, 1953년 7월까지 499문이 추가 인수되어 전쟁 중 국군 포병부대의 핵심 장비가 되었다. 1953년 1월에는 각 사단이 미군과 동일하게 105mm 곡사포를 갖춘 3개 포병대대를 완전히 편제하게 되었다.

국군은 6·25전쟁부터 이후 30여 년간 M2 곡사포를 주력으로 운용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역설계와 미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KM101'로 국산화하여 이후 국산 곡사포 개발의 시초가 되었다. M2 및 KM101 곡사포는 지금까지도 일부 부대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포병학교, 『포병의 발자취』, 1963.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M1 155mm 곡사포

155mm Howitzer, M1

개요

M1 155mm 곡사포는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사용된 미 육군의 곡사포로 6·25전쟁 중인 1951년 9월 국군에게도 첫 도입되어 사단 및 군단급 화포로 널리 활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 제24사단 장병들이 M1 155mm 곡사포를 발사하는 장면(1950. 8. 9).

© 국사편찬위원회

M1 155mm 곡사포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직전인 1941년 5월, 미 육군이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사용하던 슈나이더(Schneider)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화포이다. 당시 미군의 각 보병사단은 105mm 곡사포를 장비한 3개 포병대대를 두어 예하 보병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사거리가 긴 155mm 곡사포 1개 포병대대를 함께 두어 사단 전체에 대한 일반지원을 제공하도록 편제되어 있었다.

M1 곡사포는 M102 고폭탄(HE)을 주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M105·M110 연막탄, M110 화학탄, M118 조명탄 등을 사격할 수 있었다. 고폭탄을 사격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14.6km였다. 1941년부터 1953년까지 총 10,300문이 생산되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미 육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되었으며, 1968년 M198 곡사포의 도입으로 점차 퇴역했다. 1962년에 ‘M114 곡사포’로 재명명되었다.

M1 155mm 곡사포 제원

155mm Howitzer, M1			
전장	730cm	전고	180cm
전폭	240cm	중량	5,427kg
발사각	-2 ~ 63°	사격속도	분당 2발
사거리	14,600m	조작인원	11명

출처 :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운 용

국군은 6·25전쟁 발발 이래 각 보병사단마다 M2 105mm 곡사포만을 운용하는 1개 포병대대를 두어 4개 포병대대(3개 105mm 포병대대 및 1

개 155mm 포병대대)를 보유한 미군 보병사단에 비해 화력이 매우 부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군은 전선이 안정화된 1951년 9월 초순, 미군으로부터 제공받은 M1 155mm 곡사포를 장비한 최초의 포병대대(제99야전포병대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4개 포병대대를 창설했다. 1952년 6월에는 추가로 6개 대대가 창설되었다. 군단급 포병으로 전방을 지원하던 이 부대들은 1953년 1월 20일 비로소 보병사단에 편입되어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사단 포병단'을 이루는 핵심 전력으로 정착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국군은 총 294문의 155mm 곡사포를 보유했다.

국군은 6·25전쟁 이래 M1 155mm 곡사포를 사단급 화포로 운용하였으며 1970년대 말 'KM114' 곡사포로 국산화했다. 1983년 국산 KH-179 견인곡사포가 배치되면서 상당수 퇴역하였으나 일부 부대에서는 현재도 KM114 곡사포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포병학교, 『포병의 발자취』, 1963.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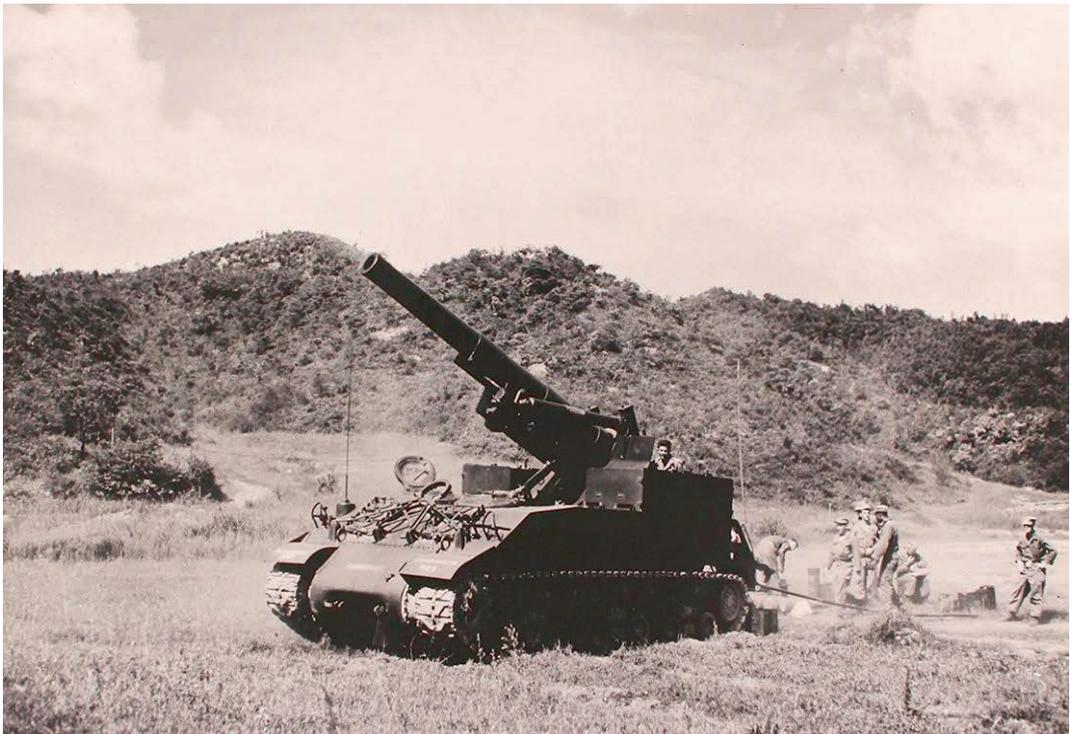
M1 8인치 곡사포

8 inch Howitzer, M1

개요

M1 8인치 곡사포는 1940년에 미국에서 개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기간에 미 육군의 군단급 중(重)곡사포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미 제17포병대대의 8인치 곡사포가 미 제2사단을 화력지원 하는 장면(1952. 8. 23).

© 국사편찬위원회

M1 8인치(203.2mm) 곡사포는 미국에서 1940년에 개발되었다. 이 포는 M1 155mm 곡사포와 포열을 제외하고 동일하였으며, 강력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자랑하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군단급 포로 널리 사용되었다.

M1 8인치 곡사포는 M106 고폭탄(HE)만을 사용하였으며, 사거리는 16.8km였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총 1,006문이 생산되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까지 미 육군의 주력 화포로 운용되었으며, 특히 6·25전쟁 중에는 견인포뿐만 아니라 M41 자주곡사포의 탑재 화기로도 크게 활약했다. 1968년 M198 곡사포의 도입으로 점차 퇴역했다. 1962년에 'M115 곡사포'로 재명명되었다.

8인치 곡사포 제원

8 inch Howitzer, M1			
전장	1,097cm	전고	270cm
전폭	250cm	중량	31,780kg
발사각	-2~65°	사격속도	2분당 3발
사거리	16,800m	조작인원	14명

출처 :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은 용

미 육군은 6·25전쟁을 맞아 1950년 10월, 155mm 및 8인치 곡사포를 장비한 8개 포병대대로 이루어진 제5야전포병단(5th Field Artillery Group)을 한국에 첫 파병했다. 이 같은 군단급 포병대대들은 전쟁 중 다양한 군단 및 사단에 파견되어 해당 부대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제17·제424·제780야전포병대대 등 3개 대대가 M1 8인치 곡사포를 장비했다. 이들은 특히 고지쟁탈전 과정에서 중공군의 갱도를 파괴하는 용도로 큰 활약을 했다.

국군은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에 M1 8인치 곡사포를 첫 도입하였으며, 이후 1961년 동일한 포를 탑재한 M110 자주곡사포를 도입하여 함께 운용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K9 자주포로 대체했다.

참고문헌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포병학교, 『포병의 발자취』 (육군포병학교, 1963).

Gordon L. Rottman, *Korean War Order of Battle: United States, United Nations, and Communist Ground, Naval, and Air Forces, 1950-1953* (Westport, US: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2).

Steven J. Zaloga, *US Field Artillery of World War II*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7).





M36 대전차자주포

90mm Gun Motor Carriage, M36

개요

M36 대전차 자주포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개발된 미 육군의 자주포로 6·25전쟁 기간 한국 육군이 전차로 운용한 기갑장비이다.

연혁 및 제원



산악지대를 이동 중인 M36 대전차자주포(1953. 6. 25).

© 국사편찬위원회

M36 대전차자주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육군의 대전차병과(Tank Destroyer)에서 운용하던 자주포(GMC: Gun Motor Carriage)로 개발된 것이었다. 미 육군은 당시 전선 돌파와 전과확대의 역할을 기갑병과에 부여하는 한편, 독일군의 전격전(blitzkrieg)을 막기 위한 기동방어의 역할을 대전차병과에 부여했다. 흔히 대대 단위로 편성된 대전차부대는 군단 이상 부대의 예비부대로 배치되어 공세 중인 적 전차부대에 대해 매복을 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미 대전차부대는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력을 다소 희생한 자주포들을 개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반궤도차에 대전차포를 탑재한 M3 자주포에서부터 전차와 같이 회전포탑을 장착한 M10 및 M36 대전차자주포를 실전에서 사용했다.

1944년 4월에 첫 생산된 M36 대전차자주포는 중(重)대공포를 개조한 90mm M3 주포를 장착하여 강력한 화력을 갖추었다. 1944년 10월부터 유럽전선에 배치된 M36은 기갑사단 내 대전차대대에서 운용되었는데, 같은 시기 미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던 독일군의 중(重)전차를 정면에서 격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전차 화기로 각광을 받았다. 다만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력을 최소화하여 포탑 정면장갑 32mm, 차체 정면장갑 38mm에 불과해 적의 대전차 공격에 취약하였고, 상부장갑이 없는 개방형 포탑을 탑재하여 적 보병의 근접공격에도 무방비였다. 이러한 기술적인 약점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등을 이유로 M36은 1944~45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1,400여 대가 생산되는 데 그쳤다. 전차의 기술이 발전하여 대전차병과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1945~46년에 대전차병과 부대가 해체되었고 기존의 M36 대전차자주포는 퇴역하여 예비물자로 남겨졌다.

M36 대전차자주포 중 일부는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의 동맹국가에 제공되었다. 대전차자주포로서의 태생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여기에 탑재된 90mm 주포는 당시 공산권의 전차 대부분을 격파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다수의 M36 대전차자주포가 6·25전쟁 중 한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파키스탄, 유고슬라비아 등에 원조되었고 소수가 대만에서도 운용되었다.

M36 대전차자주포 제원

90mm Gun Motor Carriage, M36			
전장	7.46m	전고	3.28m
전폭	3.05m	전투중량	29t
총마력	500hp	최고속력	42km/h
순항거리	240km	승무원	5명
무장	90mm M3 주포(1), 50구경 중기관총(1), 30구경 경기관총(1)		

출처 : <http://afvdb.50megs.com/usa/90mmgmcm36.html>.

운 용

M36 대전차자주포는 전차가 아닌 자주포였지만 우리 육군이 ‘전차’로써 최초로 보유한 장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6·25전쟁을 맞게 된 국군은 뒤늦게 전차부대의 창설을 추진하여 1950년 10월 말 육군종합학교에서 최초의 M36 대전차자주포 6대를 교육용으로 인수했다. 이를 계기로 11월 10일 육군종합학교 내 전차과가 창설되었고, 1951년 4월에는 육군보병학교 교도전차대대로 증편되어 이후 창설된 전차부대의 기간 장병들을 양성했다. 같은 해 10월 5일 육군은 제51·제52전차중대를 창설(국방부 일반명령 제143호)하여 최초

로 육군 전차부대를 갖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육군은 200여 대의 M36 대전차자주포를 보유하고 총 9개 전차중대를 운용했다. 각 중대는 전방 보병사단에 배속되었고, 주로 소대 단위로 보병연대에 파견되어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소대 당 5대가 인가된 M36 대전차자주포는 미군의 전차처럼 돌파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주포로 고지쟁탈전 기간 적의 진지를 직사로 타격하는 역할로 큰 위력을 발휘했다. 또한 미군 전차부대와 달리 국군이 직접 운용하는 부대로서 지휘통신이 원활하였고, 이들과 함께 작전을 하는 전방부대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를 내었다.

M36 대전차자주포로 무장한 전차중대들은 1952~53년 주요 고지쟁탈전에 참가했다. 백마고지 전투(1952년 10월 6~15일)에서는 국군 제9사단에 배속된 제53전차중대가 적 공격제대의 측방을 포격하고, 적이 점령한 고지에 배치된 직사화기를 제압하는 등 강력한 직접 화력지원으로 전투의 승리에 기여했다. 또한 정전을 앞두고 전개된 연천 베티고지 전투(1953년 7월 15~16일)에서는 고지를 방어하는 국군 1개 소대를 도와 제3전차대대 제2중대(제57전차중대)가 밤새 직사 포격을 지원하여 적 3백여 명을 사살하는 대승을 이끌었다.

한편 M36 대전차자주포는 대규모 운용에 큰 한계가 있었다. 이미 미군에서 퇴역한 장비인 탓에 예비부품이 항상 부족하였고, 부대 추가창설에 필요한 전차 완제품을 획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중대 단위로 전방 보병부대에 파견되는 전차부대의 특성상 상급부대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지휘감독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은 1953년 초부터 기존의 전차중대를 통합하여 3개 전차대대로 편성하여 운용했다.

육군은 1959년 기존의 M36 대전차자주포를 퇴역시키고 정전 이후 주력으로 운용하던 M4A3E8 전차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 퇴역한 일부 M36 대전차자주포는 최전방에서 고정포로 재활용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0(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육군기계화학교, 『기갑무기체계 발달사』 (계룡 : 육군기계화학교, 2012).

The Armored School, *Employment of Armor in Korea-2d Year* (April, 1953).





전 차

Tank

전차는 지상전투의 핵심 무기로 위력 있는 주포를 가지며, 뛰어난 기동력과 강한 방호력을 겸비한 전투용 차량을 일컫는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국의 M4 셔먼 중형전차(Medium Tank M4 “Sherman”), M24 채피 경전차(Light Tank M24 “Chaffee”), M26 퍼싱 중형전차(Medium Tank M26 “Pershing”), M46 패튼 중형전차(Medium Tank M46 “Patton”) 등이 참전하였고, 영국에서는 크롬웰 순항전차(Tank, Cruiser, Cromwell), 센추리온 전차(Centurion Tank), 처칠 보병전차(Tank, Infantry, Churchill) 등을 파견했다.

참고문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M4 ‘셔먼’ 중형전차

Medium Tank M4 ‘Sherman’

개요

M4 셔먼은 6·25전쟁 기간 미 육군의 주력 중형전차로 미군의 전차 중 가장 많은 수량이 한반도에서 활약했다. 1951년 창설된 국군 최초의 기갑부대인 해병 전차중대에서도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전선으로 향하는 M4 셔먼전차(1950. 8. 15).

© 국사편찬위원회

미 육군의 M4 ‘셔먼(Sherman)’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1939~45년)을 맞아 독일군 기갑부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군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전차를 보병과 함께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지원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폴란드 침공(1939년)과 프랑스 침공(1940년) 과정에서 기갑부대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적진을 돌파하는 ‘전격전(blitzkrieg)’을 구사하여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을 당혹시켰다. 미 육군은 당시 주력이었던 M2 중형전차의 성능에 한계를 절감하고 적진 돌파를 위한 우수한 기동력과 함께 점차 대형화되는 독일군의 전차를 격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포를 갖춘 전차를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미 육군은 1940~1941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군에 의해 위력이 입증된 75mm 대전차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수직벌류트 스프링 현가장치(VVSS)와 고무 부싱이 장착된 궤도 등 앞서 개발된 전차 관련 기술들을 동원하여 신속히 신형 전차를 개발했다. 미 육군은 이 신형전차를 1942년 2월에 ‘M4’로 제식 채택함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M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통틀어 총 49,000여 대가 생산되었다. M4는 생산 시기와 목적에 따라 형태를 약간씩 달리 했다. 최초의 M4는 용접으로 조립한 차체에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였으며, M4A1은 일부 제작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체를 주조(casting)로 생산했다. 또한 일부 전차(M4A2, M4A6)는 휘발유가 아닌 디젤 엔진을 사용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미 육군은 450마력 포드 GAA 엔진을 사용하는 M4A3 전차를 주력으로 생산하였고, 여기에 사거리와 관통력이 강화된 M1 76.2mm 주포, 피격 시 탄약고의 유폭을 방지하는 습식 탄약고(wet storage), 수평벌류트 스프링 현가장치(HVSS) 등을 장착한 ‘M4A3(76)W HVSS’를 개발했다. 1944년 8월부터 생산된 M4A3(76)W HVSS는 유럽

전선이 마무리되기 직전인 1945년 4월까지 총 2,617대가 생산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생산된 M4 전차의 최종 개량형으로 남게 되었다. 종전 후 미 육군은 이 전차를 M4A3의 8번째 개량형임을 의미하는 ‘M4A3E8’로 개칭했다.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M4A3E8 전차는 소련의 T-34-85 전차와 함께 동 시기 전차의 표준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기동성과 정찰능력 중심의 경전차(light tank)와 두꺼운 장갑과 전선 돌파력에 초점을 맞춘 중전차 사이에서, 적당한 기동성과 화력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중형전차(medium tank)로 여겨졌다. 미군은 6·25전쟁을 비롯해 1950년대 초반까지 M4A3E8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다가 점차 M48 전차로 대체하면서 1957년에 퇴역시켰다.

M4 셔먼 전차 제원

Medium Tank M4A3E8 'Sherman'			
전장	7.54m	전고	2.97m
전폭	3m	전투중량	33.66t
총마력	500hp	최고속력	42km/h
순항거리	160km	승무원	5명
무장	76mm M1A1 주포(1), 50구경 중기관총(1), 30구경 경기관총(2)		

출처 : <http://www.theshermantank.com/wp-content/uploads/M4A3E8-76-Spec-Sheet.pdf>

운 용

6·25전쟁 기간 미군은 참전 이후부터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M4A3E8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했다. 전쟁 발발 당시 미군은 북한군의 T-34-85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동급의 중형전차인 M4A3E8 전차를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축소로 인해 극동지역에서 즉시 투입할 전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 극동군사령부는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던 M4A3E8 전차 58대를 수집하여 도쿄병기창에서 긴급정비 후 7월 17일 제8072임시전차대대(이후 제89전차대대로 개칭)를 창설하고 8월 1일 부산에 상륙시켰다. 제8072임시전차대대는 6·25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에 첫 상륙한 유엔군의 중형전차 부대로 즉시 마산 일대에 투입되어 미 제25보병사단의 전투를 지원했다. 이후 미국 본토로부터 증원된 전차들이 합세하여 1950년 첫 해에만 총 679대의 M4A3E8 전차가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같은 기간 중 파괴된 북한군 전차 223대 중 41대가 이들에 의해 격파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M4A3E8 전차는 같은 시기에 함께 운용된 M26 ‘퍼싱’ 전차나 M46 ‘패튼’ 전차에 비해 대전차 전투 능력이 떨어졌지만, 험지 돌파 능력과 정비의 용이성 면에서는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M4A3E8 전차는 특히 고지쟁탈전 단계에서 보병부대를 근접 지원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M4A3E8 전차는 국군이 운용한 최초의 전차이기도 했다. 1951년 8월 25일, 국군 해병대는 해군 자동차학교를 전신(前身)으로 한 ‘해병기갑학교’를 창설하였고, 같은 해 12월 중순 미군으로부터 M4A3E8 전차 5대를 인수하여 전차중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기간장병들은 같은 시기 강원도 양구 해안분지에서 전투 중인 미 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의 실전을 참관하였으며, 이듬해 1월부터 실제 전차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952년 5월부터 최초의 전차소대가 국군 해병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되었다. 해병 전차중대는 전쟁 기간 20여 대의 M4A3E8 전차를 운용했다.

6·25전쟁 기간 활약한 M4A3E8 전차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국군의 주력전차로도 운용되었다. 육군은 1954년 미국으로부터 M4A3E8 전차 388대를 인수했다. 이후 M4A3E8 전차는 M48 전차의 도입으로 1971년에 퇴역했다.

6·25전쟁 기간 M4A3E8 전차는 미군이 한반도에 첫 투입한 중형전차로 미 공군과 더불어 전쟁 초기 북한군 전차부대의 위협을 제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무기였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부터 쌓아온 운용 요령을 토대로 이 전차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성과는 고지쟁탈전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국군의 첫 전차부대를 창설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⑪(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2013).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 (8 April, 1951).
 Patrick, Stansell & Kurt Laughlin, *Son of Sherman Vol. 1: The Sherman Design and Development*(Delray Beach, FL: The Ampersand Group, 2013).
 The Sherman Tank Site, "Medium Tank M4A3(76) WHVSS", <http://www.theshermantank.com/wp-content/uploads/M4A3E8-76-Spec-Sheet.pdf>, 2019. 11. 3.



M24 ‘채피’ 경전차

Light Tank M24 ‘Chaffee’

개 요

M24 채피는 미 육군의 경(經)전차로 1944년부터 생산되었으며, 6·25 전쟁 발발 당시에는 한반도에 최초로 투입된 미군의 전차이기도 했다.

연혁 및 제원



M24 채피 경전차

© U.S. Army Historical Foundation

경전차(light tank)는 중량 25톤 미만의 소형 전차를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인 전투를 책임지는 중형전차와 달리 빠른 속력을 이용하는 정찰과 추격 임무를 담당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은 M3 및 M5 ‘스튜어트(Stuart)’ 경전차를 운용하였는데, 이들의 주무장인 37mm 주포가 대전차·대인 용도로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자, 대형 주포를 장착하기 위해 새로운 차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1943년 4월에 기존 M5 경전차의 구동 방식을 활용하면서도 주포를 75mm로 향상시킨 신형 경전차의 시제품이 탄생했다. 시제 경전차의 성능에 만족한 미 육군은 1944년부터 이 전차에 ‘M24’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1944년 11월부터 실전에 배치했다. M24는 1945년 8월까지 총 4,731대가 생산되었다.

M24 경전차는 정찰용 기갑차량으로서의 기능을 두루 갖춘 무기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차체 전면장갑은 25mm 두께로 적 대전차무기의 공격을 막기엔 충분하지 않았으나 경사장갑을 도입하여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충분한 방어력을 제공했다. 주무장인 75mm M6 주포는 고폭탄·산탄·백린연막탄 등 다양한 기능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었고, 철갑탄을

M24 전차 제원

Light Tank M24 ‘Chaffee’			
전장	5.56m	전고	2.77m
전폭	3m	전투중량	18.4t
총마력	296hp	최고속력	56km/h
순항거리	160km	승무원	5명
무장	75mm M6 주포(1), 50구경 중기관총(1), 30구경 경기관총(2)		

출처 : <http://afvdb.50megs.com/usa/m24chaffee.html>

사용할 경우 250m 이내에서 균질압연장갑 102mm를 관통할 수 있어 제한적인 대전차 공격도 가능했다. 기동력과 화력을 두루 갖춘 M24 경전차는 정찰용뿐 아니라 보병부대의 근접 지원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M24 경전차는 1951년부터 생산된 신형 M41 ‘워커불독(Walker Bulldog)’ 경전차에 의해 대체되어 1953년 퇴역했다.

운 용

M24 경전차는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가 한반도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차였다. 같은 시기 극동군사령부 예하에는 총 4개의 전차대대(제71·77·78·79전차대대)가 있었는데, 각 대대는 모두 일본의 협소한 도로망과 교량만을 방어할 목적으로 M24 경전차로 편성된 1개 중대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 4개 전차중대가 즉시 한반도로 파병되었다. 첫 전투는 1950년 7월 10일에 있었으며, 이날 미 제24보병사단에 배속된 제78전차대대 A중대가 전의 남쪽에서 북한군 전차와 최초로 교전을 벌여 북한군 전차 1대를 격파하고 2대를 상실했다.

M24 경전차는 75mm 주포로 무장하였지만, 당시 북한군의 주력이었던 T-34-85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기에는 파괴력이 부족했다. 반면 경전차의 특성상 M24의 방어력은 적 전차의 주포는 물론 북한군의 대전차소총조차 막아내기 힘든 수준이었다. 더구나 일본에서 급파된 전차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정비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 중 포탑과 주포가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제일 먼저 한반도에 도착한 제78전차대대 A중대는 한 달여 만에 보유한 전차 14대 중 2대만이 남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아 전차 간의 불리한 상황은 같

은 해 8월 미군의 중형전차가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해소되었다. 이때 M24 경전차를 보유했던 전차대대가 모두 M4A3E8 전차로 교체되었다.

M24 경전차는 6·25전쟁 발발 직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을 전차대대 예하 정찰대대 혹은 보병사단 예하 정찰중대에 배치되어 본래 목적인 정찰용으로 사용되었다. 국군에서는 1952년 후반기에 제55전차중대가 일시적으로 M24 경전차 22대를 인수하여 교육훈련에 사용하다가 반납했다고 전해진다.

M24 경전차는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의 전차부대에 맞선 최초의 유엔군 전차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전차로서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전세를 바꾸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참고문헌

-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Light Tank M24 Chaffee”, <http://afvdb.50megs.com/usa/m24chaffee.html>, 2019. 11. 13.
- Department of the Army, TM 9-729 *Light Tank M24* (May 1951).
- Steven J. Zaloga, *T-34-85 vs. M24 Pershing: Korea 1950*(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10).



M26 ‘퍼싱’ 중형전차

Medium Tank M26 ‘Pershing’

개 요

M26 퍼싱은 미 육군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M4 셔먼 전차를 대신하기 위해 개발한 중형전차로 6·25전쟁 초기에 북한군 기갑전력을 압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8월 13일 한국에 도착한 M26 퍼싱 전차.

© 국사편찬위원회

M26 ‘퍼싱(Pershing)’ 중형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5월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 전차는 같은 시기 위협이 가중되고 있던 독일군의 신형 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중(重)전차였다. 특히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이 독일군의 전차를 상대로 고전하자 미군은 주력 전차인 M4 ‘셔먼’ 중형전차를 대신하여 방어력과 화력을 모두 향상시킨 전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1944년 여름 동안 여러 차례 시험을 거친 후 ‘T26E3’으로 명명된 신형 중전차를 완성하여 1945년 1월 유럽전선에 첫 배치했다. 비록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투입되어 충분한 실전경험을 쌓지는 못하였지만, 전차의 성능에 만족한 미군은 신형 중전차를 ‘M26’으로 정식 명명했다. M26은 1944년 11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총 2,202대가 생산되었다.

미군이 실전 배치한 최초의 중형전차였던 M26 퍼싱의 90mm M3 주포는 중(重)대공포를 개조한 것으로 독일군 중전차를 정면에서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포였다. 또한 차체와 포탑 전면장갑은 4인치(101.6mm)로 당시 널리 사용되던 75mm급 대전차포탄을 제한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엔진이 중형전차급인 500마력(포드 GAF 엔진)에 지나지 않아 중전차의 체급에 걸맞은 성능을 갖지 못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M26 전차는 화력 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6년 5월 미 육군은 전차의 등급기준을 수정하면서 M26 전차를 중전차에서 중형전차로 재분류했다. 1948년 1월에는 M26 전차의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량형 설계에 착수하였고, 이는 이듬해 ‘M46 전차’의 개발로 이어졌다. M26 전차는 M46 및 M47 전차에 의해 점차 대체되어 1950년 중반에 퇴역했다.

M26 전차 제원

Medium Tank M26 'Pershing'			
전장	8.64m	전고	2.78m
전폭	3.51m	전투중량	41.9t
총마력	500hp	최고속력	40km/h
순항거리	160km	승무원	5명
무장	90mm M3 주포(1), 50구경 중기관총(1), 30구경 경기관총(2)		

출처 : Steven J. Zaloga, *M26/M46 Pershing Tank 1943-53*(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0).

운 용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는 M24 경전차 4개 중대만을 운용가능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1950년 7월경에 이르러 한반도에 급파된 M24 경전차들이 북한군의 전차부대를 상대로 역부족임이 드러나자 이들을 상대할 중형전차들을 서둘러 동원하기 시작했다. 극동군사령부는 당시 도쿄병기창에 방치되어 있던 M26 전차 3대를 긴급 정비한 후 '임시전차소대'로 편성하여 한반도에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 전차는 7월 31일 진주를 방어하던 중 미흡한 정비가 원인이 되어 엔진 과열로 자력주행이 불가능해 결국 모두 자폭 처분되었다.

이 무렵 M26 전차들이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급파되었다. 기갑교육기간부대로 완전편성을 이루고 있던 미 육군 제70·제73전차대대와 미 제1해병임시여단의 1개 전차중대가 M26 퍼싱 전차와 함께 한반도에 파병되었다. 미 해병 전차중대는 8월 17일 경상남도 창녕 오봉리에서 북한군 제109전차연대와 최초로 교전하여 M26 1대가 몇 분 만에 북한군

T-34-85 전차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다. 뒤이어 8월 27일,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던 미 제27연대에 배속된 제73전차대대의 M26 전차들이 북한군 T-34-85 전차 13대와 SU-76 자주포 5대를 격파하는 이른바 ‘볼링앨리(Bowling Alley) 전투’를 이끌었다.

M26 전차는 1950년 말까지 총 309대가 한반도에 배치되었고, 같은 기간 북한군 전차 29대를 격파했다. 특히 강력한 대전차 성능을 가진 90mm 주포에 힘입어 M26 전차는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당시 미군의 주력 전차인 M4A3E8보다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고지쟁탈전이 격화되기 시작한 1951년부터 M26 전차는 고질적인 기동성 부족 때문에 신형인 M46 전차에 의해 점차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8 April, 1951).
- Steven J. Zaloga, *M26/M46 Pershing Tank 1943-53*(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0).
- Steven J. Zaloga, *T-34-85 vs. M26 Pershing: Korea 1950*(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10).



M46 ‘패튼’ 중형전차

Medium Tank M46 ‘Patton’

개요

M46 패튼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미 육군이 M26 퍼싱 전차를 개량한 중형전차로 6·25전쟁 때 처음 실전에 투입된 최신형 전차였다.

연혁 및 제원



김화지구 전투에서 공산군 병커를 공격하는 미 제7사단 예하 제32전차중대의 M46 패튼 전차 (1952. 7. 26).

© 국사편찬위원회

M46 ‘패튼(Patton)’ 전차는 기존의 M26 ‘퍼싱’ 전차의 개량형으로 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 1월, 미 육군은 M26 전차의 고질적인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엔진출력을 기존의 500마력에서 810마력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파워팩(Power Pack)을 갖춘 시제품을 만들었다. ‘T40’으로 명명된 이 시제 전차는 냉전이 고조됨에 따라 개발이 가속되어 이듬해인 1949년 8월에 M26 전차를 대체할 차기 신형전차로 채택되어 ‘M46’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M46 전차는 외형과 성능이 M26 전차와 매우 유사했다. 그러면서도 외형 면에서는 후미의 기동륜 바로 아래에 궤도의 장력을 조절해주는 소형 유동륜이 추가되었고, 주포의 포구 주변에 배연기(bore evacuator)가 추가되었다. 성능은 엔진의 개량으로 최고속력과 험지 돌파능력이 모두 향상되었고, 주포 역시 기존의 90mm M3에 소염기를 추가한 M3A1로 개량되었다.

6·25전쟁에서 M4A3E8 및 M26 전차와 함께 활약한 M46 전차는 미군의 신형 전차인 M47 전차가 1951년부터 생산됨에 따라 점차 대체되어 1957년에 퇴역했다.

M46 전차 제원

Medium Tank M46 ‘Patton’			
전장	8.48m	전고	3.18m
전폭	3.51m	전투중량	44t
총마력	810hp	최고속력	48km/h
순항거리	130km	승무원	5명
무장	90mm M3A1 주포(1), 50구경 중기관총(1), 30구경 경기관총(2)		

출처 : Steven J. Zaloga, *M26/M46 Pershing Tank 1943-53*(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0).

6·25전쟁 발발 당시 M46 전차는 미군의 전체 보유량이 319대였지만, 극동군사령부에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극동군사령부는 미국 본토의 전차를 한반도에 신속히 증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텍사스주 캠프 후드(Camp Hood)에 주둔 중이던 미 제6전차대대의 M46 전차들이 1950년 8월 8일 부산에 상륙했다. 이들은 당시 한반도에 전개한 유일한 M46 전차들이었다. 대대는 이후 미 제1군단의 반격작전에 참여하여 북진하였으며, 10월 19일 평양탈환작전 때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에 배속되어 이들과 함께 평양에 최초로 진입한 미군 부대가 되었다. 1950년 말까지 M46 전차 200대가 한국전선에 배치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북한군 전차 19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1년 전선교착 이후에는 M4A3E8 전차와 함께 미군 전차부대의 주력을 이루었다. M46 전차는 M4A3E8 전차와 더불어 6·25전쟁 전 기간 유엔군의 기갑전력 우세를 보장한 강력한 전차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⑥(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 (8 April, 1951).
- Steven J. Zaloga, *M26/M46 Pershing Tank 1943-53*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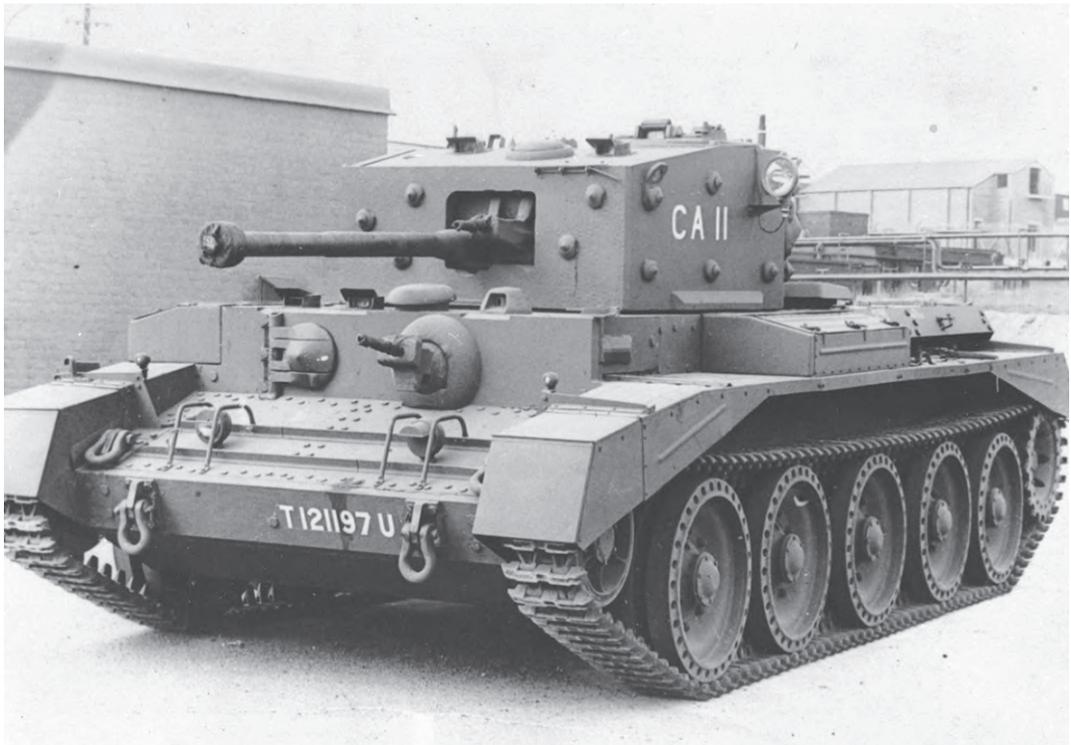
크롬웰 순항전차

Tank, Cruiser, Cromwell

개요

크롬웰 순항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개발된 영국 육군의 대표적인 경전차로 6·25전쟁 기간에 영국군 내에서 10여 대가 운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크롬웰 Mk.VIII 순항전차

© IWM

‘순항전차(cruiser tank)’는 1930년대 영국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작고 가벼운 차체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진을 돌파하는 경전차를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영국 육군은 A15 크루세이더(Crusader)를 주력 순항전차로 운용하였으나 독일군의 전차 발전추세를 따라 1940년부터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한 신형 순항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41년 1월에 영국군은 너필드(Nuffield)사에서 개발한 A24 전차를 채택하며 과거 영국의 지도자 이름을 따 ‘크롬웰(Cromwell)’로 명명했다. 개발 직후의 개량 과정에서 신형 롤스로이스 미티어(Meteor) 엔진을 탑재한 A27M형이 크롬웰 전차의 표준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크롬웰 전차는 순항전차 설계의도에 맞는 강력한 기동력을 자랑했다. 28톤의 가벼운 차체에 6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속력이 시속 64km에 달했다. 화력도 개선되어 중형전차와 동급인 75mm 주포가 탑재되었고, 일부 전차에는 대인 및 대진지용의 95mm 곡사포가 주포로 장착되기도 했

크롬웰 전차 제원

Tank, Cruiser, Cromwell Mk.VII			
전장	6.35m	전고	2.49m
전폭	2.9m	전투중량	28t
총마력	600hp	최고속력	64km/h
순항거리	270km	승무원	5명
무장	오드넨스 QF 75mm 주포(1), 7.92mm 베사 경기관총(2)		

출처 : David Fletcher, *Cromwell Tank: Vehicle History and Specifications*(London, UK: The Tank Museum, 1983).

다. 그러나 방어력은 당시에도 구식이었던 리벳 접합방식의 수직 장갑을 사용하여 적의 대전차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부터 실전에 배치된 크롬웰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3,000여 대가 생산되어 영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었으며, ‘센추리온(Centurion)’ 전차를 비롯한 후속 전차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55년에 퇴역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영국군은 1950년 11월 한반도에 첫 파병할 당시 제8 왕립 아이리시 후사르연대(8th King's Royal Irish Hussar) 정찰중대가 6대, 왕립포병 제45야전연대(the 45th Field Regiment, Royal Artillery)가 8대 등 총 14대의 크롬웰 전차를 보유했다. 이 중 포병 소속의 크롬웰 전차는 포병관측전차로써 주포를 제거하고 관측 및 통신장비를 증설한 차량이었다.

크롬웰 전차 14대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맞아 정찰중대장 쿠퍼(Donald Ashley-Cooper) 대위가 지휘하는 ‘쿠퍼 부대(Cooper Force)’로 편조되어 서울 북서쪽을 방어하던 영국군 얼스터 소총연대(Royal Ulster Rifles)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동(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 배치되었다. 1951년 1월 3일 밤, 얼스터연대 제1대대와 쿠퍼 부대는 상급부대의 철수 명령에 따라 후퇴하던 중 인접부대의 엄호를 받지 못한 채 공릉천 협곡을 따라 탈출하는 과정에서 157명이 전사하고 크롬웰 전차 전량이 파괴나 유기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유기된 크롬웰 전차 중 1대가 공산군에 의해 운용되다가 2월 1일 한강철교 부근에서 영국군 센추리온 전차에 의해 격파되었으며, 또 다른 1대가

인천 월미도 방어진지에 배치되었다가 2월 10일 국군 해병대에 의해 다시 노획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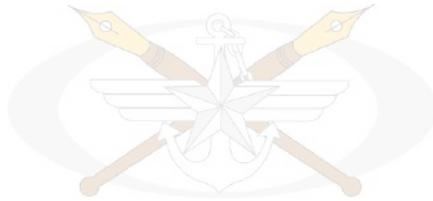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참고문헌

Fletcher, David, *Cromwell Tank: Vehicle History and Specifications*(London, UK: The Tank Museum, 1983).

“IWM Picture Catalogue No. H 23502”, Imperial War Museums, U.K.

Kim, C., *Battle of Happy Valley*(서울: 국방부, 2015).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 (8 April, 1951).





센추리온 전차

Centurion Tank

개요

센추리온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개발된 영국 육군의 중(重)순항전차로 6·25전쟁 기간 영국군이 주력 전차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임진강 부교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영연방 제1사단의 센추리온 전차들.

© IWN

센추리온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영국군의 중(重)순항전차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군은 독일군의 대전차포와 지뢰 공격

에 많은 전차 피해를 입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을 가지면서도 화력과 방어력을 모두 향상한 신형 순항전차를 제작하고자 했다. 영국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전차 설계기술에 힘입어 복잡한 요구사항을 충족했다. 이후 시제차량인 센추리온 Mk.I 전차가 1944년 말에 소수 제작되었고, 양산형인 Mk.II 전차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영국군은 1946년부터 주력 전차로 운용하였으며, 1948년에 주포 안정화 장치를 추가하여 주행사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인 Mk.III형을 개발했다.

센추리온 전차는 경전차와 중(重)전차의 특성을 고루 갖춘 전차였다. 차체 정면장갑 118mm, 포탄 정면장갑 152mm로 이전 시기 영국군의 중전차와 유사한 방어력을 갖추고 주포 역시 강력한 20파운드(84mm) 포를 장비하였지만, 강력한 롤스로이스 미티어(Meteor) 엔진과 신형 현가장치를 장착해 최고속력 시속 35km의 준수한 기동력을 발휘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을 적절하게 절충한 센추리온 전차는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전차(universal tank)’로 분류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주력전차(main battle tank) 개념의 시초가 되었다.

센추리온 전차 제원

Centurion Tank Mk.III			
전장	9.8m	전고	3.01m
전폭	3.38m	전투중량	52t
총마력	650hp	최고속력	35km/h
순항거리	80km	승무원	4명
무장	오드넨스 QF 20파운드 주포(1), 30구경 경기관총(1)		

출처 : Simon Dunstan, *Centurion Universal Tank 1943-2003* (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3).

센추리온 전차는 영국군의 전차 중 가장 긴 운용사를 자랑한다. 1946년 첫 배치 이래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인도·요르단·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운용하여 다양한 분쟁에서 활약했다. 영국에서는 1966년 신형의 FV4201 ‘치프틴(Cheiftain)’ 전차의 도입으로 점차 대체되었으나, 공병 강습전차(AVRE)로 개조된 일부가 걸프전쟁(1991)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영국군은 1950년 11월 한반도에 첫 파병할 당시 제8왕립 아이리시 후사르연대(8th King's Royal Irish Hussar) 소속 센추리온 Mk.III 전차 64대를 배치했다. 참전 초기에는 북한군 전차부대가 이미 궤멸된 상황이라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 후인 1951년 3월 서울 재탈환 전투와 4월 임진강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했다. 영국군 전차부대의 순환 배치에 따라 1951년 말에 파병된 제5왕립 이니스킬링 용 기병근위연대(5th Inniskilling Dragoon Guards) 소속 센추리온 전차가 1952년 11월 제2차 후크고지 전투에서 영국군의 반격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에 이어 순환 배치된 제1왕립 전차연대(1st Royal Tank Regiment)도 영국군의 고지쟁탈전 수행을 근접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Dunstan, Simon, *Centurion Universal Tank 1943-2003*(Oxford, UK: Osprey Publishing, 2003).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BF 10299”, Imperial War Museums, U.K.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 (8 April,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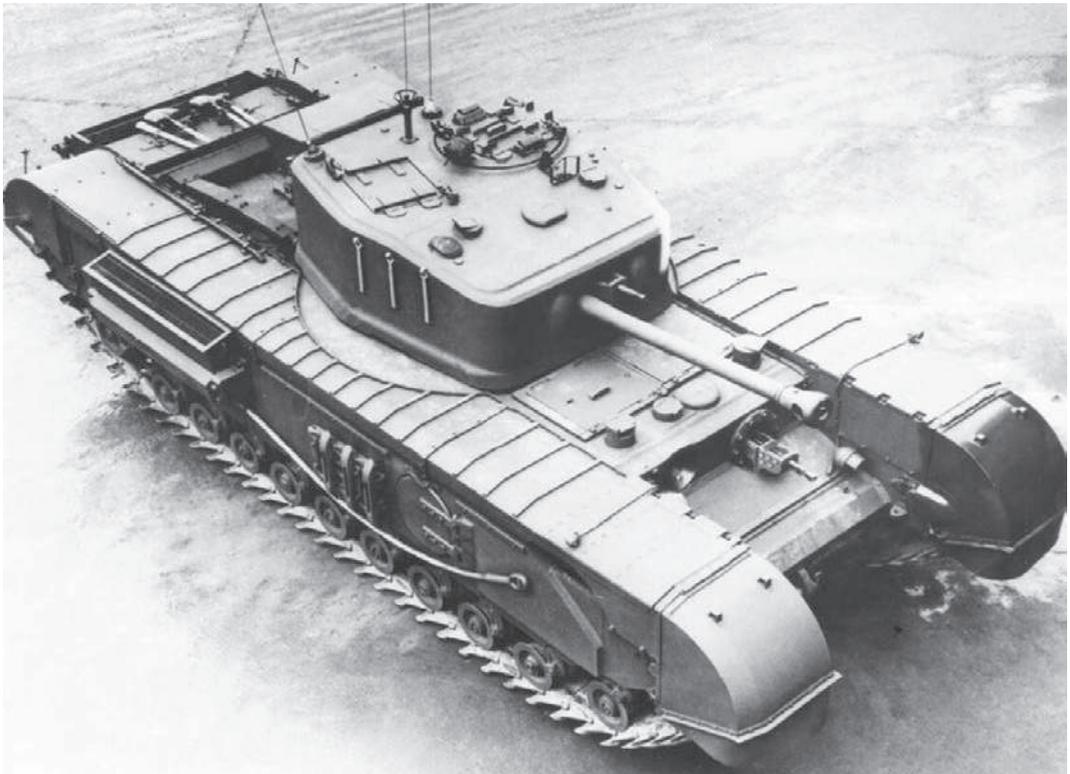
처칠 보병전차

Tank, Infantry, Churchill

개요

처칠 보병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도입된 영국 육군의 중(重)보병 전차로 1941년부터 1945년까지 5,600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총 20대가 운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처칠 Mk. VII 보병전차

© IWM

‘보병전차(infantry tank)’는 1930년대 영국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뛰어난 기동성을 위주로 설계되는 순항전차(cruiser tank)와 달리 보병과 함께 저속으로 기동하며 강력한 장갑으로 적의 사격을 막아내는 중(重)전차를 의미했다. 특히 영국군은 보병전차를 설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적의 참호와 철조망 등을 돌파할 수 있도록 궤도의 접지면적을 최대화한 긴 차체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 1940년 A20 중전차를 첫 제작한 데 이어, 같은 해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부터 얻은 전훈을 반영해 1941년 6월 A22 ‘처칠’이란 이름으로 전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처칠 전차는 양산 당시부터 설계에서의 결함이 거듭 지적되었다. 첫 양산형인 Mk.I은 이미 대전차 용도로는 유명무실해진 2파운드(40mm) 주포를 주 무장으로 장착하였고, 차체에는 3인치 곡사포를 추가로 달아 한 차량에 주포가 2문이 달린 복잡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후 Mk.III형에서는 주포를 6파운드(57mm) 포로, Mk.IV형에서는 일부가 75mm 포를 장착하여 화력을 보강했다. 방어력은 전면 차체장갑이 102mm였고, 이후 Mk.VII형에서는 140mm까지 증가되어 상당한 수준이었으나 늘어나는 중량으로 인하여 개량이 거듭될수록 차체의 최고속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시급한 전황에 따라 1941년부터 1945년까지 5,600여 대의 처칠 전차를 생산하여 주력 전차로 운용했다.

처칠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전선에 투입되었다. 특유의 차체 형상으로 인해 무른 지형을 돌파하는데 유리하였고, 강력한 전면장갑으로 적의 대전차 공격을 방어하는 능력 역시 뛰어났지만 시속 20km대의 낮은 기동력 때문에 적을 추격하거나 우회하는 데에는 매우 불리했다. 일부는 대형의 차체를 이용하여 공병강습전차(AVRE), 교량전차(ARK),

‘크로커다일(Crocodile)’ 화염방사전차 등으로 개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운용되다가 1952년에 영국군 내에서 퇴역했다.

처칠 전차 제원

Tank, Infantry, Churchill Mk.VII(A42)			
전장	7.32m	전고	2.49m
전폭	3.35m	전투중량	45t
총마력	350hp	순항속력	22km/h
순항거리	225km	승무원	5명
무장	오드넨스 QF 75mm 주포(1), 7.92mm 베사 경기관총(2)		

출처 :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 p. 295 ; <http://www.onwar.com/tanks/uk/fchurch7.htm>

운 용

6·25전쟁 기간 영국군은 1950년 11월 한반도에 첫 파병할 당시 제7 왕립 전차연대(7th Royal Tank Regiment) C중대 소속 처칠 전차 20대를 배치했다. 이 전차들은 대부분 Mk.VII(A42)형의 ‘크로커다일’ 화염방사전차였으나 실전에서는 일반 전차처럼 운용되었다. 또한 공병강습전차(AVRE)·구난전차(ARV)·교량전차형이 함께 운용되었다. 영국군을 따라 서울과 임진강 일대에서 실전에 참가한 이 처칠 전차들은 1951년 10월 부대가 본국으로 귀환함에 따라 철수했다.

처칠 전차는 영국군이 한반도에 첫 파병된 1950~51년에 잠시 운용되

였으나 같은 시기 영국군의 주력 전차인 센추리온에 비해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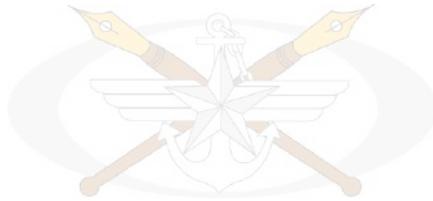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참고문헌

Armed Conflict Events Data, <http://www.onwar.com/tanks/uk/fchurch7.htm>, 2019. 11.30.

Department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0-115, Weapons & Equipment Recognition Handbook, Middle East*(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 of the Army, July 1958).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KID 902”, Imperial War Museums, U.K.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I(8 April, 1951).





장갑차

Armored Vehicle

장갑차는 적의 총포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차체를 강철 판으로 덧씌운 차량들을 일컫는다.

6·25전쟁 기간에 운용된 주요 장갑차로는 미국의 M3 반궤도차(Half-track M3),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Light Armored Car M8 Greyhound), M39 다용도 장갑차 (Armored utility vehicle M39)와 영국의 범용 수송차(Universal carrier), 다임러 장갑차(Daimler armoured car)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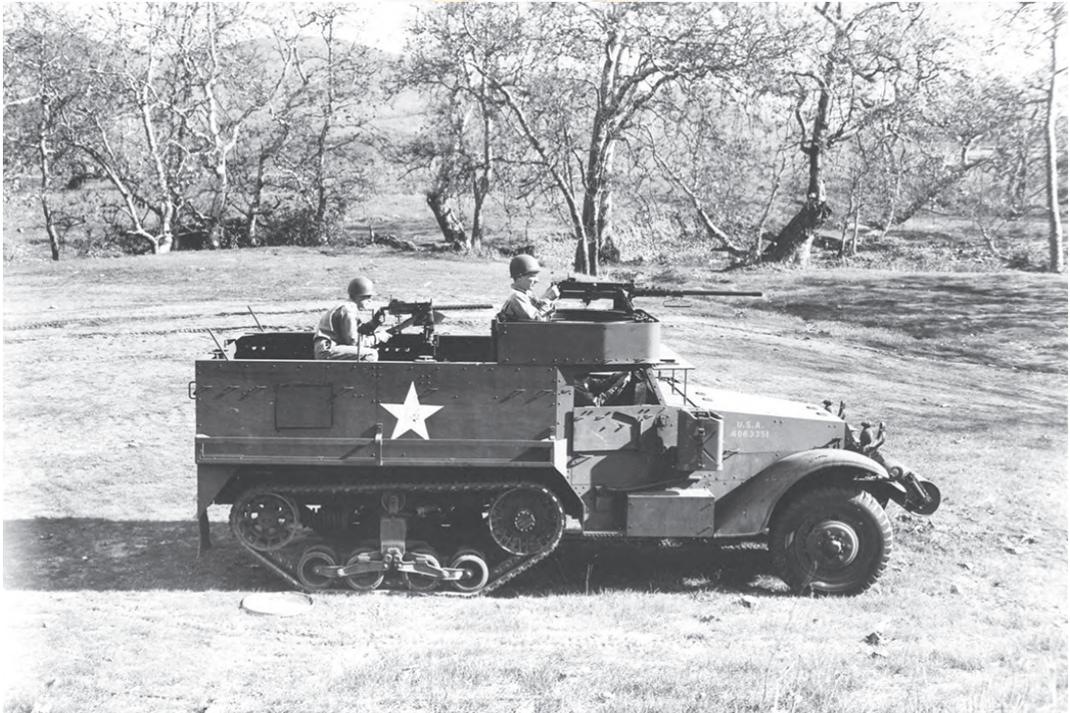
M3 반궤도차

Half-track M3

개요

M3 반궤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에서 제작한 병력수송장갑차(APC)로 병력수송 이외에 야포나 대공포를 장착하여 운용되기도 했다. 6·25전쟁 기간 미군의 주력 전투차량이었으며, 국군도 이를 도입하여 장갑차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M2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한 M3 하프트랙(제2차 세계대전 시기).

© The National WWII Museum, New Orleans

반궤도차는 앞쪽에 차바퀴, 뒤쪽에 무한궤도가 달린 차량으로 ‘반궤도차’, ‘반궤도 장갑차’, ‘하프트랙’ 등으로 불린다. M3 반궤도차는 1930년대 미국이 기갑부대를 편성하면서 방어와 험지돌파 능력을 갖춘 수송차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작한 전투차량이었다.

반궤도차는 1913년 제정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차량에 프랑스인 아돌프 케그레스(Adolphe Kégresse)가 뒷바퀴 궤도를 장착한 것이 효시였다. 그리고 케그레스의 궤도차량 기술이 군사적으로 접목된 것이 러시아제 오스틴 장갑차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오스틴 장갑차의 기동성은 당시 운용되던 전차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프랑스로 돌아온 케그레스는 시트로엥(Citroën)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여 반궤도 화물차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다. 시트로엥사에서 개발한 반궤도 차량은 각국에서 관심을 가졌고, 미국도 면허생산 방식으로 반궤도 차량 생산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은 1930년대 기갑부대를 편성하면서 기존의 수송용 트럭이 방어와 험지돌파 능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기갑차량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장갑수송차량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물이 1939년 말에 제작된 T14였다. T14는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정찰차량인 ‘M3 스카우트카(M3 Scout car)’에 하프트랙을 접목한 것으로 미 육군은 이것을 1941년 5월에 ‘M2 반궤도차(M2 Half-track)’라 명명하고 제식 채용했다.

M2 반궤도차가 주로 야포를 견인하거나 정찰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면, M3은 병력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반궤도차였다. M3이 M2와 다른 점은 병력수송을 위해 후방 차체가 약 25cm가량 연장되고 뒷문 개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M3 반궤도차에는 주무장으로 M2 50구경 기관총 1정과 보조무장으로 M1919 30구경 기관총 1정이 탑재되었다. 이후 운전석 위의 50구경 M2 기관총좌의 장갑을 강화하고, 차량

양쪽에 30구경 M1919 기관총 1정씩을 거치한 M3A1이 제작되었다.

M3 반궤도차는 성능이 우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파생형들이 만들어졌다. 2연장 M2 기관총을 장착한 M13 다용도 자주포(MGMC : Multiple Gun Motor Carriage), M1A2 37mm 대공포와 M2 기관총을 장착한 M15 다용도 자주포(MGMC), M2 기관총의 개량형인 M2HB 4정으로 구성된 M45 쿼드마운트(M45D)를 장착한 M16 다용도 자주포(MGMC), 그리고 M1 대전차포를 장착한 M3 자주포(GMC : Gun Motor Carriage), 81mm 박격포를 장착한 M21 박격자주포(MMC : Mortar Motor Carriage), 75mm 곡사포를 장착한 T30 자주곡사포(HMC : Howitzer Motor Carriage), 105mm 곡사포를 장착한 T19 자주곡사포(HMC) 등이 모두 M3 반궤도차의 차체를 활용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연합군에 참여한 국가들을 위해 M3 반궤도차의 국외 버전(version)이라 할 수 있는 M5가 제작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M2형(M2, M2A1) 반궤도차는 14,324대, M3형(M3, M3A1) 반궤도차는 17,092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주로 M3형이 운용되었다.

M3 반궤도차 제원

Half-track M3			
전장	6.16m	전고	2.3m
전폭	1.96m	전투중량	9.1t
엔진	White 160A 6기통 가솔린 엔진, 147마력	최고속력	72km/h
순항거리	320km	승차인원	13명
무장	M2HB 50구경 기관총(1), M1919 30구경 기관총(1)		

출처 :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Half-track M3".



1950년 7월 15일 금강 방어선에 배치된 M15 다용도 자주포(MGMC).
 © 국사편찬위원회

6·25전쟁 기간 미군은 참전 이후부터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병력수송·보급품운반·부상자후송·정찰·이동통신차량 등으로 M3 반궤도차를 널리 운용했다. 또한 미군의 대공포대대들은 M3 반궤도차의 파생형으로 M1A2 37mm 대공포를 장착한 M15 MGMC와 M45 쿼드마운트(M45D)를 장착한 M16 MGMC를 주력 대공장비로 운용했다. 1951년 9월에는 M15 MGMC의 M1A2 37mm 대공포와 M2HB 50구경 기관총을 철거하고 40mm 보포스 대공포를 장착한 M34 GMC가 제작되어 실전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M15 MGMC 102대가 일본에서 M34 GMC로 개조되었다.

국군도 창군기부터 M3 반궤도차를 장갑차로 운용했다. 국군은 1948년 독립기갑연대의 모체인 장갑중대 창설 시에 7대의 M3 반궤도차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여순 10·19사건 때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했다. 이후 한국에서 철수하는 미군으로부터 몇 대를 더 양도받아 6·25전쟁 발발 당시 국군은 11대의 M3 반궤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립기갑연대가 이를 운용했다. 독립기갑연대의 M3 반궤도차는 전쟁 발발 초기에 김포지구 전투, 한강방어선 전투 등에 참여하여 M8 그레이하운드(Grey Hound) 장갑차와 함께 화력 지원에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1950년 7월 25일 경 독립기갑연대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이르렀을 때 M3 반궤도차는 1대만이 남았고, 이마저도 9월 말 낙동강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전개하던 중 기계 부근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크게 손상되었다.

6·25전쟁 기간 국군은 미국으로부터 M3 반궤도차와 더불어 M45 쿼드마운트(M45D)를 장착한 M16 다용도 자주포(MGMC) 50대를 군사원조 형식으로 인수하여 운용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①~⑥(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9).
 권주혁, 『기갑전으로 본 한국전쟁』(파주: 지식산업사, 200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 군수편』(서울: 육군본부, 1955).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8 April, 1951).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Half-track M3", <http://afvdb.50megs.com/usa/halftrackm3.html>, 2020. 8. 13.
 Wikipedia, "M3 half-track", https://en.wikipedia.org/wiki/M3_half-track, 2020. 8. 14.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Light Armored Car M8 Greyhound

개요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에서 제작한 정찰장갑차로 M6 37mm 포와 M1919 기관총 등을 장착하였으며, 6·25전쟁 기간 미군과 국군이 주력 장갑차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7월 22일 대구 인근에서 화력 시험 중인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 국사편찬위원회

M8 그레이하운드는 장갑차로서의 성능이 떨어지는 M3 반궤도차를 대체하기 위해 미 육군이 1943년부터 제식 채용한 정찰장갑차이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포드자동차사(Ford Motor Company)에서 총 8,523대를 생산했다. 6개 바퀴로 구동되며 M6 37mm 대전차포와 M1919 30구

경 기관총을 기본 무장으로 하였으며, 선택 사항으로 포탑 위 앞쪽에 M2HB 50구경 중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었다.

37mm 대전차포가 장착되어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전차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대전차용이 아닌 위력정찰이나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용으로 사용되었다. M8 장갑차의 파생형으로는 M8 장갑차의 포탑을 제거하고 M2HB 50구경 기관총만을 장착한 M20 다용도 장갑차가 있다. M20 장갑차는 무장보다 기동성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것이었다.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제원

Light Armored Car M8 Greyhound			
전장	5m	전고	2.25m
전폭	2.5m	전투중량	7.89t
엔진	Hercules JXD 6기통 가솔린 엔진, 110마력	최고속력	89km/h
순항거리	560km	승무원	4명
무장	기본 : M6 37mm 포(1), M1919 30구경 기관총(1) 선택 : M2HB 50구경 기관총(1)		

출처 :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Light Armored Car M8 Greyhound".

운 용

6·25전쟁 시기 미군은 M8 장갑차를 주로 기갑부대의 위력수색정찰에 투입하거나 헌병대에서 포로호송용으로 운용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지휘차량으로 운용하였으며, M8 장갑차의 파생형인 M20 다용도 장갑차 일부에 화염방사기를 설치하여 돌격차량으로 운용한 경우도 있었다.



1951년 1월 5일 강원도 영월 부근에서 대기 중인 국군의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 국사편찬위원회

국군도 6·25전쟁 발발 전에 M8 장갑차 27대를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용 중이었다. M8 장갑차는 당시 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기갑 화력이었으며, 특히 M8 장갑차에 탑재된 SCR-506 무전기는 남산통신소에서 각 전방사단과 직접 무선통신이 가능할 만큼 성능이 우수했다.

6·25전쟁 발발 후 국군의 M8 장갑차가 처음 전투에 투입된 것은 6월 25일 오전이었다. 이날 오전 8시경에 독립기갑연대 제1장갑대대 3중대가 제7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로 출동했다. 제3중대의 1개 소대가 축석령 일대에서 북한군 전차를 상대로 포격을 가했지만, 북한군 T-34-85 전차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채 오히려 M8 장갑차들을 향해 돌진해 옴에 따라 제3중대의 M8 장갑차들은 모두 의정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육군본부는 M8 장갑차가 북한군 전차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갑차에 장비된 성능 좋은 무전기로 통신 유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각 사단에 1개 소대의 장갑차를 지원했다. 비록 북한군 전차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M8 장갑차는 전쟁 초기에 보유한 성능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한강방어선 전투 때에는 김포와 영등포 일대에서 북한군 공격을 지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국군 제8사단의 강릉전투 때에는 기갑연대 제1장갑중대 3소대의 M8 장갑차 3대가 강릉~대관령 철수로를 개척하여 제21연대 2대대의 안전한 철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1950년 7월 9일 진천전투에서는 수도사단의 M8 장갑차가 37mm 포로 북한군 전차의 무한궤도를 파괴하고 전차병 3명을 사살하여 전차공포증에 빠져 있던 장병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M8 장갑차는 전쟁 발발 초기에 많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후 여러 전투를 거치면서 차례로 파괴되었다. 1950년 10월 38도선을 넘어 북진할 당시에 국군이 보유한 M8 장갑차는 단 1대뿐이었으며, 이마저도 1950년 말에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위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51년 1월 5일 영월 부근에서 국군이 M8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어도 1951년 초까지는 M8 장갑차가 국군 전력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13).
 권주혁, 『기갑전으로 본 한국전쟁』 (파주: 지식산업사, 2008).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육군기계화학교, 『6·25전쟁시 기갑부대운용』 (계룡: 육군본부, 2008).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 군수편』 (서울: 육군본부, 1955).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Light Armored Car M8 Greyhound",
<http://afvdb.50megs.com/usa/halftrackm3.html>, 2020. 10. 5.



M39 다용도 장갑차

Armored utility vehicle M39

개요

M39 장갑차는 1943년 미국에서 M18 헬멧 구축전차의 포탑을 제거하고 차체만을 활용하여 제작한 다용도 장갑차이다. 6·25전쟁 기간 미군이 병력·물자·탄약수송 등 다용도 차량으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M39 다용도 장갑차로 훈련 중인 미군(1954년)

© www.reddit.com

M39 다용도 장갑차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3월까지 미 육군의 M18 헬캣 구축전차(M18 Hellcat tank destroyer)의 포탑을 제거하고 차체를 활용해 장갑차로 개조한 것이다. M18 헬캣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미국이 구축전차로 운용하던 M10 울버린(Wolverine)의 낮은 기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전차로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그러나 기동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장갑이 약해 50구경(12.7mm) 기관총에도 관통될 정도였으며, 포탑이 개방형이라 적의 수류탄 공격에도 취약할 만큼 방어력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적 전차가 현대화되면서 M18 헬캣은 구축전차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했다.

미 육군은 전차로서의 기능이 약해졌지만, 탁월한 기동성을 갖춘 M18 헬캣의 장점을 버릴 수가 없어 장갑차로 개조할 것을 결정하고 1944년 6월에 M18 헬캣의 차체를 기반으로 한 신형 장갑차 설계를 마치고 생산 주문에 들어갔다. T41 다용도 장갑차(T41 Armoured Utility Vehicle)로 명명된 시제 장갑차 2대가 생산되었으며,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4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미 육군은 1945년 초에 T41을 M39 다용도 장갑

M39 다용도 장갑차 제원

Armored utility vehicle M39			
전장	5.28m	전고	2m
전폭	2.4m	전투중량	1.52t
엔진	Continental R-975-C4 9기통 가솔린 엔진, 400마력	최고속력	80km/h
순항거리	160km	승차인원	11명
무장	M2HB 50구경 기관총 1정		

출처 : American Fighting Vehicle Database, "Armored utility vehicle M39".

차로 명명했다. 1945년 3월까지 총 640대가 생산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유럽전선에서 크게 활약했다. 6·25전쟁에도 대량 투입되어 미군이 병력수송, 탄약운반, 부상병 후송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했다.

운 용

M2HB 브라우닝 중기관총을 주무장으로 한 M39 다용도 장갑차는 6·25전쟁 기간 미군이 병력수송, 탄약수송, 부상자 후송, 공병대의 시설 자재 운반 등 수송차량으로 운용하거나 보병에 대한 화력지원 또는 M45 쿼드마운트(M45D)를 장착하여 대공화기로도 운용했다.

1950년 7월 미 지상군 참전 직후부터 M39 다용도 장갑차는 미군의 주요 전투차량으로 운용되었으며, 특히 고지쟁탈전 시기에는 각종 포탄과 탄약, 그리고 병력을 전선에 수송하는 임무를 책임졌다. 또한 산악지형에 사용될 공병대의 시설 자재들을 운반하는 것도 M39 장갑차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얇은 장갑과 개방형 상부구조로 승무원들의 위험이 컸다. 이로 인해 완전히 밀폐된 M75 장갑차가 1952년에 개발되어 일부가 6·25전쟁에 투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다음 블로그, '한국전에 사용된 미군 M39 장갑 보병 수송차', "슈트름게슈프의 밀리터리와 병기", <https://blog.daum.net/pzkipw3485/2242618>, 2020. 8. 28.
- Operation Research Office, Far East Command, *The Employment of Armor in Korea*, Vol. I(8 April, 1951).
- Rickard, J(3 June 2014), "M39 Armoured Utility Vehicle", http://www.historyofwar.org/articles/weapons_M39_armoured_utility_vehicle.html, 2020. 8. 27.
- https://www.reddit.com/r/TankPorn/comments/evtp6j/dramatic_dismount_from_an_m39_armored_utility/, 2020. 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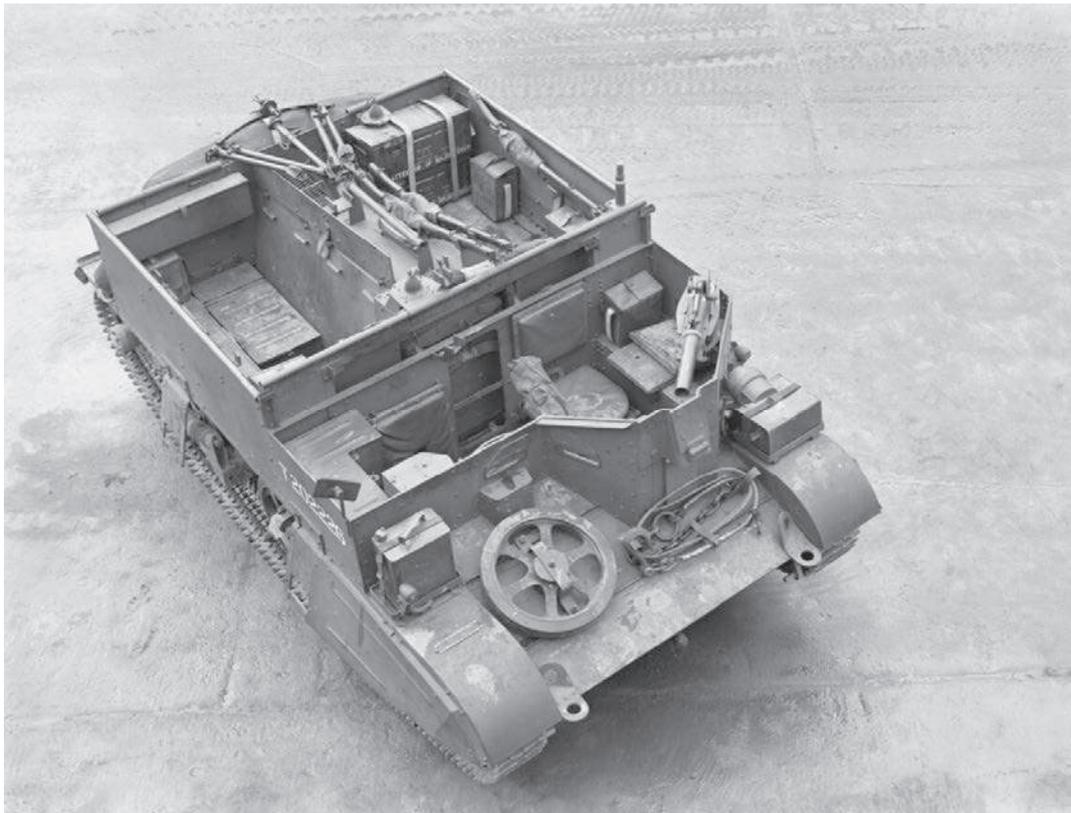
범용 수송차

Universal carrier

개요

범용 수송차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에서 제작된 경장갑의 궤도 차량으로 6·25전쟁 기간 영연방 국가들이 다용도 차량으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영국군의 범용 수송차(Universal carrier Mk. II).

© IWM

범용 수송차는 1940년에 영국군이 여러 회사에서 생산 중이던 경량 장갑차들을 하나의 모델로 통일한 궤도차량이다. 브렌기관총을 운반할 목적으로 제작된 궤도차량이 그 연원이라는 점에서 브렌기관총 수송차(Bren Gun Carrier) 또는 브렌수송차(Bren Carrier)라고도 불린다.

범용 수송차로 통일된 후 다양한 파생형들이 개발되었다. 영국에서는 기본형인 Mk.1을 견인용으로 개량한 Mk.2, 엔진덮개를 개량한 Mk.3,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Wasp 등이 제작되었으며, 영국의 범용 수송차를 기반으로 하여 호주에서는 2인치 대전차포 수송차(2-pounder Anti-tank Gun Carrier), 3인치 박격포 수송차(3 inch Mortar Carrier), 캐나다에서는 차체를 76cm 늘린 윈저 수송차(Windsor Carrier)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Mk.1을 개량한 T-16 범용 수송차(T16 Mk.1 Universal Carrier)를 생산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주축국이던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노획한 범용 수송차를 일부 개량하여 사용했다.

범용 수송차는 1960년까지 영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11만대 이상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은 장갑차 중의 하나

범용 수송차 제원

Universal carrier			
전장	3.9m	전고	1.65m
전폭	1.87m	전투중량	4.22t
엔진	포드 디트로이트, 톤당 18.9제동마력	최고속력	29.25km/h
순항거리	146km	승차인원	4명(최대)
무장	브렌 경기관총(1), 빅커스 중기관총(1)		

출처 : David Boyd, "Carriers-Universal, Bren and Loyd", 31 December 2008.

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연방군이 병력과 장비를 운반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으며, 6·25전쟁 기간에도 영국군과 영연방군의 주력 수송 장갑차로 운용되었다.

참고문헌

David Boyd, "Carriers—Universal, Bren and Loyd", 31 December 2008, <http://www.wiiequipment.com/>, 2020. 8. 28.

David Fletcher, *Universal Carrier 1936–48 : The 'Bren Gun Carrier' Story*(London: Osprey Pub Co, 2005).

"IWM Picture Catalogue No. KID 1033", Imperial War Museums, U.K.





다임러 장갑차

Daimler armoured car

개요

다임러 장갑차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정찰과 연락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영국이 개발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이 주력 장갑차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6·25전쟁 시기 다임러 장갑차를 정비 중인 영국군.

© IWM

다임러 장갑차는 1939년에 생산된 정찰차(Scout Car)인 다임러 덩고(Daimler Dingo)를 기반으로 하여 차체를 대형화하고, 그 위에 Mk.VII 경전차, 일명

테트라크(Tetrach) 경전차의 포탑을 올려 제작된 영국의 기갑전투차량 (AFV)이었다.

다임러 장갑차의 시제 차량은 1939년에 제작되었지만, 무거운 차체로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느라 실제 양산은 1941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총 2,964대가 생산되었으며, 기본형으로 76mm 주포를 장착한 Mk. I, 포탑을 전면 개량한 Mk. II, 포탑을 제거한 지휘차량 등 다양한 모델들이 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활약하였으며, 동남아시아에도 일부가 투입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군과 영연방군이 범용 수송차와 함께 주력 장갑차로 운용하였는데, 특히 정찰과 호위 임무에 많이 투입되었다.

다임러 장갑차 제원

Daimler armoured car			
전장	4.04m	전고	2.26m
전폭	2.47m	전투중량	7.5t
엔진	다임러 6기통 가솔린, 95마력	최고속력	50km/h
순항거리	307km	승차인원	3명
무장	오드넨스 2파운드 대전차포(1), 7.92mm 베사기관총(1)		

출처 : David Boyd, "Daimler Armoured Car", 31 December 2008.

참고문헌

David Boyd, "Daimler Armoured Car", 31 December 2008, <http://www.wwiiequipment.com/>, 2020. 9. 7.

'Equipment Used By the Armoured Car Regiments', "The History of the British 7th Armoured Division", <http://www.desertrats.org.uk/equiparmourarmouredcars.htm>, 2020. 9. 8.

"IWM Picture Catalogue No. BF 259", Imperial War Museums, U.K.



The Korean War

Ⅱ 해상 무기

01. 항공모함
02. 전함
03. 순양함
04. 구축함
05. 호위구축함
06. 기함
07. 유조함
08. 프리깃함
09. 상륙함
10. 잠수함
11. 수송함
12. 소해함
13. 기타 함정





항공모함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및 항공기를 이·착함시킬 수 있는 비행갑판이 설치된 군함이다. 임무에 따라 공격형 항공모함, 호위형 항공모함, 상륙작전용 항공모함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만재배수량에 따라 경항공모함, 중형항공모함, 대형항공모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만재배수량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항공모함은 2만 톤 이하, 중형항공모함은 2~5만 톤, 대형항공모함은 5만 톤 이상이다.

〈표〉 6 · 25전쟁 참전 미국 항공모함

구 분	함 정 명	
에섹스급 (Essex class)	USS Essex CV-9	USS Boxer CV-21
	USS Bon Homme Richard CV-31	USS Leyte CV-32
	USS Kearsage CV-33	USS Oriskany CV-34
	USS Antietam CV-36	USS Princeton CV-37
	USS Lake Champion CV-39	USS Valley Forge CV-45
	USS Philippine Sea CV-47	
인디펜던스급 (Independence class)	USS Bataan CVL-29	
커멘스먼트 베이급 (Commencement Bay class)	USS Rendova CVE-114	USS Bairoko CVE-115
	USS Badoeng Strait CVE-116	USS Sicily CVE-118
카사블랑카급 (Casablanca class)	USS Corregidor CVE-58	USS Tripoli CVE-64
	USS Cape Esperance CVE-88	USS Windham Bay CVE-92

6·25전쟁 기간 미국은 중형항공모함에 해당하는 에섹스(Essex)급 11척과 경항공모함에 해당하는 인디펜던스(Independence)급 경항공모함 1척, 커멘스먼트 베이(Commencement Bay)급 호위항공모함 4척, 카사블랑카(Casablanca)급 호위항공모함 4척 등 총 20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과 호주가 6·25전쟁 기간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영국은 만재배수량 2만 톤의 경항공모함 콜로서스(Colossus)급 4척과 항모전단을 따라다니며 지원과 수리를 담당하는 유니콘(Unicorn)급 항공정비모함 1척 등 총 5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영국 항공모함

구 분	함 정 명	
콜로서스급 (Colossus Class)	HMS Triumph(R16)	HMS Glory(R62)
	HMS Theseus(R64)	HMS Ocean(R68)
유니콘급 (Unicorn Class)	HMS Unicorn(I72)	

호주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구입하여 1948년에 취역시킨 마제스틱(Majestic)급 경항공모함 1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호주 항공모함

구 분	함 정 명
마제스틱급 (Majestic class)	HMAS Sydney(R17)

참고문헌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James L George 저, 허홍범 역, 『군함의 역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웹사이트 주소 : <https://www.history.navy.mil/>).



에섹스급 항공모함

Essex class aircraft carrier

개요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미 해군이 20세기에 가장 많이 건조한 디젤 중형 항공모함으로 총 24척이 건조되었다. 100여 대의 각종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었으며, 6·25전쟁 기간 총 11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1년 9월 4일 항해 중인 에섹스급 항공모함 박서함(CV-21).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에섹스(Essex)급 항공모함은 미 해군이 1940년 2월 초도함인 에섹스 항공모함(CV-9)을 주문한 이후 총 24척이 건조되었으며, 1942년부터 순차적으로 취역하기 시작했다.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이후 항공모함 건조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조속도가 빨라졌다. 1943년 11월 타라와 전투(Battle of Tarawa)부터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태평양전쟁 후반기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요크타운(Yorktown)급 항공모함 요크타운(CV-5), 엔터프라이즈(CV-6), 호넷(CV-8) 등 3척을 대체하였으며, 항모전단을 이루어 큰 활약을 펼쳤다.

에섹스급 제원

구 분	Essex(CV-9)
기준배수량	27,208톤
만재배수량	34,881톤
전장	270.66m
전폭	28.34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8기 • Westinghouse 증기터빈 4기 • 추진축(Shaft) 4기 • 150,000마력
최고속력	32.7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4문 • 5인치(127mm) 38구경 단장포 4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8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46문
함재기	91대
승조원	2,682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04.

비고 : 에섹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 탑재 수량은 최소 91대에서 최대 120대까지이며, 무장도 항공모함마다 약간씩 달랐다.

중형 항공모함인 만큼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도 기존 항공모함에 비해 약 30대 가량 많았다. 기존 항공모함 비행단은 전투비행대대(VF), 폭격비행대대(VB), 정찰비행대대(VS), 어뢰공격비행대대(VT) 등 4개 대대가 각각 18대를 보유하여 총 72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태평양전쟁 후반기에 1개 F6F 전투비행대대 18대, 4개 F4U 전투공격비행대대 72대, 1개 어뢰공격비행대대 12대 등 총 100여 대를 탑재했다. 이들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1952년 10월 1일 제식명을 CV(항공모함)에서 CVA(공격형항공모함)로 바꿨다.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에섹스(Essex, CV-9), 박서(Boxer, CV-21), 본홈 리처드(Bon Homme Richard, CV-31), 레이테(Leyte, CV-32), 키어사지(Kearsage, CV-33), 오리스크아니(Oriskany, CV-34), 앤티탐(Antietam, CV-36), 프린스턴(Princeton, CV-37),레이크 챔플레인(Lake Champlain, CV-39), 밸리 포지(Valley Forge, CV-45), 필리핀 시(Philippine Sea, CV-47) 등 총 11척이 순차적으로 참전했다.

6·25전쟁에 제일 먼저 투입된 항공모함은 밸리 포지함이었다. 미 제7함대 제77부대(TF77) 소속이었던 밸리 포지함은 1950년 6월 27일 필리핀 수빅만을 출항하여 7월 1일부터 한국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갔다. 밸리 포지함의 함재기들은 7월 3일 평양을 폭격하면서 전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후 북한지역 폭격과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했다. 밸리 포지함은 1953년 6월 25일 미국으로 완전히 복귀할 때까지 6·25전쟁 기간 총 4차에 걸쳐 참전했다.

밸리 포지함 이외에도 1950년 7월에는 항공모함 박서함이 미 제5공군에 인도할 F-51 머스탱을 탑재하고 7월 23일 일본 요코스카(横須賀)에

입항했다. 박서함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도쿄만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데 걸린 시간이 200시간에 불과해 당시 태평양횡단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박서함은 8월 4일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8월 말 다시 파견되었다.



항공모함 필리핀 시함(CV-47)의 항해 모습(1952. 3. 12).

© 국사편찬위원회

1950년 8월에는 항공모함 필리핀 시함이 제77부대에 합류했다. 이 무렵 제214·제323 해병항공대를 탑재한 커멘스먼트 베이(Commencement Bay)급 호위항공모함(CVE) 바둥 스트레이트(Bodoeng Strait)함과 시실리(Sicily)함도 한국 해역에 도착하면서 해상전력이 극대화되었다. 필리핀 시함은 8월 5일 제77부대의 기함이 되었으며, 벨리 포지함과 순환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과 북한군 보급로 차단, 유엔 지상군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항공모함 본홈 리처드함은 1951년 5월 29일 제77부대에 합류하여 31일부터 작전에 투입되었다. 11월 중순까지 제1차 작전 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1952년 5월 20일 다시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제 2차 작전 임무를 수행한 후 12월 중순에 한국 해역을 떠났다.

에섹스급 항공모함의 1번함인 에섹스함은 1951년 8월~1952년 3월, 1952년 7월~1953년 1월까지 2차에 걸쳐 참전했다. 항공모함 키어사지함은 1952년 9월 14일 제77부대에 합류하여 1953년 2월 말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항공모함 오리스카니함은 1952년 10월 31일 제77부대에 합류한 후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을 오가며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3년 4월 22일 한국 해역을 떠났다. 항공모함 레이크 챔플레인함은 1953년 6월 14일 서해에 도착하여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미 해군이 전투에 참전한 함정들에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받은 횃수는 다음과 같다. 그 횃수가 많을수록 작전에 참가한 빈도가 높고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25전쟁 참전 에섹스급 항공모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횃수

함정명	수상 횃수	함정명	수상 횃수
에섹스(Essex, CV-9)	4회	박서(Boxer, CV-21)	8회
본홈 리처드 (Bon Homme Richard, CV-31)	5회	레이테(Leyte, CV-32)	2회
키어사지 (Kearsage, CV-33)	2회	오리스카니 (Oriskany, CV-34)	2회
앤티탐(Antietam, CV-36)	2회	프린스턴 (Princeton, CV-37)	8회
레이크 챔플레인 (Lake Champlain, CV-39)	...	밸리 포지 (Valley Forge, CV-45)	8회
필리핀 시 (Philippine Sea, CV-47)	9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6·25전쟁 기간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전선의 상황 변화에 따라 2~5척이 순환하면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에섹스급 항공모함은 당시 규모가 가장 컸던 항공모함으로 자체 무장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항모전단을 이끌며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특히 항공모함에 탑재된 100여대의 함재기들은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 후방차단작전 수행, 지상군 항공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항공모함은 6·25전쟁 기간 유엔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무기 중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Essex IV(CV-9)", "Boxer V(CV-21)", "Bon Homme Richard II(CV-31)", "Leyte III(CV-32)", "Kearsage III(CV-33)", "Oriskany(CV-34)", "Antietam II(CV-36)", "Princeton V(CV-37)", "Lake Champlain II(CV-39)", "Valley Forge(CV-45)", "Philippine Sea I(CV-47)",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Steelnavy.com, "Essex Class Aircraft Carrier Data", http://www.steelnavy.com/essex_data.htm#Data, 2020.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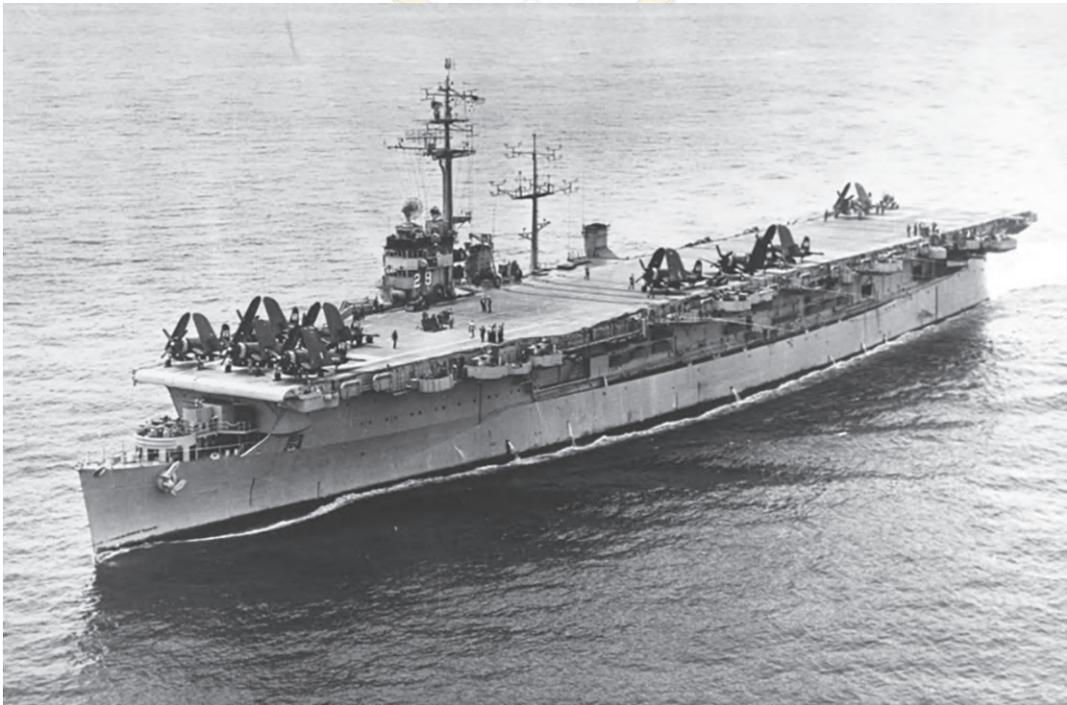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 Independence class light aircraft carrier

개요

인디펜던스급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해군이 클리브랜드급 순양함 건조계획을 일부 취소하고 급조해서 만든 경항공모함으로 총 9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2년 미 해병 제314전투비행대대 항공기들을 탑재하고 운항 중인 바탄함(CVL-2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인디펜던스(Independence)급 항공모함은 1942년 8월에 초도함인 인디펜던스(CVL-22)가 건조된 후 1943년 9월까지 총 9척이 건조된 미국의 경항공모함(CVL)이었다. 당시 미 해군은 경항공모함 건조계획이 없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클리브랜드급 순양함을 개

인디펜던스급 제원

구 분	Independence(CVL-22)
기준배수량	10,662톤
만재배수량	14,751톤
전장	189.74m
전폭	21.79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추진축(Shaft) 4기 • 100,000마력
최고속력	31.6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2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8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22문
함재기	30대
승조원	1,569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05.

비고 :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의 제원은 함정마다 약간씩 달랐다.

조하여 경항공모함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발주하여 제작에 들어간 순양함 중 9척을 급히 항공모함으로 개조했다. 그 결과 인디펜던스급 항공모함은 탑재 항공기 수가 최대 33대에 불과한 소형 항공모함이 되었다. 톤수는 작았지만 31.6노트에 이르는 속력으로 전투부대 함정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경우가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형 항공기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인디펜던스급 항공모함의 운용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6·25전쟁 기간에도 바탄함(Bataan, CVL-29) 1척만이 참전했다.

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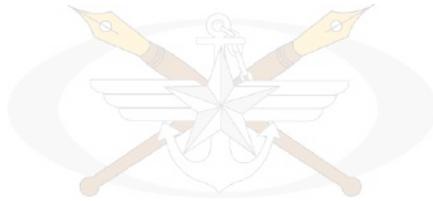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6·25전쟁 기간 인디펜던스급 항공모함은 바탄함이 유일하게 참전했다. 바탄함은 흥남철수작전 때 러블(R. W. Ruble) 소장이 지휘하는 제96.8전대(TG96.8, 항모호송전대)에 배속되었다. 제96.8전대는 본래 예하에 커멘스먼트 베이(Commencement Bay)급 호위항공모함인 시실리함과 바둥 스트레이트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상군과 흥남해역의 호송선단에 대한 항공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바탄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바탄함에는 미 해병 제314전투비행대대의 F4U 코세어(Corsaire) 함재기들이 탑재되어 있었다.

흥남철수작전 이후에는 중공군의 제3차 공세(일명 ‘신정공세’)로 유엔군이 북위 37도선까지 철수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미 제8군으로부터 항공지원 요청이 증가하자 지상군 지원을 위해 서해안으로 전환 배치되었다. 1951년 1월 3일부로 제95.1전대(TG95.1, 서해안전대)에 배속 전환된 바탄함은 지상군 지원과 공산군 병참선 차단작전, 북한지역 폭격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바탄함은 총 3차에 걸쳐 한국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은 1950년 12월 중순~1951년 6월 초,

1952년 4월~8월, 1953년 2월~5월이었다. 6·25전쟁 참전 기간에 총 7개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수상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ataan I (CVL-29)",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커멘스먼트 베이급 호위항공모함 Commencement Bay class escort aircraft

개요

커멘스먼트 베이급 항공모함은 유조선을 개조하여 만든 미국의 호위항공모함으로 총 19척이 건조되었다. 대형 연료탱크를 갖추고 있어 급유함 역할을 병행하였으며, 6·25전쟁 기간 총 4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군 커멘스먼트 베이급 호위항공모함 바둥 스트레이트함(CVE-116).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커멘스먼트 베이(Commencement Bay)급 항공모함은 미 해군이 1943년 9월에 초도함인 커멘스먼트 베이(CVE-105)를 주문한 이후 총 19척을 건조한 호위항공모함(CVE)이다. 본래 미 해군은 35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16척의 건조계

커멘스먼트 베이급 제원

구 분	Commencement Bay(CVE-105)
기준배수량	18,908톤
만재배수량	21,397톤
전장	169.9m
전폭	22.86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ustion Engineering 보일러 4기 • Allis-Chalmers 증기터빈 2기 • 추진축(Shaft) 2기 • 16,000마력
최고속력	19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3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1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20문
함재기	33대
승조원	1,06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11.

비고 : 커멘스먼트 베이급 호위항공모함의 제원은 함정마다 약간씩 달랐다.

획을 취소했다. 1944년 5월 초도함인 커멘스먼트 베이함을 시작으로 1946년 1월 타이니안함(Tinian, CVE-123)까지 총 19척이 차례로 취역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유조선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형 연료탱크를 보유하여 급유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잠함, 헬리콥터 모함, 수송함으로 운용하기도 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렌도바함(Rendova, CVE-114), 바이로코함(Bairoko, CVE-115), 바둥 스트레이트함(Badoeng Strait, CVE-116), 시실리함(Sicily, CVE-118) 등 총 4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제일 먼저 투입된 호위항공모함은 바둥 스트레이트함과 시실리함이었다.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미 해병 제1비행단의 항공기와 항공요원들을 싣고 1950년 7월 31일 일본 고베(神戸)항에 도착했다.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제77부대(TF77) 또는 제95부대(TF95)에 소속되어 총 3차에 걸쳐 한국에 파견되었다. 1951년 1월 23일까지 첫 번째 파견임무를 수행한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이 기간에 낙동강 방어선의 유엔 지상군 지원, 인천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등을 수행했다. 제2~3차 파견은 각각 1951년 10월 2일~1952년 2월 14일, 1952년 10월 6일~1953년 2월 11일까지로, 이 기간에 바둥 스트레이트함은 해병비행단의 항공기들을 운용하는 한편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했다.

시실리함은 1950년 7월 4일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제15항모분대 기함이 되었으며, 포항지역의 지상군 지원,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장진호 철수작전 등에 참전했다. 시실리함은 6·25전쟁 당시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1950년 7월 4일~1951년 2월 5일, 1951년 5월 13일~

10월 12일, 1952년 5월 8일~12월 4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렌도바함은 1951년 9월 2일 TG95.1 서해안전대의 시실리함과 교대하기 위해 일본 고베에 도착했다. 미 제212전투비행대대를 탑재한 렌도바함은 TE95.11 서해안분대의 영국 항공모함 글로리함(Glory)과 교대하여 그 임무를 수행했다. 렌도바함은 9월 26일 제212전투비행대대의 근접항공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투작전 임무에 들어갔으며, 12월 6일 마지막 작전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호주의 마제스틱(Majestic)급 항공모함인 시드니함(Sydney)과 함께 서해안 지역에서 유엔 지상군 지원과 해상 봉쇄 작전을 전개했다.

바이로코함은 1950년 1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제1차 파견은 1950년 11월 14일부터 1951년 8월 15일까지, 제2차 파견은 1951년 12월 1일부터 1952년 6월 9일까지, 제3차 파견은 1953년 2월부터 8월까지였다. 작전 기간에 바이로코함은 대잠작전을 수행하면서 탑재한 미 해병항공대가 북한군과 중공군의 병력집결지, 시설, 수송설비 등을 공격했다.

6·25전쟁 기간 커멘스베이급 항공모함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커멘스먼트 베이급 항공모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렌도바 (Rendova, CVE-114)	2회	바이로코 (Bairoko, CVE-115)	3회
바둥 스트레이트 (Badoeng Strait, CVE-116)	6회	시실리(Sicily, CVE-118)	5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Rendova(CVE-114)", "Bairoko(CVE-115)", "Badoeng Strait(CVE-116)", "Sicily(CVE-118)",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카사블랑카급 호위항공모함

Casablanca class escort aircraft carrier

개요

카사블랑카급 항공모함은 기존의 선박을 개조하여 만든 커멘스먼트 베이급 호위항공모함과 달리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하여 제작된 미국의 호위항공모함으로 총 50척이 건조되었다. 이 중 6·25전쟁 기간에는 총 4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군의 카사블랑카급 호위항공모함 트리폴리함(CVE-64).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카사블랑카(Casablanca)급 항공모함은 1942년 11월에 초도함인 카사블랑카함(CVE-55)이 건조된 후 1944년 7월까지 총 50척이 건조된 미국의 호위항공모함(CVE)이다. 이 항공모함은 당시 다른 항공모함들이 수송선이나 유조선 등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과 달리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설계되어 제작되었다. 호위항공모함 발전사에서 상가몬급(Sangamon Class)과 커멘스먼트 베이급(Commencement Bay Class)

카사블랑카급 제원

구 분	Liscome Bay(CVE-106)
기준배수량	8,188톤
만재배수량	10,902톤
전장	156.14m
전폭	19.86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Skinner Unaflow 터빈 2기 • 추진축(Shaft) 2기 • 9,000마력
최고속력	19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4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12문
함재기	27대
승조원	86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09.

비고 : 리스컴 베이함(Liscome Bay, CVE-106)은 카사블랑카급 2번함이며, 카사블랑카급 항공모함의 제원은 함정마다 약간씩 달랐다.

중간에 위치한다. 초도함이 건조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50척이 만들어질 만큼 다량으로 건조되었다. 따라서 선체의 장갑이나 엔진 등의 성능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당대 흔히 사용되던 증기터빈이 아닌 구식의 유니플로 레시프로케이팅 엔진 (uniflow reciprocating engine)을 사용하여 속도가 느렸다. 그러나 선단 호위와 지상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속력이 느린 것이 큰 제약요소가 되지는 않았다. 건조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특히 6·25전쟁처럼 적 해상세력의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치가 더욱 컸다. 6·25전쟁 기간에는 코레이도르함(Corregidor, CVE-58), 트리폴리함(Tripoli, CVE-64), 케이프 에스페란스함(Cape Esperance, CVE-88), 윈덤 베이함(Windham Bay, CVE-92) 등 총 4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카사블랑카급 항공모함은 해상수송지원부대(MSTS :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소속으로 병력과 전투기 수송 임무를 맡았다.

코레이도르함은 미국의 상호방위원조계획(MDAP)에 따라 유럽지역 원조대상국가에 군용물자 수송역할을 담당하다가 1952년부터 6·25전쟁에 참전하는 병력과 군수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코레이도르함은 6·25전쟁 기간 총 5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병력과 군수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트리폴리함도 코레이도르함처럼 유럽지역 수송임무를 담당하다가 1952년 8월~9월 두 차례에 걸쳐 F-84전투기와 관련 장비들을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수송했으며, 미국으로 복귀할 때에는 미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을 싣고 귀국했다.

케이프 에스페란스함과 윈덤 베이함은 6·25전쟁 기간 전투기와 군수품을 일본으로 수송했다는 기록이 ‘미 해군 항공모함 일람’에서 확인되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orregidor(CVE-58)”, “Tripoli I(CVE-64)”, “Cape Esperance(CVE-88)”, “Windham Bay(CVE-92)”,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

Colossus class light fleet aircraft carrier

개요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에서 건조된 경항공모함으로 총 8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4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2년 7월 12일 평양 공습을 위해 항구를 출발하는 영국 콜로서스급 항공모함 오션함(HMS Ocean, R68).

© IWM

콜로서스(Colossus)급 항공모함은 1943년 9월 30일에 초도함 콜로서스함(R15)이 건조된 후 1944년 10월까지 총 8척이 건조된 영국의 경항공모함(RT)이다.

영국 해군은 1942년 2월에 경항공모함 건조계획을 승인하고 3월부터 초도함인 콜로서스함을 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총 15척의 항공모함 건조를 발주했다. 8개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되어 1944년 10월까지 8척이 진수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계획된 16척 중 2척이 항공정비모함으로,

콜로서스급 제원

구 분	Colossus(R15)
기준배수량	13,190톤
만재배수량	18,040톤
전장	211.22m
전폭	24.3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 Parsons Geared 터빈 4기 • 40,000마력
속력	2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파운드 4연장 폼폼(pompom) 대공포 6문
함재기	37대
승조원	1,30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22.

비고 :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의 제원은 함정마다 약간씩 달랐다. 특히 무장의 경우, 6·25전쟁에 참전한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은 40mm 보포스 2연장포 4문과 20mm 오리론 대공기관포 12문으로 무장했다.

6척이 마제스틱(Majestic)급 경항공모함으로 변경·건조되어 최종적으로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8척만이 건조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6·25전쟁 기간에 트라이엄프함(HMS Triumph, R16), 글로리함(HMS Glory, R62), 테세우스함(HMS Theseus, R64), 오션함(HMS Ocean, R68) 등 4척이 참전하여 첫 실전을 경험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영국 항공모함이 첫 전투를 시작한 것은 1950년 7월 3일이었다. 이날 제77부대(TF77)에 배속된 영국 트라이엄프함(R16)이 미국 에섹스급 항공모함 밸리 포지함(Valley Forge, CV45)과 함께 해주와 평양지역을 공격했다. 이날 트라이엄프함의 함재기들은 해주의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파괴하고 인근의 철도와 교량을 폭격했다. 공격기 편대는 북한군의 대공 포화로 약간의 피해를 입었으나 모든 항공기가 무사히 귀환했다.

트라이엄프함의 북한지역에 대한 작전은 1950년 7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7월 18일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George E. Stratemeyer) 장군의 요청에 따라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제독이 제77부대에 북위 37도 북쪽과 동경 127도 동쪽에 위치한 북한지역 표적들을 공습하도록 명령했다. 트라이엄프함은 밸리 포지함과 더불어 북한지역 목표물 공격에 투입되었다. 7월 24일에 공격을 마친 트라이엄프함은 전선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지상군 지원을 위해 서해안으로 이동했다.

트라이엄프함은 1950년 8월 8일 제96.5전대(TG96.5) 예하 서해안지원단대(TE 96.53)에 배속되었다. 당시 서해안지원단대는 앤드류스(William G. Andrewes) 제독의 지휘 아래 영연방 함정과 네덜란드 구

축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트라이엄프함이 서해안지원단대에 배속됨에 따라 서해안지원단대는 독자적인 항공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서해안은 수로조진 때문에 대형 함정이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는 관계로 트라이엄프함의 항공기가 유용하게 운용될 수 있었다. 트라이엄프는 9월 24일 테세우스함과 임무를 교대했다.

트라이엄프함에 이어 두 번째로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 테세우스함은 1950년 10월 9일 대동강 하구 진남포를 공격하는 것으로 첫 전투를 시작했다. 당시 테세우스함은 TE95.11의 기함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기존의 TE96.53이 TE95.11로 소속이 변경된 것은 1950년 10월 7일에 서해안지역 작전부대의 명칭이 TE95.10부터 TE95.16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6·25전쟁 기간 테세우스함은 일본 사세보항을 모기지로 하여 1951년 봄까지 10차례에 걸쳐 출동했다. 특히 12월 중공군의 공세로 유엔군이 북한지역에서 전면철수를 할 때 진남포 철수작전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세 번째로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글로리함이었다. 글로리함은 1951년 4월~9월, 1952년 1월~5월, 1952년 11월~1953년 5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참전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전한 오션함은 1952년 5월부터 10월까지, 1953년 5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에 걸쳐 파견되었다. 오션함의 함재기들은 북한지역 폭격은 물론 청천강~압록강 사이의 소위 ‘미그회랑(MiG Alley)’에서 소련제 MiG-15기와 공중전을 벌여 이를 격추하기도 했다.

영국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6·25전쟁 전 기간에 영국 극동함대 소속의 4척이 순환교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서해안 지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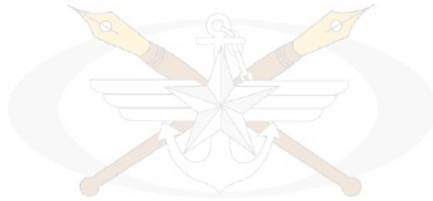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IWM Picture Catalogue No. A 32260”, Imperial War Museums,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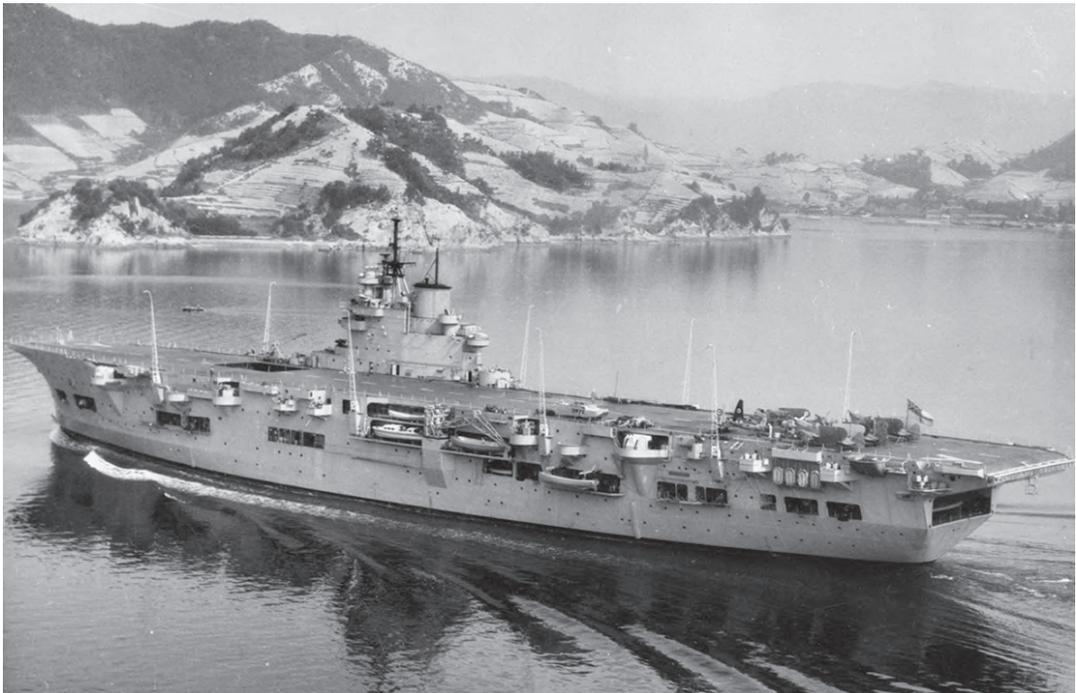
유니콘급 경항공모함

Unicorn class light fleet aircraft carrier

개요

유니콘급 항공모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에서 건조되었으며, 항공모전단을 지원하거나 자체 항공모함 기능을 가진 정비항공모함이었다. 총 1척이 제작되었으며, 이 항공모함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8월 항해 중인 유니콘함(HMS Unicorn, 175).

© IWM

유니콘(Unicorn)급 항공모함은 영국 해군이 1939년 4월에 주문하여 1943년 3월 12일에 건조가 완료된 정비항공모함이다. 영국은 계속해서 유니콘급을 건조하려 하였으나 경제 악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따라서 유니콘급은 초도함인 유니콘함(Unicorn, I75)이 유일하다. 정비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영국 해군은 유니콘급 대신 당시 건조 중이던 콜로서스(Colossus)급 경항공모함 페르세우스함(Perseus, R51)과 파이오니어함(Pioneer, R76)을 정비항공모함으로 개조했다.

유니콘급 제원

구 분	Unicorn(I75)
기준배수량	14,750톤
만재배수량	20,300톤
전장	196.9m
전폭	27.43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 Parsons Geared 터빈 4기 • 40,000마력
최고속력	24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치 QF Mk. X VI 2연장포 4문 • 2파운드 4연장 폼폼(pompom) 대공포 4문
함재기	35대
승조원	1,20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21.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유니콘함은 1944년 11월 호주 시드니에 사령부를 둔 영국 태평양함대가 창설되자 이 함대에 배치되었다가 1946년 1월 영국으로 복귀하여 예비함으로 전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극동함대가 편성되자 유니콘함은 1949년에 이 함대에 배치된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함(HMS Triumph, R16)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역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싱가포르에 정박 중이었으며, 영국 해군의 참전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운 용

1950년 6월 30일 영국은 극동함대 소속의 트라이엄프 경항공모함을 비롯해 2척의 경순양함, 3척의 구축함, 4척의 프리깃함을 한국 해역에 파견했다. 영국 해군성은 한국 해역에서 작전하는 항공모함 트라이엄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항공모함인 유니콘함도 함께 파견했다. 유니콘함은 1950년 7월 11일 싱가포르를 떠나 7월 20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했으며, 도착 직후 트라이엄프함에 12대의 항공기를 전달했다.

1950년 8월에는 영국 지상군 병력을 수송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 최초의 지상군인 미들섹스연대 제1대대와 제27여단본부를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동시켜 8월 29일 부산에 도착했다. 영연방 국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와 보급품, 장비와 병력의 상당 수가 유니콘함을 이용해 수송되었다. 특히 1951년 3월에 6·25전쟁 기간 호주 공군이 사용했던 제트 전투기인 미티어기(Meteor)도 유니콘함을 통해 운반되었다. 호주 공군은 그전까지 F-51머스탱을 사용하다가 유니콘함이 신고 온 미티어기를 사용하면서 전투력이 증강되었다.

유니콘함은 6·25전쟁 기간 때때로 항공모함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도 하였으며, 전투함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952년 9월에는 전투기를 탑재하고 작전을 펼쳤으며, 한때 북한군 해안포대에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유니콘함은 1952년 말 전선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한국 해역에서의 작전활동을 모두 끝내고 일본을 거쳐 싱가포르로 복귀했다. 6·25전쟁 기간 서해안지역을 담당하던 영연방 해군에게 유니콘함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다. 상당 부분의 해상지원이 유니콘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⑪(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Randal Gray, *Warship VIII*(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84).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IWM Picture Catalogue No. A 31695", Imperial War Museums, U.K.
- Wikipedia, "1942 Design Light Fleet Carrier", https://en.wikipedia.org/wiki/1942_Design_Light_Fleet_Carrier, 2020. 4. 24.



마제스틱급 항공모함

Majestic class light fleet aircraft carrier

개요

마제스틱급 항공모함은 영국의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의 개량형으로 총 6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호주에 인도된 1척이 호주 해군 시드니함으로 명명되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돌아와 멜버른항에 정박 중인 호주 해군의 시드니함(HMAS Sydney, R17).
© Royal Australian Navy

마제스틱(Majestic)급 항공모함은 영국 해군의 콜로서스(Colossus)급 항공모함을 개량한 것이다. 영국 해군은 1942년 2월에 경항공모함 건조계획을 승인하고 3월부터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 본래 영국 해군은 16척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중간에 2척의 건조계획을 취소하고 8척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항공정비모함(2척)과 마제스틱(Majestic)급 경항공모함으로 개량했다.

마제스틱급 항공모함 제원

구 분	마제스틱급	
	최초 설계안	Sydney(R17)
기준배수량	14,000톤	15,740톤
만재배수량	17,780톤	19,550톤
전장	211.83m	212.75m
전폭	24.38m	24.3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 Parsons Geared 터빈 4기 • 40,0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 Parsons Geared 터빈 4기 • 40,000마력
최고속력	25노트	24.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파운드 4연장 품품 대공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단장포 19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단장포 18문
함재기	37대	최대 38대
승조원	1,300명	1,30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22 ; "HMAS Sydney (R17)", wikipedia.

비고 : 마제스틱(Majestic)급 경항공모함은 함정마다 제원이 약간씩 달랐다. 특히 외국으로 인도된 항공모함의 제원이 최초 설계안과 차이가 있었다.

영국 해군이 콜로서스급을 마제스틱급으로 개량한 것은 기체가 커지고 속도가 빨라진 함재기들과 새롭게 개발된 대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콜로서스급에 비해 마제스틱급 항공모함은 사출기, 착함케이블, 항공기 리프트 등이 무겁고 빠른 함재기들에 맞도록 개량되었으며, 비행갑판도 두꺼워졌다. 또한 무장면에서도 40mm 보포스 대공포와 레이다를 장착하였으며, 해상보급을 위한 장비도 추가되었다.

마제스틱급 항공모함은 1943년 4~11월 주문되어 1945년 9월까지 총 6척이 진수되었다. 그러나 취역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6척 중 4척이 호주(2척), 캐나다(1척), 인도(1척)에 판매되었고, 1척이 예비부품 확보를 위해 해체되어 폐함되었다. 1947년 호주에 인도된 테러블함(HMS Terrible)이 1948년 12월에 호주 해군의 시드니함(HMAS Sydney, R17)으로 취역하였으며, 이 시드니함이 6·25전쟁에 참전한 유일한 마제스틱급 항공모함이었다.

운 용

마제스틱급 항공모함 중 6·25전쟁에 유일하게 참전한 호주 해군의 시드니함은 1951년 8월 3일 구축함 토브루크함(HMAS Tobruk, D37)의 호위를 받으며 일본을 향해 호주를 떠났다. 이에 앞서 한국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구축함 워라문가함(HMAS Warramunga, D123)과 교대하기 위해 8월 2일 브리즈번에서 출항한 구축함 안작함(Anzac)이 시드니함과 토브루크함을 선도했다. 항공모함 시드니에는 제805·제808·제817비행대대의 시퓨리(Sea Furies)와 파이어플라이(Firefly) 함재기들과 헬리콥터 1대가 탑재되어 있었다.

시드니함은 1950년 10월 4일 서해안 공습임무를 시작으로 한국 해역에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4일 후인 10월 10일에는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11~12일 이틀 동안 함재기들이 북한군 병력 집결지와 차량들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 후 시드니함은 잠시 일본 사세보항으로 갔다가 10월 18일 한국 해역으로 돌아와 95.11전대(TG95.11) 예하 서해안단대(TE95.11)에 배속되어 진남포 등 북한 서해안 지역 폭격과 해상봉쇄 작전을 수행했다.

시드니함은 1951년 1월 25일 작전 임무를 종료하고 한국 해역을 떠났다. 주로 서해안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시드니함은 일본과 한국을 오갔던 시간을 빼고 총 64일 동안 작전을 수행했다. 시드니함의 함재기들은 총 2,366회의 출격횟수를 기록했으며, 20mm 기관포 탄약 26만 9,249발, 로켓 6,359발, 500파운드와 1,000파운드 폭탄 902발을 소모했다. 작전 기간에 시드니함의 함재기 10대가 격추되었으며, 전사 1명, 실종 2명, 부상 6명의 인명손실이 있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⑦(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2010).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Randal Gray, *Warship VIII*(London: Conway Maritime Press, 1984).
- Royal Australian Navy, "HMAS Sydney(III)", <https://www.Navygov.au/>, 2020. 5. 7.
- Wikipedia, "HMAS Sydney (R17)", [https://en.wikipedia.org/wiki/HMAS_Sydney_\(R17\)](https://en.wikipedia.org/wiki/HMAS_Sydney_(R17)), 2020. 5. 8.



전함 Battleship

전함은 크고 강력한 함포와 두꺼운 갑판 및 수중 보호판으로 무장하고, 빠른 속도로 함대함·함대지 전투를 수행하는 대형 군함이다. 항공모함이 등장하면서 전함은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 태평양전쟁의 교훈은 항공모함을 해전의 주역으로 만들었고, 전함은 보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유엔군이 제해권을 장악한 6·25전쟁 기간에는 대구경의 함포를 장착한 전함이 북한지역 포격과 지상군 지원작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한 만재배수량 약 57,000톤의 아이오와급(Iowa Class) 전함 4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전함

구분	함정명	
아이오와급 (Iowa Class)	아이오와(Iowa, BB-61)	뉴저지(New Jersey BB-62)
	미주리(Missouri, BB-63)	위스콘신(Wisconsin, BB-64)

참고문헌

-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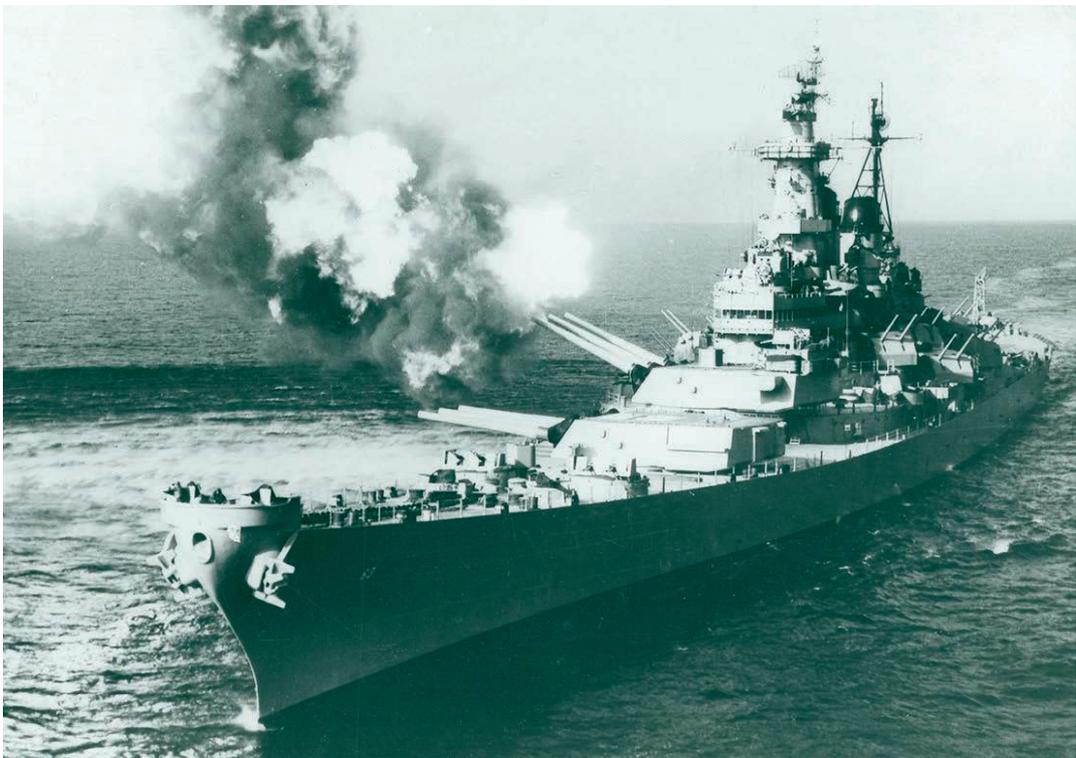
아이오와급 전함

Iowa class Battleship

개요

아이오와급 전함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 야마토급 다음으로 큰 미국의 전함으로 만재배수량이 약 57,000톤이었다. 아이오와, 뉴저지, 미주리, 위스콘신 등 총 4척이 건조되었으며, 4척 모두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0월 동해에서 청진을 함포사격 중인 전함 미주리함(BB-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아이오와(Iowa)급 전함은 1942년 8월 초도함인 아이오와함이 진수된 것을 시작으로 총 4척이 건조되었다. 기준배수량이 48,110톤, 만재배수량이 57,540톤이었던 아이오와급 전함은 기준배수량이 64,170톤이었던 일본의 야마토(Yamato)급 전함인 야마토함과 무사시함(Musashi) 다음으로 큰 전함이었다.

아이오와급 전함은 최대속력이 32.5노트로, 당대 전함들 중 가장 빠른 전함이었다. 16인치 주포 9문을 보유하였으며, 270.43m에 달하는 선체 길이는 당대 군함 중 최대였다. 전폭은 32.96m로 선체 길이에 비해 짧았는데, 이는 파나마운하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오와급 전함 4척 모두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건조되었는데, 초도함인 아이오와함(Iowa, BB-61)이 1942년 8월 27일, 2번함 뉴저지함(New Jersey, BB-62)이 1942년 12월 7일, 3번함 미주리함(Missouri, BB-63)이 1944년 1월 29일, 4번함 위스콘신함(Wisconsin, BB-64)이 1943년 12월 7일에 각각 진수되었다. 취역은 아이오와함이 1943년 2월 22일, 뉴저지함이 1943년 5월 23일, 미주리함이 1944년 6월 11일, 위스콘신함이 1944년 4월 16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태평양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아이오와급 전함이 취역할 시점에는 이미 항공모함이 해상작전의 주역으로 등장한 때였기 때문에 큰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다. 3번 함인 미주리함은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곳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이오와급 전함은 일시 퇴역하였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재취역하여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4척 모두 6·25전쟁에 참전했다.

아이오와급 제원

구 분	Iowa(BB-61)
기준배수량	48,110톤
만재배수량	57,540톤
전장	270.43m
전폭	32.96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8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212,000마력
최고속력	32.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인치 50구경 3연장포 3문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20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49문
함재기	3대
승조원	1,921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99.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아이오와급 전함 4척이 모두 참전했다. 가장 먼저 참전한 전함은 아이오와급 3번함 미주리함이다. 미주리함은 1950년 8월 19일 미국 노포크항을 출발하여 9월 14일 제95부대(TF95)에 합류했다. 전함으로는 처음 한국 영해에 도착한 미주리함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될 때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삼척 일대에 함포 사격을 가했으며, 9월 말 서해안으로 이동하였다가 10월에 다시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원산상륙작전을 수행했다. 미주리함은 주로 함포사격을 담당하였지만, 기함의 임무도 수행했다. 제95부대 사령관 스미스(Allan E. Smith) 제독, 제7함동부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uble) 제독, 제95.2 전대장 히긴스(John M. Higgins) 제독 등이 미주리함을 기함으로 사용했다. 또한, 미주리함은 항공모함 밸리 포지함(Valley Forge, CV-45)의 호위함으로 운영되었으며, 성진·원산·함흥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에 대한 포격을 담당했다. 흥남철수작전 때에도 참여하여 미 제3사단의 철수를 지원했다.

미주리함은 1951년 3월 19일 원산 해상포위작전에 참가하여 해안포진지를 포격했다. 1952년 4월에는 극동해군사령관, 제7함대사령관, 제95부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수풍댐 폭파 작전회의가 미주리함에서 열렸다. 이후 미주리함은 1953년 4월 7일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를 대상으로 강력한 포격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6·25전쟁에 두 번째로 참전한 아이오와급 전함은 2번함 뉴저지함이다. 뉴저지함은 1951년 5월 20일부터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원산·흥남·성진에 대한 100일간의 해상봉쇄작전에 투입되어 화력지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00일간의 해상봉쇄작전에는 뉴저지함과 더불어 순양함 톨레도함(Toledo)과 6척의 구축함이 함께 했다. 뉴저지함은 북한지역에 대한 포격 이외에도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을 화력지원했다. 1953년 6월 중공군 하계공세 때 뉴저지함의 함포사격은 국군 제1군단이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53년 6월 14일~15일 국군 제1군단 지역의 앵커고지에 대한 함포지원은 국군 제1군단 예

하 제5사단이 이 고지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제7함대사령관 클라크(Joseph J. Clark) 제독은 “뉴저지함은 앵커고지 점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 이후 최대의 함포사격을 가했다. 뉴저지함은 적의 엄폐호 44개 파괴 및 20개 손상, 굴 2개 함몰, 참호 610야드 파괴, 포대 13개 파괴 및 13개 손상 등의 전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뉴저지함은 1953년 7월 26일 원산에 대한 포격을 끝으로 한국 해역에서의 작전을 종료했다.

6·25전쟁에 세 번째로 참전한 아이오와급 전함은 4번함 위스콘신함이다. 위스콘신함은 1951년 11월 2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하여 뉴저지함과 임무를 교대했다. 위스콘신함의 임무도 뉴저지함과 마찬가지로 원산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를 포격하고, 강원도 간성과 고성지역의 국군 제1군단에 화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2년 1월~2월 북한 호도반도에 대한 포격으로 공산군의 병참선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52년 4월 1일 아이오와함과 임무를 교대한 후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 귀국했다.

뉴저지함과 임무교대 한 아이오와함은 1952년 4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동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성진·홍남·고조 등 북한의 해안 도시들이 아이오와의 주요 공격 목표였다. 아이오와함은 1952년 10월 19일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 귀국했다.

6·25전쟁 기간 미 해군의 아이오와급 전함은 4척이 번갈아 가면서 참전했다. 이들 전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을 기지로 하여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 포격과 국군 제1군단에 대한 화력지원을 담당했다. 북한군이 동해안 지역에서 남하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전함의 함포사격 때문이었다. 6·25전쟁 기간 아이오와급 전함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아이오와급 전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아이오와(Iowa, BB-61)	2회	뉴저지(New Jersey, BB-62)	4회
미주리(Missouri, BB-63)	5회	위스콘신(Wisconsin, BB-64)	1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Iowa(BB-61)”, “New Jersey II(BB-62)”, “Missouri III(BB-63)”, “Wisconsin(BB-64)”,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421049 USS Missouri(BB-63)”,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순양함

Cruiser

순양함은 항공모함이나 전함보다 배수량이 작고 구축함보다는 큰 전투함으로 경순양함(CL: Light Cruiser), 중순양함(CA: Heavy Cruiser), 대형순양함(CB: Large Cruiser)으로 분류된다. 경순양함은 10,000톤 이하, 중순양함은 10,000~20,000톤, 대형순양함은 20,000톤 이상

〈표〉 6·25전쟁 참전 미국 순양함

구 분	함 정 명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Baltimore class heavy cruiser)	퀸시(Quincy, CA-71)	세인트 폴 (Saint Paul, CA-73)
	헬레나(Helena, CA-75)	브레머튼 (Bremerton, CA-130)
	톨레도(Toledo, CA-133)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CA-135)
오리건 시티급 중순양함 (Oregon City class heavy cruiser)	로체스터(Rochester, CA-124)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Cleveland class light cruiser)	맨체스터(Manchester, CL-83)	
우스터급 경순양함 (Worcester class light cruiser)	우스터(Worcester, CL-144)	
주노급 경순양함 (Juneau class light cruiser)	주노(Juneau, CL-119)	



이다. 함포, 어뢰, 대공포 등으로 무장하여 적 함대를 상대로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볼티모어급(Baltimore class) 중순양함 6척과 오리건 시티급(Oregon City class) 중순양함 1척, 그리고 클리블랜드급(Cleveland class) 경순양함, 우스터급(Worcester class) 경순양함, 주노급(Juneau class) 경순양함 각각 1척 등 총 10척의 순양함을 파견했다.

미국과 더불어 영국도 경순양함 타운(Town)급 3척과 크라운 콜로니(Crown colony)급 3척 등 총 6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영국 순양함

구 분		함 정 명	
타운급 경순양함 (Town class light cruiser)	사우샘프턴급 (Southampton class)	뉴캐슬 (Newcastle, C-76)	버밍엄 (Birmingham, C-19)
	에든버러급 (Edinburgh class)	벨파스트 (Belfast, C-35)	
크라운 콜로니급 순양함 (Crown colony class cruiser)	피지급 (Fiji class)	케냐(Kenya)	자메이카(Jamaica)
	실론급 (Ceylon class)	실론(Ceylon)	

참고문헌

김석근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Baltimore class heavy cruiser

개요

볼티모어급 순양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직후에 미 해군이 취역시킨 기준배수량 약 14,700톤의 중순양함으로 총 14척이 건조되었으며, 이 중 6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0월 12~13일 청진을 함포사격 중인 헬레나함(CA-75).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볼티모어(Baltimore)급 순양함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미 해군이 기존의 위치타(Wichita, CA-45) 경순양함과 당시 건조 중이던 클리블랜드급(Cleveland class) 경순양함을 기반으로 하여 크기를 늘리고 무장력을 강화한 중순양함이다. 1940년 7월 1일부터 건조되기 시작하였으며, 1942년 7월 28일 초도함인 볼티모어함(CA-68)이 진수된 것을 시작으로 총 14척이 건조되었다. 초도함인 볼티모어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배수량이 14,472톤, 만재배수량이 17,031톤이었으며, 선체 길이 205.26m, 최대속력 33노트, 8인치(203.2mm) 55구경 3연장포

볼티모어급 제원

구 분	Baltimore(CA-68)
기준배수량	14,472톤
만재배수량	17,031톤
전장	205.26m
전폭	21.59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120,000마력
최고속력	33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인치(203.2mm) 55구경 3연장포 3문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1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24문
함재기	4대
승조원	2,039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20.

3문과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6문, 대공 및 어뢰 방어능력을 갖춘 당대 최고의 순양함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취역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은 주로 태평양전선에서 운영되었으며, 종전 후에는 대부분이 예비함으로 전환되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재취역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은 4번함 퀸시함(Quincy, CA-71), 6번함 세인트폴함(Saint Paul, CA-73), 8번함 헬레나함(Helena, CA-75), 9번함 브레머튼함(Bremerton, CA-130), 12번함 톨레도함(Toledo CA-133), 13번함 로스앤젤레스함(Los Angeles, CA-135) 등 총 6척이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6척이 참전했다. 가장 먼저 참전한 중순양함은 12번함 톨레도함이다. 톨레도함은 제5순양함전대 히긴스 제독의 기함으로 1950년 7월 26일 포항 영덕 앞바다에 도착했다. 톨레도함은 7월 27일부터 8월 말까지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을 기지로 하여 동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7월 27일~30일 톨레도함은 맨스필드함(DD-728)을 비롯한 구축함들과 함께 영덕에서부터 38도선에 이르는 동해가도의 북한군 병참선을 포격하였으며, 8월 4일에는 미 공군과 합동으로 동해안의 표적들을 포격한 후 8월 6일 헬레나함과 임무를 교대하고 일본 사세보로 돌아갔다.

전선 상황이 급박해지자 톨레도함은 8월 15일부터 다시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시작하였으며, 이때 오리건 시티급(Oregon City class) 중순양함 로체스터함(Rochester CA-124), 구축함 맨스필드함(Mansfield)·콜렛함(Collet) 등과 함께 성진에서부터 이원해에 이르는 해안선을 포격한 후

8월 26일 다시 사세보항으로 복귀했다.

톨레도함은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9월 13일부터 실시된 인천 주변 지역에 대한 포격과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해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톨레도함은 원산상륙작전에도 참가한 후 10월 22일 제1차 파견 임무를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다.

톨레도함의 제2차 한국 해역 파견은 1951년 4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였으며, 북한의 동해안 주요 항구도시 포격과 국군 제1군단에 대한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제3차 파견은 1952년 9월 12일에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톨레도함은 1953년 2월 28일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면서 6·25전쟁에서의 모든 작전을 종료했다.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8번함인 헬레나함도 톨레도함과 거의 같은 시기에 참전했다. 헬레나함은 1950년 7월 23일 극동해역에 도착하였으며, 8월 7일 북한의 단천지역에 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이날 헬레나함은 경순양함 주노함(Juneau)을 비롯해 여러 구축함들과 함께 단천지역에 함포사격을 가했는데, 이곳은 유엔군사령부가 설정한 한반도 해상봉쇄구역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후 헬레나함은 동해안 전선에서 북진하는 국군 제1군단에 화력을 지원한 후 10월에 1차 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했다. 헬레나함의 제2차 파견은 1951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그해 11월까지 동해에서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와 국군 제1군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제3차 파견은 1952년 6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임무는 제1·2차 작전과 유사했다. 헬레나함은 1952년 11월 24일 일본 요코스카항을 떠나면서 6·25전쟁의 작전 활동을 모두 종결했다.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6번함인 세인트폴함은 6·25전쟁 기간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다. 1950년 11월에 제77부대(TF77)에 합류하여 11월 9일~11일 동해에서 북한 항구도시에 대한 포격과 청진으로 진격하는 국군을

화력 지원하는 것으로 첫 번째 작전을 시작했다. 세인트폴함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북한지역에서 전면 철수 할 때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 철수를 엄호하였으며, 흥남철수작전에도 참여하여 12월 24일까지 화력 지원했다. 이후 세인트폴함은 서해안으로 이동하여 인천 북쪽 해안 지역에 대한 포격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1951년 4월 7일에는 영국 해병 제41특공대의 북한지역 철도 및 터널 파괴 작전을 지원하기도 했다. 세인트폴함은 1951년 6월~9월 미국으로 잠시 복귀하였다가 1951년 11월 27일 원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제2차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세인트폴의 주요 공격 목표는 원산·흥남·성진·청진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였다. 세인트폴함은 1951년 5월에 제2차 임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제3차 임무는 1953년 4월부터 시작했다. 특히 6월에는 전함 뉴저지함과 함께 국군 제1군단의 지상작전을 지원하였으며, 정전협정 체결 일인 1953년 7월 27일 저녁 9시 59분 원산에 마지막 포탄을 발사하고 6·25전쟁에서의 모든 작전을 종결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세인트폴은 한동안 한국 해역에 남아 동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13번함인 로스앤젤레스함은 1951년 5월 31일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6개월 동안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북한군 해안진지를 대상으로 포격 임무를 수행했다. 로스앤젤레스함은 1951년 11월 말까지 제1차 파견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1952년 10월 9일 다시 한국 해역에 돌아왔다. 제2차 파견 때에는 주로 동해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3년 4월에 한국 해역을 떠나 귀국했다.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9번함인 브레머튼함은 1948년 4월에 예비함으로 전환되었다가 1951년 11월 21일에 재취역한 후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2년 9월까지 원산·청진·고저 등 북한지역에 대한 포격 임무를 수행했다. 브레머튼함은 1946년 1월 4일 인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4번함인 퀸시함은 6·25전쟁에 마지막으로 참전한 미 해군의 중순양함이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될 무렵인 1953년 7월에 작전에 투입되어 그해 12월 1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한 후 복귀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미 해군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볼티모어급 순양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퀸시(Quincy, CA-71)	-	세인트폴(Saint Paul, CA-73)	8회
헬레나(Helena, CA-75)	4회	브레머튼(Bremerton, CA-130)	2회
톨레도(Toledo CA-133)	5회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135)	5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Quincy III(CA-71)”, “Saint Paul II(CA-73)”, “Helena III(CA-75)”, “Saint Paul II(CA-73)”, “Bremerton I(CA-130)”, “Toledo I(CA-133)”, “Los Angeles II(CA-135)”,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5822 USS Helena(CA-75)”,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오리건 시티급 중순양함

Oregon class heavy cruiser

개요

오리건 시티급 순양함은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의 대공 방어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상부구조물을 변화시킨 볼티모어급 순양함의 개량형이다. 총 4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순양함 로체스터함(CA-124).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오리건 시티(Oregon City)급 순양함은 볼티모어(Baltimore class)급 중순양함의 대공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갑판의 구조물을 변형시켜 제작된 중순양함이다. 미 해군은 본래 10척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6척을 취소하고 4척만을 건조했다. 초도함인 오리건 시티함(Oregon City, CA-122)이 1945년 6월 9일에 진수되고 1946년 2월 16일에 취역

오리건 시티급 제원

구 분	Oregon City(CA-122)
기준배수량	13,700톤
만재배수량	17,070톤
전장	205.26m
전폭	21.59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120,000마력
최고속력	32.6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인치(203.2mm) 55구경 3연장포 3문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1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20문
함재기	4대
승조원	1,142명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Oregon City(CA-122)", "Rochester III (CA-124)",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20.

하였으며, 2번함 알바니함(Albany, CA-123)이 1945년 6월 30일에 진수되고 1946년 6월 15일에 취역했다. 3번함인 로체스터함(Rochester, CA-124)은 1945년 8월 28일에 진수되고 1946년 12월 20일에 취역하였으며, 4번함인 노샘프턴함(Northampton, CA-125)이 1951년 1월 27일에 진수되고 1953년 3월 7일에 취역했다. 6·25전쟁에는 3번함인 로체스터함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한 미 해군의 오리건 시티급 순양함은 로체스터함이 유일하다. 로체스터함은 6·25전쟁 기간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다.

제1차 파견은 1950년 7월이었다. 미 제7함대 소속이었던 로체스터함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3일 제77부대(TF77) 소속으로 한국 해역에 도착했다. 1950년 7월 18~19일 포항으로 상륙하는 미 제1기병사단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했다.

로체스터함은 1950년 10월~12월에 81일 동안 동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면서 헬리콥터의 이동기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들 헬리콥터는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나 유엔군 실종자들을 찾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로체스터함도 함포사격으로 기뢰를 제거하기도 하였으며, 원산·홍남·성진 등에 대해 함포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로체스터함은 1951년 1월에 제1차 파견 임무를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198일 동안 8인치 포탄 3,265발과 5인치 포탄 2,339발을 발사했다.

로체스터함의 제2차 파견은 1951년 11월 2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1월 28일 고성지역에 250발의 고폭탄을 발사했다. 로체스터함은 1952년 3월 말까지 동해안을 따라 작전을 수행하였

으며, 탑재한 헬리콥터들은 조종사 구조 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4월 초 일주일간 서해안에서 기함으로 운영되다가 제2차 파견 임무를 끝내고 귀국했다.

로체스터함은 1952년 12월 7일 한국 해역에 다시 도착하였으며, 제 77.1지원전대(TG77.1)의 기함으로 활동하다가 1953년 3월에 6·25전쟁에서의 모든 작전활동을 끝내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의 중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6회 수상했다.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Oregon City(CA-122)”, “Rochester III (CA-124)”,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6884 USS Rochester(CA-124)”,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Cleveland class light cruiser

개요

클리블랜드급 순양함은 기존의 경순양함보다 순항 거리를 늘리고 대공과 대어뢰 방어능력을 향상한 경순양함으로 총 27척이 건조되었으며, 그 중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서해안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의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맨체스터함(CL-8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클리블랜드(Cleveland)급 순양함은 기존에 미 해군이 운영하던 브루클린급과 세인트루이스급 경순양함과 달리 순항거리 확장, 대공 및 대어뢰 방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새롭게 설계 건조한 경순양함이다. 미 해군은 처음에 52척의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을 건조하기로 하고 1940년에 39척을 발주했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항공모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미 발주한 함정 중 일부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제원

구 분	Biloxi(CL-80)
기준배수량	11,744톤
만재배수량	14,131톤
전장	185.95m
전폭	20.2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100,000마력
최고속력	32.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인치 47구경 3연장포 4문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4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6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10문
함재기	4대
승조원	1,285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19.

비고 : 빌럭시함(Biloxi, CL-80)은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18번함임.

고 일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건조 중이던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중 9척이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되었으며, 3척이 취소되었다. 이때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함정이 인디펜던스급 경항공모함이었다. 1941년 11월 1일 초도함인 클리블랜드함(Cleveland, CL-55)이 진수된 후 총 27척이 건조되었으며, 1942년 6월부터 차례로 취역했다. 초도함인 클리블랜드함은 최고속력 32.5노트에 6인치(152.4mm) 47구경 3연장포 4문,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6문, 40mm 보포스 대공포 28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0문 등을 갖추고 있어 당시 개발된 경순양함 중 최고의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주도하는 전장 상황의 변화와 취역이 늦어져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활약이 크지 않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기에 퇴역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21번함인 맨체스터함(Manchester, CL-83) 1척만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미 해군의 클리블랜드급 순양함은 맨체스터함이 유일하다. 맨체스터함은 6·25전쟁 기간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다.

제1차 파견은 1950년 9월 초였으며, 제77부대(TF77) 항모전단에 소속되어 서해안 봉쇄 및 북한군 병참선 차단 임무를 수행했다. 맨체스터함은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여해 인천-서울 간 수송로 확보 작전을 지원한 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9월 말에 북한군 보급로 차단을 목적으로 한 용진반도 포격에 참여했다. 이후 10월 10일 동해로 이동하여 기뢰 제거, 함포 사격 등 유엔군의 원산상륙작전에 참전한 후 10월 말에 잠시 한국 해역을 떠났다가 1950년 12월 3일 흥남철수작전을 위해 한국 해역에 돌

아왔다. 흥남철수작전 종료 후 맨체스터함은 계속해서 동해안의 원산과 성진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에 대한 포격 임무를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1951년 1월에는 좌초된 태국의 콜벳함(Corvette)인 프라세함(Prasae)의 승조원들을 구출했다. 맨체스터함은 1951년 6월 1일 제1차 파견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제2차 파견은 1951년 12월 8일에 시작되었으며, 제95부대(유엔 봉쇄·호송부대)의 기함으로 활동했다. 1952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 맨체스터함은 제1차 파견 임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주요 도시에 대한 포격과 구조작전 임무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맨체스터함의 제3차 파견은 1953년 3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였으며, 주기적으로 북한군 해안진지를 포격하고, 국군 제1군단의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참전을 마친 맨체스터함은 1953년 7월 23일 한국 해역을 떠나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잠시 정박한 후 7월 28일 귀국하면서 3차례에 걸친 참전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9회 수상했다.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Manchester I (CL-83)”,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7182 USS Manchester(CL-83)”,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우스터급 경순양함 Worcester class light cruiser

개요

우스터급 순양함은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을 대형화시키고 함포 무장을 강화한 경순양함으로 총 2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군의 우스터급 경순양함 우스터함(CL-144).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우스터(Worcester)급 순양함은 볼티모어급 중순양함과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보다 함포 무장을 강화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미 해군은 클리블랜드급보다 규모가 크고 함대함 전투에서 더 효과적인 순양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945년 1월부터 15,000톤급 상당의 경순양함 건조를 발주했다. 1947년 2월 4일 초도함인 우스터함(Worcester, CL-144), 1947년 6월 16일 2번함인 로어노크함(Roanoke,

우스터급 경순양함 제원

구 분	Worcester(CL-144)
기준배수량	14,700톤
만재배수량	17,997톤
전장	207.11m
전폭	21.54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4기 • 120,000마력
최고속력	33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인치 47구경 2연장포 6문 •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1문 • 3인치 50구경 단장포 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10문
함재기	4대
승조원	1,401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23.

CL-145)이 각각 진수되었다. 초도함인 우스터함은 기준배수량 14,700톤에 최고속력 33노트, 6인치(152.4mm) 47구경 2연장포 6문, 3인치(76.2mm) 50구경 2연장포 11문과 단장포 2문, 20mm 대공기관포 10문을 갖추고, 장갑도 강화되어 대공 및 대함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48년 6월 초도함 우스터함이 취역할 무렵은 제트기 시대에 돌입하고 미사일이 태동하던 시기로 순양함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건조가 계획된 우스터급 3번함 발레이오함(Vallejo, CL-146)과 4번함 게리함(Gary, CL-147)의 건조가 취소되었다. 결국 우스터급 경순양함은 총 2척만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초도함인 우스터함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한 미 해군의 우스터급 경순양함은 초도함인 우스터함이 유일하다. 우스터함은 1950년 8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참전했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우스터함은 제21구축함전대의 기함으로 지중해지역에서 작전 중이었다. 한국 해역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1950년 7월 27일 팔레론만(Phaleron Bay)을 출발해 8월 28일 제77부대(TF77)에 합류했다. 이후 우스터함은 거의 매일 서해안과 남해안을 오가며 북한군 병참선 차단을 위한 포격과 탑재한 헬리콥터를 이용한 정찰 및 구조 활동을 수행했다. 우스터함은 9월 7일~10일 일본 사세보항으로 돌아가 보급을 추진한 후 9월 11일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 해역으로 진출했다. 이때 중순양함 헬레나함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 일환으로 포항지역에 함포사격을 가했다.

1950년 9월 24일에는 동해안지역에서 반격으로 전환한 국군 수도사단에 화력지원을 제공했다. 이때 우스터함은 육지에서 주한미군사고문단원이 보내는 신호를 공격함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지상군에 대한 화력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보고서에서 우스터함을 비롯한 해상에서의 지원사격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북한군을 분산시키는데 결정적이었다고 기록했다. 1950년 10월에는 원산상륙작전을 위해 기뢰제거작전과 대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제95부대(TF95)의 기함 역할도 했다. 원산상륙작전이 완료된 1950년 10월 23일 우스터함은 한국 해역에서의 작전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단 한 차례의 파견이었지만 우스터함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 6·25전쟁 초기 서해·남해·동해안을 작전구역으로 하면서 북한군 진격속도를 늦추고 유엔군의 반격작전을 화력 지원하는 등 전쟁 국면을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원산상륙작전까지 부여된 역할을 완수한 후 한국 해역을 떠남으로써 6·25전쟁 초기 해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2회 수상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6(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2009).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Worcester II (CL-144)",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1832 USS Worcester (CL-144)",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주노급 경순양함 Juneau class light cruiser

개요

주노급 순양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이 애틀랜타급 순양함의 설계 일부를 변경하여 대공 능력을 향상한 경순양함으로 총 3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마치고 일본 요코스카항에 돌아와 정박 중인 주노함(오른쪽)과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톨레도함(왼쪽).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주노(Juneau)급 순양함은 10,000톤 미만의 애틀랜타(Atlanta)급 경순양함의 상부구조물 일부를 변경하고 대공 능력을 향상시킨 애틀랜타급 경순양함의 개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7월 15일 초도함인 주노함(Juneau, CL-119)이, 1945년 9월 22일 2번함인 스포캔함(Spokane, CL-120)이, 1946년 3월 5일 3번함인 프레즈노함(Fresno, CL-121)이 각각 진수되었으며, 취역은 주노함이 1946년 2월 15일, 스포캔함이 1946년 5월 17일, 프레즈노함이 1946년 11월 27일이었다. 초도함인 주노함은 기준배수량 6,826톤, 만재배수량 8,470톤에 최고속력 32.5노트, 5인치 38구경 2연장포 6문, 40mm 56구경

주노급 경순양함 제원

구 분	Juneau(CL-119)
기준배수량	6,826톤
만재배수량	8,470톤
전장	165.05m
전폭	16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75,000마력
최고속력	32.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6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4문 • 20mm 70구경 오리콘 2연장 기관포 8문
승조원	623명

출처 : "Juneau(CL-119)", Wikipedia.

4연장포 6문과 2연장포 4문, 20mm 70구경 2연장 기관포 8문 등을 갖추고 있어 대공 능력이 비교적 우수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순양함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49년 5월 17일에 프레즈노함이, 1950년 2월 27일에 스포캔함이 각각 퇴역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주노급 경순양함 중 유일하게 남은 1번함 주노함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주노함은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Turner C. Joy) 제독이 지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함정 중 하나였다.

주노함은 미군 함정 중 6·25전쟁 기간 최초로 6월 28일 한국 해역에 도착하고 함포사격과 해상전을 벌인 함정이었다. 최초의 함포사격은 1950년 6월 29일 동해안의 옥계에서 실시되었다. 이때 목표물은 북한군 병력으로써 주노함은 5인치 포탄 459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이날 주노함은 동해에서 한국 함정을 북한군 함정으로 판단하여 포격했는데, 그 결과 한국 함정 JMS-305정이 침몰되고, 승조원 8명이 전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엔 해군함정과 북한 해군함정 간의 첫 번째 해상전은 1950년 7월 2일 주문진 부근 해상에서 있었다. 이날 주노함은 영국의 순양함 자메이카함(Jamaica)과 호위함 블랙스완함(Black Swan) 등과 함께 동해안에서 초계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문진 근해에서 북한 어뢰정(PT) 4척을 발견했다. 북한 어뢰정들이 유엔 해군의 함정들을 발견하고 소구경포를 발사하자 주노함이 근접신관(VT) 포탄으로 일제사격을 개시하면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 해전에서 주노함을 비롯한 유엔 해군은 북한 해군의 어뢰

정 3척을 격침시키고,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해전은 유엔 해군함정과 북한 해군 함정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전이였다.

이후 주노함은 1951년 4월 말까지 동해안 항모전단에 배속되어 초계 활동과 연안포격 임무를 수행한 후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1952년 4월 19일에 다시 파견되었다. 주노함은 11월 5일까지 동해안에서 1차 파견 때와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주노함은 6·25전쟁 기간 최초의 함포사격과 최초의 해상전을 전개한 함정으로 6·25전쟁 해전사에서 널리 알려진 함정 중의 하나였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5회 수상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2011).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Juneau II(CL-119)”,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424598 USS Toledo(CA-133) USS Juneau(CLAA-119)”,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Wikipedia, “Juneau(CL-119)”, [https://en.wikipedia.org/wiki/USS_Juneau_\(CL-119\)](https://en.wikipedia.org/wiki/USS_Juneau_(CL-119)), 2020. 6. 24.



타운급 경순양함

Town class light cruiser

개요

타운급 순양함은 영국 해군의 경순양함으로 무장 차이에 따라 사우샘프턴, 글로스터, 에든버러 등 3개의 하위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10척이 건조되었다. 그중 사우샘프턴급 2척과 에든버러급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1년 서해에서 작전 중인 영국 해군의 타운급 경순양함 벨파스트함(C35).

© IWN

타운(Town)급 순양함은 1930년대에 영국 해군성이 발주하여 건조된 9,100~10,550톤급의 경순양함이었다. 기준배수량과 탑재한 무장에 따라 하위등급으로 사우샘프턴(Southampton), 글로스터(Gloucester), 에든

타운급 경순양함 제원

구 분	타운급 경순양함		
	사우샘프턴급	글로스터급	에든버러급
기준배수량	9,100톤	9,400톤	10,550톤
만재배수량	11,350톤	11,650톤	13,175톤
전장	180.28m	180.28m	186.99m
전폭	18.79m	19m	19.3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Parsons Geared 터빈 4기 75,0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Parsons Geared 터빈 4기 82,5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Parsons Geared 터빈 4기 80,000마력
최고속력	32노트	32.3노트	32.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인치 50구경 Mk.23 3연장포 4문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4문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2문 21인치(533.4mm) 어뢰발사관 6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인치 50구경 Mk.23 3연장포 4문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6문 2파운드 폼폼 8연장 대공포 2문 21인치 어뢰발사관 6문
함재기	3대	3대	3대
승조원	748명	800명	85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31~32.

버러(Edinburgh) 등 3개 등급으로 세분되었다. 사우샘프턴급은 1937년 3월~11월에 뉴캐슬함(Newcastle, C76), 사우샘프턴함(Southampton, C83), 셰필드함(Sheffield, C24), 글래스고우함(Glasgow, C21), 버밍엄함(Birmingham, C19) 등 총 5척이 취역하였으며, 글로스터급은 1938년 11월~1939년 1월에 리버풀함(Liverpool, C11), 맨체스터함(Manchester, C15), 글로스터함(Gloucester, C62) 등 총 3척이 취역했다. 그리고 에든버러급은 1939년 7월~8월에 에든버러함(Edinburgh, C16), 벨파스트함(Belfast, C35) 등 총 2척이 취역했다. 사우샘프턴급과 글로스터급 순양함은 무장에서 거의 같았지만, 배수량과 추진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에든버러급은 사우샘프턴이나 글로스터급보다 배수량이 크고 무장력에서 앞섰다.

6·25전쟁에는 뉴캐슬함(C76), 버밍엄함(C19) 등 사우샘프턴급 2척과 에든버러급 벨파스트함(C35) 등 총 3척의 타운급 경순양함이 참전했다.

은 용

6·25전쟁이 발발한 후 가장 먼저 참전한 영국 해군의 타운급 경순양함은 벨파스트함이었다. 영국 극동함대 소속이었던 벨파스트함은 1950년 7월부터 1952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벨파스트함이 한국 해역에 처음 도착한 것은 1950년 7월 초였다. 당시 벨파스트함은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함(Triumph)을 비롯해 경순양함 자메이카함(Jamaica)과 구축함 코삭크함(Cossak)·콘서트함(Consort)·바탄함(Bataan), 호위함 블랙스완함(Black Swan)·알라크리티함(Alacrity)·하트함(Hart)·솔헤이븐함(Shoalhaven) 등과 더불어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1950년 7월 5일 벨파스트함을 비롯한 영국 해군 함정들은 제96부

대(TF96) 예하 제96.8전대(TG96.8)에 편성되었으며, 벨파스트함은 전대장 앤드류스(William G. Andrewes) 제독의 기함이 되었다. 벨파스트함은 7~8월 일본 사세보와 한국의 서해·동해안을 오가며 해상봉쇄임무와 지상군 함포지원사격을 수행했다. 특히 7월에는 동해안 영덕지구에서 지연전을 수행하는 국군 제3사단을 화력지원 하였으며, 8월 초에는 인천지역의 유류저장소, 공장, 창고, 적 포대 등을 목표로 한 대규모 포격에 가담했다. 이 작전 후 벨파스트함은 제1차 파견임무를 끝내고 영국으로 복귀했다.

벨파스트함은 1951년 1월 31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하면서 제2차 파견임무를 시작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6·25전쟁에 참전한 영연방해군이 서해안지원전대(TG95.1)로 승격된 후였기 때문에 벨파스트함은 서해안지원전대에 소속되어 서해안 지역의 전략도서 방어임무와 북한의 주요 도시 및 시설에 대한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했다. 벨파스트함은 1952년 7월에 한국 해군이 전개한 창린도 탈환작전에도 참가했다. 벨파스트함은 1952년 9월 27일 제2차 파견임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갔다.

벨파스트함에 이어 참전한 영국의 타운급 순양함은 뉴캐슬함과 버밍엄함이었다. 참전에 앞서 이들 순양함은 1951~1952년에 함교를 개조하고, 40mm Mk.5 2연장 대공포 10문과 275형 레이더를 장착하는 등 무기와 장비를 대폭 개량한 후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들 순양함은 기함으로 활동하면서 서해안 봉쇄작전을 수행하고 유엔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사격을 수행했다. 뉴캐슬함과 버밍엄함은 서해안지원전대 소속의 함정들과 함께 북한지역에 대한 함포사격과 북한지역에서 피난하는 피난민들을 수송하는 미국의 상륙함을 지원했다. 뉴캐슬함의 경우, 참전 기간에 6인치 포탄 1,051발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2011).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A 31985", Imperial War Museums, U.K.

Wikipedia, "Town-class cruiser(1936)", [https://en.wikipedia.org/wiki/Town-class_cruiser_\(1936\)](https://en.wikipedia.org/wiki/Town-class_cruiser_(1936)), 2020. 7. 6.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Crown colony class light cruiser

개요

크라운 콜로니급 순양함은 영국 해군의 경순양함으로 피지, 실론 등 2개의 하위 함급이 존재하며, 총 11척이 건조되었다. 그중 피지급 2척과 실론급 1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영국 해군의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자메이카함(Jamaica).

© IWM

크라운 콜로니(Crown colony)급 순양함은 영국 해군성이 발주하여 1939~1941년에 건조된 경순양함이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를 함명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제원

구 분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	
	피지급	실론급
기준배수량	8,530톤	
만재배수량	10,450톤(후에 10,830톤~11,090톤)	
전장	169.31m	
전폭	18.9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 Parsons Geared 터빈 4기 • 72,500마력 	
최고속력	31.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인치 50구경 Mk.23 3연장포 4문 •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4문 • 2파운드 폭포 4연장 대공포 2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6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인치 50구경 Mk.23 3연장포 3문 •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4문 • 2파운드 폭포 4연장 대공포 3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6문
함재기	2대	
승조원	730명(전시 92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34.

총 11척이 건조되었으며, 하위 함급으로 피지(Fiji)와 실론(Ceylon) 등 2개 등급으로 나뉘었다. 피지급은 1940년 5월~1942년 8월에 피지함(Fiji), 나이지리아함(Nigeria), 모리셔스함(Mauritius), 케냐함(Kenya), 트리니다드함

(Trinidad), 자메이카함(Jamaica), 감비아함(Gambia), 버뮤다함(Bermuda) 등 총 8척이 취역하였으며, 실론급은 1943년 1월에 실론함(Ceylon), 우간다함(Uganda), 뉴펀들랜드함(Newfoundland) 등 총 3척이 취역했다. 피지급과 실론급은 무장에서 차이가 있었다.

6·25전쟁에는 피지급의 케냐함과 자메이카함, 실론급의 실론함 등 총 3척의 크라운 콜로니급 경순양함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이 발발한 후 가장 먼저 참전한 영국 해군의 크라운 콜로니(Crown colony)급 경순양함은 자메이카함과 케냐함이었다. 영국 극동함대 소속이었던 두 순양함은 자메이카함이 1950년 7월부터 1950년 10월까지, 케냐함이 1950년 7월부터 1951년 8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자메이카함이 한국 해역에 처음 도착한 것은 1950년 7월 초였다. 당시 자메이카함은 경항공모함 트라이엄프함(Triumph)을 비롯해 경순양함 벨파스트함(Belfast), 구축함 코삭크함(Cossak)·콘서트함(Consort)·바탄함(Bataan), 프리깃함 블랙스완함(Black Swan)·알라크리티함(Alacrity)·하트함(Hart)·솔헤이븐함(Shoalhaven) 등과 더불어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자메이카함은 1950년 7월 2일에 있었던 유엔 해군함정과 북한 해군함정 간의 첫 번째 해상전에 참여했다. 이날 자메이카함은 미국의 경순양함 주노함과 함께 동해안에서 초계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문진 근해에서 북한 어뢰정(PT)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여 어뢰정 3척을 격침시키고, 2명의 북한군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해전은 유엔 해군함정과 북한 해군함정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해전이였다.

이후 자메이카함은 동해안 지역의 목표물과 지상군 지원 임무를 수행한 후 8월에 서해로 이동하여 군산항 포격과 북한군 보급로 차단 임무를 수행했다. 자메이카함은 9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실시된 월미도 포격에 참여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 때에는 미 해병 제1연대의 상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체가 일부 손상되어 수리를 위해 한국 해역을 떠났다.

케냐함도 자메이카함과 마찬가지로 6·25전쟁 초기부터 참전하여 서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덕적도 탈환작전과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다. 1951년 8월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케냐함은 서해안 초계 임무와 전략도서 확보작전을 수행했다. 실론함은 1950년 10월 원산상륙작전, 12월 진남포철수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초도·석도 등 서해안 전략 도서를 확보하는 작전에도 참여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⑨(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2012).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A 30157", Imperial War Museums, <https://www.iwm.org.uk/>(검색일 : 2020. 5. 24)



구축함 Destroyer

구축함은 대함, 대잠, 대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군함이다. 1866년 어뢰가 개발되어 어뢰정이 등장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보다 빠르고 강력한 화력을 지닌 함정을 건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뢰정 구축함이었다. 이것이 구축함의 효시였다.

초창기 구축함은 작은 어뢰정이나 잠수함 등의 기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톤수도 300톤 이하의 소형이었으나 제1·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규모가 커져 순양함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정이 건조되었다. 또한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수행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기어링급(Gearing class) 38척, 알렌 M. 섬너급(Allen M. Sumner class) 34척, 플래처급(Fletcher class) 43척 등 총 115척의 구축함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기어링급 (Gearing class)	William R. Rush, DD-714	Wiltsie, DD-716
	Theodore E. Chandler, DD-717	Hamner, DD-718
	Epperson, DD-719	Frank Knox, DD-742
	Southerland, DD-743	Kepler, DD-765
	Rowan, DD-782	Gurke, DD-783
	McKean, DD-784	R. B. Anderson, DD-786
	Chevalier, DD-805	Higbee, DD-806

구 분	합 정 명	
기어링급 (Gearing class)	Carpenter, DD-825	Agerholm, DD-826
	Hanson, DD-832	Mackenzie, DD-836
	Ernest G. Small, DD-838	Fiske, DD-842
	Bausell, DD-845	Ozbourn, DD-846
	Joseph P. Kennedy Jr., DD-850	Rupertus, DD-851
	Leonard F. Mason, DD-852	Fred T. Berry, DD-858
	Norris, DD-859	Arnold J. Isbell, DD-869
	Fechteler, DD-870	Forest B. Royal, DD-872
	Hawkins, DD-873	Duncan, DD-874
	Henry W. Tucker, DD-875	Rodgers, DD-876
	Perkins, DD-877	Floyd B. Parks, DD-884
	John R. Craig, DD-885	Orleck, DD-886
알렌 M. 섬너급 (Allen M. Sumner class)	Allen M. Sumner, DD-692	Moale, DD-693
	Ingraham, DD-694	English, DD-696
	Charles S. Sperry, DD-697	Hank, DD-702
	Wallace L. Lind, DD-703	Soley, DD-707
	Barton, DD-722	Walke, DD-723
	Laffey, DD-724	O'Brien, DD-725
	De Haven, DD-727	Mansfield, DD-728
	Lyman K. Swenson, DD-729	Collett, DD-730
	Maddox, DD-731	Purdy, DD-734
	Blue, DD-744	Brush, DD-745
	Taussing, DD-746	Samuel M. Moore, DD-747
	Harry E. Hubbard, DD-748	Alfred A. Cunningham, DD-752

구 분	함 정 명	
알렌 M. 섬너급 (Allen M. Sumner class)	John R. Pierce, DD-753	Frank E. Evans, DD-754
	Strong, DD-758	Buck, DD-761
	James C. Owens, DD-776	Zellars, DD-777
	Douglas H. Fox, DD-779	Stormes, DD-780
	Henderson, DD-785	Bristol, DD-857
플레처급 (Fletcher class)	Fletcher, DD-445	Radford, DD-446
	Nicholas, DD-449	O'bannon, DD-450
	Philip, DD-498	Renshaw, DD-499
	Cony, DD-508	Trathen, DD-530
	Miller, DD-535	The Sullivans, DD-537
	Tingey, DD-539	Twining, DD-540
	Yarmall, DD-541	Boyd, DD-544
	Cowell, DD-547	Hailey, DD-556
	Laws, DD-558	Pritchett, DD-561
	Walker, DD-517	Erben, DD-631
	Stembel, DD-644	Colahan, DD-658
	Dashiell, DD-659	Black, DD-666
	Clarence K. Bronson, DD-668	Cotten, DD-669
	Healy, DD-672	Hickox, DD-673
	Hancock, DD-675	Marshall, DD-676
	McDermott, DD-677	McGowan, DD-678
	McNair, DD-679	Hopewell, DD-681
	Wedderburn, DD-684	Picking, DD-685
	Halsey Powell, DD-686	Uhlmann, DD-687
	Remey, DD-688	Preston, DD-795
	Porter, DD-800	Gregory, DD-802
	Rooks, DD-804	

비고 : 함명에 USS는 생략함.

미국 이외에도 영국이 C급(C class) 6척과 트라이블급(Tribal class) 1척 등 총 7척, 호주가 트라이블급 2척과 배틀급(Battle class) 2척 등 총 4척, 캐나다가 트라이블급 6척과 C급·V급(V class) 각각 1척 등 총 8척, 네덜란드가 S급(S class) 1척과 N급(N class) 1척 등 총 2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영국 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C급(C class)	HMS Charity(R29)	HMS Cokade(R34)
	HMS Comus(R43)	HMS Concord(R63)
	HMS Constance(R71)	
트라이블급 (Tribal class)	HMS Cossack(F03)	

〈표〉 6·25전쟁 참전 호주 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배틀급 (Battle class)	HMAS Tobruk(D37)	HMAS Anzac(D59)
트라이블급 (Tribal class)	HMAS Battan(I91)	HMAS Warramunga(I44)

〈표〉 6·25전쟁 참전 캐나다 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C급(C class)	HMCS Crusader(R20)	
V급(V class)	HMCS Sioux(R64)	
트라이블급 (Tribal class)	HMCS Cayuga(R04)	HMCS Nootka(R96)
	HMCS Athabaskan(G07)	HMCS Huron(G24)
	HMCS Haida(G63)	HMCS Iroquois(G89)

〈표〉 6·25전쟁 참전 네덜란드 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S급(S class)	HNLMS Evertsen	HNLMS Piet Hein
N급(N class)	HNLMS Van Galen	

참고문헌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기어링급 구축함

Gearing class destroyer

개요

기어링급 구축함은 알렌 M. 섬너급 보다 대공 능력을 향상하고 항속 거리를 늘려 건조한 미 해군의 구축함으로 총 98척이 건조되었으며, 그 중 38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기어링급 구축함 셔벌리어함(Chevalier, DD-805). 셔벌리어함은 1972년 한국 해군이 도입하여 2000년 12월까지 충북함(DD-915)으로 운용했다.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기어링(Gearing)급 구축함은 알렌 M. 섬너(Allen M. Sumner)급보다 항속거리를 대폭 늘려 건조된 미 해군의 구축함이다. 본래 152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54척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98척만이 건조되었다. 알렌 M. 섬너급과 비교해 더 많은 연료를 싣기 위해 선체의 길이가 4m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항속거리(20노트 기준)가 알렌 M. 섬너급의 3,300NM(약 6,111km)보다 1,200NM이 늘어 4,500NM(약 8,334km)이었다.

기어링급 구축함 제원

구 분	Goodrich(DD-831)
기준배수량	2,616톤
만재배수량	3,460톤
전장	119.03m
전폭	12.45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60,000마력
최고속력	36.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3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2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11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승조원	33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33.

비고 : 굳리치함(Goodrich, DD-831)은 기어링급 50번함임.

초도함인 기어링함(Gearing, DD-710)이 1945년 2월 18일에 진수되어 5월 3일에 취역하였으며, 함정 대부분이 1945년~1946년에 진수·취역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일부 함정만이 참전했다. 초도함의 함명은 3대에 걸쳐 미 해군에 복무한 기어링 가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기어링급 구축함은 기준배수량이 2,616톤, 만재배수량이 3,460톤, 최고속력이 36.8노트였으며, 5인치 38구경 2연장포 3문, 40mm 보포스 대공포 4연장포 2문과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1문,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무장은 알렌 M. 섬너급 구축함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계속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후기형으로 갈수록 무장력이 강화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5번함 윌리엄 R. 러쉬함(William R. Rush, DD-714)을 비롯해 총 38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미 해군의 기어링급 구축함은 총 38척이었으며, 약 6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참전함정은 1~3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1~2개월 동안 한국 해역에서 단기간 작전을 전개한 구축함도 있었다.

기어링급 구축함은 플래처와 알렌 M. 섬너급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6·25전쟁 기간 함포지원전단, 봉쇄·수송·소해전단, 호위항공모함전단, 경계진전단, 고속항모부대 등에 배속되어 대공·대함·대잠 작전과 원산·성진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 봉쇄작전, 기뢰제거작전,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등 각종 상륙작전 등에 참여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기어링급 구축함을 비롯해 각종 구축함 34척이, 원산상륙작전에는 28척이 참여했다.

기어령급 중 6·25전쟁 기간 특히 주목되는 구축함은 1951년 원산항 봉쇄작전에 참여했던 오즈번함(Ozbourn, DD-846), 로이드 B. 파크함(Loyd B. Parks, DD-884), 아저홀름(Agerholm, DD-826), 존 R. 크레그함(John R. Craig, DD-885) 등이었다. 원산항은 서해의 진남포항과 더불어 북한의 동·서해안에서 가장 항만시설이 잘 갖추어진 항구로 두 항구는 모두 북한 해군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1951년 2월 16일, 제3소해전대 소속의 오즈번함은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월러스 L. 린드함(Wallace L. Lind, DD-703)과 함께 원산항을 포격했다. 이 포격은 1951년 원산 봉쇄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951년 5월 5일에는 제1구축함전대의 파크함(DD-884), 아저홀름, 존 R. 크레그함(DD-885)이 원산항에 대해 해·공 합동작전을 실시했다. 이는 6·25전쟁 기간 해·공 합동작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작전과 관련해 파크함 함장 클로디우스(H. G. Claudius) 중령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파크함은 30일 동안 원산항 근해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주간에는 제77부대 항공기 그리고 야간에는 공군 항공기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우수한 합동절차를 고안했다. 우리는 공군 항공기에게 표적을 지정해 주었고, 표적으로 유도하면서 조명탄 발사로 위치 식별에 도움을 주었다. 항공기는 폭탄 투하를 종료한 뒤에도 표적 상공에서 30~40분 동안 계속 체공하면서 함포사격에 대한 탄착수정을 지원했다. 해군 함포의 탄착수정 교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공군조종사들은 탄착수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합동작전으로 원산에 있는 북한군들의 주·야간 보급품 수송이 극히 어렵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기어령급 구축함의 작전 성과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뢰 폭발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1951년 10월 7일 흥남 부근에서 어니스트 G. 스몰함(Ernest G. Small, DD-838)이 기뢰에

충돌하여 9명의 전사자를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기어링급 구축함 중 서벌리어함(Chevalier, DD-805), 윌리엄 R. 러쉬함(William R. Rush, DD-714), 로저스함(Rodgers, DD-876)은 한국과 특히 인연이 깊다. 서벌리어함은 1950년 7월 6일~1951년 3월 25일, 1951년 10월 15일~1952년 5월 31일, 1953년 1월 2일~8월 22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1972년 한국 해군이 이 함정을 도입하여 충북함(DD-915)으로 취역시켜 2000년 12월까지 운용했다. 윌리엄 R. 러쉬함은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차례 한국에 파견되어 동해안 해상봉쇄와 북한 주요항구 포격 임무를 수행했다. 러쉬함은 1978년 한국 해군에 도입되어 2000년 12월까지 강원함(DD-922)으로 운용되었다. 로저스함은 1951년~1952년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해안 봉쇄와 포격, 초계작전 등을 수행했다. 1950년 10월 트루먼 미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웨이크섬(Wake Island) 회담 때에는 구조작전 임무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1년 한국 해군이 이 함정을 도입하여 전주함(DD-925)으로 명명하고 1999년까지 운용했다.

6·25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의 기어링급 구축함 중 에버트 F. 라슨함(Everett F. Larson, DD-830)을 비롯한 4척은 1972년~1981년 한국 해군이 도입하여 2001년까지 운용했다. 라슨함은 1972년에 도입되어 전북함(DD-916)으로 1999년 12월까지 운용되었으며, 뉴함(New, DD-818)은 1977년에 도입되어 2001년 2월까지 대전함(DD-919)으로 운용되었다. 리처드 E. 크라우스함(Richard E. Kraus, DD-849)은 1977년에 도입되어 2000년 12월까지 광주함(DD-921)으로 운용되었으며, 뉴먼 K. 페리함(Newman K. Perry, DD-883)은 1981년에 도입되어 1999년까지 전주함(DD-925)으로 운용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받은 기어링급 구축함의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 · 25전쟁 참전 기어링급 구축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William R. Rush, DD-714	...	Wiltsie, DD-716	9회
Theodore E. Chandler, DD-717	9회	Hamner, DD-718	5회
Epperson, DD-719	5회	Frank Knox, DD-742	5회
Southerland, DD-743	8회	Keppler, DD-765	2회
Rowan, DD-782	4회	Gurke, DD-783	7회
McKean, DD-784	1회	R. B. Anderson, DD-786	4회
Chevalier, DD-805	9회	Higbee, DD-806	7회
Carpenter, DD-825	...	Agerholm, DD-826	4회
Hanson, DD-832	8회	Mackenzie, DD-836	6회
Ernest G. Small, DD-838	4회	Fiske, DD-842	2회
Bausell, DD-845	...	Ozbourn, DD-846	...
Joseph P. Kennedy Jr., DD-850	2회	Rupertus, DD-851	7회
Leonard F. Mason, DD-852	3회	Fred T. Berry, DD-858	2회
Norris, DD-859	2회	Arnold J. Isbell, DD-869	6회
Fechteler, DD-870	5회	Forest B. Royal, DD-872	4회
Hawkins, DD-873	2회	Duncan, DD-874	7회
Henry W. Tucker, DD-875	7회	Rodgers, DD-876	5회
Perkins, DD-877	3회	Floyd B. Parks, DD-884	...
John R. Craig, DD-885	4회	Orleck, DD-886	4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William R. Rush(DD-714)", "Wiltsie", "Theodore E. Chandler(DD-717)", "Hamner", "Epperson", "Frank Knox (DD-742)", "Southerland(DD-743)", "Keppler(DD-765)", "Rowan IV(DD-782)", "Gurke(DD-783)", "McKean II(DD-784)", "Richard B. Anderson(CVE-786)", "Chevalier II (DD-805)", "Higbee(DD-806)", "Corry III(DD-817)", "New(DD-818)", "Carpenter (DD-825)", "Agerholm(DD-826)", "Everett F. Larson(DD-830)", "Hanson(DD-832)", "George K. MacKenzie(DD-836)", "Ernest G. Small(DD-838)", "Fiske II(DD-842)", "Bausell(DD-845)", "Ozbourn(DD-846)", "Richard E. Kraus(DD-849)", "Joseph P. Kennedy, Jr.(DD-850)", "Rupertus(DD-851)", "Leonard F. Mason (DD-852)", "Fred T. Berry(DD-858)", "Norris(DD-859)", "Arnold J. Isbell (DD-869)", "Fechteler II(DD-870)", "Forrest Royal(DD-872)", "Hawkins (DD-873)", "Duncan III(DD-874)", "Henry W. Tucker(DD-875)", "Rogers (DD-876)", "Perkins III(DD-877)", "Newman K. Perry(DD-883)", "Floyd B. Parks(DD-884)", "John R. Craig(DD-885)", "Orleck(DD-886)",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107118 USS Chevalier",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Allen M. Sumner class destroyer

개요

알렌 M. 섬너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조되었으며, 기어링급과 플래처급 중간에 위치한다. 플래처급 구축함에 무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총 58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34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윌러스 L. 린드함(DD-703). 린드함은 1973년에 한국에 인도되어 대구함(DD-917)으로 명명되었다.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알렌 M. 섬너(Allen M. Sumner)급 구축함은 미 해군이 플래처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여 무장력을 강화시킨 구축함이다. 본래 70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58척이 건조되었다.

1943년 12월 15일 초도함인 알렌 M. 섬너함(Allen M. Sumner, DD-692)이 진수된 후 1945년 3월까지 58척이 건조되어 1944년 1월~1945년 10월에 모두 취역했다. 알렌 M. 섬너라는 함명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해병대 대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제원

구 분	Blue(DD-744)
기준배수량	2,610톤
만재배수량	3,218톤
전장	114.76m
전폭	12.45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60,000마력
최고속력	36.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3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2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11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승조원	33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32.

33번함인 블루함(DD-744)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배수량은 2,610톤, 만재배수량은 3,218톤, 최고속력은 36.8노트였으며, 5인치 38구경 2연장포 3문, 40mm 보포스 4연장포 2문과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1문,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항속거리가 짧은 것이 문제였고, 이를 개량한 것이 기어링급(Gearing class)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초도함 알렌 M. 섬너함을 비롯해 총 34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미 해군의 알렌 M. 섬너급 구축함은 총 34척이었으며, 약 6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했다. 참전함정들은 1~3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알렌 M. 섬너급 구축함은 6·25전쟁 기간 함포지원전단, 봉쇄·수송·소해전단, 호위항공모함전단, 경계진전단, 고속항모부대 등에 배속되어 대공·대함·대잠 작전과 원산·성진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 봉쇄 작전, 기뢰제거작전,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등 각종 상륙작전 등에 참여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알렌 M. 섬너 구축함을 비롯해 각종 구축함 34척이, 원산상륙작전에는 28척이 참여했다.

알렌 M. 섬너급 중 6·25전쟁 기간 특히 활약이 컸던 구축함은 월러스 L. 린드함(Wallace L. Lind, DD-703), 오브라이언함(O'Brien, DD-725), 드 헤이븐함(De Haven, DD-727), 블루함(Blue, DD-744), 알프레드 A. 커닝햄함(Alfred A. Cunningham, DD-752), 프랑크 E. 에반즈함(Frank E. Evans, DD-754) 등을 들 수 있다.

린드함·오브라이언함·블루함·커닝햄함·에반즈함은 원산 포격과 해상

봉쇄작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1951년 3월 17일 원산 포격 때에 린드함은 순양함 맨체스터함과 함께 원산의 공산군 집결지를 포격하여 북한군 6,000명을 살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51년에 실시된 이른바 ‘원산포위 100일 작전’ 때에는 구축함 블루함에서 동해봉쇄전대(CTG 95.2)의 작전회의가 열렸으며, 7월 6일 해상봉쇄작전에서 오브라이언함·블루함·커닝햄함이 4시간 반 동안 5인치 포탄 2,336발을 발사했다. 이들 구축함은 미 해병대의 황토도 상륙작전 때에도 병력수송과 함포사격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드 헤이븐함은 6·25전쟁 발발 초기 주한외국인 소개작전 때 라인홀트호를 호위한 함정으로 유명하다. 해상봉쇄작전, 원산 기뢰제거작전, 연안 초계작전, 지상군 함포지원사격, 상륙작전 지원 등 1953년 3월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총 3차례 걸쳐 6·25전쟁에 참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6·25전쟁에 참전한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중 윌러스 L. 린드함과 드 헤이븐함은 한국과 특히 인연이 깊다. 린드함은 1950년 10월 13일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해상봉쇄 및 지상군 함포지원사격을 제공하였으며, 흥남철수작전에도 참여했다. 1951년 5월 9일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강릉·원산·성진·흥남 등에 대한 포격과 동해안 봉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항공기 구조임무도 수행했다. 비록 한 차례 파견이었지만 린드함의 활약은 대단히 컸다. 1973년에 한국에 인도되었으며, 1994년 퇴역할 때까지 대구함(DD-917)으로 운용되었다. 드 헤이븐함도 1973년 한국에 인도되어 1993년 퇴역할 때까지 인천함(DD-918)으로 운용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받은 알렌 M. 섬너급 구축함의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 · 25전쟁 참전 알렌 M. 섬너급 구축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Allen M. Summer, DD-692	1회	Moale, DD-693	1회
Ingraham, DD-694	5회	English, DD-696	4회
Charles S. Sperry, DD-697	4회	Hank, DD-702	4회
Wallace L. Lind, DD-703	4회	Soley, DD-707	1회
Barton, DD-722	2회	Walke, DD-723	4회
Laffey, DD-724	2회	O'Brien, DD-725	5회
De Haven, DD-727	6회	Mansfield, DD-728	3회
Lyman K. Swenson, DD-729	6회	Collett, DD-730	6회
Maddox, DD-731	6회	Purdy, DD-734	3회
Blue, DD-744	6회	Brush, DD-745	4회
Taussing, DD-746	8회	Samuel M. Moore, DD-747	3회
Harry E. Hubbard, DD-748	6회	Alfred A. Cunningham, DD-752	6회
John R. Pierce, DD-753	1회	Frank E. Evans, DD-754	5회
Strong, DD-758	1회	Buck, DD-761	6회
James C. Owens, DD-776	2회	Zellars, DD-777	4회
Douglas H. Fox, DD-779	1회	Stormes, DD-780	3회
Henderson, DD-785	8회	Bristol, DD-857	2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Allen M. Sumner(DD-692)”, “Moale (DD-693)”, “Ingraham III(DD-694)”, “English(DD-696)”, “Charles S. Sperry (DD-697)”, “Hank(DD-702)”, “Wallace L. Lind(DD-703)”, “Soley(DD-707)”, “Barton II(DD-722)”, “Walke III(DD-723)”, “Laffey II(DD-724)”, “O’Brien IV (DD-725)”, “De Haven II(DD-727)”, “Mansfield(DD-728)”, “Lyman K. Swenson (DD-729)”, “Collett(DD-730)”, “Maddox III(DD-731)”, “Purdy (DD-734)”, “Blue II (DD-744)”, “Brush(DD-745)”, “Taussig(DD-746)”, “Samuel N. Moore (DD-747)”, “Harry E. Hubbard(DD-748)”, “Alfred A. Cunningham(DD-752)”, “John R. Pierce(DD-753)”, “Frank E. Evans(DD-754)”, “Strong II(DD-758)”, “Buck III(DD-761)”, “James C. Owens(DD-776)”, “Zellers(DD-777)”, “Douglas H. Fox(DD-779)”, “Douglas H. Fox(DD-779)”, “Stormes(DD-780)”, “Bristol II(DD-857)”, “Henderson II(DD-785)”,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10714 Wallace L. Lind(DD-703)”,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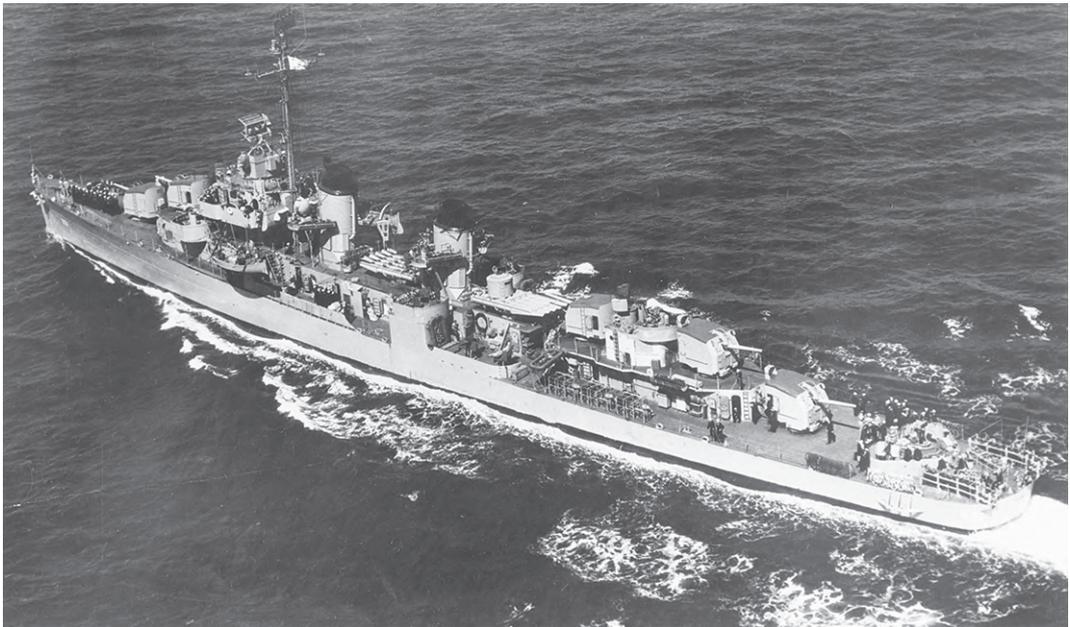


플래처급 구축함 Fletcher class destroyer

개요

플래처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대잠·대공 능력을 향상시켜 건조한 구축함으로 총 175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43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플래처급 구축함 에번함(DD-631). 에번함은 1963년에 한국에 인도되어 한국 해군이 충무함(DD-911)으로 명명하고 운용했다.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플래처(Fletcher)급 구축함은 기존에 미 해군이 대형 구축함의 초기 유형인 포터(porter)급과 소머즈(Somers)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39년에 설계에 들어가 1942~1944년에 건조된 구축함이다. 기존 구축함에 비해 기준배수량이 200톤가량 커졌으며, 항속거리가 늘고, 대잠·대공 능력도 향상되어 당대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았다. 1942년 5월 3일 초도함인 플래처함(Fletcher, DD-445)이 진수된 이후 1944년 6월 까지 총 175척이 건조되었다. 플래처급 구축함의 파생형이 알렌 M. 섬너(Allen M. Sumner)와 기어링(Gearing)급 구축함이다.

플래처급 구축함 제원

구 분	Fletcher(DD-445)
기준배수량	2,125톤
만재배수량	2,924톤
전장	114.73m
전폭	12.07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60,000마력
최고속력	3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단장포 5문 •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1문 • 20mm 70구경 오리콘 대공기관포 6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승조원	27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30.

초도함 플레처함을 기준으로 할 때, 플레처급 구축함은 기준배수량 2,125톤, 만재배수량 2,924톤, 최고속력 38노트에 5인치 38구경 단장포 5문, 40mm 56구경 보포스 4연장포 1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6문,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중앙과 후미의 5인치 포를 제거하고 40mm 대공포와 20mm 대공기관포를 선체 곳곳에 추가했다. 항속거리는 15노트로 6,500NM(12,038km)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주로 태평양 전역에서 운영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초도함 플레처함을 비롯해 총 43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미 해군의 플레처급 구축함은 총 43척이었으며, 약 6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했다. 플레처함처럼 1950년 7월~11월까지 한 차례만 파견된 예도 있고, 레드포드함(Radford, DD-446)처럼 1950년 7월~1953년 11월까지 기간에 3차례 파견된 예도 있다.

플레처급 구축함은 6·25전쟁 기간 함포지원전단, 봉쇄·수송·소해전단, 호위항공모함전단, 경계진전단, 고속항모부대 등에 배속되어 대공·대함·대잠작전과 원산·성진 등 북한의 주요 항구도시 봉쇄작전, 기뢰제거작전,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등 상륙작전에 참여했다. 인천상륙작전에는 플레처급 구축함을 비롯해 각종 구축함 34척이, 원산상륙작전에는 28척이 참여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플레처급 구축함 중 에번함(Erben, DD-631), 히콕스함(Hickox, DD-673), 할시 포웰함(Halsey Powell, DD-686)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에번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다

가 1951년 5월 19일 재취역한 후 9월에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미 해군의 클리블랜드급 순양함 맨체스터함(Manchester, CL-83)과 함께 동·서해안을 오가며 작전을 수행한 후 1952년 3월에 제1차 파견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에번함의 제2차 파견은 1952년 11월부터 1953년 5월까지 6개월간이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 에번함은 태평양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다가 1958년 6월 28일 예비함으로 전환되었다. 에번함은 1963년 5월 16일 한국에 인도되어 충무함(DD-911)으로 운용되었다.

히콕스함도 에번함과 마찬가지로 1951년 5월 19일 재취역한 후 대서양함대에 배속되었다가 그해 9월에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2개월간 제77부대(TF77)의 일원으로 항공모함 호위와 북한지역 포격 임무를 수행했다. 1957년 12월 20일 퇴역하였으며, 1968년 11월 15일 한국에 인도되어 부산함(DD-913)으로 운용되었다.

할시 포웰함은 1951년 4월 27일 재취역하여 8월에 한국 해역에 도착했다. 항모전단에 배속되어 항공기 구조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원산과 흥남 등 북한 항구도시 포격에 참여했다. 1952년 2월에 제1차 파견을 마치고 귀국했다. 할시 포웰함은 1952년 10월에 다시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해상봉쇄작전과 해안 포격 등에 참여한 후 1953년 4월에 6·25전쟁의 모든 참전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1967년까지 미 해군의 훈련함으로 사용되다가 1968년 4월 27일 한국에 인도되어 서울함(DD-912)으로 운용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받은 플레처급 구축함의 수상 횡수는 다음과 같다.

6 · 25전쟁 참전 플레처급 구축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Fletcher, DD-445	5회	Radford, DD-446	5회
Nicholas, DD-449	5회	O'bannon, DD-450	3회
Philip, DD-498	5회	Renshaw, DD-499	5회
Cony, DD-508	2회	Trathen, DD-530	1회
Miller, DD-535	...	The Sullivans, DD-537	2회
Tingey, DD-539	5회	Twining, DD-540	5회
Yarmall, DD-541	2회	Boyd, DD-544	5회
Cowell, DD-547	2회	Hailey, DD-556	2회
Laws, DD-558	2회	Pritchett, DD-561	2회
Walker, DD-517	2회	Erben, DD-631	4회
Stembel, DD-644	3회	Colahan, DD-658	5회
Dashiell, DD-659	...	Black, DD-666	2회
Clarence K. Bronson, DD-668	1회	Cotten, DD-669	1회
Healy, DD-672	...	Hickox, DD-673	2회
Hancock, DD-675	2회	Marshall, DD-676	4회
McDermott, DD-677	5회	McGowan, DD-678	2회
McNair, DD-679	2회	Hopewell, DD-681	4회
Wedderburn, DD-684	4회	Picking, DD-685	1회
Halsey Powell, DD-686	2회	Uhlmann, DD-687	2회
Remey, DD-688	...	Preston, DD-795	1회
Porter, DD-800	1회	Gregory, DD-802	4회
Rooks, DD-804	2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Fletcher I (DD-445)”, “Radford II (DD-446)”, “Nicholas II (DD-449)”, “O'bannon II (DD-450)”, “Philip II (DD-498)”, “Renshaw III (DD-499)”, “Cony (DD-508)”, “Trathen (DD-530)”, “Miller (DD-535)”, “The Sullivans I (DD-537)”, “Tingey III (DD-539)”, “Twining (DD-540)”, “Yarnall II (DD-541)”, “Boyd”, “Cowell II (DD-547)”, “Hailey (DD-556)”, “Laws (DD-558)”, “Prichett (DD-561)”, “Robinson II (DD-562)”, “Watts (DD-567)”, “Walker”, “Erben (DD-631)”, “Hale II (DD-642)”, “Stembel (DD-644)”, “Colahan (DD-658)”, “Dashiell (DD-659)”, “Black (DD-666)”, “Clarence K. Bronson (DD-668)”, “Cotten (DD-669)”, “Healy (DD-672)”, “Hickox (DD-673)”, “Lewis Hancock (DD-675)”, “Marshall (DD-676)”, “McDermut II (DD-677)”, “McGowan (DD-678)”, “McNair (DD-679)”, “Hopewell II (DD-681)”, “Stockham (DD-683)”, “Wedderburn (DD-684)”, “Picking (DD-685)”, “Halsey Powell (DD-686)”, “Uhlmann (DD-687)”, “Remey (DD-688)”, “Preston VI (DD-795)”, “Porter IV (DD-800)”, “Gregory II (DD-802)”, “Rooks (DD-804)”,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107208 USS Erben”,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배틀급 구축함 Battle class destroyer

개요

배틀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직후에 영국과 호주에서 건조되었으며, 영국에서 24척, 호주에서 2척이 건조되어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이 운용했다. 그중 호주 해군의 2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호주 해군의 배틀급 구축함 안작함(Anzac).
© Royal Australian Navy

배틀(Battle)급 구축함은 기존에 영국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보다 항속 거리를 늘려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1942년 말에서 1944년 초까지 진수 되었으며, 1944년 9월에서 1946년 12월에 취역을 완료했다. 24척이 영국에서 건조되었으며, 2척이 호주에서 건조되었다. 제원과 무장이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이에 따라 배틀급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기도 한다. 함명은 영국과 관련이 있는 전투들에서 따왔다.

배틀급 구축함 제원

구분	배틀급 구축함	
	1그룹	2그룹
기준배수량	2,315~2,325톤	2,380~2,400톤
만재배수량	3,290~3,300톤	3,400~3,420톤
전장	115.52m	115.52m
전폭	12.27m	12.34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2기 • Parsons Geared 터빈 2기 • 50,000마력 	
최고속력	35.7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인치 45구경 Mk.3 2연장포 2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4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8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인치 45구경 Mk.3 2연장포 2문 • 4.5인치 45구경 Mk.4 단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3문 • 40mm 56구경 보포스 단장포 2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승조원	247~308명	281~30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44.

6·25전쟁 기간에는 호주에서 건조된 호주 해군의 토브룩함(Tobruk, D37)과 안작함(Anzac, D59)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한 배틀급 구축함인 안작함은 1948년 8월 20일에 진수되어 1951년 3월 14일에 취역한 호주 해군의 신형 구축함이었다. 기존 배틀급 구축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고(기준배수량 2,214톤) 속도가 느렸지만(31노트), 대공화력이 강화되고 신형 레이다가 장착되어 전투력이 강화된 구축함이었다.

안작함은 1951년 7월 30일 6·25전쟁 참전을 위해 호주 시드니항을 출발하여 8월 14일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한 후 8월 24일부터 9월 6일 까지 서해안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시실리함과 글로리함을 호위하며 해안 경비와 포격작전에 참가했다. 안작함은 9월 12일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원산포격작전에 참가한 후 9월 26일 한국 해역에서의 1차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떠났다. 안작함의 임무는 호주 해군의 배틀급 구축함인 토브룩함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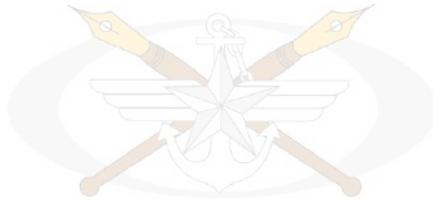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안작함의 제2차 임무는 1952년 9월 28일 서해안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서해안 해상봉쇄와 북한지역 포격 등에 참여한 안작함은 1953년 6월 13일 마지막 해상작전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토브룩함은 안작함과 번갈아가면서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토브룩함의 1차 임무는 1951년 10월 3일에 시작되었다. 1952년 1월 25일 까지 수행한 1차 임무에서 토브룩함은 일본과 한국을 6차례 오가며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해상작전을 펼쳤다. 토브룩함은 1953년 6월 26일 한국

해역에서 다시 한 번 파견임무를 시작하였으며, 1954년 1월까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Royal Australian Navy, "HMAS Anzac(II)", <https://www.Navygov.au/>, 2020. 8. 6.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C급 구축함

C class destroyer

개요

C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에서 총 31척이 건조된 구축함으로, 6·25전쟁 기간에 영국 해군이 5척, 캐나다 해군이 1척을 파견했다.

연혁 및 제원



영국 해군의 채리티함(Charity).

© IWM

C급 구축함은 기존의 S급과 W급 구축함보다 화력통제와 4.5인치 주포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었다. 1943년에서 1945년에 총 31척이 진수되었으며, 하위등급으로 'Ca', 'Ch', 'Co', 'Cr' 등이 있다. Ca급 8척, Ch

급 8척, Co급 8척, Cr급 7척이 건조되었다. 이들 하위등급은 제원과 기본 무장이 비슷하지만, 후기형으로 가면서 신형무기를 장착해 무장력이 강화되었다.

C급 구축함 제원

구분	C급 구축함
기준배수량	1,710~1,730톤
만재배수량	2,510~2,535톤
전장	110.56m
전폭	10.87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2기 • Parsons Geared 터빈 2기 • 40,000마력
최고속력	36.7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인치 45구경 Mk.4 단장포 4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1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4문
승조원	186~222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43.

운 용

6·25전쟁 기간에 영국 해군은 Ch급의 채리티함(Charity, R29)과 Co급의 코케이드함(Cokade, R34)·코머스함(Comus, R43)·콩코드함(Concord, R63)·콘스탄스함(Constance, R71)을, 캐나다 해군은 Cr급

의 크루세이더함(Crusader, R63)을 각각 파견했다.

영국의 C급 구축함들은 영국 해군의 순양함·프리깃함들과 함께 서해안지역 전략도서방어와 동해안의 북한 주요 도시 및 시설에 대한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했다. 캐나다 해군의 크루세이더함은 1950년 7월~12월까지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미 병력수송선 엄호,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상륙작전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FL 7895”, Imperial War Museums, U.K.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N급, S급, V급 구축함

N class, S class, V class destroyer

개요

N급, S급, V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에서 건조한 알파벳명의 구축함 중 N, S, V로 시작되는 함정들이다. 총 23척이 건조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 네덜란드 해군이 2척, 캐나다 해군이 1척을 파견했다.

연혁 및 제원



캐나다 해군의 수함(Sioux). 캐나다 해군이 1946년에 영국에서 구매했다.
출처 : "HMCS SIOUX (R64)", ReadyAyeReady.com.

N급, S급, V급 구축함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총 23척이 진수되었다. 영국 해군의 트라이블급과 C급 구축함의 중간에 위치한다. N급 8척, S급 8척, V급 7척이 건조되었다.

N급, S급, V급 구축함 제원

구분	N급, S급, V급 구축함		
	N급	S급	V급
기준배수량	1,760톤~1,773톤	1,710톤~1,730톤	
만재배수량	2,330톤~2,384톤	2,505톤~2,545톤	
전장	108.66m	108.66m	
전폭	10.87m	10.87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Parsons Geared 터빈 4기 40,0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4기 Parsons Geared 터빈 4기 40,000마력 	
최고속력	36노트	36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인치 45구경 Mk.12 2연장포 3문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1문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인치 45구경 Mk.12 단장포 4문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1문 21인치 어뢰발사관 8문 	
승조원	183~218명	180~225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41~42.

6·25전쟁 기간에 네덜란드 해군은 N급의 반 갈렌함(Van Galen)과 S급의 에베르센함(Evertsen)·피이트 하인함(Piet Hein)을, 캐나다 해군이 V급의 수함(Sioux)을 각각 파견했다.

네덜란드의 에베르센함은 1950년 7월에서 1951년 4월까지, 반 갈렌함은 1951년 4월에서 1952년 3월까지, 피이트 하인함은 1952년 3월에서 1953년 1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초계와 봉쇄 임무를 수행했다.

캐나다의 수함은 1950년 7월 5일 캐나다 해군의 트라이블(Tribal)급 구축함 애서배스칸함(Athabaskan), 캐유가함(Cayuga) 등과 함께 캐나다를 출발해 7월 30일 한국 해역에 진입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수함을 비롯한 캐나다 해군의 함정들은 이날부터 1955년 9월 본국으로 귀향할 때까지 미 병력수송선 엄호,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상륙작전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수함은 1950년 7월에서 1951년 1월까지, 1951년 4월에서 1952년 2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한국에 파견되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eadyAyeReady.com., “HMCS SIOUX (R64)”, <https://readyayeready.com/ships/shipview.php?id=1382&ship=SIOUX>, 2020. 8. 17.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트라이블급 구축함

Tribal class destroyer

개요

트라이블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영국이 설계하고 영국과 캐나다에서 총 27척이 건조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 영국 해군이 1척, 호주 해군이 2척, 캐나다 해군이 6척을 파견했다.

연혁 및 제원



호주 해군의 워라문가함(Warramunga).

© Royal Australian Navy

트라이블(Tribal)급 구축함은 1930년~1940년대 영국과 캐나다에서 건조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구축함 푸부키함(Fubuki)급처럼 중무장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에서 건조된 함정들은 1938년~1939년에 취역하였으며, 캐나다에서 건조된 함정들은 1942년~1948년에 취역했다.

트라이블급 구축함 제원

구 분	트라이블급 구축함
기준배수량	1,854~1,959톤
만재배수량	2,519~2,710톤
전장	114.91m
전폭	11.13m~11.43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3기 • Parsons Geared 터빈 2기 • 44,000마력
최고속력	36.25~36.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인치 45구경장 Mk.12 2연장포 4문 •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1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4문
승조원	190~25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40.

은 용

6·25전쟁 기간에 영국 해군은 코사크함(Cossack)을, 호주 해군은 바탄(Battan)함과 워라문가(Warramunga)함을, 캐나다 해군은 캐유가함(Cayuga)·

누트카함(Nootka) · 애서배스칸함(Athabaskan) · 휴런함(Huron) · 하이다함(Haida) · 이로쿼이스함(Iroquois)을 각각 파견했다.

코사크함은 1950년 6월 29일 처음 한국 해역에 파견된 영국 해군의 각종 함정 8척 중 하나였다. 코사크함은 전쟁기간 항공모함 트라이엄프함(Triumph)을 비롯해 순양함 벨파스트함(Belfast), 프리깃함 블랙스완함(Black-Swan)과 더불어 동·서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호주 해군의 바탄함과 워라문가함은 각각 2차례에 걸쳐 6·25전쟁에 참전했다. 바탄함은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1952년 2월부터 8월까지 참전했다. 워라문가함은 1950년 8월부터 1951년 8월까지, 1952년 2월부터 7월까지였다.

캐나다 해군의 트라이블급 구축함은 전쟁 기간 1~2차례에 걸쳐 파견되었다. 캐유가함이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제1차, 1951년 7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제2차 파견되었으며, 애서배스칸함이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제1차, 1951년 9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제2차 파견되었다. 그리고 누트카함이 1951년 1월~7월과 1952년 2월~11월, 휴런함이 1951년 3월~8월과 1953년 6월~1954년 2월, 이로쿼이스함이 1952년 6월~11월과 1953년 6월~1954년 1월, 하이다함이 1952년 11월~1953년 6월 각각 파견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HMAS Warramunga”, Royal Australian Navy.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호위구축함 Destroyer Escort

호위함은 항모전단이나 수송전단 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경계·방어하는 군함이다. 본래 구축함이 호위함으로 사용되었으나 속력이 느린 수송전단을 호위하는 데에 고속·중무장의 구축함을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구축함의 함정수도 부족하여 제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호위함이 건조되기 시작했다. 호위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호위구축함(DE : Destroyer Escort)으로 명명되어 운용되었다. 이후 호위정(EV : Escort Vessel)이라 불렀으며, 다시 호위함으로 불리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에 미국은 버클리급(Buckley class) 4척, 존 C. 버틀러급(John C. Butler class) 2척 등 총 6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호위구축함

구 분	함 정 명	
버클리급 (Buckley class)	Foss(DE-59)	Whitehurst(DE-634)
	Wiseman(DE-667)	Currier(DE-700)
존 C. 버틀러급 (John C. Butler class)	McCoy Reynolds(DE-440)	Lewis(DE-535)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한티미디어, 2016.

James L George 저, 허홍범 역, 『군함의 역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4).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Buckley class destroyer escort

개요

버클리급 호위구축함은 1943년~1944년에 건조되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항모전단·수송전단 호위와 대잠함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총 148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4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군의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와이즈먼함(Wiseman, DE-667).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버클리(Buckley)급 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 보급함을 호위하기 위해 건조한 미 해군의 호위구축함이다. 에버츠(Evarts)급과 캐논(Cannon)급 호위구축함의 중간급으로 154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6척이 취소되고 148척이 건조되었다. 이 중 46척이 무기대여법(Lend-lease)에 따라 영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이를 캡틴급(Captain class) 프리깃함(Frigate)에 포함시켰다.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제원

구분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기준배수량	1,432톤
만재배수량	1,823톤
전장	93.27m
전폭	11.2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12,200마력
최고속력	23.7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단장포 3문 • 1.1인치 4연장포 1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8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2문
승조원	18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36.

비고 : 배수량·전장·전폭은 조셉 허버드함(Joseph C. Hubbard, DE-211), 나머지 제원은 버클리함(Buckley, DE-51) 기준임.

초도함인 버클리함(Buckley, DE-51)이 1943년 1월 9일에 진수되어 4월 30일에 취역하였으며, 함정 대부분이 1943년~1944년에 진수·취역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주로 선단 호위와 대잠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초도함의 함명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전사한 미 해군 항공병기사 존 버클리(John H. Buckley)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버클리급 호위구축함은 기준배수량이 1,432톤, 만재배수량이 1,823톤, 최고속력이 23.7노트였으며, 3인치 단장포 3문, 1.1인치 4연장포 1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8문, 21인치 어뢰발사관 2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포스함(Foss, DE-59), 화이트허스트함(Whitehurst, DE-634), 와이즈먼함(Wiseman, DE-667), 커리어함(Currier, DE-700) 등 총 4척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에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미 해군의 버클리급 호위구축함은 총 4척이었다. 포스함은 1950년 10월 1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국 해역으로 출발하였으며, 11월~12월 진남포, 인천, 흥남 등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포스함은 1950년 12월 25일부터 1951년 8월 18일까지 울산 지역에서 지상군 지원 활동을 펼쳤다.

1947년 1월에 퇴역하였다가 1951년 9월 1일 재취역한 화이트허스트함은 1951년 2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커리어함은 1952년 한 차례 동해안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와이즈먼함은 1950년 9월 11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재취역한 후 곧바로 한국에 파견되어 마산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미 해병 제1사단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의 해군사관생도 80명과 해군 사병 120명이 와이즈먼함에서 사격술과 레이더 및 음파탐지기 사용법을 교육받았다.

6·25전쟁에 참전한 버클리급 호위구축함의 미 해군 종군기념성장 (Battle Star) 수상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포스(Foss, DE-59)	1회	화이트허스트 (Whitehurst, DE-634)	3회
와이즈먼(Wiseman, DE-667)	6회	커리어(Currier, DE-700)	1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6·25전쟁에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미 해군의 버클리급 호위구축함 중 헤이터함(Hayter, DE-212)과 케파트함(Kephart, DE-207)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한국 해군은 1967년 7월 23일 헤이터함을 도입하여 전남함(PG-86)으로, 1974년 11월 15일 케파트함을 도입하여 경북함(PF-85)으로 각각 운용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Foss(DE-59)", "Whitehurst(DE-634)", "Wiseman(DE-667)", "Currier(DE-700)", "Hayter(DE-212)", "Kephart(DE-207)",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USN1037188 USS Wiseman(DE-667)",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 John C. Butler class destroyer escort

개요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조된 미 해군의 마지막 유형으로 기존 호위구축함에 비해 무장력이 강화된 특징을 가졌다. 총 83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2척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미 해군의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 루이스함(DE-535).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작전 중인 모습.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존 C. 버틀러(John C. Butler)급 구축함은 1943년~1944년에 건조된 미 해군의 호위구축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건조된 호위구축함 중 가장 높은 급에 해당한다. 본래 29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210척이 취소되고 83척만이 건조되었다.

초도함인 존 C. 버틀러함(John C. Butler, DE-339)이 1943년 12월 12일에 진수되어 1944년 3월 31일에 취역하였으며, 함정 대부분이 1943년~1944년에 진수·취역했다. 초도함의 함명은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하고 해군십자훈장을 추서 받은 버틀러 소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기존 호위구축함과 비교하여 무장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지니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 제원

구 분	John C. Butler(DE-339)
기준배수량	1,370톤
만재배수량	1,773톤
전장	93.27m
전폭	11.2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12,000마력
최고속력	24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단장포 2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0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문
승조원	186명

출처 : "USS John C. Butler", Wikipedia.

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주로 선단호위와 초계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전쟁 말기에 등장하여 큰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다.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은 기준배수량이 1,370톤, 만재배수량이 1,773톤, 최고속력이 24노트였으며, 5인치 38구경 단장포 2문,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0문, 21인치 어뢰발사관 1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John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의 무장은 함정마다 약간씩 달랐다.

은 용

6·25전쟁 기간 참전하여 실전을 치른 존 C. 버틀러급 호위구축함은 맥코이 레이놀즈함(McCoy Reynolds, DE-440)과 루이스함(Lewis, DE-535) 등 총 2척이었다.

맥코이 레이놀즈함은 1951년 7월 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하였으며, 미드웨이와 일본 요코스카를 거쳐 1952년 5월 17일 한국 동해안에 도착한 후 다음날부터 북한의 성진 지역에 대한 포격에 참여했다. 5월 21일에는 북한의 철도와 열차를 파괴하는 포격에도 참여하였으며, 8월 20일 진주만을 향해 극동지역을 떠날 때까지 동해안과 일본 근해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루이스함은 1952년 7월 19일 미국 샌디에이고를 출발하여 8월 11일 한국 해역에 도착한 후 동해안 95봉쇄·호위부대에 배속되었다. 루이스함은 8월 26일부터 해안 야간포격, 북한군 차량과 집결지 포격, 북한 철도시설 포격, 조명탄 발사로 야간 항공작전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0월에는 한국 해군의 초계함 PC-706함과 함께 원산과 흥남 해안에 대한 초계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북한군 해안포대와 포격전을 벌이기

도 했다. 특히, 10월 13일에는 북한군 해안포대의 사격에 대응하여 고풍탄 178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10월 21일에는 원산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받는 한국 해군의 소해정 두 척을 함포사격으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루이스함도 선체가 일부 파손되었다. 루이스함은 일본 요코스카항으로 이동하여 선체 수리를 마친 후 11월 17일 귀국 길에 올랐다.

멕코이 레이놀즈함과 루이스함은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각각 1회씩 수상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McCoy Reynolds(DE-440)", "Lewis II (DE-535)",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280072 USS Lewis(De-535)",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Wikipedia, "USS John C. Butler", https://en.wikipedia.org/wiki/USS_John_C._Butler, 2020. 7. 9.



기 함 Flagship

기함은 지휘관이 사용하는 함정으로 특정한 깃발을 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함은 주로 전투보다 지휘 통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휘함이라고도 불린다. 주요 기능이 함대를 조정·통제하는 것이므로 무장이나 장갑이 다른 함정에 비해 뛰어날 필요는 없었다. 실제로 6·25전쟁에 참전한 기함들의 무장력은 매우 빈약했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마운트 맥킨리급(Mount McKinley class) 기함 3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기함

구 분	함 정 명	
마운트 맥킨리급 (Mount McKinley class)	Mount McKinley(AGC-7)	Eldorado(AGC-11)
	Estes(AGC-12)	

참고문헌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마운트 맥킨리급 기함

Mount McKinley class flagship

개요

마운트 맥킨리급 기함은 최신 통신장비와 넓은 전투정보실을 갖춘 지휘함으로 6·25전쟁에는 인천상륙작전 때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승함한 것으로 유명한 마운트 맥킨리함을 비롯해 총 3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의 마운트 맥킨리함(Mount Mckinley, AGC-7).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급 기함은 미 해군의 지휘함이었다. 초도함인 마운트 맥킨리함(Mount Mckinley, AGC-7)이 1943년 9월 27일에 진수되어 1944년 5월 1일에 취역했다. 초도함의 명칭은 북미에서 가장 높은 맥킨리산에서 따온 것이다.

초도함 마운트 맥킨리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배수량은 7,350톤이었으며 최고속력은 17노트였다. 무장은 5인치 38구경 단장포 2문, 40mm 보포스 2연장포 4문, 20mm 오리콘 2연장 기관포 10문을 갖추고 있었다. 무장은 다른 함정에 비해 빈약하였지만, 당시 최신의 통신장비와 넓은 전투정보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마운트 맥킨리급 기함 제원

구 분	Mount Mckinley(AGC-7)
기준배수량	7,350톤
만재배수량	12,560톤
전장	139.96m
전폭	19.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1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6,600마력
최고속력	17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단장포 2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4문 • 20mm 오리콘 2연장 기관포 10문
승조원	622명+(441명 : 지휘본부 인원)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158~159.

6·25전쟁 기간에는 초도함 마운트 맥킨리함을 비롯해 엘도라도함(Eldorado, AGC-11), 에스테스함(Estes, AGC-12) 등 총 3척이 참전했다.

마운트 맥킨리함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서태평양에서 미 제8군과 함께 훈련 중이었다. 한국 파견을 명령받은 마운트 맥킨리함은 1950년 7월 미군 증원부대의 포항 상륙을 지휘하기 위해 동해안에 도착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때에는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의 기함으로 사용되었으며, 맥아더 장군이 함상에서 참모들과 함께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사진 촬영을 한 함정으로 유명하다. 마운트 맥킨리함은 1950년 10월 원산 기뢰제거작전,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1951년 1월 피난민 제주도 이송 등에 지휘함으로 사용되었다. 1951년 6월에 제1차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가 1952년 3월에 다시 파견되어 1953년 1월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마운트 맥킨리함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11월에 다시 동아시아지역에 파견되어 한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상륙훈련에 참여했다.

엘도라도함은 인천상륙작전 때 제3상륙전대사령관 테크레이(L. A. Thackrey) 제독의 기함으로 보급작전을 수행하는 지휘·통제함으로 운용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동해안의 이원으로 이동하여 지휘함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0년 12월 인천으로 이동하여 다음해 6월까지 지휘함 임무를 수행했다. 이때 리지웨이 유엔군령관, 벤플리트 미 제8군사령관 등이 엘도라도함을 방문하기도 했다. 엘도라도함은 1952년 10월 다시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으며, 이때 제90부대(TF90) 사령관 무어(W. E. Moore) 제독의 기함으로 운용되었다. 1953년 가을 작전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지휘함의 임무를 수행했다. 1953년 8월에는 포로송환 작전인 ‘빅 스위치 작전(Operation Big Switch)’에서 제주도와 거제도의 공산군 포로들을 인천으로 수송하는 작전을 지휘했다. 그리고 에스테스함은 1951년 1월 31일 재취역하여 그해 7월에 참전했다. 제1상륙전대의 기함으로 운용되었으며, 1952년 4월에 귀국했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마운트 맥킨리함 8회, 엘도라도함 8회, 에스테스함 2회를 각각 수상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⑪(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Mount Mckinley(AGC-7)”, “Eldorado”, “Estes”,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424523 Hungnam Evacuation, December 1950”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유조함 Fleet oilers

유조함은 유류를 공급하는 함정으로 군수지원함에 포함된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에서 군수품을 군함에 직접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 건조된 함정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군함의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해서 오랜 기간 연료, 식량, 수리부속 및 탄약을 적재한 채로 해상에서 작전 임무를 지원하는 함정들이 필요했다. 유조함도 그중 하나이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시마론급(Cimarron Class) 11척, 케네백급(Kennebec class) 1척, 패타스코급(Patapsco class) 1척 등 총 13척의 유조함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 해군 유조함

시마론급 (Cimarron class)	Cimarron AO-22	Platte AO-24
	Guadalupe AO-32	Ashtabula AO-51
	Chikaskia AO-54	Manatee AO-58
	Taluga AO-62	Tolovana AO-64
	Mispyllion AO-105	Navasota AO-106
	Passumpsic AO-107	
케네백급 (Kennebec class)	Kankakee AO-39	
패타스코급 (Patapsco class)	Patapsco AOG-1	

참고문헌

-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시마론, 케네벡, 패타스코급

Cimarron, Kennebec, Patapsco class Fleet

개요

유조함은 유류를 공급하는 함정으로 6·25전쟁 기간 미 해군은 시마론급(Cimarron Class) 11척, 케네벡급(Kennebec class) 1척, 패타스코급(Patapsco class) 1척 등 총 13척을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유조함 매너티함(Manatee, AO-58)이 호주 구축함 위라문가함에 급유하는 장면(1951. 6.).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시마론(Cimarron)급 유조함은 1938~1945년에 35척이 건조되었으며, 하위등급으로 에슈터블러(Ashtabula)급이 있다. 에슈터블러급은 시마론급을 기본으로 대형화 한 것이 특징이다.

시마론급 35척 중 기본형이 28척, 에슈터블러급이 3척 건조되었으며, 4척은 호위항공모함 상가문급(Sangamon class)으로 개조되었다. 기본형은 최고속력 18노트에 기준배수량이 7,590톤, 만재배수량이 25,228톤이었으며, 에슈터블러급은 최고속력 16노트에 기준배수량이 12,840톤, 만재배수량이 33,987톤이었다.

케네벡(Kennebec)급 유조함은 1942년 2월 4일 초도함인 케네벡함(Kennebec, AO36)이 취역한 후 1943년 3월까지 총 16척이 취역했다. 최고속력 16.5노트에 만재배수량이 21,077톤이었다.



구 분	시마론급		케네벡급	패타스코급
	기본형	에슈터블러급		
기준배수량	7,590톤	12,840톤		
만재배수량	25,228톤	33,987톤	21,077톤	4,208톤
전장	169m	196m	153m	94.7m
전폭	23m	23m	21m	14.8m
최고속력	18노트	16노트	16.5노트	15.5노트
유류저장능력	14만 6,000 배럴	18만 배럴	13만 배럴	1,880톤
승조원	304명	304명	214~247명	124명

비고 : 시마론급 기본형은 시마론함(Cimarron, AO-22), 에슈터블러급은 에슈터블러함(Ashatabula, AO51), 케네벡급은 케네벡함(Kennebec, AO36), 패타스코급은 패타스코함(Patapsco, AOG1) 기준임.

패타스코(Patapsco)급은 미 해군의 휘발유 유조함으로 1942년 5월 25일 초도함인 패타스코함(Patapsco, AOG1)이 건조된 후 1945년까지 총 23척이 건조되었다. 최고속력 15.5노트에 만재배수량이 4,208톤이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미국은 시마론급(Cimarron Class) 11척(에슈터블러급 1척 포함), 케네벡급(Kennebec class) 1척, 패타스코급(Patapsco class) 1척 등 총 13척의 유조함을 파견했다.

시마론함은 6·25전쟁 기간 총 3차에 걸쳐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전투함들에 유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제1차 파견은 1950년 7월 6일부터 1951년 6월 3일까지, 제2차 파견은 1951년 8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3차 파견은 1952년 4월 9일부터 1953년 1월 5일까지였다.

플래트함(Platte)은 1951년 4월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동해안 봉쇄호위전대에 유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주로 동해안 지역의 전투함들에 유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과달루페함(Guadalupe)은 1950년 12월 1일 사세보에서 제7함대에 합류한 후 유엔 해군 함정에 유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원산봉쇄작전 때 큰 활약을 했다. 치카스키아함(Chikaskia)은 1953년 5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 해역에서 전투함 연료공급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탈루가함(Taluga)은 1951년 8월부터 1952년 2월까지, 1952년 10월부터 1953년 1월까지 두 차례 파견되어 동해안 지역에서 작전 중인 유엔 해군 함정에 유류를 공급했다.

톨로바나함(Tolovana)은 1951년 9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77부대(TF77) 소속의 항공모함과 함정들에 유류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미스필리온함(Mispillion)은 6·25전쟁 기간 총 3차례 파견되었으며, 인천상륙작전 등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유엔 해군 함정들에 연료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나바소타함(Navasota)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후 1953년 9월까지 총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한국 해역에서 약 7개월씩 복무했다. 패섬식함(Passumpsic)은 1950년 6월부터 1954년 2월까지 해외를 돌면서 한국 해역에도 들러 유류공급 활동을 전개했다.

캥커키함(Kankakee)은 1951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월밍턴을 출발해 1952년 1월 10일 부산에 도착하여 휘발유를 공급하고 귀국하였으며, 패타스코함(Patapsco)은 1952년 4월 25일 일본에 도착한 후 4월 29일 동해안에서 작전 중인 함정들에 유류를 공급하고 귀국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유조함의 미 해군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유조함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Cimarron(AO-22)	4회	Platte(AO-24)	6회
Guadalupe(AO-32)	...	Chikaskia(AO-54)	1회
Manatee(AO-58)	6회	Taluga(AO-62)	4회
Tolovana(AO-64)	2회	Mispillion(AO-105)	8회
Navasota(AO-106)	9회	Passumpsic(AO-107)	9회
Ashtabula(AO-51)	4회	Kankakee(AO-39)	1회
Patapsco(AOG-1)	1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imarron II(AO-22)”, “Platte”, “Chikaskia”, “Aucilla(AO-56)”, “Taluga”, “Manatee II(AO-58)”, “Tolovana(AO-64)”, “Misspillion”, “Navasota”, “Passumpsic”, “Guadalupe I(AO-32)”, “Kankakee”, “Patapsco VI (AOG-1)”,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6261 USS Manatee(AO-58)”,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프리깃함

Frigate

프리깃함은 코르벳(Corvette) 또는 초계함으로 불리는 호위함을 일컫는다. 국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며, 미국의 경우 본래 경비정(PG)으로 분류하였으나 1943년 4월 15일에 초계 호위함(PF)으로 재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위함으로 일컫는다. 주로 연안 경비임무 및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500~1,500톤급의 함정으로, 소해함보다는 크지만 호위구축함보다 크기가 작고 성능이 떨어진다. 연안 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규모가 더 큰 군함인 구축함을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6·25전쟁 기간 미국은 타코마급(Tacoma class) 프리깃함 8척을 파견했다. 한국 해군도 미국으로부터 5척을 무상 지원받아 호위함으로 운영했다. 한국과 미국 이외에도 영국이 블랙 스완급(Black Swan class) 8척과 베이급(Bay class) 5척 등 총 13척을 파견하였으며, 호주가 베이급 2척과 리버급(River class) 2척, 네덜란드가 리버급 3척, 뉴질랜드가 로취급(Loch class) 6척을 파견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지원한 프리깃함으로 태국 해군이 4척, 콜롬비아 해군이 3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타코마급 (Tacoma class)	USS Tacoma(PF-3)	USS Albuquerque(PF-7)
	USS Everett(PF-8)	USS Bayonne(PF-21)
	USS Glouschester(PF-22)	USS Glendale(PF-36)
	USS Burlington(PF-51)	USS Hoquiam(PF-53)

〈표〉 6·25전쟁 참전 한국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타코마급 (Tacoma class)	두만강(PF61)	압록강(PF62)
	대동강(PF63)	낙동강(PF65)
	임진강(PF66)	

〈표〉 6·25전쟁 참전 영국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블랙 스완급 (Black Swan class)	HMS Alacrity	HMS Amethyst
	HMS Black Swan	HMS Crane
	HMS Hart	HMS Modeste
	HMS Opossum	HMS Sparrow
베이급 (Bay class)	HMS Cardigan Bay	HMS Morecambe Bay
	HMS Mounts Bay	HMS St. Brides Bay
	HMS Whitesand Bay	

〈표〉 6·25전쟁 참전 호주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베이급(Bay class)	HMAS Culgoa	HMAS Murchison
리버급(River class)	HMAS Condamine	HMAS Shoalhaven

〈표〉 6·25전쟁 참전 네덜란드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리버급(River class)	HNLMS Dubois	HNLMS John Maurits Van Nassau
	HNLMS Van Zijl	

〈표〉 6·25전쟁 참전 뉴질랜드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로취급 (Loch class)	HMNZS Hawea	HMNZS Kaniere
	HMNZS Pukaki	HMNZS Rotoiti
	HMNZS Taupo	HMNZS Tutira

〈표〉 6·25전쟁 참전 태국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타코마급 (Tacoma class)	HMTS Bangpakong	HMTS Prasae
	HMTS Prasae II	HMTS Tachin

〈표〉 6·25전쟁 참전 콜롬비아 프리깃함

구 분	함 정 명	
타코마급 (Tacoma class)	ARC Almirante Brion	ARC Almirante Padilla
	ARC Capitan Tono	

참고문헌

-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 한티미디어, 2016).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타코마급 프리깃함

Tacoma class frigate

개요

타코마급 프리깃함은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운용한 초계 호위함으로 총 96척이 건조되었으며, 그중 8척이 참전했다. 한국 해군도 미국으로부터 5척을 무상 지원받아 호위함으로 운영했다.

연혁 및 제원



타코마급 프리깃함 호퀴암함(Hoquiam, PF-5). 1951년 10월 8일 한국에 인도되어 한국 해군이 낙동강함(PF-65)으로 명명하고 운용했다.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타코마(Tacoma)급 프리깃함은 미 해군의 초계 호위함(PF)으로 1943년~1945년에 총 96척이 건조되었다.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군함과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리깃함 건조계획을 수립했다. 미 해군은 1942년 캐나다에서 건조 중이던 영국의 리버급(River class) 함정 2척을 들여와 개발을 시작했다. 이때 들여온 2척의 함정이 애쉬빌급(Asheville class)의 애쉬빌함(PF-1)과 나체즈함(Natchez, PF-2)이었으며, 이를 발전시킨 것이 타코마급이었다.

미 해군은 프리깃함을 본래 경비정(PG)으로 분류하였으나 1943년 4월 15일에 초계 호위함(PF)으로 재분류했다. 타코마급의 초도함인 타코마함(PF-3)은 1943년 7월 7일에 진수되었으며, 그해 11월 6일 취역했다. 타코마라는 함명은 미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따온 이름이다. 초도함이 건조된 이후 1945년까지 총 96척이 건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21척이 영국에 이양되어 영국 해군의 콜로니급(Colony class) 호위함이 되었으며, 옛 소련에도 무기대여정책(lend lease)에 따라 28척이 이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타코마급 프리깃함은 미 해안경비대나 다른 국가에 양도되었다. 한국 해군도 6·25전쟁 기간 5척을 무상 지원받아 호위함으로 운용했다.

초도함 타코마함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배수량이 1,450톤, 만재배수량이 2,415톤이었으며 최고속력은 20.3노트였다. 무장은 3인치 50구경 단장포 3문,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9문, 어뢰발사관 2문 등을 갖추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 미 해군은 타코마함을 비롯해 총 8척을 파견하였으며, 태국과 콜롬비아 해군이 각각 4척과 3척을 파견했다.

타코마급 프리깃함 제원

구 분	Tacoma(PF-3)
기준배수량	1,450톤
만재배수량	2,415톤
전장	92.63m
전폭	11.43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rum express 보일러 2기 • Vertical triple-expansion steam 엔진 2기 • 5,500마력
최고속력	20.3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76.2mm) 50구경 단장포 3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9문 • 어뢰발사관 2문
승조원	19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148~149.

운 용

6·25전쟁 기간 미국은 타코마함을 비롯해 앨버커키함(Albuquerque, PF-7), 에버렛함(Everett, PF-8), 베이온함(Bayonne, PF-21), 글로스터함(Glouschester, PF-22), 글렌데일함(Glendale, PF-36), 벌링턴함(Burlington, PF-51), 호퀴암함(Hoquiam, PF-53) 등 총 8척을 파견했다.

타코마함은 1950년 12월 28일 한국 동해안에 도착하여 제95부대

(TF95) 예하 봉쇄호위전대에 배속되어 해상봉쇄작전에 참가했다. 타코마함의 작전구역은 동해안 일대였으며, 특히 1951년 2월 원산 부근의 신도에 110명의 한국 해병대원들을 상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타코마함은 1951년 9월까지 동해안 초계임무, 대잠작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선박 호위, 해안포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타코마함은 1951년 10월 9일 한국 해군에 양도되었다. 한국 해군은 대동강함(PF-63)으로 명명하고 1973년 2월 28일까지 호위함으로 운용했다.

에버렛함은 1950년 7월 26일 재취역한 후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동해안 봉쇄호위전대의 일원으로 운용되었다. 1951년 7월 3일 북한 원산 포격 때 북한군 해안포격으로 8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53년 3월 10일 퇴역한 후 일본에 임대되었다.

베이온함은 1950년 7월 28일 재취역한 후 9월 11일 인천상륙작전 부대에 합류했다. 1952년 2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을 작전구역으로 하여 해상초계, 해안포격, 함정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953년 1월 31일 퇴역하였으며, 1954년 10월 일본에 임대되었다.

글로스터함은 1950년 10월 11일 재취역한 후 그해 12월부터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1952년 9월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약 2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해상초계, 해안포격, 함정호위, 대잠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 해역을 떠난 직후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퇴역하였으며, 1953년 10월 1일 일본에 임대되었다.

글렌데일함은 1950년 10월 11일 재취역한 후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그해 12월부터 흥남·부산·인천 등 한국의 모든 해역을 작전구역으로 활동했다. 1951년 10월 29일 태국 해군에 양도되었으며, 태국 해군은 타친함(Tachin, PF-1)이라는 함명을 부여하고 6·25전쟁 기간 프라스에함(Prasae)과 함께 교대로 참전시켰다.

별링턴함은 1951년 1월 5일 재취역한 후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1952년 7월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함정호위, 북한 동해안 지역 해안포격, 기뢰제거작전 지원, 사상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953년 6월에 콜롬비아 해군에 양도되었다.

호귀암함은 1950년 9월 27일 재취역한 후 10월 25일 원산에 도착하여 상륙부대를 엄호하고 항만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12월 흥남철수작전에도 참여했다. 1951년 9월까지 호귀암함은 함정호위와 북한지역 포격, 초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 후 그해 10월 8일 한국에 양도되었다. 한국 해군은 낙동강함(PF-65)으로 명명하고 호위함으로 운용했다.

이외에도 타코마급 프리깃함 중 소살리토함(Sausalito, PF-4), 록포드함(Rockford, PF-48), 무스코기함(Muskogee, PF-49) 등 3척이 6·25전쟁 기간 한국에 양도되어 한국 해군이 호위함으로 운용했다. 소살리토함은 1952년 9월 4일 한국에 인도되어 임진강함(PF-66)으로, 록포드함은 1950년 10월 23일에 인도되어 압록강함(PF-62)으로, 무스코기함은 1950년 10월 21일에 인도되어 두만강함(PF-61)으로 각각 운용되었다.

한국 해군의 호위함들은 서해안 철수작전, 황해도 용진·연백지구 철수작전, 서해안 도서전투 및 경비작전, 동해안 경비작전인 28작전과 42작전, 호송작전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압록강함이 1952년 5월 21일 울릉도 근해에서 호송임무를 수행하다가 미 탄약함 마운트 베이커함(Mount Baker, AE-4)과의 충돌로 선미 부분이 파손되어 퇴역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과 한국 이외에도 타코마급 프리깃함은 6·25전쟁에 참전한 태국과 콜롬비아 해군이 운용한 유형이기도 했다. 태국 해군은 프리깃함 4척을 2척씩 번갈아가며 파견했는데, 뿌라세함(Prasae)이 1950년 11월~1951년 1월, 방파콩함(Bangpakong)이 1950년 11월~1952년 2월, 뿌라세

Ⅱ함(Prasae Ⅱ)과 타친함(Tachin)이 1951년 11월~1955년 1월까지 파견되었다. 콜롬비아 해군은 파딜라함(Almirante Padilla), 토노함(Capitan Tono), 브리온함(Almirante Brion)을 파견했다. 파딜라함은 1951년 5월~1952년 2월, 토노함은 1952년 4월~1953년 1월, 브리온함은 1953년 6월~1954년 4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보급선단 호위, 해안경비, 함포사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Tacoma III(PF-3)”, “Everett(PF-8)”, “Bayonne”, “Glendale(PF-36)”, “Burlington I(PF-51)”, “Hoquiam(PF-5)”,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78990 USS Hoquiam”, U.S. Navy web site.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

Black Swan class frigate

개요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은 영국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운용한 초계 호위함으로 총 37척이 생산되었으며, 그중 8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영국 해군의 프리깃함 블랙 스완함(Black Swan).

© IWM

블랙 스완(Black Swan)급 프리깃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해군이 초계 호위함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본형인 블랙 스완급과 개량형 블랙 스완급(Modified Black Swan class) 등 두가지 등급이

존재한다.

블랙 스완급 기본형은 1939년~1941년에 8척이 취역하였으며, 개량형은 1942년~1946년에 29척이 취역했다. 개량형이 기본형과 다른 점은 선체의 폭이 약간 넓어졌으며, 무장력이 다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 해군이 블랙 스완급 기본형 1척과 개량형 7척을 파견했다.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 제원

구 분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	
	기본형	개량형
기준배수량	1,300톤	1,350~1,490톤
만재배수량	1,770~1,945톤	1,880~1,950톤
전장	91.29m	91.29m
전폭	11.43m	11.73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2기 Parsons Geared 터빈 2기 4,3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miralty 3-Drum 보일러 2기 Parsons Geared 터빈 2기 4,300마력
최고속력	19.75노트	19.7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3문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1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3문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2문
승조원	180명	192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57~58.

비고 : 무장은 후기형으로 갈수록 신형 무기가 장착되어 강화됨.

6·25전쟁 기간에 영국 해군은 기본형인 블랙 스완함(Black Swan)과 개량형인 알라크리티티(Alacrity)·아메지스트(Amethyst)·크레인(Crane)·하트(Hart)·모데스트(Modeste)·오파섬(Opossum)·스패로우함(Sparrow) 등 총 8척의 블랙 스완급 프리깃함을 파견했다.

이 함정들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해상봉쇄 및 해안포격 작전, 수송선단 호송, 도서해역 경비, 해상초계 임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필요시에 동해안 구역으로 파견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함정별 파견 기간은 블랙 스완함이 1950년 6월~1951년 11월, 알라크리티티함이 1950년 7월~1952년 2월, 아메지스트함이 1951년 2월~1952년 6월, 크레인함이 1952년 3월~1953년 7월, 하트함이 1950년 6월~1951년 3월, 모데스트함이 1953년 5월~7월, 오파섬함이 1952년 12월~1953년 4월, 스패로우함이 1952년 12월~1953년 6월이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FL 2274”, Imperial War Museums, U.K.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리버급, 로취급, 베이급 프리깃함

River class, Loch class, Bay Class frigate

개요

리버급, 로취급, 베이급 프리깃함은 영국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건조한 대잠·대공 호위함으로 상위급인 베이급 26척, 중간급인 로취급 28척, 하위급인 리버급 151척이 건조되었다. 그중 6·25전쟁 기간 영국·호주·뉴질랜드·네덜란드 해군이 베이급 7척, 로취급 6척, 리버급 5척을 파견했다.

연혁 및 제원



영국 해군의 베이급 프리깃함 카디건 베이함(Cardigan Bay).

© IWM

리버(River)급 프리깃함은 1941년~1944년 북대서양에서 대잠·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국이 건조한 함정이다. 영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에서 총 151척이 건조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 여러 국가에 판매되어 사용된 프리깃함이다. 로취(Loch)급은 리버급의 선체 디자인을 바꾸고 대공 능력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1943년~1944년에 총 28척이 진수되었으며, 1944년~1946년에 모두 취역했다. 베이급은 로취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함정으로 로취급에 비해 대공 능력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리버급, 로취급, 베이급 프리깃함 제원

구분	프리깃함		
	리버급	로취급	베이급
기준배수량	1,310~1,410톤	1,435톤	1,600톤
만재배수량	1,920~2,180톤	2,260톤	2,420톤
전장	91.84m	93.57m	93.57m
전폭	11.18m	11.76m	11.76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ralty 3-Drum 보일러 2기 • Vertical triple-expansion steam 엔진 2기 • 5,500마력 		
최고속력	21노트	19.5노트	19.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치 40구경 Mk.14 단장포 2문 • 헛지호그 • 폭뢰투하대(폭뢰 126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치 45구경 Mk.5 단장포 1문 • 2파운드 폼폼 4연장 대공포 1문 • 스쿼드(Squid) 대잠박격포 2문 • 폭뢰투하대(폭뢰 15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치 45구경 Mk.16 2연장포 2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40mm 보포스 단장포 4문 • 헛지호그 • 폭뢰투하대(폭뢰 50발)
승조원	140명	114명	157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58~61.

6·25전쟁 기간 영국 해군의 베이급 5척, 호주 해군의 베이급 2척과 리버급 2척, 뉴질랜드 해군의 로취급 6척, 네덜란드 해군의 리버급 3척이 각각 파견되었다.

은 용

6·25전쟁 기간 베이급 프리깃함은 영국 해군과 호주 해군이 운영하였으며, 총 7척이 참전했다. 영국의 베이급 프리깃함들은 1950년 8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함정마다 4~6회에 걸쳐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카디건 베이함(Cardigan Bay)은 1950년 11월 한국 해역에서 첫 작전을 시작한 후 1953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모어컴 베이함(Morecambe Bay)은 1950년 10월 첫 작전을 시작한 후 1953년 12월까지 4차에 걸쳐 파견되었다. 그리고 마운트 베이함(Mounts Bay)은 1950년 8월~1953년 6월까지 5차, 세인트 브라이드 베이함(St. Brides Bay)은 1950년 12월~1953년 6월까지 4차, 화이트샌드 베이함(Whitesand Bay)은 1950년 8월~1953년 7월까지 6차에 걸쳐 참전했다. 이들 프리깃함들은 주로 서해안 해역에서 해상 초계활동, 해안 포격, 대잠작전, 선박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호주 해군의 베이급 프리깃함은 1951년 3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쿨고아함(Culgoa)이 1951년 5월 9일부터 1952년 2월 17일까지, 머치슨함(Murchison)이 1951년 3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상봉쇄, 도서해역 경비, 호송작전, 해안포격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로취급 프리깃함은 뉴질랜드 해군이 운용한 함정으로 총 6척이 참전했다. 푸카기함(Pukaki)과 투티라함(Tutira)이 1950년 7월 30일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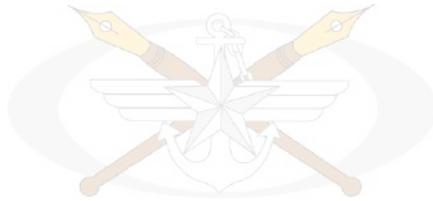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해역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유엔군 해상작전에 참가한 후 뉴질랜드 해군은 전쟁 기간 총 6척의 프리깃함을 교대로 파견하여 수송선단 호송, 해상초계, 기뢰 제거작업 지원, 지상군 함포사격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참전기간은 푸카키함이 1950년 7월~12월, 투티라함이 1950년 7월~1951년 5월, 로토이티함(Rotoiti)이 1950년 10월~1951년 11월과 1952년 1월~1953년 3월, 하웨아함(Haweia)이 1951년 3월~1952년 3월과 1952년 8월~1953년 8월, 타우포함(Taupo)이 1951년 8월~1952년 10월, 카니에르함(Kanere)이 1953년 3월~1953년 4월이었다.

리버급 프리깃함은 호주 해군과 네덜란드 해군이 운영하였으며, 총 5척이 참전했다. 호주 해군의 쇼울헤븐함(Shoalhaven)은 구축함 바탄함(Bataan)과 함께 1950년 7월 1일 참전하여 일본 사세보와 부산을 왕복하는 수송선 호송임무를 수행하고 9월 6일 본국으로 돌아갔다. 콘다민함(Condamine)은 1952년 8월 4일부터 대연평도, 진남포 등에 대해 포격을 실시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서해안 봉쇄와 도서해역 경비 임무를 수행한 후 1953년 3월 15일 한국 해역을 떠났다.

네덜란드의 리버급 프리깃함은 1953년 1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1척씩 파견되었다. 이전까지 네덜란드 해군은 S급과 N급의 구축함 3척을 파견해 해상작전을 펼치다가 이때부터 구축함 대신 프리깃함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한국 해역에 처음 파견된 네덜란드의 리버급 프리깃함은 조안모리츠 반 나소함(Johan Maurits van Nassau)이었다. 나소함은 서해안지원전대에 소속되어 해안포격과 도서해역방어 그리고 항모호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2월 5일 프리깃함 두보아함(Dubois)과 임무를 교대했다. 나소함에 이어 한국 해역에 파견된 두보아함은 1954년 9월 10일 반 지질함(Van Zijil)에 임무를 인계하였고, 반 지질함은 1955년 1월 24일 한국 해역을 떠날 때까지 해상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유엔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IWM Photographs Catalogue No. A 30789”, Imperial War Museums, U.K.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상륙함 Landing Ship

상륙함은 병력과 장비를 상륙해안으로 수송하기 위해 건조된 함정이다. 크기는 수십 톤에서 수만 톤에 이르며, 종류도 다양하다.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상륙전 전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상륙함 개발도 크게 진전되었다. 상륙지점 연안까지 병력을 수송하는 대형함과 대형함에서 발진하여 해안에 직접 상륙시키는 상륙주정이 창안되었고, 수송선 등을 개조하여 상륙함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또한 전차를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전차상륙함(LST : Tanker Landing Ship)이 건조되었으며, 상륙지휘를 위한 지휘함도 건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실로 다양한 상륙함이 건조되었고, 이들 상륙함은 6·25전쟁에도 운용되었다.

6·25전쟁 기간에 미국은 선거상륙함(LSD : Landing Ship Dock) 9척, 전차상륙함(LST : Landing Ship Tank) 56척, 중형상륙함(LSM : Landing Ship Medium) 20척, 로켓상륙함(LSMR : Landing Ship Medium Rocket) 9척 등 총 94척의 각종 상륙함을 파견했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 해군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은 5척의 전차상륙함을 전쟁 기간에 운용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선거상륙함(LSD)

구 분	함 정 명	
애쉬랜드급 (Ashland class)	Epping Forest(LSD-4)	Gunston Hall(LSD-5)
까사그란데급 (Casa Grande class)	Cabildo(LSD-16)	Catamount(LSD-17)
	Colonial(LSD-18)	Comstock(LSD-19)
	Fort Marion(LSD-22)	Tortuga(LSD-26)
	Whetstone(LSD-27)	

〈표〉 6 · 25전쟁 참전 미국 전차상륙함(LST)

구 분	함정명	함정명	함정명
LST 491급 (LST-491 class)	LST-516	LST-527	LST-529
LST 542급 (LST-542 class)	LST-561	LST-602	LST-611
	LST-692	LST-715	LST-735
	LST-742	LST-758	LST-762
	LST-772	LST-799	LST-802
	LST-803	LST-819	LST-822
	LST-825	LST-827	LST-836
	LST-840	LST-845	LST-846
	LST-854	LST-855	LST-857
	LST-859	LST-883	LST-887
	LST-898	LST-901	LST-902
	LST-914	LST-918	LST-973
	LST-975	LST-1048	LST-1068
	LST-1073	LST-1077	LST-1080
	LST-1082	LST-1083	LST-1084
	LST-1089	LST-1090	LST-1096
	LST-1101	LST-1122	LST-1123
	LST-1134	LST-1138	LST-1141
	LST-1146	LST-1148	

〈표〉 6 · 25전쟁 참전 미국 중형상륙함(LSM)

구 분	함 정 명		
-	LSM-58	LSM-110	LSM-125
	LSM-161	LSM-175	LSM-226
	LSM-236	LSM-316	LSM-335
	LSM-355	LSM-362	LSM-397
	LSM-399	LSM-419	LSM-422
	LSM-429	LSM-448	LSM-463
	LSM-546	LSM-547	

〈표〉 6 · 25전쟁 참전 미국 로켓상륙함(LSMR)

구 분	함 정 명	
LSMR-401급 (LSMR-401 class)	Big Black River (LSMR-401)	Blackstone River (LSMR-403)
	Black Warrer River (LSMR-404)	Broadkill River(405)
	Clarion River(LSMR-409)	Desplaines River (LSMR-412)
LSMR-501급 (LSMR-501 class)	ST. Francis River (LSMR-525)	St. Joseph River (LSMR-527)
	St. Joseph River (LSMR-527)	

〈표〉 6 · 25전쟁 참전 한국 전차상륙함(LST)

구 분	함 정 명	
LST 542급 (LST-542 class)	LST-801(천안)	LST-802(철웅)
	LST-803(안동)	LST-805(천보)
	LST-806(용비)	

참고문헌

김석곤 외, 『해군무기의 세계』 (서울 : 한티미디어, 2016).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선거상륙함 Landing Ship Dock

개요

선거상륙함은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운용한 상륙함으로 전차, 장갑차 등을 비롯해 다양한 상륙주정을 실을 수 있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애쉬랜드급(Ashland class) 2척과 까사그란데급(Casa Grande class) 7척 등 총 9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0월 26일 원산상륙작전 지역으로 향해 중인 애쉬랜드급 선거상륙함 건스턴홀함.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선거상륙함(Landing Ship Dock : LSD)은 해안에 직접 접안하여 상륙시키는 방식이 아닌 상륙주정에 전차와 병력 등을 사전에 탑재하여 상륙시키는 방식의 상륙함이다. 기존의 전차상륙함(LST)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미 해군이 1940년대부터 운용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초기형인 애쉬랜드급(Ashland class) 2척과 후속형인 까사그란데급(Casa Grande class) 7척이 운용되었다.

애쉬랜드급 LSD는 1942년 12월 21일 초도함 애쉬랜드함(LSD-1)이 취역한 후 총 8척이 건조되었다. 기준배수량이 4,032톤, 만재배수량이 7,930톤, 최고속력 17노트였다. 적재량은 Mk.3나 Mk.4 전차상륙정(LCT) 2척 또는 Mk.3 기계화상륙정(LCM) 12척 또는 중전차 1대와 1,500톤의 화물 또는 수륙양용트럭(DUKW) 47대 또는 수륙양용정(LVT) 41척 등을 탑재할 수 있었다. 무장은 5인치 38구경 2연장포 1문, 40mm 보포스 4연장포 2문과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6문 등이었다.

까사그란데급 LSD는 애쉬랜드급의 후속형으로 1944년 4월 11일 초도함인 까사그란데함(LSD-13)이 진수된 후 1945년 7월까지 15척이 건조되었다. 까사그란데급 LSD는 영국 측 요구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애쉬랜드급과 배수량, 최고속력, 적재량, 무장력 등에서는 거의 같았지만, 미국보다 규모가 큰 영국의 전차상륙정(LCT)과 당시 새로 개발된 미국의 전차상륙정(LCT)에 맞도록 선체 일부를 개조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상륙함 제원

구 분	선거상륙함	
	애쉬랜드함(LSD-1)	까사그란데함(LSD-13)
기준배수량	4,032톤	4,032톤
만재배수량	7,930톤	7,930톤
전장	139.52m	139.52m

구 분	선거상륙함	
	애쉬랜드함(LSD-1)	까사그란데함(LSD-13)
전폭	22m	2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Skinner Uniflow 터빈 2기 7,4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bcock & Wilcox 보일러 4기 Skinner Uniflow 터빈 2기 7,400마력
최고속력	17노트	17노트
적재량	Mk.3 · Mk.4 전차상륙정(LCT) 2척 또는 Mk.3 기계화상륙정(LCM) 12척 또는 중전차 1대와 1,500톤의 화물 또는 수륙양용트럭(DUKW) 47대 또는 수륙양용정(LVT) 41척	Mk.5 · Mk.6 전차상륙정(LCT) 3척 또는 Mk.3 · Mk.4 전차상륙정(LCT) 2척 또는 Mk.3 기계화상륙정(LCM) 12척 또는 중전차 1대와 1,500톤의 화물 또는 수륙양용트럭(DUKW) 47대 또는 수륙양용정(LVT) 41척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치 38구경 2연장포 1문 40mm 보포스 4연장포 2문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6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치 38구경 2연장포 1문 40mm 보포스 4연장포 2문 40mm 보포스 4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6문
승조원	290명	254명

출처 : "USS Ashland (LSD-1)", "USS Casa Grande, LSD-130", Wikipedia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1.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에핑 포레스트함(Epping Forest, LSD-4), 건스톤 홀함(Gunston Hall, LSD-5) 등 애쉬랜드급 2척과 카빌도함(Cabildo, LSD-16), 카타마운트함(Catamount, LSD-17), 코로니얼함(Colonial, LSD-18), 콤스톡함(Comstock, LSD-19), 포트 마리온함(Fort Marion, LSD-22), 토투가함(Tortuga, LSD-26), 웨스턴함(Whetstone, LSD-27) 등 까사그란데급 7척이 참전했다.

애쉬랜드급인 건스틴 홀함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 해병 제1임시 여단 병력을 싣고 1950년 7월 1일 샌디에이고를 출발하여 8월 3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해병대 병력을 부산항에 하선시킨 후 건스틴 홀함은 일본 오사카로 돌아갈 때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때 미 해병대 상륙병력을 수송하였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여러 차례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했다. 또한 기뢰제거작전에도 참여하였으며, 1953년 9월에는 전쟁포로교환을 위한 ‘빅 스위치 작전(Operation Big Switch)’ 때 인천까지 공산군 포로들을 해상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또 다른 애쉬랜드급인 에핑 포레스트함은 1951년과 1952년에 각각 한차례씩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했다.

카빌도함은 1951년 11월 21일 샌디에이고를 출발해 한국 해역에 도착한 후 1952년 8월까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주로 병력과 무기장비를 수송했다. 1952년 4월에는 원산 부근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해안포 공격을 받기도 했다. 코로니얼함은 인천상륙작전 때 해병대 병력과 전차 등을 상륙시켰으며, 1950년 10월 원산과 이원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 원산의 기뢰제거작전 때에는 모함으로 활동했다. 1951년 8월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1952년 1월에 다시 한국 해역으로 돌아와 그해 11월까지 동해안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카타마운트함은 1950년 10월~12월에 원산상륙작전, 진남포 기뢰제거작전, 흥남철수작전 등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도 1951년 11월 3일부터 1952년 7월 24일까지, 1952년 10월 29일부터 1953년 4월 8일까지 두 차례 더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했다. 포트 마리온함은 1950년 8월 2일 미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싣고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과 원산항 기뢰제거작전에 참여했다. 포트 마리온함은 1952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제2차 파견되어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콤스톡함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 참여하였으며, 한때 동해안의 제3소해전대의 기함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동해안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들을 지원하고 사상자 후송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951년 진남포 상륙작전 때에는 영국 특공대에 상륙정을 제공했다. 1951년 10월~12월, 1952년 7월~12월 한국 해역에서 소해작전의 기함으로 활동했다. 토투가함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52년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해역에 파견되었다. 도서지역 상륙작전과 기뢰제거작전을 지원하였으며, 1953년 9월에는 ‘빅 스위치 작전’에도 참여했다. 웨스턴함은 1951년 4월부터 11월까지, 1952년 1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6·25전쟁에 참전했다.

6·25전쟁 참전으로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수상한 함정별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선거상륙함(LSD)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에핑 포레스트 (Epping Forest, LSD-4)	-	건스톤 홀 (Gunston Hall, LSD-5)	7회
카빌도 (Cabildo, LSD-16)	2회	카타마운트 (Catamount, LSD-17)	7회
코로니얼 (Colonia, LSD-18)	7회	콤스톡 (Comstock, LSD-19)	10회
포트 마리온 (Fort Marion, LSD-22)	5회	토투가 (Tortuga, LSD-26)	5회
웨스턴 (Whetstone, LSD-27)	4회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Gunston Hall I (LSD-5)”, “Cabildo(LSD-16)”, “Colonial”, “Comstock I (LSD-19)”, “Tortuga”, “Whetstone”,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6879 USS Gunston Hall(LSD-5)”,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Wikipedia, “USS Ashland(LSD-1)”, “USS Casa Grande, LSD-130”, <https://en.wikipedia.org/wiki/>, 2000. 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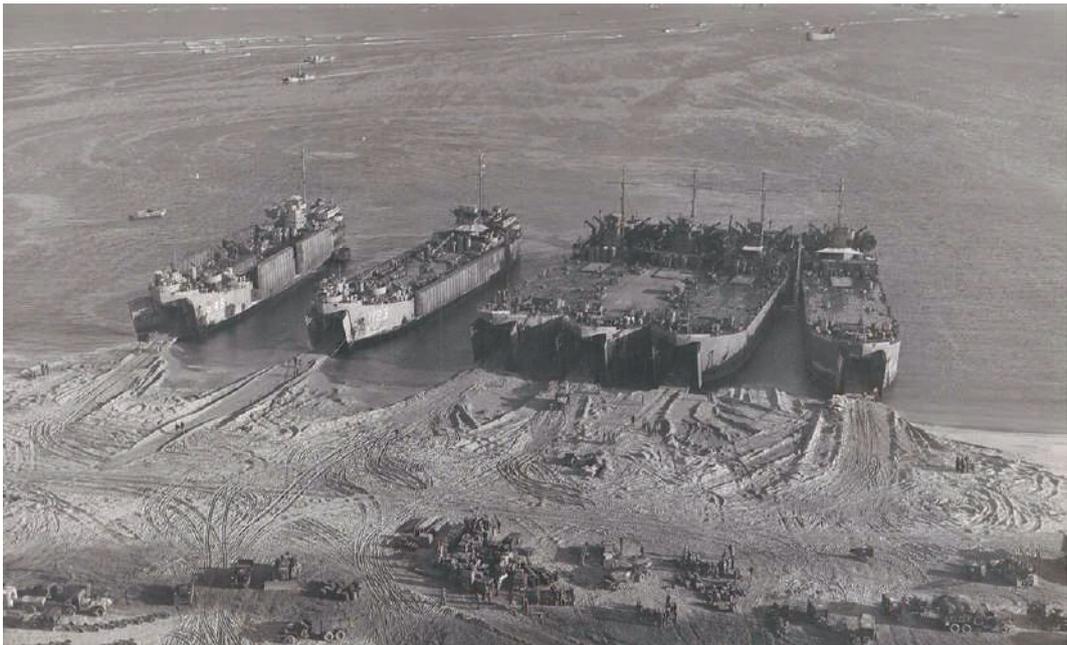
전차상륙함

Landing Ship, Tank

개요

전차상륙함은 전차, 차량, 화물, 상륙병력 등을 직접 해안까지 운반하여 상륙시키는 함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총 56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0월 26일 원산에서 병력과 물자를 내리는 LST의 모습. 6척 모두 LST-542급으로 왼쪽 2척이 LST-845, LST-1123함이다.

© 국사편찬위원회

전차상륙함(Landing Ship, Tank : LST)은 1940년 덩케르크(Dunkirk) 철수작전 때 전차와 차량 등을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대형선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최초의 전차상륙함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영국 해군성은 본래 위넷급(Winette class)의 전차상륙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건조를 원하는 처칠(Winston L. S. Churchill) 수상의 촉구로 이미 사용 중이던 유조선 3척을 전차상륙함으로 개조해 1941년 8월부터 취역시켰다. 이들 3척의 전차상륙함은 마라카이보급(Maracaibo class)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본래 계획된 위넷급 전차상륙함 3척은 1943년 5월에 가서야 취역할 수 있었다. 마라카이보급과 위넷급을 합쳐 일반적으로 전차상륙함 Mk.1급(LST Mk.1 class)이라고 일컫는다.

영국에서 마라카이보급 전차상륙함이 건조된 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전차상륙함 개발이 진행되었다. 램프를 펼치는 시간이 길고, 흘수가 깊어 얕은 해안에 함정을 접안시키기 어려워 상륙작전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해군성은 미 함정국에 새로운 전차상륙함 개발을 요청했고, 미 함정국은 1941년 11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42년 7월에 새로운 전차상륙함 LST-1을 진수시켰다.

새로운 전차상륙함은 기존의 것과 구별하여 전차상륙함 Mk.2급(LST Mk.2 class)으로 일컬어졌다. Mk.2급이 Mk.1급과 다른 점은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 : 선박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하단부의 물탱크)를 사용하고, 함정 앞쪽에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달고 그 안쪽에 짧은 램프를 세워놓았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곧바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차상륙함이 해안선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신속하게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Mk.2급 전차상륙함은 대량건조를 목적으로 규격화된 부품들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1번함인 LST-1이 건조된 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미국에서 1,051척이, 영국과 캐나다에서 80척 이상이 건조되었다. Mk.2급 전차상륙함은 1943년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 공격,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에서 크게 활약했다.

전차상륙함 제원

구 분	전차상륙함	
	LST-491급	LST-542급
기준배수량	1,651톤	1,651톤
만재배수량	3,698톤	4,145톤
전장	99.98m	99.98m
전폭	15.24m	15.24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Motors 12-567 디젤엔진 2기 • 1,8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Motors 12-567 디젤엔진 2기 • 1,800마력
최고속력	12.1노트	12.1노트
적재량	LCVP 2척, 병력 130명	LCVP 4척, 병력 163명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단장포 1문 • 40mm 보포스 대공포 8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2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40mm 보포스 단장포 4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12문
승조원	97~110명	111명

출처 : "USS LST-491", "USS Chelan County (LST-542)", Wikipedia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1.

비고 : LST-419급은 LST-491함, LST-542급은 LST-542함 기준임.

본격적인 전차상륙함 시대를 연 Mk.2급은 LST-1, LST-491, LST-542 등 3개의 하위등급으로 구성되었다. LST-491급은 상륙함 뒤쪽에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권양기와 3.5톤 크레인이 설치되었고, 대빗(davit)이 차량·병력 상륙용 주정(LCVP)을 실을 수 있도록 개량된 것이 특징이었다. LST-542급은 증류기를 추가하고 케이블선을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였으며, 함정 앞쪽에 회전판(Turn table)을 설치하여 화물 적재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특징을 지녔다. 전차상륙함의 제식명은 숫자로 표기되었다가 1955년 7월 1일부터 미국의 자치주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LST-491급 3척과 LST-542급 53척 등 총 56척의 전차상륙함이 참전했다.

은 용

6·25전쟁에 참전한 전차상륙함(LST)은 LST-491급인 LST-516함, LST-527함, LST-529함을 제외하면 나머지 53척이 모두 LST-542급이었다. 이들 전차상륙함은 한 차례 파견시마다 2~6개월가량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등 대규모 상륙작전 또는 철수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도서지역 상륙작전, 해상봉쇄 및 소해작전, 해상구난작전 등에도 투입되었다.

6·25전쟁 기간 활약이 크고 특징적이었던 전차상륙함으로는 LST-799함, LST-898함, LST-1073함 등을 들 수 있다. LST-799함은 헬리콥터를 탑재한 최초의 LST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적색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때 LST-799함은 미 해병 제5연대의 전차부대를 상륙시켰다. 원산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을 비롯해 동해안에서 작전 중인 소해

정들에 대한 보급지원 활동, 해상봉쇄작전 및 구난활동 등에도 참가했다. 6·25전쟁 기간 전차상륙함 중 가장 많은 참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을 9회 수상했다.

LST-898함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51년 겨울과 1952년 가을~겨울까지 총 3회에 걸쳐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기간에 한때 1명의 군의관과 3명의 의사, 그리고 미 육군 의무사령부 소속의 장병 11명으로 편성된 이동외과병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LST-1073함은 1950년 10월 유엔군의 북진작전, 1951년 중공군의 제5차 공세 후에 전개된 유엔군의 재반격작전 등에 참가하였으며, 1952년 여름~가을과 1953년 여름~가을에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1953년 8월부터 시작된 포로송환 작전인 빅 스위치 작전(Operation Big Switch)에 LST-1084함, LST-1090함, LST-1101함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전차상륙함의 함명과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LST의 함명 및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구 분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LST 491급	LST-516	4회	LST-527	2회	LST-529	3회
	LST-561	2회	LST-602	2회	LST-611	2회
LST 542급	LST-692	2회	LST-715	6회	LST-735	3회
	LST-742	5회	LST-758	4회	LST-762	1회

구 분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LST 542급	LST-772	6회	LST-799	9회	LST-802	7회
	LST-803	5회	LST-819	4회	LST-822	4회
	LST-825	2회	LST-827	3회	LST-836	3회
	LST-840	4회	LST-845	6회	LST-846	1회
	LST-854	5회	LST-855	5회	LST-857	7회
	LST-859	6회	LST-883	7회	LST-887	3회
	LST-898	...	LST-901	2회	LST-902	2회
	LST-914	4회	LST-918	1회	LST-973	4회
	LST-975	6회	LST-1048	3회	LST-1068	4회
	LST-1073	6회	LST-1077	...	LST-1080	5회
	LST-1082	4회	LST-1083	3회	LST-1084	3회
	LST-1089	4회	LST-1090	5회	LST-1096	5회
	LST-1101	5회	LST-1122	5회	LST-1123	6회
	LST-1134	3회	LST-1138	5회	LST-1141	4회
	LST-1146	1회	LST-1148	4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78~88.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한국 해군도 미국으로부터 이양받은 5척의 전차상륙함을 6·25전쟁에서 운용했다. 한국 해군은 6·25전쟁 발발 전인 1949년 7월 1일 미 해군의 LST-659함을 인수하여 LST-801함(천안)으로 운용하였으며, 전쟁 기간인

1950년 7월 1일에 LST-542급 4척을 인수하여 각각 LST-802(철웅) · LST-803(안동) · LST-805(천보) · LST-806함(용비)으로 운용했다. 이 중 LST-803함(안동)은 1952년 1월 24일 평안남도 진남포 석도 근해에서 좌초되어 퇴역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네이버 블로그, “전차상륙함(1)”, <https://blog.naver.com/imkcs0425/60167805017>, 2020. 7. 24.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Wikipedia, “USS LST-491”, “USS Chelan County (LST-542)”, <https://en.wikipedia.org/wiki/>, 2000.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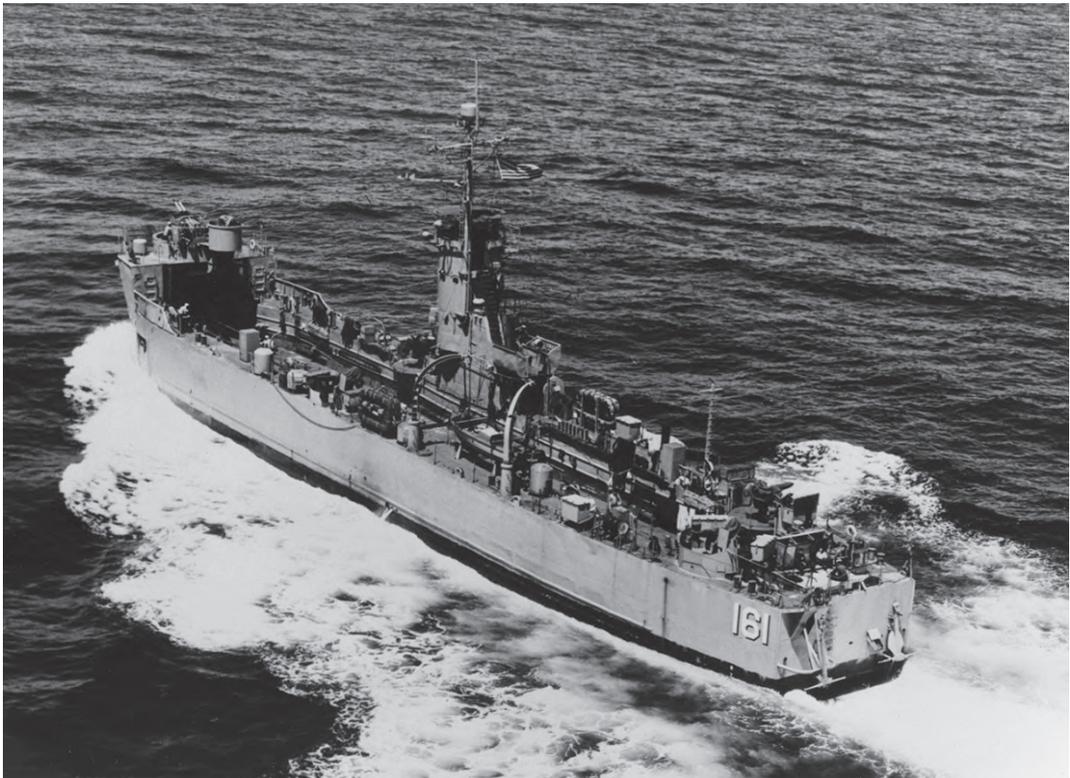


중형상륙함 Landing Ship Medium

개요

중형상륙함은 미 해군이 상륙작전 때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만든 함정으로 전차상륙함보다 톤수가 작은 중형 상륙함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1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항해 중인 LSM-161함.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중형상륙함(Landing Ship Medium : LSM)은 전차상륙함(LST)과 보병용 상륙주정(LCI)의 중간급 상륙함으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함정이다. 미 해군은 1944년부터 1945까지 총 558척을 취역시켰다. 이중 일부가 로켓상륙함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 중형상륙함은 LSM-1급(LSM-1 class), LSM-188급(LSM-188 class), LSM-401급(LSM-401 class), LSM-501급(LSM-501 class)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LSM-1급의 경우 기준배수량이 539톤, 만재배수량이 914톤, 최고속력이 13.3노트였다. 적재량은 중형전차 5대 또는 중전차 3대 또는 수륙양용차(LVT) 6척 또는 수륙양용트럭(DUKW) 9대였으며, 무장은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2연장 기관포 2문이 장착되었다.

중형상륙함 제원

구 분	LSM-1급 중형상륙함
기준배수량	539톤
만재배수량	914톤
전장	63.03m
전폭	10.5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irbanks-Morse 또는 GM Cleveland 디젤엔진 • 2,800마력
최고속력	13.3노트
적재량	중형전차 5대 또는 중전차 3대 또는 수륙양용차(LVT) 6척 또는 수륙양용트럭(DUKW) 9대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mm 보포스 2연장 대공포 2문 • 20mm 오리콘 2연장 대공기관포 4문
승조원	58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2.

비고 : 적재량에 장비와 더불어 병력 54명 탑승 가능.

운 용

6·25전쟁 기간 20척의 중형상륙함이 참전하였으며, 선거상륙함·전차상륙함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참전한 중형상륙함의 함명과 미 해군이 수여하는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6·25전쟁 참전 중형상륙함(LSM)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함정명	수상 횟수
LSM-58	2회	LSM-110	3회	LSM-125	1회
LSM-161	1회	LSM-175	...	LSM-226	1회
LSM-236	1회	LSM-316	4회	LSM-335	...
LSM-355	2회	LSM-362	3회	LSM-397	...
LSM-399	...	LSM-419	4회	LSM-422	...
LSM-429	1회	LSM-448	...	LSM-463	...
LSM-546	4회	LSM-547	4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pp. 76~77.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USN1046057 USS Kodiak(LSM-161)", U.S. Navy web site.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로켓상륙함

Landing Ship Medium Rocket

개요

로켓상륙함은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운용한 상륙함의 일종으로 대형상륙지원정(LCSL)에서 운영하던 주포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켓을 주무장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9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로켓상륙함 블랙스톤 리버함(LSMR-40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로켓상륙함(Landing Ship Medium Rocket : LSMR)은 1944년 대형상륙지원정(LCSL)의 주포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중형상륙함(LSM)을 개조하여 로켓포를 장착한 것이 개발의 시작이었다.

1944년부터 1945년까지 LSMR-188급, LSMR-401급, LSMR-501급 등 3개의 등급으로 제작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LSMR-401급 5척과 LSMR-501급 3척 등 총 8척이 참전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LSMR-401급 로켓상륙함은 만재배수량이 1,194톤, 최고속력 13노트였으며, 무장은 5인치 38구경 단장포 1문,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20mm 오리콘 2연장 대공기관포 4문, 4.2인치 박격포 4문, 5인치 로켓발사기 10대 등이었다.

LSMR-501급 로켓상륙함은 LSMR-401급보다 무장력이 강화된 것으로 새로 개발된 Mk.105 5인치 날개안정식 로켓발사기 10대와 50mm 기관총 2정, 30mm 기관총 2정 등이 추가로 장착되었다.

로켓상륙함 제원

구 분	로켓상륙함	
	LSMR-401급	LSMR-501급
기준배수량	994톤	994톤
만재배수량	1,194톤	1,194톤
전장	62.03m	62.03m
전폭	10.52m	10.5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너럴 모터스 16-287A 디젤엔진 2기 2,8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너럴 모터스 16-287A 디젤엔진 2기 2,800마력
최고속력	13노트	13노트

구 분	로켓상륙함	
	LSMR-401급	LSMR-501급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단장포 1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2연장 대공기관포 4문 • 4.2인치 박격포 4문 • 로켓발사기 1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단장포 1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2연장 대공기관포 4문 • 4.2인치 박격포 4문 • 로켓발사기 20대 • 50mm 기관총 2정 • 30mm 기관총 2정
승조원	143명	14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2 ; "USS Chariton River", "USS St. Joseph's River", Wikipedia.
 비교 : LSMR-401급은 Chariton River(LSMR-407), LSMR-501급은 St. Joseph's River (LSMR-527) 기준임.

응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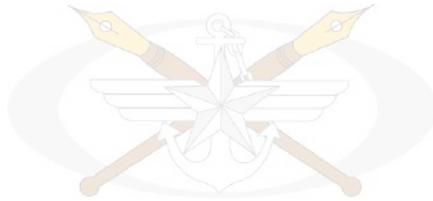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6·25전쟁 기간에는 LSMR-401급 빅 블랙 리버(Big Black River, LSMR-401) · 블랙스톤 리버(Blackstone River, LSMR-403) · 블랙워리어 리버(Black Warrer River, LSMR-404) · 브로드킬 리버(Broadkill River, LSMR-405) · 클라리온 리버(Clarion River, LSMR-409) · 데스플레인즈 리버함(Desplaines River, LSMR-412)과 LSMR-501급 세인트 프란시스 리버(ST. Francis River, LSMR-525) · 세인트 조셉 리버(St. Joseph River, LSMR-527) · 화이트 리버함(White River, LSMR-536) 등 총 9척의 로켓상륙함이 참전했다.

빅 블랙 리버(LSMR-401)·블랙스톤 리버(LSMR_403)·블랙위리어 리버함(LSMR-404)은 ‘블랙’이라는 함명에서도 나타나듯이 6·25전쟁 기간 거의 함께 활동했다. 이들 로켓상륙함은 1950년 7월 미국을 출발하여 8월 6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도착한 후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다. 인천상륙작전시 LSMR-401·403·404 로켓상륙함은 상륙부대가 상륙하기 전 월미도와 인천 해안에 3,0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빅 블랙 리버함을 비롯한 로켓상륙함 3척은 원산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에도 참여하였으며, 1951년 4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동해안 봉쇄작전 및 해안포격, 도서지역 상륙작전 등을 수행했다. 1951년 11월에 제2차 파견되어 1952년 6월까지 동해안과 서해안을 오가며 해상봉쇄와 북한 해안지역 포격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한국 해역에 다시 파견되어 이듬해 3월까지 해상 초계임무를 수행했다. 클라리온 리버함은 1950년 10월 5일 재취역한 후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동해안 해상봉쇄작전에 참여했다.

브로드킬 리버함은 참전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데스플레인즈 리버함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등에 참여하였으며, 화이트 리버함은 1952년 여름과 가을에 동해안에서 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세인트 프란시스 리버함은 1951년 7월부터 12월까지, 1953년 3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주로 서해안지역을 담당했다. 세인트 조셉 리버함은 1952년 6월 한국 해역에 도착하여 주로 서해안지역에서 해상봉쇄와 도서지역 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세인트 조셉 리버함은 1960년 9월에 한국 해군에 인도되어 1982년 5월까지 시흥함(LFR-311)으로 운용되었다.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ig Black River(LSMR-401)”, “Blackstone River(LSMR-403)”, “Black Warrior River”, “Clarion River”, “St. Francis River”, “St. Joseph River”,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USN 1045143 USS Blackstone River(LSM-R403)”,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잠수함 Submarine

잠수함은 주로 해수면 아래에서 항해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함이다. 수중 음파탐지기와 전파탐지기 등을 갖추고 수중 미사일이나 어뢰 등을 무장하고 있다. 6·25전쟁 기간에 미국은 발라오급(Balao class) 25척과 텐치급(Tench class) 1척 등 총 26척의 잠수함을 한국 해역에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잠수함

구 분	함 정 명	
발라오급 (Balao class)	Besugo(SS-321)	Blackfin(SS-322)
	Blenny(SS-324)	Cabezon(SS-334)
	Caiman(SS-323)	Carp(SS-338)
	Catfish(SS-339)	Charr(SS-328)
	Diodon(SS-349)	Greenfish(SS-351)
	Menhaden(SS-377)	Perch II(SS-313)
	Pomodon(SS-486)	Queenfish(SS-393)
	Remora(SS-487)	Ronqil(SS-396)
	Sabalo II(SS-302)	Scabbardfish(SS-397)
	Sea Devil I(SS-400)	Sea Fox(SS 402)
	Segundo(SS-398)	Sterlet(SS-392)
	Tang(SS-563)	Tilefish(SS-307)
	Tiru(SS-416)	
텐치급(Tench class)	Pickerel(SS-524)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발라오급, 텐치급 잠수함

Balao class, Tench class Submarine

개요

발라오급 잠수함은 미 해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운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며, 발라오급 잠수함을 개량하여 항속거리, 어뢰적재량, 잠항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텐치급 잠수함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발라오급 25척과 텐치급 1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발라오급 잠수함 베스고함(Besugo, SS-321).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발라오급 및 텐치급 잠수함 제원

구 분	잠 수 함	
	발라오급	텐치급
수상 배수량	1,525톤	1,526톤
수중 배수량	2,415톤	2,424톤
전장	95.02m	95m
전폭	8.31m	8.31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뱅크스-모르스 38D 8-1/8 또는 제너럴 모터스 Model 16-248 V-16 디젤엔진 4기 • 사르고 126셀 납축전지 2기 • 수상 5,400마력, 수중 2,74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뱅크스-모르스 38D 8-1/8 또는 제너럴 모터스 Model 16-248 V-16 디젤엔진 4기 • 사르고 126셀 납축전지 2기 • 수상 5,400마력, 수중 2,740마력
최고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 : 20.25노트, 수중 : 8.75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 : 20.25노트, 수중 : 8.75노트
항속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00NM(20,000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00NM(31,000k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텍건 1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어뢰 24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텍건 1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1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10문, 어뢰 28발
승조원	81명	81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45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esugo (SS-321)" ; "Balao-class submarine", "USS Tench (SS-417)", Wikipedia.

발라오(Balao)급 잠수함은 기존의 가토(Gato)급 잠수함을 토대로 잠항 속도와 심도를 향상시켜 건조한 약 1,500톤급의 잠수함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총 128척이 취역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건조된 잠수함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잠수함에 비해서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700톤급의 독일 잠수함 U-보트와 비교했을 때 잠항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이 패망하면서 발라오급 잠수함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텐치(Tench)급 잠수함은 발라오급 잠수함을 일부 개량한 것으로 배의 부력을 조절하기 위해 평형수를 담는 밸러스트 탱크(Ballast Tank)의 일부를 연료저장고로 사용해 항속거리와 잠항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라오급 보다 어뢰적재량을 늘린 것도 특징이다. 본래 미 해군은 80척의 텐치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패망이 짙어지면서 29척만을 취역시켰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유엔 해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 해군 잠수함들의 활동은 초계임무에 국한되었다. 한국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한 잠수함은 발라오급 25척과 텐치급 1척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잠수함의 한국 해역 작전기간

구 분	함 정 명	작전기간
발라오급 (Balao class)	Besugo(SS-321)	1950. 5. 21~1951. 4. 11.
	Blackfin(SS-322)	1951. 12~1952. 6.
	Blenny(SS-324)	1952. 5. 25~1952. 10. 18.

구 분	함 정 명	작전기간
발라오급 (Balao class)	Cabezon(SS-334)	1950. 6. 28~1950. 7. 12. 1952. 7. 12~1952. 10. 6.
	Caiman(SS-323)	1952. 2. 16~1952. 7. 27.
	Carp(SS-338)	1952. 9. 22~1953. 4.
	Catfish(SS-339)	1950. 6. 27~1950. 7. 18.
	Charr(SS-328)	1952. 4. 20~1952. 9. 9.
	Diodon(SS-349)	1950. 10. 19~1951. 1. 12.
	Greenfish(SS-351)	1951. 8. 29~1952. 4. 27.
	Menhaden(SS-377)	1951. 8. 7~1952. 8. 13. 1953. 3. 6~1953. 8. 13.
	Perch II(SS-313)	1950. 8. 8~1950. 10. 17.
	Pomodon(SS-486)	1951. 12. 9~1952. 4. 20.
	Queenfish(SS-393)	1951년과 1952년 두 차례
	Remora(SS-487)	1950. 6. 27~1950. 8. 28.
	Ronqil(SS-396)	1950. 10. 29~1950. 11. 11. 1953. 7. 11~1953. 10. 3.
	Sabalo II(SS-302)	1952. 12. 26~1953. 6. 26.
	Scabbardfish(SS-397)	1952. 7. 31~1952. 12. 2.
	Sea Devil I(SS-400)	1952. 10. 7~1953. 3. 3.
	Sea Fox(SS 402)	1951. 9. 15~1952. 2. 18.
	Segundo(SS-398)	1950. 7. 6~1950. 10. 7. 1952. 9. 9~1953. 1. 17.
	Sterlet(SS-392)	1953. 4. 1~1953. 8. 10.
	Tang(SS-563)	1953. 4. 1~1953. 8. 10.
Tilefish(SS-307)	1950. 9. 28~1951. 3. 24.	
Tiru(SS-416)	1951. 6. 9~1951. 11. 26. 1953. 4. 1~1953. 8. 10.	
텐치급 (Tench class)	Pickerel(SS-524)	1950. 8. 23~1950. 10. 27.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63~69.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esugo (SS-321)”,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8361 USS Besugo(SS-321)”,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 “Balao-class submarine”, “USS Tench (SS-417)”, Wikipedia.





수송함 Transport

수송함은 공격부대와 지원장비를 적 해안에 상륙시키는 함정으로 공격 화물함(Attack cargo ship : AKA), 공격수송함(Attack transport : APA), 고속수송함(Fast transport : APD) 등으로 구분된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공격화물함 27척, 공격수송함 23척, 고속수송함 5척이 운용되었다.

〈표〉 6·25전쟁 참전 미국 공격수송함(Attack Transport)

구분	함정명	
공격화물함(AKA)	Achernar(AKA-53)	Algol(AKA-54)
	Alshain(AKA-55)	Andromeda(AKA-15)
	Bellatrix(AKA-3)	Chara(AKA-58)
	Diphda(AKA-59)	Faribault(AKA-179)
	Leo(AKA-60)	Mathews(AKA-96)
	Merrick(AKA-97)	Montague(AKA-98)
	Oberon(AKA-14)	Oglethorpe(AKA-100)
	Seminole(AKA-104)	Skagit(AKA-105)
	Sussex II (AKA-213)	Thuban(AKA-19)
	Titania(AKA-13)	Union(AKA-106)
	Uvalde(AKA-88)	Virgo(AKA-20)
	Warrick(AKA-89)	Washburn(AKA-108)
	Whiteside(AKA-90)	Winston(AKA-94)
	Yancey(AKA-93)	

구 분	합 정 명	
공격수송함(APA)	Bayfield(APA-33)	Bexar(APA-237)
	Calvert II (APA-32)	Cavalier(APA-37)
	Deuel(APA-160)	George Clymer(APA-27)
	Henrico(APA-45)	Lenawee(APA-195)
	Logan(APA-196)	Magoffin(APA-199)
	Menard(APA-201)	Menifee(APA-202)
	Montrose(APA-212)	Mountrail(APA-213)
	Noble II (APA-218)	Okanogan(APA-220)
	Pickaway(APA-222)	President Jackson(APA-18)
	Renville(APA-227)	Sandoval(APA-194)
	Talladega(APA-208)	Telfair(APA-210)
	Thomas Jefferson(APA-30)	
고속수송함(APD)	Begor(APD-127)	Diachenko(APD-123)
	Horace A. Bass(APD-124)	Joseph Wantuck(APD-125)
	Weiss(APD-135)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공격화물함

Attack cargo ship

개요

공격화물함(AKA)은 주로 차량과 보급품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함정으로 무장력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공격 화물함 27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안드로메다급 공격화물함 디프다함(Diphda, AKA-5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공격화물함(AKA) 제원

구 분	공격화물함	
	알라모사급	안드로메다급
기준배수량	2,420톤	6,347톤
만재배수량	7,570톤	13,905톤
전장	118.47m	139.98m
전폭	15m	19.2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rdberg, TSM6 디젤엔진 1기 • 1,75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bustion Engineering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1기 • 6,000마력
최고속력	11.5노트	16.5노트
적재량	화물 3,945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VP 15~16척, LCM(3) 8척, LCP(L) 1척 • 화물 4,450톤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12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12문
승조원	79명	404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hara(AKA-58)" ; "USS Alamosa", Wikipedia.

비고 : 알라모사급은 알라모사함(AKA-156), 안드로메다급은 차라함(AKA-58) 기준임.

공격화물함(AKA)은 상륙작전 시 차량과 보급품 등을 적 해안으로 수송하는 수송함이다. 병력을 수송하는 공격수송함(APA)과는 달리 차량 · 장비 · 보급품 등을 실어 나르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선체에 많은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특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알라모사급(Alamosa class) 2척과 안드로메다급(Andromeda class) 25척 등 총 27척의 공격화물함(AKA)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공격화물함은 상륙함(Landing Ship)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각종 상륙작전에 투입되었으며, 보급품 수송, 피난민 후송, 각종 탄약 보급, 포로 해상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참전 함정별 주요 작전 및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 미국 공격화물함의 작전기간 및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구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알라모사급 (Alamosa class)	Faribault(AKA-179)	1952. 11. 7.~1953. 7. 22. 한국 해역에서 작전	4회
	Sussex II (AKA-213)	1951. 8.~1952. 1. 부산, 인천에 탄약 수송	-
안드로메다급 (Andromeda class)	Achernar(AKA-53)	인천·원산 상륙작전	3회
	Algol(AKA-54)	인천·원산 상륙작전, 진남포 철수작전	5회
	Alshain(AKA-55)	전쟁 초기 지연작전, 인천상륙작전	3회
	Andromeda(AKA-15)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1951~52년 해상봉쇄작전	5회
	Bellatrix(AKA-3)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회
	Chara(AKA-58)	흥남철수작전, 원산항 봉쇄작전, 포로 수송	7회

구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안드로메다급 (Andromeda class)	Diphda(AKA-59)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6회
	Leo(AKA-60)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1951년, 1952년 겨울 작전	5회
	Mathews(AKA-96)	1953년 7월 25일~12월 5일 공산군 포로 수송	-
	Merrick(AKA-97)	빅 스위치 작전	-
	Montague(AKA-98)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4회
	Oberon(AKA-14)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5회
	Oglethorpe(AKA-100)	전쟁 초기 지연작전, 인천상륙작전	2회
	Seminole(AKA-104)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6회
	Skagit(AKA-105)	빅 스위치 작전	2회
	Thuban(AKA-19)	전쟁 초기 지연작전, 인천상륙작전	3회
	Titania(AKA-13)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7회
	Union(AKA-106)	전쟁 초기 미지상군 병력 및 장비 수송, 빅 스위치 작전	2회
	Uvalde(AKA-88)	북한지역 철수작전, 1951년 겨울 작전	2회
Virgo(AKA-20)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9회	

구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횡수
	Warrick(AKA-89)	전쟁 초기 지연작전, 1951년 겨울 작전	2회
	Washburn(AKA-108)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5회
	Whiteside(AKA-90)	전쟁 초기 지연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2회
	Winston(AKA-94)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6회
	Yancey(AKA-93)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3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139~144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hara(AKA-58)",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61555 USS Diphda", U.S. Navy web site.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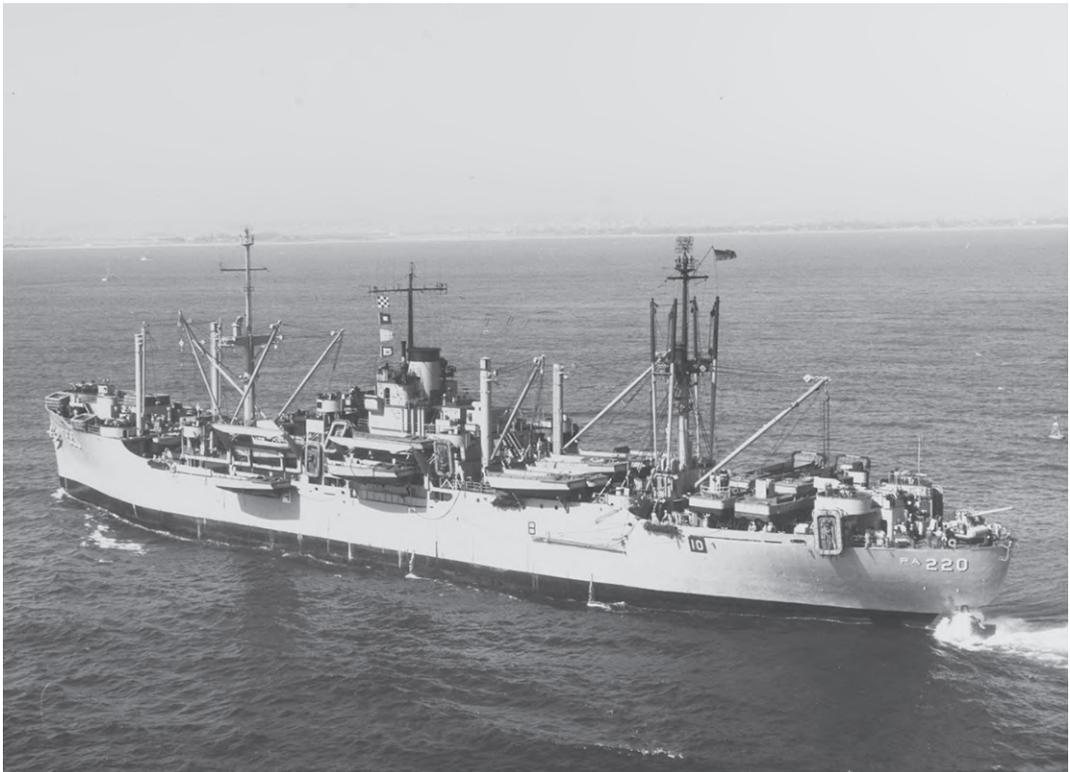


공격수송함 Attack transport

개요

공격수송함(APA)은 주로 상륙 병력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함정으로 무장력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공격수송함 23척이 투입되었다.

연혁 및 제원



하스켈급 공격수송함 오커나건함(Okanogan, APA-22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공격수송함(APA)은 상륙작전 시 상륙 병력과 전투장비를 실어 적 해안으로 수송하는 수송함이다. 만재배수량이 16,000톤에 이르는 비교적 큰 수송함으로 상륙정을 탑재하고 자체 대공화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건조된 미 해군의 프레지던트 잭슨급(President Jackson class) 2척, 크레센트급(Clescent class) 1척,

공격수송함(APA) 제원

구 분	공격수송함	
	베이필드급	하스켈급
기준배수량	8,100톤	6,347톤
만재배수량	16,100톤	13,905톤
전장	150.11m	139.98m
전폭	21.18m	19.2m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type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1기 • 8,5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ader-type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1기 • 8,500마력
최고속력	18노트	18~19노트
적재량	LCVP 12척, LCM 4척, LCPL 3척, 화물 4,500~4,800톤, 병력 1,377명	LCVP 12척, LCM 2척, LCPL 3척, 화물 2,900톤, 병력 1,561명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127mm) 38구경 단장포 2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18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127mm) 38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10문
승조원	575명	536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159~160 ; "Bayfield-class attack transport", "Haskell-class attack transport", Wikipedia.

아서 미들턴급(Arthur Middleton class) 1척, 베이필드급(Bayfield class) 3척, 하스켈급(Haskell class) 16척 등 총 23척의 공격수송함(APA)이 참전했다. 이들 다섯 개 등급 중 프레지던트 잭슨급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며, 크레센트·아서 미들턴·베이필드급은 프레지던트 잭슨급의 개량형이다. 그리고 하스켈급은 당시 최신형으로 가장 많이 건조된 공격수송함이다.

운 용

6·25전쟁 기간 공격수송함은 상륙함(Landing Ship)처럼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각종 상륙작전과 철수작전에 투입되었으며, 미 지상군 병력 수송, 피난민 후송, 포로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함정별 주요 참가 작전 및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 미국 공격수송함의 작전기간 및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프레지던트 잭슨급 (President Jackson class)	President Jackson (APA-18)	인천상륙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3회
	Thomas Jefferson (APA-30)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반격·북진작전	4회
크레센트급 (Clescent class)	Calvert II (APA-32)	1952년 여름~겨울 작전	2회
아서 미들턴급 (Arthur Middleton class)	George Clymer (APA-27)	인천·원산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7회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베이필드급 (Bayfield class)	Bayfield(APA-33)	전쟁 초기 지연작전, 고저상륙작전	4회
	Cavalier(APA-37)	1950년 7월 포항상륙작전과 9월 인천상륙작전, 1951년 미 지상군 수송	4회
	Henrico(APA-45)	인천·원산상륙작전, 흥남철수작전, 미 지상군 병력 교대	9회
하스켈급 (Haskell class)	Bexar(APA-237)	인천·원산상륙작전, 진남포 철수작전, 빅 스위치 작전	3회
	Deuel(APA-160)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9회
	Lenawee(APA-195)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1953년 여름~가을 작전	3회
	Logan(APA-196)	1952년 여름~겨울 작전	1회
	Menard(APA-201)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3회
	Magoffin(APA-199)	중공군 춘계공세와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2회
	Meniffee(APA-202)	1951년 4월~1952년 3월 한국 해역 작전	2회
	Montrose(APA-212)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3회
	Mountrail(APA-213)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3회
	Noble II(APA-218)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
Okanogan(APA-220)	지연작전, 유엔군 반격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6회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하스켈급 (Haskell class)	Pickaway(APA-222)	지연작전, 유엔군 반격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6회
	Renville(APA-227)	미 지상군 교대병력 수송, 1952년 겨울 작전	2회
	Sandoval(APA-194)	거제도 포로수용소 반란사건 진압군 수송, 1952년 여름~가을 작전	2회
	Talladega(APA-208)	미 지상군 교대병력 수송, 1952년 겨울 작전	2회
	Telfair(APA-210)	중공군 춘계공세와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3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144~14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USN 1044193 USS Okanogan(APA-220)", U.S. Navy web site.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Bayfield-class attack transport", "Haskell-class attack transport", Wikip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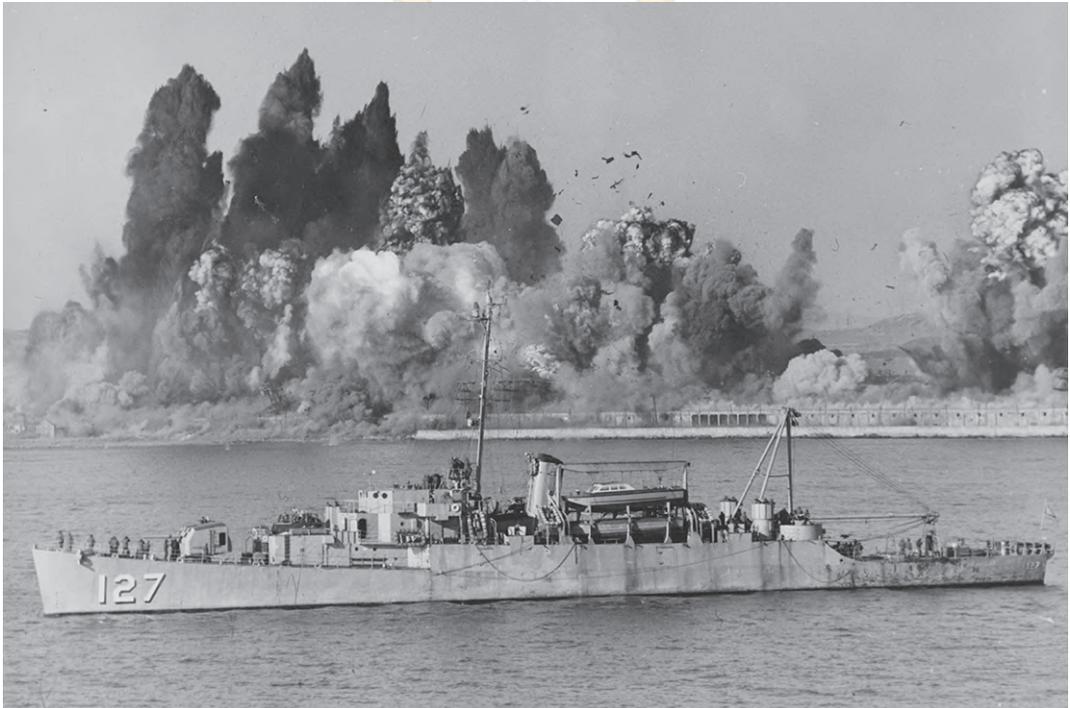


고속수송함 Fast transport

개요

고속수송함(APD)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호위구축함을 개조하여 건조된 수송함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고속수송함 5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12월 24일 흥남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비고르함(Begor, APD-127).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고속수송함(APD)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호위구축함(Destroyer Escort)을 개조하여 만든 수송함이다. 상륙 병력과 전투장비를 실어 적 해안까지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고속수송함은 상륙함이나 공격수송함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속력이 빨랐기 때문에 상륙군 주력부대의 이동에 앞서 정찰대나 선견부대를 이송하였으며, 필요시 수중파괴반(UDT)이 편승하기도 했다. 고속수송함은 이전에 호위구축함으로 되었던 관계로 제식명이 두 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루데로급(Rudderow class) 호위구축함을 개조한 크로슬리급(Crosley class) 고속수송함 5척이 참전했다.

고속수송함(APD) 제원

구 분	크로슬리급 고속수송함
기준배수량	1,725톤
만재배수량	2,114톤
전장	93.27m
전폭	11.2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2기 • Geared General Electric 터빈 2기 • 12,000마력
최고속력	23.6노트
적재량	LCVP 4척, 병력 162명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38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3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6문 • 21인치 어뢰발사관 2문
승조원	20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1.

6·25전쟁 기간 고속수송함은 상륙함(Landing Ship)처럼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각종 상륙작전에 투입되었으며, 미 지상군 병력 수송, 피난민 후송, 포로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함정별 주요 참가 작전 및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 미국 고속수송함의 작전기간 및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크로슬리급 (Crosley class)	Begor(APD-127)	중공군 제3차 공세와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6회
	Diachenko(APD-123)	인천상륙작전, 원산~청진 해안봉쇄작전 시 수중파괴반(UDT) 수송	6회
	Horace A. Bass (APD-124)	전쟁 초기 지연작전, 인천상륙작전, 유엔군 제1·2차 반격작전	6회
	Joseph Wantuck (APD-125)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반격·북진작전	5회
	Weiss(APD-135)	유엔군 반격·북진작전, 1952년 여름~가을 작전	3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144~14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James A. Field, Jr. 저 / 김주식 역, 『미국 해군 작전의 역사 : 한국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107583 USS Begor”,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소해함 Minesweeper

소해함은 부설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함정이다. 소해함이라는 명칭은 기뢰를 제거하여 바다를 청소하는 군함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이 그리브스급(Gleaves class) 구축소해함(Minesweeper, Destroyer : DMS) 4척, 에드미러블급과 오크급 소해함(Minesweeper : AM) 21척을 파견했다.

〈표〉 6·25전쟁 참전 미 해군의 소해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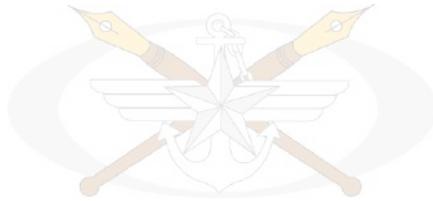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구 분		함 정 명		
구축소해함(DMS)		Carmick(DMS-33)	Doyle(DMS-34)	
		Endicott(DMS-35)	Thompson(DMS-38)	
소해함 (AM)	에드미러블급 (Admirable class)	Incredible(AM-249)	Mainstay(AM-261)	
		Pledge(AM-277)		
	오크급 (Auk class)		Chief(AM-315)	Competent(AM-316)
			Defense(AM-317)	Devastator(AM-318)
			Dextrous(AM-341)	Gladiator(AM-319)
			Impeccable(AM-320)	Murrelet(AM-372)
			Ptarmigan(AM-376)	Redstart(AM-378)
			Ruddy(AM-380)	Shoveler(AM-382)
			Surfbird(AM-890)	Swift(AM-122)
			Symbol(AM-123)	Toucan(AM-387)
	Waxwing(AM-389)	Zeal(AM-131)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

Gleaves class minesweeper, destroyer

개요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기뢰제거를 위해 그리브스급 구축함을 소해함으로 개조한 것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4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 톰슨함(MS-38).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DMS)은 미 해군이 1938년~1943년에 건조된 그리브스급 구축함 66척 중 24척을 개조하여 만든 소해함이다. 1944년과 1945년에 각각 12척씩이 개조되었다.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은 기존에 운영되던 워스급(Wicks class)과 클램슨급(Clemson class) 구축소해함에 비해 선체 크기가 커지고 신형무기를 장착하여 화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35노트에 이르는 속도로 고속소해함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 제원

구분	그리브스급 구축소해함
기준배수량	1,839톤
만재배수량	2,395톤
전장	106.17m
전폭	11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bcock & Wilcox 보일러 2기 • Westinghouse 증기터빈 2기 • 50,000마력
최고속력	35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치 2연장포 3문 • 40mm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대공기관포 7문 • 폭뢰발사기 2문
승조원	27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28 ; "Destroyer minesweeper", Wikipedia.

6·25전쟁 기간에 참전한 구축소해함은 카믹함(Carmic, DMS-33), 도일함(Doyle, DMS-34), 엔디콧함(Endicott, DMS-35), 톰슨함(Thompson, DMS-38) 등 4척이었다. 이들 구축소해함은 제95부대(TF95)에 소속되어 동·서해안에서 화력지원과 소해작전을 수행했다. 전쟁 기간 도일함은 엔디콧함, 카믹함은 톰슨함과 각각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했다.

도일함은 6·25전쟁 기간 2차례 파견되었다. 1차 파견은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2차 파견은 1951년 10월부터 1952년 8월까지였다. 도일함은 엔디콧함과 함께 항공모함 바둥 스트레이트함(CVE-116)과 시실리함(CVE-118)을 호위하면서 한국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함정 중의 하나였다. 1차 파견 기간에 도일함은 1950년 9월에 실시된 장사상륙작전 때 좌초된 문산함의 학도병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0월~11월에는 원산소해작전에 참전했다. 도일함은 1950년 12월에 실시된 흥남철수작전에도 참가했다. 1951년 3월에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그해 10월에 다시 파견되어 1952년 8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6·25전쟁 참전으로 6개의 종군기념성장을 수상했다.

엔디콧함도 6·25전쟁 기간 2차례 파견되었다. 1차 파견은 1951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2차 파견은 1951년 10월부터 1952년 8월까지였다. 1차 파견 기간에 엔디콧함은 1950년 9월에 실시된 장사상륙작전 때 문산함을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0월~12월에는 원산소해작전과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했다. 또한 1951년 1월에는 좌초된 태국의 콜벳함(Corvette) 뿌라세함(Prasae)의 승조원들을 구출하는 작전에 투입되었다. 1951년 3월에 미국으로 복귀하였다가 그해 10월에 다시 파견되어 1952년 8월까지 한국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카믹함도 6·25전쟁 기간 2차례 파견되었다. 1차 파견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2차 파견은 1952년 5월부터 1953년 2월까지였다. 1차 파견 기간에 카믹함은 1950년 10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남포항 소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대표창을 받았다. 2차 파견 기간에는 소해함(AM)들에 대한 화력지원과 더불어 북한해안지역 포격, 도서근해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카믹함은 6·25전쟁 참전으로 종군기념성장 5개를 수상했다.

톰슨함도 6·25전쟁 기간 2차례 파견되었다. 1차 파견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2차 파견은 1952년 5월부터 1953년 2월까지였다. 1차 파견 기간에 톰슨함은 카믹함과 함께 1950년 10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남포항 소해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2월 말에는 동해안 해역으로 파견되어 도일·엔디콧함과 함께 3주간 동해안 해역 소해작전을 수행했다. 2차 파견 기간에는 소해함(AM)들에 대한 화력지원과 더불어 북한해안지역 포격, 도서해역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톰슨함은 6·25전쟁 참전으로 종군기념성장 7개를 수상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Carmick(DD-493)”, “Doyle I(DD-494)”, “Endicott(DD-495)”, “Thompson II(DD-627)”,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L45-279.07-02 USS Thompson (DMS-38)”,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에드미러블급, 오크급 소해함

Admirable class, Auk class Minesweeper

개요

에드미러블과 오크급 소해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에서 건조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해군이 운용한 800톤급의 소해함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에드미러블급 3척과 오크급 18척이 참전했다.

연혁 및 제원



1951년 7월 한국 해안에서 소해작업 중인 에드미러블급 소해함 인크레더블함(Incredible, AM-224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에드미러블(Admirable)급 소해함(AM)은 미 해군이 해상의 기뢰를 제거할 목적으로 만든 기뢰제거함이다. 미 해군은 소해작업과 기뢰부설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제작한 기존의 오크(Auk)급 소해함이 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해작업을 전담하는 함정개발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에드미러블급 소해함이다. 에드미러블급 소해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해군이 운영한 소해함 중 가장

소해함(AM) 제원

구 분	소 해 함	
	에드미러블급	오크급
기준배수량	850톤	890톤
만재배수량	1,000톤	1,250톤
전장	56.24m	67.41m
전폭	10.08m	9.8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CO539 디젤엔진 • 2,000마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esel electric drive • 2,880마력
최고속력	15.1노트	1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6문 • 어뢰발사관 4문 • 폭뢰발사대 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문 • 40mm 56구경 보포스 2연장포 2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 폭뢰발사대 2대
승조원	96명	105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p. 149~150 ; "USS Pledge(AM-277)", "Auk-class minesweeper", Wikipedia.

많이 건조된 함정이다. 총 123척이 건조되었으며, 소해작전은 물론 대잠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크급 소해함은 에드미러블급 소해함이 운용되기 전부터 취역한 소해함으로 소해와 기뢰부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용 소해함이다. 선체 크기는 에드미러블급보다 크고 속도도 빨랐지만, 항속거리가 약 2,000NM 이상 짧았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오크급 소해함은 미국과 영국 해군이 운용하였으며, 총 95척이 건조되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이 에드미러블급 3척과 오크급 18척 등 총 21척의 소해함(AM)을 투입하였으며, 이들 소해함은 동·서해안의 기뢰제거 작업은 물론 대잠경비 등의 초계임무와 해상 구난 활동도 병행했다. 함정별 주요 참가 작전 및 미 해군의 종군기념성장(Battle Star) 수상 횟수는 다음과 같다.

〈표〉 미국 소해함의 작전기간 및 종군기념성장 수상 횟수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횟수
에드미러블급 (Admirable class)	Incredible(AM-249)	전쟁 초기 지연작전,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4회
	Mainstay(AM-261)	동해안 봉쇄작전, 해상 구난작전	4회
	Pledge(AM-277)	전쟁 초기 지연작전, 인천상륙작전	...
오크급 (Auk class)	Chief(AM-315)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2년 겨울 작전	2회

구 분	함정명	주요 참가 작전	수상 횡수
오크급 (Auk class)	Competent(AM-316)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2년 겨울 작전	2회
	Defense(AM-317)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2년 겨울 작전	2회
	Devastator(AM-318)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2년 겨울 작전	2회
	Dextrous(AM-341)	원산 기뢰제거작전, 유엔군 제2차 반격작전	5회
	Gladiator(AM-319)	인천, 원산, 흥남 기뢰제거 작전	...
	Impeccable(AM-320)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2년 겨울 작전	2회
	Murrelet(AM-372)	1952년 5월 작전 중 포격으로 선체 일부 손상	...
	Ptarmigan(AM-376)	인천, 흥남, 성진, 초도 기뢰제거 작전	4회
	Redstart(AM-378)	유엔군 제1차 반격작전, 1952년 겨울 작전	5회
	Ruddy(AM-380)	원산 소해작전, 포로 수송, 1952년 겨울 작전	2회
	Shoveler(AM-382)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회
	Surfbird(AM-890)	1952년 겨울 작전, 1953년 여름~가을 작전	2회
	Swift(AM-122)	1952년 겨울 작전, 1953년 여름~가을 작전	2회
	Symbol(AM-123)	1951년 겨울 작전, 1952년 여름~겨울 작전	2회
	Toucan(AM-387)	1952년 여름~가을 작전, 1953년 여름~가을 작전	2회
	Waxwing(AM-389)	1952년~1953년 소해작전	...
Zeal(AM-131)	원산, 흥남, 청진 소해작전, 해상 구난 활동	1회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159~164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비고 : ...은 확인이 안됨.

참고문헌

-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73146 USS Incredible(AM-249), U.S. Navy web site.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 “USS Pledge(AM-277)”, “Auk-class minesweeper”, Wikipedia.





기타 함정 Other Warships

6·25전쟁 기간에는 대형과 중형 함정 이외에도 소형 함정들이 다수 참전했다. 대표적으로 구잠함, 소해정, 각종 상륙정 등을 들 수 있다. 구잠함은 450~460톤의 PC-461급 6척을 한국 해군이 운용하였으며, 소해정은 AMS형, YMS형, JMS형을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이 운용했다. 미 해군은 AMS형 17척을, 한국 해군은 YMS형 15척과 JMS형 10척을 운용했다. 각종 상륙정은 대형보병상륙정(LCIL), 전차상륙정(LCT), 기계화상륙정(LCM), 차량·병력상륙정(LCVP), 차량상륙정(LCV), 병력상륙정(LCP) 등이 있었다.





PC-461급 구잠함

PC-461 class submarine-chaser

개요

PC-461급 구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소형 구잠정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500톤급의 소해함이었다. 6·25 전쟁 기간에는 한국 해군이 6척을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1950년 6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를 출발하여 항해 중인 한국 해군의 3번 구잠함 삼각산함(PC-70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구잠함은 미 해군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구잠함으로 사용했던 소형 이글 보트(Eagle Boat)를 대체하기 위해 1938년부터 개발계획을 세우고 주문에 들어가 두 가지 시험용 모델(PC-451과 PC-452)을 건조했다. 두 모델의 주된 차이는 선체길이에 있었는데, PC-451함이 165피트(50.29m)였고, PC-452함이 173피트(53.74m)였다. 두 모델을 두고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PC-461급 구잠함이다. PC-461급 구잠함의 선체길이는 173.8피트(53.97m)였다. PC-461급 구

PC-461급 구잠함 제원

구 분	구 잠 함	
	기본형	백두산함
기준배수량	414톤	450톤
만재배수량	463톤	1,250톤
전장	52.97m	67.41m
전폭	7.06m	9.8m
추진기	• 1,440제동마력(bhp)의 디젤엔진 2기	• 1,440제동마력(bhp)의 디젤엔진 2기
최고속력	20.2노트	18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문 •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 50구경 기관총 2정 • 30구경 기관총 2정 • 어뢰발사관 2문 • 폭뢰발사대 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치 50구경 단장포 1문 • 5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65명	7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52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luffton I(PC-461)", U.S. Navy web site ; 임성채 외, 『6·25전쟁과 한국 해군작전』, 526쪽.

잠함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총 343척이 건조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중 일부가 각국에 판매되었다. 1949년 10월 해군장병들의 성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인수한 한국 최초의 함포를 갖춘 백두산함(PC-701)과 1950년 5월에 구매한 금강산(PC-702)·삼각산(PC-703)·지리산함(PC-704)이 모두 PC-461급 구잠함이다. 한국 해군은 이를 구입하여 초계함으로 사용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에 PC 461급 구잠함은 한국 해군이 6·25전쟁 발발 전에 구매한 백두산(PC-701)·금강산(PC-702)·삼각산(PC-703)·지리산함(PC-704)과 1952년 1월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한라산(PC-705)·묘향산함(PC-706)이 참전했다. 백두산함은 1950년 6월 25~26일 대한해협 해전, 7월 군산지구 방어작전과 여수 철수작전, 9월 인천상륙작전, 11월 동해안 철수작전, 1951년 1월 황해도 용진과 연백지구 작전, 2월 인천 탈환전, 1951년 10월~1952년 12월 동해와 서해 경비작전 등 전쟁 초기부터 주요 해상 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금강산·삼각산·지리산함은 1950년 7월 16일 한국에 도착하여 곧바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들 구잠함은 군산지구 방어전, 남서해안 봉쇄작전, 덕적도·영흥도 탈환작전, 인천상륙작전, 서해안 도서전투, 동해와 서해 경비작전, 창린도 작전 등에 참여했다. 이중 삼각산함은 1950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통영상륙작전에서 기함 역할을 했다. 한국 해군의 구잠함 4번함인 지리산함은 1951년 12월 26일 동해 경비작전인 28호작전을 수행하던 중 기뢰에 접촉·침몰하여 승조원 57명 전원이 전사하는 참사를 맞았다.

6·25전쟁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한라산과 묘향산함은 1952년 5월 3일 부산 해군본부 부두에서 명명식을 갖고 작전에 투입되었다. 두 함정은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동해와 서해 경비작전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임성채 외, 『6·25전쟁과 한국 해군작전』(계룡: 해군본부, 2012).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luffton I(PC-461)”,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85486 Sam Kak San”. U.S. Navy web site.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YMS, AMS, JMS급 소해정

YMS, AMS, JMS class minesweeper

개요

YMS와 AMS급 소해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에서 건조된 목선의 보조소해정이며, JMS형 소해정은 일본에서 건조된 철제 소해정이다. 6·25전쟁 기간 한국 해군은 YMS급 15척과 JMS급 10척을, 미 해군은 AMS급 17척을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YMS-463정. 1947년 6월에 한국 해군이 인도하여 강릉정(YMS-507)으로 운용했다.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YMS급 소해정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해군이 자국의 항만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소형의 목선 소해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소해정의 작전범위는 항만 방어를 넘어 연안 방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 해군은 1943년부터 YMS(Auxiliary Motor Minesweeper)급 보조소해정을 다량 건조했다. YMS급 소해정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총 561척이 건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7년에 미 해군은 YMS급 소해정 중 자성(磁性)이 비교적 약한 58척을 AMS(Motor Minesweeper)급으로 재분류했다. 따라서 AMS급은 YMS급 소해정과 형태와 성능에서 거의 동일했다.

소해정 제원

구 분	소 해 정	
	YMS/AMS	JMS
기준배수량	251톤	-
만재배수량	278톤	180톤
전장	41.45m	38.1m
전폭	7.47m	5.49m
추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너럴모터스 8-268A 디젤엔진 2기 800마력 	-
최고속력	14.1노트	13노트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인치 50구경 2연장포 1문 40mm 보포스 대공포 1문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어뢰발사관 2문 폭뢰발사대 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mm 포 1문 20mm 포 1문 5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60명	20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54 ; 국방일보 무기백과
 비교 : 한국 해군의 YMS형 소해정에는 3인치 함포와 40mm 보포스 대공포가 장착되지 않았다. JMS형 소해정 제원은 국방일보 무기백과 참조.

한국 해군은 1947년~1948년에 미국으로부터 YMS급 19척을 인수했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전 4척이 손실되어 전쟁에는 15척만이 참전하게 되었다.

JMS(Japanese Minesweeper)급 소해정은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해군이 사용한 보조함정으로 기뢰 부설과 소해가 주된 임무였다. 한국 해군은 1946년에 미국을 통해 11척을 인수했다. 11척 소해정 중 1948년 5월에 1척이 손실되어 6·25전쟁에는 10척만이 참전하게 되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한국 해군은 15척의 YMS 소해정과 10척의 JMS 소해정을 운용했다. 한국 해군의 소해정들은 1950년 6월 25일 가평정(YMS-509)이 동해안 옥계에서 첫 전과를 올린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동·서해안에서 기뢰제거와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했다.

전쟁 초기 한국 해군의 YMS급과 JMS급 소해정에는 소해장비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 해군의 소해정들은 1950년 9월부터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해 피해가 증가했다. 옥계전투에서 첫 전과를 올린 가평정도 1950년 9월 28일 구룡포 근해에서 기뢰접촉으로 침몰했다. 북한의 기뢰 위협은 원산상륙작전 때 최고조에 달했다. 원산항 근해에는 약 3,000발의 기뢰가 부설되었고, 이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유엔군의 많은 함정들이 기뢰접촉으로 침몰했다. 한국 해군의 공주정(YMS-516)도 1950년 10월 19일 기뢰접촉으로 침몰했다.

한국 해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해작전을 위해 1950년 10월 23일 제1소해정대를 창설하고, 10월 26일 금강산정(YMS-501)을 비롯해 6척

의 YMS급 소해정을 일본 사세보 미군기지로 보내 소해장비를 장착하게 했다. 이어 1951년 4월까지 추가로 6척의 소해정이 소해장구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 해군의 제1소해정대는 미 해군 소해정대와 함께 작전하면서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간 1,012발의 기뢰를 소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표〉 6·25전쟁 참전 한국 해군의 소해정

구 분	함 정 명	
YMS급	금강산(YMS-501)	경주(YMS-502)
	광주(YMS-503)	개성(YMS-504)
	김해(YMS-505)	강계(YMS-506)
	강릉(YMS-507)	가평(YMS-509)
	강경(YMS-510)	구월산(YMS-512)
	김천(YMS-513)	길주(YMS-514)
	운남(YMS-515)	공주(YMS-516)
	고성(YMS-518)	
JMS급	대전(JMS-301)	통영(JMS-302)
	대구(JMS-303)	태백산(JMS-304)
	두만강(JMS-305)	단양(JMS-306)
	단천(JMS-307)	토성(JMS-308)
	대동강(JMS-309)	덕천(JMS-310)

한편, 6·25전쟁 기간에는 미 해군의 AMS급 소해정 17척도 참전했다. 미 해군 소해정들은 미 해군의 구축소해함(DMS)과 소해함(AM), 그리고 한국 해군의 소해정들과 함께 동·서해안 소해작전에 참가했다. 참전 함정은 다음과 같다.

〈표〉 6 · 25전쟁 참전 미국 소해정

구 분	함정명	함정명
AMS급	Chatterer(AMA-40)	Condor(AMS-5)
	Curlew IV(AMS-8)	Firecrest(AMS-10)
	Gull II(AMS-16)	Heron II(AMS-18)
	Kite II(AMS-22)	Magpie II(AMS-25)
	Merganser II(AMS-26)	Mockingbird II(AMS-27)
	Osprey III(AMS-28)	Partridge(AMS-31)
	Pelican II(AMS-32)	Redhead(AMS-34)
	Pirate(AMS-275)	Swallow III(AMS-36)
	Waxbill(AMS-39)	

출처 :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 pp. 155~159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ictionary of American Naval Fighting Ships*, U.S. Navy web site.

참고문헌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 상·하(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JMS급 소해정(상·하)”, “YMS급 소해정(상·중·하)”, 국방일보 무기백과.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19-N-70355 USS YMS-463”. U.S. Navy web site.

Paul M. Edwards, *Small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Warships in the Korean War*(Jefferson, North Carolina, and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06).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London, Eng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0).



상륙용 주정

Landing Craft

개 요

상륙용 주정은 병력이나 전투장비를 상륙함·수송함에서 해안으로 수송하는 함정이다. 6·25전쟁 기간에는 대형보병상륙정(LCIL), 전차상륙정(LCT), 기계화상륙정(LCM), 차량·병력상륙정(LCVP), 차량상륙정(LCV), 병력상륙정(LCP) 등이 운용되었다.

제 원

대형보병상륙정(Landing Craft Infantry, Large : LCIL) 제원

구 분	LCIL 제원	
	만재배수량	385톤
	전장	48.46m
	전폭	7.21m
	속력	7.21노트
	적재량	병력 209명 또는 화물 75톤
	무장	20mm 오리콘 기관포 5문
	승조원	29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2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89254 USS LCI-738", U.S. Navy web site.

전차상륙정(Landing Craft, Tank : LCT) 제원

구 분	LCT(Mk.6)	
	만재배수량	307톤
	전장	36.3m
	전폭	9.96m
	속력	8노트
	적재량	중형전차 4대 또는 중전차(50톤급) 3대 또는 150톤 화물
	무장	20mm 오리콘 기관포 2문
	승조원	1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8533 USS LCT(6)-1362", U.S. Navy web site.

기계화상륙정(Landing Craft, Mechanized : LCM) 제원

구 분	LCT(Mk.3)	
	만재배수량	52톤
	전장	15.24m
	전폭	4.29m
	속력	8노트(만재시)
	적재량	중형전차 1대 또는 26.8톤 화물 또는 병력 60명
	무장	5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4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54416 Kwajalein Operation, January-February", U.S. Navy web site.

차량·병력상륙정(Landing Craft, Vehicle, Personnel : LCVP) 제원

구 분	LCVP	
	기본배수량	8톤
	전장	10.97m
	전폭	3.2m
	속력	8노트(만재시)
	적재량	중형전차 1대 또는 26.8톤 화물 또는 병력 60명
	무장	5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54416 Kwajalein Operation, January-February", U.S. Navy web site.

차량상륙정(Landing Craft, Vehicle : LCV)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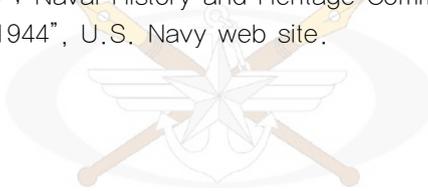
구 분	LCV	
	기본배수량	8톤
	전장	10.97m
	전폭	3.2m
	속력	9노트(만재시)
	적재량	2.72톤 차량 또는 병력 36명
	무장	3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K-13667 Landing Craft, Vehicle(LCV)", U.S. Navy web site.

병력상륙정(Landing Craft, Personnel : LCP) 제원

구 분	LCP(R)	
	만재배수량	8톤
	전장	11.18m
	전폭	3.3m
	속력	8노트(만재시)
	적재량	병력 36명 또는 3~3.6톤 화물
	무장	30구경 기관총 2정
	승조원	3명

출처 : Robert Chesneau & Robert Gardiner, *Conway's All the World's Fighting Ships 1922-1946*, p. 16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359762 Leyte Invasion, October 1944", U.S. Navy web site.





Ⅲ 항공 무기

- 01. 전투기
- 02. 폭격기
- 03. 수송기
- 04. 연락기, 훈련기
- 05. 헬리콥터
- 06. 함재기



전투기

Fighter Aircraft

전투기는 적 항공기와의 공중전, 적 폭격기 요격, 대지공격 등을 목적으로 작고 빠르며, 기동력을 갖춘 군용기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정찰 및 지상 공격 임무에 사용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6·25전쟁은 프로펠러 전투기 시대에서 제트전투기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물론 그 이전에 제트 전투기들이 개발되었지만, 실전에 대량 투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은 6·25전쟁 때부터였다. 1950년 11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소련제 제트전투기인 MiG-15기가 출현하면서 제트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최초로 전개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투기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6·25전쟁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프로펠러 전투기를 비롯해 새로 개발되어 시험 중이던 신형 제트전투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들이 참전했다. 유엔군이 사용한 전투기는 F-51 머스탱(Mustang), F-80 슈팅스타(Shooting Star), F-82 트윈머스탱(Twin Mustang), F-84 썬더제트(Thunderjet), F-86 세이버(Sabre), F-94 스타파이어(Starfire), 미티어 F-8(Meteor-F8) 등 7개 기종이었다. 이중 F-51 머스탱과 F-82 트윈머스탱만이 프로펠러 전투기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제트전투기였다.



F-51 머스탱

F-51 Mustang

개요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로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역사상 최강의 프로펠러 전투기로 꼽힌다. 6·25전쟁 기간 한반도의 산악 전투에서 저속으로 접근하여 지상군을 지원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 공군이 처음으로 운용한 전투기이기도 했다.

연혁 및 제원



출격에 나서고 있는 F-51D 편대.
© 대한민국 공군역사기록관리단

F-51 머스탱(Mustang)은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North American)사가 영국의 생산요청에 따라 1940년 4월 제작에 들어가 그해 10월 26일 첫 비행에 성공한 단발 프로펠러 전투기였다. NA-73X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날개형태와 뜨거워진 공기를 제트 분출의 형태로 라디에이터에 보내는 방열시스템 항공역학을 적용하여 당대 최고의 프로펠러 전투기로 자리매김했다.

생산 초기에는 ‘머스탱’이라고만 불리다가 이후 대량생산되면서 영국 공군에서 P-51이라는 제식명칭을 부여했다. 미 육군항공대도 머스탱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하고 속도제동기 등 일부 부품을 새롭게 장착시켜 도입했다.

P-51은 A·B·C·D·K·H형이 개발되었고, 그중 D와 K형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초기모델인 A형이 높은 고도에서 출력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을 교체한 것이 B·C형이었다. B형과 C형은 생산지가 캘리포니아 잉글우드(Inglewood) 공장이나 또는 텍사스 달라스(Dallas) 공장이나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리고 D·K형은 무장이 강화되고 조종사의 시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는 물방울형 캐노피와 자이로 사격조준기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었다. D·K형도 B·C형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리고 H형은 M2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해 동체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1946년 미 공군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투기에 ‘F’를 붙이면서 P-51 머스탱은 F-51 머스탱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미 공군에서는 F-51을 전투기보다 주로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전폭기로 사용했다. 총 1만 5,386대가 생산되었다.

F-51 제원

구 분		F-51D
승무원		1명
전장/너비		9.81m/11.29m
전고		4.17m
엔진/출력		Packard Merlin V-1650-7, 1,695마력(hp)
중량	자체	3,232kg
	작전	5,262kg
최대속도		703km/h
항속거리		2,100km
최대상승고도		12,770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기관총 6정, 1,000파운드 폭탄 2발 ※ 폭탄 대신 5인치 로켓 10발 대체 가능

출처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 p. 708.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p. 305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79쪽.

비고 : 보조연료탱크 장착 시 전투행동반경은 3,347km(*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

운 용

6·25전쟁기 F-51은 소련의 MiG-15기가 출현하기 전까지 미 제5공군에서 가장 선호한 전투기 중의 하나였다. 전쟁 발발 당시 미 공군은 제트전투기인 F-80 슈팅스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F-51을 주요 전투기 기종으로 활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선으로 물러난 프로펠러 전투기인 F-51이 제트기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전투행동반경이 길었기 때문이었다. 제트기인 F-80은 항속거리가 짧아 일본 기지에서 출격하면 한국 전선에서 불과 15~20분 정도밖에 근접항공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제트기의 항속거리를 연장하거나 한국에 있는 비행장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전쟁 초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제트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보조연료탱크를 달았을 경우 날개에 무리를 가하게 되어 위험하며, 한국 내의 비행장 사용도 전쟁 직후 김포와 수원비행장을 상실하여 사용 가능한 비행장이 수영(K-9), 대구(K-2), 포항(K-3)뿐이었고 그 상태가 좋지 않아 확장공사를 해야만 했다.

제트전투기와는 달리 F-51은 연료 소모도 적고 열악한 한국의 비행장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았다. 또한, 저공에서의 공격이 쉽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선으로 물러난 F-51이 대거 동원 투입되었으며, F-80을 주력기로 하던 부대들이 F-51로 기종을 전환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제5공군 예하 제8전투폭격비행단이었다. 제8전투폭격비행단(제35·제36·제80전투폭격대대, 제68전천후전투비행대대)은 6·25전쟁 발발 당시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주로 F-80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주력기를 F-51로 전환했다.

제8전투폭격비행단과 더불어 제18전투폭격전대도 F-51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부대였다. 제18전투폭격전대(제12·제44·제67전투폭격대대)는 본래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 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제12대대와 제67대대가 전쟁에 투입되었다. 당시 제44대대는 필리핀 방어를 위해 클라크 기지에 남았다. 제18전투폭격전대의 F-51기들은 유엔군이 38도선 이북으로 북진하면서 평양비행장을 사용하였으며, 1950년 11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제2대대를 배속받았다. 제18전투폭격전대는 1950년 12월 1일

미 제5공군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제18전투폭격비행단이 되었으며, 진해비행장을 주기지로 작전을 전개했다.

미 제5공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이외에도 F-51기는 호주 공군 제77대대가 사용했다. 1950년 7월에 참전한 호주 공군 제77대대는 1951년 4월~7월 영국제 제트기인 미티어기(Meteor)로 기종을 전환할 때까지 F-51을 주력기로 사용했다.

한국 내 비행장들이 확장되고 새롭게 건설되면서 미 제5공군은 F-51을 비롯한 구형 전투기들을 신형인 F-86F 전투기로 대체했다. 전투기의 기종전환이 완료된 것은 1952년 말이었다. 당시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8전투폭격비행단이 새로 건설된 오산기지로 이동하면서 보유 중이던 F-51을 한국 공군에 이양하고 F-86F로 무장했다. 이를 계기로 F-51은 미 공군 전투서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F-51은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된 후 처음으로 운용한 전투기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컸다. 6·25전쟁 발발 당시 L형 연락기와 T형 훈련기만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 공군은 미국이 전투기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근석 대령을 비롯한 10명의 조종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10대의 F-51기를 인수하여 7월 2일 귀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 공군의 F-51은 공중전보다는 주로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1952년 1월 평양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은 한국 공군의 F-51이 실전에서 거둔 가장 빛나는 작전이었다. 한국 공군이 최초로 도입한 F-51기는 10대였지만 전쟁 중에 계속 보충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공군이 보유한 F-51은 총 80대에 이르렀다. 이후 F-86 등 제트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F-51은 1956년 8월 5일부터 조종사 훈련용으로 전환되었으며, 1957년 6월 29일 한국 공군에서 완전히 퇴역했다.

참고문헌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무기의 일생’, <국방일보>, 2004년 10월 7일자.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F-80 슈팅스타

F-80 Shooting Star

개요

미 공군 최초의 제트전투기로 록히드사에서 제작하였으며, 1944년 1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6·25전쟁 당시 10개 비행대대에 배치되어 공대공, 공대지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연혁 및 제원



1951년 한반도 상공을 비행 중인 제8전투폭격비행단 소속의 F-80 슈팅스타.
© 국사편찬위원회

F-80 슈팅스타(Shooting Star)는 미국의 록히드(Lockheed)사가 미 육군항공대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4년 1월 첫 비행에 성공한 제트전투기였다. 대량생산에 앞서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트기의 초기 형태라 후퇴익(sweptback wing, 주날개 끝이 뒤를 향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날개 끝에 보조연료탱크를 달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로펠러기인 F-51을 대체하여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를 잡았다. F-80은 1950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A·B·C형과 RF형이 개발되었으며, 총 1,714대가 생산되었다. 그 중 C형이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총 927대가 생산되었다. C형은 A·B형과 비교해서 엔진개선, 연료탱크 용량 증대, 사출좌석 채택 등 여러 개선된 요소들이 있었다. RF형은 고성능카메라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었다. F-80C는 1948년에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6월 11일 'F-80C 슈팅스타'라는 제식명칭을 부여받았다. 6·25전쟁 기간에는 F-80C와 RF-80C가 주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미 공군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유럽 주둔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전투기 기종을 F-51에서 F-80으로 전환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1949년부터 기종전환을 시작해 6·25전쟁 발발 당시 미 제5공군 예하 이타즈케(板村) 기지의 제8전투폭격전대가 72대, 미사와(三澤) 기지의 제49전투폭격전대가 71대, 요코다(横田) 기지의 제35전투요격전대가 94대(RF-80 25대 포함) 등 총 237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F-80C는 미 해군에서도 1949년에 공군으로부터 50대를 이관받아 TO-1(1950년에 TV-1로 개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F-80 제원

구 분		F-80C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0.52m/12.17m
전고		3.5m
엔진/출력		Allison J33-A-23 Turbojet, 4,600lbs
중량	자체	3,738kg
	작전	7,646kg
속도	최대	933km/h
	순항	706km/h
항속거리		2,221km
최대상승고도		13,030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M2 브라우닝 기관총 6정 • 5인치(127mm) 로켓 16발 • 1,000파운드 폭탄 2발

출처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 p. 11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 p. 593.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80쪽.

운 용

F-80 슈팅스타는 6·25전쟁 기간에 첫 선을 보인 제트전투기였다. 처음 전투에 투입된 것은 1950년 6월 26일이었다. 이날 슈팅스타는 김포기지를 공격하던 북한 공군의 IL-10기 2대를 격추하면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북한 공군의 IL-10기는 미 공군의 F-51과 성능이 비슷하여 F-80 제트기에는 필적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첫 전투에서 슈팅스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재래식 전투기보다 빠른 기동력을 발휘해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당시 공격제트기인 F-80은 큰 제약요소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항속거리가 짧아 일본 기지에서 출격하면 한국 전선에서 불과 15~20분 정도밖에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미 제5공군은 제트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조종사들에게 고공비행을 하게 하는 한편 보조연료탱크를 추가로 달게 했다. 그러나 비행 편대의 모든 전투기들이 고공비행을 할 경우 구름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교대로 고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편대장과 분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또한 표준 보조연료탱크 외에 2개의 보조연료탱크를 추가함으로써 이에 위험을 느낀 조종사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 미 극동공군 군수사령부조차 날개 구조에 많은 무리를 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F-80전투기로 전쟁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제약요소는 1950년 9~10월 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이 이루어지고 남한 내 기지에 F-80이 전개하면서 다소 해소되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F-80 슈팅스타는 1950년 7~11월 사이에 767회의 출격 횟수를 기록하며 제트전투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1일 소련 공군의 MiG-15기가 북한지역에 출현하면서 점차 작전수행 범위가 축소되고 신형 전투기인 F-86 세이버(Sabre)로 대체되었다.

6·25전쟁 기간 F-80을 운용한 부대는 제8전투폭격비행단(수원), 제49전투폭격전대(대구), 제51전투요격비행단(김포), 제35전투요격전대(포항)로, 이중 제8전투폭격비행단이 1953년 5월까지 가장 오랫동안 F-80을 운용했으며, 제49전투폭격전대가 1951년 6월까지, 제51전투요격비행단이

1951년 11월까지, 제35전투요격전대가 1950년 12월까지 각각 운용했다.

한편, 6·25전쟁 기간에는 F-80의 개량형으로 전투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RF-80도 운용되었다. RF-80은 1950년 6월 27일부터 일본 이타즈케의 제8전투정찰대대에서 운용한 기종이었다. 제8전투정찰대대는 전선의 변화에 따라 대구를 거쳐 김포기지로 이동하여 정전협정 체결 시까지 작전을 수행했다. 그동안 제8전투정찰대대는 제15전투정찰대대로 부대명칭을 바꾸었다.

이렇듯 6·25전쟁에서 처음 사용된 미 공군의 첫 제트전투기인 F-80은 전투행동반경이 크게 제약되었음에도 조종사들의 고공비행과 보조연료탱크의 추가 장착 등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전쟁 초기 유엔 공군의 제공권 장악에 큰 역할을 했다. 1950년 11월 소련 공군이 참전하면서 본격적인 제트전투기의 대결에서 밀려나 F-86으로 대체되었지만, 이후에도 지상 폭격과 근접항공지원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대한민국 공군에는 1956년 훈련용으로 개량된 T-33이 고등훈련기로 도입되어 1992년까지 운용되었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René J. Francillon, *Lockheed Aircraft Since 1913*(London: Putnam & Company Ltd., 1982).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 The 456th Fighter Interceptor Squadron, US Air Force, "Lockheed F-80", http://www.456fjis.org/F-80_SHOOTING_STAR.htm, 2020. 8. 13.

F-82 트윈머스탱

F-82 Twin Mustang

개요

역사상 최고의 프로펠러 전투기로 꼽히는 F-51 머스탱을 두 대 결합한 형태의 전투기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장거리 폭격기인 B-29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도 전쟁 초기부터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F-51 머스탱과 함께 비행 중인 F-82 트윈머스탱.
©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F-82 트윈머스탱(Twin Mustang)은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North American)사가 미 육군항공대의 요청에 따라 1943년 10월 제작에 들어가 1945년 6월 26일 첫 비행에 성공한 2인석 프로펠러 전투기였다.

트윈머스탱은 B-29폭격기를 호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독일과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패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실전 투입되지 않았다. 1948년 미 공군이 전투기 분류기호를 'P'에서 'F'로 바꾸기 전까지 P-82로 불리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7년 2월에 개량형인 P-82B가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14시간 논스톱 비행에 성공하면서 프로펠러형 전투기 최장 비행기록을 갖게 되었다.

F-82 제원

구 분		F-82		
		E형	F형	G형
승무원		2명	2	2
전장/너비		11.9m/15.6m	12.9m/15.7m	12.9m/15.7m
전고		4.2m	4.2m	4.2m
엔진출력		Allison V-1710-143(왼쪽)과 V-1710-145(오른쪽)		
중량	자체	6,765kg	7,398kg	7,256kg
	작전	11,288kg	11,920kg	11,744kg
속도	최대	741km/h	733km/h	733km/h
	순항	483km/h	463km/h	463km/h
항속거리		4,026km	3,565km	3,602km
최대상승고도		11,704m	11,217m	11,339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기관총 6정 • 1,000파운드 폭탄 4발 		

출처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 p. 21.

비고 : 무장에서 1,000파운드 폭탄 4발은 2,000파운드 폭탄 2발 또는 5인치 로켓 25발로 대체 가능하였음.

1948년 6월 11일 미 공군은 P-82의 제식명칭을 F-82로 변경했다. F-82는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A~H형까지 개발되었으며, 총 272대가 생산되었다. 그중 E·F형이 각각 96대와 91대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일본에 주로 배치된 G형이 45대 생산되었다. A·B형은 시제기와 초기 생산 모델이었으며, C형과 D형은 전천후요격기(All Weather Fighter Interceptor)로 야간요격 임무 수행을 위해 레이다를 장착한 시험용 기종이었다. C형과 D형의 차이는 장착한 레이다 종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C형이 SCR-720을, D형이 APS-4를 각각 장착했다. C·D형의 대량생산 모델이 G·F형이었다. 그리고 E형은 주로 폭격기를 엄호할 목적으로 생산된 장거리 호위전투기(Long Range Escort Fighter)였다.

운 용

6·25전쟁 기간 F-82는 제4전천후비행대대(제51전투요격비행단 배속), 제68전천후비행대대(제8전투요격비행단 배속), 제339전천후비행대대(제35전투요격비행단 배속) 등 3개 비행대대에서 운영했다. 전쟁 발발 후 처음 작전에 투입된 것은 1950년 6월 26일이었다. 이날 제68전천후비행대대는 미국인 철수를 위해 공중과 해상 수송작전에 투입된 수송기와 선박에 대한 엄호임무를 부여받았다. 제68비행대대의 F-82 전투기들은 아침부터 출격하여 인천 상공에서 엄호임무를 수행했다. 공중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날 오후에 북한군 전투기 2대가 접근해 와 이를 격퇴한 것이 첫 번째 승리였다.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제5공군이 보유한 32대에 더하여 제20공군으로부터 27대를 차출하여 F-82로 구성된 제347전천후비행전대를 임시로 편성했다. 이 비행전대는 전쟁 초기 약 10일간 엄호와 지상작전 지원을

수행한 후 1950년 7월 5일 해체되었다, 그리고 전대에 배속되었던 비행 대대들은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했다.

민간인 후송 엄호임무를 마친 F-82는 1950년 6월 28일부터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작전 수행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숫자가 부족하고, 부품 부족으로 예비부품의 적절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는 제트전투기가 생산되면서 프로펠러형 구형 전투기들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F-82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또 1948년부터 생산이 종료되면서 예비부품 보유량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1950년 7월부터 제공권을 유엔 공군이 장악하면서 공대공 전투가 줄어들어 F-82는 지상작전 지원과 폭격기 엄호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여러 난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1950년 10월부터 F-82는 동트기 전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정찰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전천후 전투기답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도로와 철도에 대한 무장정찰을 끊임없이 수행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에 소련의 MiG-15제트기가 전선에 출몰하면서 프로펠러형인 F-82의 효용성은 크게 저하되었다. 1951년에 들어서면서 F-82의 전투임무는 점점 더 제한되었으며, 그해 8월 말에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F-82가 제68비행대대의 8대뿐이었다.

1952년 3월 F-94 스타파이어(Starfire)가 전투에 투입되면서 F-82는 6·25전쟁에서 완전히 퇴역하게 되었다. 1952년 3월 28일 마지막 F-82가 한국 전선을 떠났으며, 일본에 있던 F-82도 1952년 4월 중순까지 모두 알래스카기지로 보내졌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가장 우수한 전투기로 평가받은 F-51 머스탱을 두 대 연결한 F-82는 전천후 전투기답게 6·25전쟁 기간 기상정찰에서

부터 공대공·공대지 전투, 폭격기와 수송기 엄호 등 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전투기로서는 비록 짧은 수명을 지녔지만, 제트기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 마지막으로 생산된 프로펠러형 전투기라는 점에서 항공기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North American F-82(S/N 44-8387) in with North American P-51(S/N 44-8474)”, <https://www.nationalmuseum.af.mil/Upcoming/Photos/igphoto/2000547286/>, 2020. 8. 20.
- René J. Francillon, *Lockheed Aircraft Since 1913*(London: Putnam & Company Ltd., 1982).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F-84 썬더제트

F-84 Thunderjet

개요

F-80 슈팅스타에 이어 두 번째로 양산된 제트전투기로 미국 리퍼블릭사에서 제작하였으며, 1946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주로 지상작전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수풍댐 폭격 기종으로 유명하다.

연혁 및 제원



1952년 10월 북한 상공을 비행 중인 미 제474전투폭격비행단의 F-84 전투기 편대.
© 국사편찬위원회

F-84 썬더제트(Thunderjet)는 미국의 리퍼블릭(Republic)사가 주간 전투기 개발계획에 따른 미 육군항공대의 요청에 따라 1944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1946년 2월 28일 첫 비행에 성공한 제트기였다.

F-80 슈팅스타와 마찬가지로 제트기의 초기 형태라 후퇴익(sweptback wing, 주날개 끝이 뒤를 향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고 직선 형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모델에서 여러 구조적 결함들이 발생하여 비행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에서 G형까지 개발되었는데, D형 이후부터 구조적 결함이 해소되었다. E형은 D형을 기본으로 하여 30cm가량의 기체 길이 연장, 레이더 거리측정식 기총 조준기 장착, 추가연료탱크 탑재를 위한 날개 밑 폭탄탑재소 개조, 제트이륙보조장치(JATO)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G형은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도록 연료계통을 변경하고 자동비행 장치와 계기비행 착륙용 항법장치를 추가하였으며, 기존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사용하고 기총 조준기도 신형으로 바꾸었다. 특히 G형은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F형은 기존 모델들과 달리 후퇴익을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본래 G형보다 먼저 개발에 들어갔지만, 여러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1953년 9월에 가서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

F-84는 1972년 미 공군에서 퇴역할 때까지 총 7,524대가 생산되었는데, B형이 226대, C형이 191대, D형이 154대, E형이 843대, G형이 3,025대, F형이 2,348대였다. 6·25전쟁 기간에는 D형이 일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있어 1952년 9월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로 E형과 G형이 사용되었다.

F-84 제원

구 분		F-84	
		E형	G형
승무원		1명	1명
전장/너비		11.6m/11m	11.6m/11.1m
전고		3.84m	3.84m
엔진출력		Allison J-35-A-174, 5,000lbs	Allison J-35-A-29, 5,600lbs
중량	자체	4,990kg	5,030kg
	작전	8,165kg	10,671kg
속도	최대	965km/h	1,000km/h
	순항	-	774km/h
항속거리		1,369km (추가연료탱크 부착시 2,979km)	3,221km
최고상승고도		13,716m	12,344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브라우닝 기관총 6정 • 각종 로켓과 폭탄 등 2,040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브라우닝 기관총 6정 • 각종 로켓과 폭탄 등 2,722kg

출처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 p. 50.*

6·25전쟁 기간 F-84 썬더제트가 처음 전투출격한 것은 1950년 12월 6일이었다. 이에 앞서 1950년 8월 초 미 공군은 F-84E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6대로 편성된 1개 파견대를 한국에 보낸 바가 있었다. 당시 미 극동공군은 군수지원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F-84의 인수를 꺼렸다. 그러나 1950년 11월 소련 공군의 MiG-15기가 출현하자 미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중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F-84E로 무장한 2개 비행단 배치를 요구했고, 미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이 한국 내 항공기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F-84 1개 비행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F-84가 처음으로 실전 배치되었다.

미 공군은 1950년 11월 9일 텍사스주 버그스트롬(Bergstrom) 공군기지에 주둔하던 전략공군사령부 예하 제27전투호위비행단을 일본으로 이동시켰다. 제27비행단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비행하여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F-84를 항공모함에 적재했다. 그리고 비행단의 선발대는 공수로, 주력부대는 해상으로 각각 이동했다. 그러나 시간의 긴박성으로 비행기들을 방수포장도 없이 갑판에 적재한 채 수송함으로써 대부분의 비행기가 제동장치와 전기계통에 이상이 발생했다. 이를 전부 수리하는데 수 주일이 걸렸다. 이에 대해 비행단장 팩카드(Asheley B. Packard) 대령은 “2~3일 더 준비하여 비행기들을 안전하게 적재하였더라면 수 주일의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애석해 하기도 했다.

일본에 도착한 제27비행단은 잠시 이타즈케(板付) 기지에 배치되었다가 대구기지로 이동했다. 그러나 1950년 12월 31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제3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 전선이 평택-삼척 선을 잇는 북위 37도선

까지 밀리자 비행단은 1951년 1월 말에 다시 일본 이타즈케 기지로 이동했다. 이타즈케 기지에서 제27비행단은 대구기지에 있을 때보다 양호한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작전을 할 수 있었으나 목표지역까지 최소 300km 이상 떨어져 전투력이 크게 감소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27비행단은 F-84 날개에 150갤런의 파일론 탱크(추가연료탱크)를 달고 작전을 전개했다.

제27비행단은 1951년 7월에 제136전투폭격비행단과 임무를 교대했다. 미 항공경비대 소속이었던 제136비행단은 이타즈케의 제27비행단으로 이동하여 기종전환 교육을 받고 F-84를 인수한 후 9월에 대구로 이동하여 제49전투폭격비행단에 합류했다. 이 무렵 제49비행단도 F-84를 인수하여 기종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제49비행단의 교육이 완료된 후에 제27비행단은 참전 활동을 모두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1952년 7월에는 군산비행장에서 F-84를 주력으로 하는 제474전투폭격비행단이 새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 제474비행단은 57대의 F-84 전투기를 보유하고, 8월 1일 처음으로 군산기지에서 출격했다.

6·25전쟁 기간 썬더제트가 참가한 가장 돋보였던 작전은 1952년 6월에 있었던 수풍발전소를 비롯한 북한지역 댐과 저수지 폭격이었다. 이 작전에서 썬더제트 79대가 F-80 트윈머스탱과 더불어 발전소 시설에 대한 폭격을 전담했다. 북한 지역 폭격이 증가하면서 1952년 8~9월에는 G형 F-84가 6·25전쟁에 투입되었다. F-84G는 공중급유가 가능하였는데, B-29폭격기를 개조하여 만든 KB-29 공중급유기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후 F-84E 전투기를 보유한 전투폭격비행단들은 빠르게 F-84G로 기종전환을 시도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점협정 체결 당시 미 제5공군이 보유한 F-84 썬더제트 전투기는 총 218대였다. 전쟁 기간 F-84 전투기 1대의 출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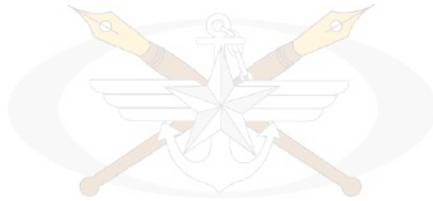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간은 월평균 28.4시간이었다. 기간 중 F-84는 공대지 전투에 투입되어 폭격기들과 함께 공산군 주요시설과 집결지, 도로와 철로 등을 파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대공 전투에서도 공산군 항공기 21대를 격추시켰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F-86 세이버

F-86 Sabre

개요

F-86 세이버는 미국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제작한 음속에 가까운 제트기로 1947년 10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6·25전쟁 기간 소련 공군의 MiG-15기와 맞설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종으로 초기 제트기 중 최고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혁 및 제원



1953년 미 제51전투요격비행단의 F-86전투기 편대.
© 국사편찬위원회

F-86 세이버(Sabre)는 미국의 노스아메리칸(North American)사가 1944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1947년 10월 1일 첫 비행에 성공한 제트기였다. 당시 생산된 F-80과 F-84 제트기들이 직선익 날개구조를 채택한 것과 달리 F-86은 후퇴익(sweptback wing, 주날개 끝이 뒤를 향하는 것)을 적용한 제트기였다. 미 공군 전략항공사령부는 1949년부터 F-86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A부터 L형까지 다양한 모델들로 총 9,860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F형까지 양산되었으며, F-86 중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활용된 것이 D·E·F형이었다. D형은 전천후 정찰 요격기로 2,506대가 생산되었으며, 다른 세이버 기종과 비교해 동체와 재연소엔진(afterburning engine)이 커지고 독특한 전방 안테나 덮개를 가지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F-86D는 다른 F-86과 크게 달라 독자적인 제트기 기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후 D형의 개량형으로 K와 L형이 개발되었다. E형은 A형을 기본 모델로 하여 개량한 기종으로 총 456대가 생산되었으며, 개선된 비행제어시스템과 소위 '나는 꼬리(flying tail)'라고 불린 수평안정판을 채택하여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 F형은 기존의 E형에 고출력 엔진을 장착하여 제트기로서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총 2,239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 F-86은 처음에 A형이, 그리고 이어 E형이 보급되었으나 소련 공군의 MiG-15기와 교전시 특별히 우수함을 보이지 않아 신속히 개량형인 F형으로 교체되었다. 또한 6·25전쟁 기간에는 캐나다에서 생산된 캐나다어 세이버(Canadair Sabre)도 참전했다.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인 캐나다어는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따내 세이버기를 생산했다. 캐나다어 세이버로 불린 캐나다산 항공기는 1950~1954년 MK.1~MK.6까지 생산되었는데, 1951년에 생산된 MK.2형 60대가 6·25전쟁에 참전했다. MK.2형은 노스 아메리칸의 F-86E와 같은 모델이었다.

F-86 제원

구 분		F-86F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1.20m/11.89m
전고		4.5m
엔진출력		General Electric Company J47-GE-27, 5,970lbs
중량	자체	4,967kg
	작전	9,367kg
속도	최대	1,111km/h
	순항	200km/h
항속거리		1,485km
최고상승고도		15,100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기관총 6정 • 각종 폭탄 5,300파운드(보조연료탱크 장착시 2,000파운드)

출처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 p. 80 ;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 p. 707.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81쪽.

운 용

F-86 세이버는 6·25전쟁기 미 제5공군의 주력 제트전투기였다. 1950년 11월 소련제 제트전투기인 MiG-15기의 출현은 그동안 제공권을 장악했던 유엔 공군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미 공군은 속도와 기동성에서 MiG-15기에 압도당하는 F-51과 F-80을 대신하여 노스 아메리칸사의 F-86A 세이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캐슬까지의 제4전투요격비행단과 주력기인 F-86A 75대를 극동지역에 보냈다. 제4전투요격비행단은 전방제대를 김포기지에, 후방제대를 일본의 존슨기

지에 두고서 1950년 12월 15일부터 작전에 들어갔다.

F-86이 MiG-15기와 처음 공중전을 전개한 것은 1950년 12월 17일이 었다. F-86은 MiG-15기보다 강하 단계에서 성능이 좋고 음속에 가까워 질 때 조종이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체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MiG-15기에 비해 상승률이 떨어지고 전투기 보유량에서도 격차가 컸다.

미 공군은 성능이 개선된 F-86E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1951년 7월 부터 1:1 비율로 F-86A를 F-86E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1952년 2월에 는 F-86E와 동급인 캐나다어 세이버 60대를 구입하여 전선에 투입하기 도 했다. F-86E는 수평꼬리면(Horizontal-tail Surface)이 사방으로 이동 가능하고 동력조종식(Power-operated Controls) 조종간을 채택하 여 기체의 속도가 빨라져도 조종이 쉬웠다. 그러나 F-86E는 F-86A보다도 약 220kg이 무거웠기 때문에 비교적 경량이었던 MiG-15기와 비교했을 때 중량 대비 출력에서 뒤처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 공군은 엔진을 업그레이드 한 F-86F를 배치했다.

F-86F는 1952년 6월부터 배치되기 시작하였는데, 미 제5공군에서는 새로 창설된 제51전투요격비행단 제39전투요격비행대대에 우선 배치하 고, 다음으로 1952년 9월부터 제4전투요격비행단 제335전투요격비행대 대에 배치했다. F-86F는 최대상승고도가 15,100m로 F-86A보다 약 1,200m 높았고, 속도도 마하 1.11까지 낼 수 있으며 고고도에서 높은 G선회를 할 수 있어 MiG-15기를 격추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 고 있었다. 특히 F-86F는 전연익(前緣翼)을 넓히고 엔진 추력을 증가시 켜기 때문에 MiG기가 비교적 자유로이 비행하던 고도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었다.

F-86F의 우수성이 입증되자 미 극동공군은 모든 F-86E를 미 본토 방 공군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F-86F와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F-86F

를 선적하는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체작업이 지연되면서 정전협정 체결 무렵에 가용할 수 있는 F-86F는 제4전투요격비행단의 60대, 제51전투요격비행단의 62대가 전부였다.

6·25전쟁 기간 F-86은 소련제 MiG기와 맞설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제트기였다. 특히 성능이 크게 개선된 F-86F는 MiG기를 상대로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베테랑 조종사들의 조종술은 F-86의 성능을 배가시켰다. 미 공군 자료에 의하면, 6·25전쟁 기간 F-86 세이버는 MiG-15기 910대를 격추(격추 792대, 격추 추정 118대)하고, 808대를 손상시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F-86의 MiG-15기 격추 숫자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성능의 우수함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F-86 세이버는 6·25전쟁 이후에도 개량형들이 개발되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1955년부터 F-86F 201대를 인수하여 한때 주력 전투기로 사용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⑩(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F-94 스타파이어

F-94 Starfire

개요

F-94 스타파이어는 미국 록히드사에서 제작한 최초의 제트형 전천후 요격기로 1949년 4월 첫 비행에 성공하고 1950년 5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프로펠러형 F-82 트윈머스탱을 대체해 6·25전쟁에 투입되었다.

연혁 및 제원



1953년 야간 출격에 앞서 사전 점검 중인 F-94 스타파이어.
© 국사편찬위원회



F-94 스타파이어(Starfire)는 미국 록히드(Lockheed)사가 1948년에 레이다를 장착하여 야간공격이 가능한 전천후제트기 개발에 들어가 1949년 4월 16일 첫 비행에 성공한 제트요격기였다. 스타파이어는 제트 엔진의 추진력 증가장치인 에프터버너(Afterburner)를 장착한 최초의 실전용 전투기이기도 했다.

미 공군은 1950년 5월부터 F-94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54년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A형에서 D형까지 총 855대가 생산되었으며,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활용된 것이 B·C형이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B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지 얼마 안된 최신예 전투기였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다.

F-94 제원

구 분		F-94B
승무원		2명
전장/너비		12.2m/11.4m
전고		3.7m
엔진/출력		Allison J33-A-33, 6,000lbs
중량	자체	4,565kg
	작전	7,258kg
최대속도		946km/h
항속거리		1,735km
최대상승고도		14,630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12.7mm) 기관총 6정 • 폭탄 2,000파운드

출처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 p. 111.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82쪽.

F-94 스타파이어는 6·25전쟁기 최신예 제트요격기였다. 6·25전쟁 발발 직전 양산체제에 들어간 F-94가 미 제5공군에 배치된 것은 1951년 3월이었으며, 이를 수령한 부대는 존슨기지의 제339전천후요격비행대대였다. 이후 이타스케기지의 제68전천후요격비행대대도 5월부터 F-82에서 F-94B로 기종전환하였으며, 나가타기지의 제41전천후요격대대도 7월부터 F-94A를 수령했다. 이들 전천후요격대대의 주된 임무는 일본 영공방어를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한국전선에 투입되어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것이었다.

F-94가 본격적으로 한국 전선에 투입된 것은 1951년 12월부터였다. 서울 부근에 적기가 출현한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미 제5공군은 이타스케기지의 제68전천후요격대대에서 2대의 F-94B를 파견한 것이 최초의 F-94 출격이었다. 제68전천후요격대대는 1952년 1월 미 본토에서 이동한 제319전천후요격대대와 임무를 교대했다.

미 제5공군은 제319전천후요격대대를 수원기지로 파견하여 서울 부근의 항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러다가 1952년 6월 이후에는 야간전투기로 B-29 중폭격기와 B-26 경폭격기들을 엄호하는 임무를 띠고 출격했다. 당시 미 제5공군은 F-94B 전투기를 지상관제접근 레이다 관제하에서 폭격선 이북의 출격을 철저히 금지시켰다. 이는 최신예 전투기인 F-94의 추락 시 첨단장비기술이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1953년 1월 유엔 공군의 폭격기들을 상대로 적의 야간전투기 공격이 점차 심해지면서 F-94의 사용제한이 일부 풀리게 되었는데, 당시 미 제5공군이 가용할 수 있는 F-94는 25대였다.

6·25전쟁 기간 F-94 전투기의 첫 번째 적 전투기 격추는 1953년 1월 30일 야간에 있었다. 이날 피치안(Ben L. Fithian) 대위와 관측사 라이온스(sam R. Lyons) 중위가 탑승한 F-94가 최저 속도와 고도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기에 의존하여 적 LA-9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 이후 F-94는 통상 4~6대가 출격하여 목표물 전방 30마일 지점에서 지상관제접근장치의 관제를 받아가며 대공초계임무를 수행했다.

F-94는 1953년 1월까지 실전 투입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6·25전쟁에서의 활약상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참전 기간에 F-94는 적기 격추 4대, 격추 추정 1대, 파손 2대의 전과가 전부였다. 반면에 손실은 6대로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 6·25전쟁 이후 F-94는 한동안 일본과 한국 등 극동지역에서 방공임무를 수행하다가 레이다를 장착한 F-86D가 도입되면서 1954년에 모두 미 본토로 복귀했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Marcelle Size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Vol. 1*(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78).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미티어 F-8

Meteor F-8

개요

영국 글로스터 항공사에서 제작한 제트전투기로 1943년 3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미티어기 시리즈 중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었다. 6·25 전쟁 기간에는 호주 공군이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김포비행장에서 대기 중인 호주 공군 제77대대의 미티어 F-8.
© 국사편찬위원회

미티어 F-8(Meteor F-8)은 영국 글로스터 항공사(Gloster Aircraft)가 제작한 제트전투기로 1941년 원형기가 만들어졌으나 엔진 출력 부족과 비행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첫 비행은 1943년 3월 5일에 이루어졌다. 1944년 1월 미티어 Mk.1이 첫 생산에 들어갔으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Mk.1 생산 이후 여러 개선 작업을 거치고 롤스로이스 터보제트엔진을 탑재한 Mk.8이 등장하면서 제트기로서의 미티어기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티어기는 1955년까지 10여 개의 개량형으로 3,900여 대가 생산되었는데, 그중 미티어-F8(Mk.8)이 1,095대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그만큼 미티어 F-8은 미티어기 시리즈 중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티어 F-8은 6·25전쟁 기간에 호주 공군이 사용했다.

Meteor F-8 제원

구 분		Meteor F-8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3.59m/11.30m
전고		4.22m
엔진출력		롤스로이스 W.2B 2개, 1,700lbs
중량	자체	4,820kg
	작전	8,664kg
최대속도		941km/h
항속거리		970km
최대상승고도		13,106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영국 히스페노 Mk.V 기관포 4문 • 1,000파운드 폭탄 2발

출처 : 'Gloster Meteor F.8', Royal Australian Air Force Homepage.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93쪽.

6·25전쟁 기간 미티어 F-8은 호주 공군 제77대대가 운용했다. 호주 공군 제77대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한국에 파견되어 항공작전을 전개했다. 전쟁 초기 제77대대는 F-51을 주 전력으로 미 공군의 폭격기를 엄호하여 항공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다가 소련제 MiG-15기가 출현하면서 제77대대는 미티어 전투기로 기종을 점차 전환했다. 제77대대는 주로 김포기지에서 출격하여 공대공뿐만 아니라 공대지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전선이 고착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전략폭격 작전에 공중엄호 임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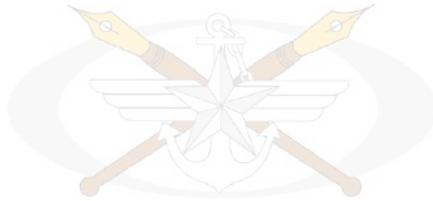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대한민국 공군, 『6·25전쟁의 기억 : 6·25전쟁의 호주 공군』 (계룡: 대한민국 공군, 2010).
- “Gloster Meteor F.8”, Royal Australian Air Force Homepage.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Wikipedia, “Gloster Meteor”, https://en.wikipedia.org/wiki/Gloster_Meteor, 2020. 8. 27.



폭격기는 탑재한 많은 폭탄을 적지에 투하하여 대량파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용기이다. 일반적으로 전략과 전술폭격기로 구분하는데, 전략폭격기는 장거리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폭격기로 적의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전술폭격기는 경폭격기로 적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고 아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6·25전쟁 기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경폭격기 B-26 인베이더 (Invader)와 중폭격기 B-29 슈퍼포트리스(Superfortress)가 참전했다.



B-26 인베이더

B-26 Invader

개요

미 공군의 쌍발 프로펠러 경량 폭격기로 1942년 7월 첫 시험비행하였으며, A-26 인베이더로 불리다가 1948년 6월에 B-26 인베이더로 기종 명칭을 변경했다. 6·25전쟁 당시 ‘밤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야간항공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다.

연혁 및 제원



작전을 마치고 복귀 중인 B-26 인베이더(1951년).
© 국사편찬위원회

인베이더(Invader)는 미국의 더글러스 항공사가 1940년 11월에 A-20(DB-7)을 대체할 목적으로 자체 개발에 착수한 기종이었다. 1941년 6월에 시제기 3대가 완성되자 미 전쟁성(국방부)은 이 신형 폭격기에 A-26이라는 제식명칭을 부여했으며, 더글러스사는 10월 31일 양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1942년 7월 10일 시제기 XA-26의 시험비행 결과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반면에 엔진냉각문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가로 무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진 후 1943년 5월 5일 XA-26B가 만들어졌다.

XA-26B는 9월 10일 미 육군항공대에 인도되어 1944년 6월 23일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남서태평양 섬들을 대상으로 실전테스트를 가졌다. 그 결과 엔진이 조종실의 시야를 가리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교정한 후 1944년 9월 말 유럽전선에 배치되었다. A-26B의 첫 실전투입은 1944년 11월 17일 유럽전선의 미 제9공군 예하 제416폭격비행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태평양전선에서는 1945년 3월부터 미 제5공군 예하 제319폭격비행단이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A-26B가 양산체제에 돌입한 후 그 후속모델로 A-26C와 A-26D가 개발되었다. A-26C는 폭격·항법사의 폭격 조준을 위해 항공기 기수부분을 투명창으로 만든 것이 A-26B와 크게 다른 점이었으며, 언제든지 A-26B로 변경이 가능했다. A-26C는 제2차 세계대전 말 태평양전선에서 주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A-26D는 엔진출력을 강화하고 탑재할 수 있는 기관총수를 늘리기 위해 1945년 4월에 생산계획을 마쳤으나 1개월 후 독일군이 항복함으로써 생산 자체가 취소되었다.

A-26시리즈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4,000대의 추가 생산계획이 모두 취소되었다. 1945년 9월까지 미 육군항공대가 인수한 A-26B와 A-26C는 각각 1,355대와 1,091대였다. 1947년 미 육군항공대가 공

군으로 독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활약한 마틴(Martin) B-26 머로더(Marauder) 폭격기가 퇴역함에 따라 1948년 6월 A-26은 B-26으로 제식명칭이 변경되었다. 미 공군은 B-26을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주력 경폭격기로 사용했으며, 6·25전쟁 시기에는 B-26C가 많이 활용되었다.

B-26 제원

구 분		B형	C형
승무원		3명	3명
전장/너비		15.48m/21.34m	15.64m/21.34m
전고		5.64m	5.64m
중량	자체	10,143kg	10,292kg
	작전	14,413kg	13,572kg
	최대	18,965kg	17,879kg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2800-79 2개, 4,000hp	
속도	최대	596km/h	598km/h
	순항	370km/h	363km/h
전투행동반경		1,554km	1,435k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16정 • 5인치 HVAR 로켓 14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12정 • 5인치 HVAR 로켓 14발
최대폭탄적재량		6,000파운드	6,000파운드

출처 : Marcelle S.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 Post-World War II Bombers 1945-1973*, p. 477.

B-26은 6·25전쟁 기간 중폭격기인 B-29와 함께 미 공군 폭격기 세력의 양대 산맥이었다. B-26은 1950년 6월 28일 서울 외곽에 진입한 북한군에게 폭격을 가하는 것으로 작전을 시작해 6월 29일부터는 북한 지역 폭격 임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B-26을 운용한 부대는 미 제3경폭격비행단, 제452폭격비행단, 제17폭격비행단 등 3개 폭격비행단이었다. 제3경폭격비행단은 전쟁 초기 2개 비행대대로 편성된 전대(Group)급이었으나 1950년 12월 1일 비행단(Wing)으로 승격되었으며, 1951년 초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군산(K-8)기지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했다. 제452폭격비행단은 1950년 8월 10일 새로 편성된 부대로 11월에 첫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이타즈케와 미호 기지를 거쳐 1951년 초 부산 수영기지(K-9)로 이동해 1952년 5월 부대가 해체될 때까지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제17폭격비행단은 1945년 11월에 해체되었다가 1952년 5월 제452폭격비행단을 대체해 다시 창설된 부대로 재창설 당시 제452폭격비행단의 항공기와 장비, 그리고 인력 등을 모두 인수받았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제3·제17폭격비행단이 보유한 B-26폭격기는 총 128대였다.

B-26의 주요 공격임무는 적 저항 거점이나 후방의 시설물, 군수품 야적장, 철도, 보급로 등에 대한 폭격이었다. 특히 야간폭격은 대부분 B-26이 담당했다. B-26은 F-82 전천후전투기 또는 전술항공통제반의 지시에 따라 전선에 조명탄을 투하하고 목표물을 공격했다. 제3경폭격비행단의 경우 1951년 4월 23일에 시작된 ‘빅 레드 푸시작전(Big Red Push Operation)’에서 일일 평균 48회의 야간폭격 출격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엔군의 항공력이 두려워서 야간에 이동하거나 보급품을 나르는

공산군에게 갑자기 나타나 조명탄을 쏘거나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기총소사나 폭탄을 퍼붓는 B-26은 ‘밤의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다.

B-26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6·25전쟁 정전협정이 발효되기 24분 전에 마지막 항공폭격을 가한 항공기로도 유명하다. 미 제8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 밴플리트 주니어(James Alward Van Fleet Jr.)도 이 기종의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1952년에 전사했다.

B-26은 6·25전쟁 기간 15,000회 이상의 출격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야간 출격이었다. 3개 비행단이 운용한 B-26은 전쟁 기간 38,000대 가량의 차량과 400대의 기관차, 3,700대 가량의 화물열차, 그리고 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B-26은 6·25전쟁 이후에도 1962년에 엔진을 교체한 B-26K가 생산되어 베트남전쟁에 투입되었으며, 1969년까지 미군에서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등 프로펠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종이었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Hq. FAFIK, “Daily Journal”, 1950–1953.
 Marcelle S.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 Post-World War II Bombers 1945–197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8).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Wikipedia, “Douglas A-26 Invader”, https://en.wikipedia.org/wiki/Douglas_A-26_Invader, 2020. 9. 17.

B-29 슈퍼포트리스

Superfortress

개요

미 공군의 4발 프로펠러 전략폭격기로 1942년 9월 첫 시험비행 하였으며,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기종으로도 유명하다. 6·25전쟁 당시 전략 목표물을 대상으로 약 16만 7,000톤의 폭탄을 투하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연혁 및 제원



제98폭격비행단의 B-29 슈퍼포트리스 출격 대기 장면(1952년).
© 국사편찬위원회

슈퍼포트리스(Superfortress)는 미국의 보잉 항공사가 장거리 폭격기 보잉 XB-15기와 B-17기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발·제작한 전략폭격기였다. 미 육군항공대는 1940년 6월 27일에 시제기인 XB-29 2대를 생산 발주하였으며, 제1호기가 1942년 9월 21일에, 제2호기가 12월 30일에 각각 첫 비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XB-29는 고공 비행에서 엔진 감속기어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제2호기의 경우 연료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로 기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29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결함들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결함들로 1944년 초에 생산된 B-29의 경우 비행 가능한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타이어에서부터 원격제어방어시스템과 엔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미 육군항공대는 보잉사와 협력업체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업체들의 기술자들이 캔자스주 위치타(Wichita)의 보잉사 공장에 집결하여 1944년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5주간에 걸쳐 175대의 B-29 초기모형을 보완했다. 이를 두고서 ‘캔자스 전투(Battle of Kansas)’ 또는 ‘위치타 전투(Battle of Witchita)’라고 부른다.

이렇게 탄생한 당대 최고의 중폭격기인 B-29는 몇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었다. B-29는 엔진부분에서 배기터빈을 채택하여 높은 고도에서도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었으며, 지상의 기압과 가깝게 공기 압력을 높여 놓은 방인 ‘여압실(與壓室)’이 있어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관총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목표물을 자동 조준할 수 있는 화기관제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첫 비행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4년 6월에 B-29 슈퍼포트리스는 미 제20공군 소속으로 태국 방콕에 시운전(Shakedown) 공습을 가하고, 같은 달 60대의 B-29가 일본 야와타시를 실전 공습하면서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후 중국과 인도에 기지

를 둔 미 제20폭격사령부 소속의 B-29기들이 일본 본토를 비롯해 팔레방, 싱가포르, 랑군, 방콕 등 일본군 점령도시들에 대해 대규모 폭격을 가했으며, 특히 사이판에 기지를 둔 제21폭격사령부 소속의 B-29기들은 정기적으로 일본 도쿄에 폭격을 가했다.

B-29 슈퍼포트리스는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기종으로도 유명하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운반·투하한 것이 ‘에놀라 게이(Enola Gay)’라는 애칭을 가진 B-29폭격기였으며,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팻 맨(Fat Man)’을 운반·투하한 것이 ‘박스카(Bock’s Car)’라는 애칭을 가진 B-29폭격기였다.

B-29 제원

구분		B-29
승무원		11명
전장/너비		30.18m/43.04m
전고		8.5m
중량	자체	34,091kg
	작전	45,850kg
	최대	63,502kg
엔진/출력		Wright Aeronautical R-3350-57 4개 또는 R-3350-57A 4개, 8,800hp
속도	최대	643km/h
	순항	407km/h
전투행동반경		3,180km(폭탄 최대 적재 시)
최대상승고도		11,049m(작전 중량 시)
무장		50구경 기관총 12정
최대폭탄적재량		20,000파운드

출처 : Marcelle S.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 Post-World War II Bombers 1945-1973*, p. 494.

1946년 10월 6일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미 육군항공대가 인수한 B-29폭격기는 총 3,960대였다. 기종으로는 B-29, B-29A, B-29B가 있었으며, B-29와 B-29A는 거의 비슷했고, B-29B는 약 900kg이 가볍고 상승한도가 약 45m 높았으며, 작전범위가 약간 더 길었다. 이외에도 특수목적 개량형으로 기상 정찰항공기 WB-29, 탐색 및 구조항공기 SB-29, 공중급유기 KB-29M과 KB-29P 등이 있었다.

운 용

B-29는 6·25전쟁 발발 당시 노후화된 기종이었다. 이 무렵 미국은 B-29와는 다른 엔진을 장착한 B-29의 개량형인 B-50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혁신적으로 6개의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후퇴익을 가진 보잉 항공사의 B-47이 전쟁 발발 당일 첫 비행에 성공한 상태였다. 또한, 총 10개의 엔진을 지닌 대륙간폭격기인 컨소리데이티드(Consolidated)사의 B-36이 1948년부터 도입되어 운용 중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기간 미국의 전략공군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성능이 입증되었고, 상당수가 현역으로 활동 중이던 B-29를 중폭격기로 활용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극동공군사령부는 예하 부대 중 유일하게 B-29 폭격기를 보유한 제19폭격전대를 괌에서 오키나와로 이동시키고, 6월 28일부터 작전에 투입했다. 이날 늦은 오후에 4대의 B-29폭격기가 각각 2대로 나뉘어 철로를 따라 서울에서 북쪽으로 향하며 약 30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제19폭격전대 소속의 B-29폭격기들이 김포비행장과 서울역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북한군의 공격 강도가 예상외로 강하자 미 공군은 38선 북쪽에 대한 폭격을 위해 7월 3일 미 본토에서 중폭격기 2개 전대를 파견하고 7월 8일부

로 극동공군폭격사령부를 임시로 편성했다.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미 본토에서 파견된 전략공군사령부 소속의 중폭격기 2개 전대와 극동공군사령부 예하의 제19폭격전대를 지휘하기 위해 일본 요코다 기지에서 임시로 창설된 사령부였다. 미 본토에서 파견된 2개 전대는 캘리포니아의 마치(March)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22폭격전대와 워싱턴의 스포칸(Spokane)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92폭격전대였다. 이때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3개의 폭격전대 이외에 RB-29를 이용해 사진정찰을 수행하는 일본 존슨(Johnson) 기지의 제31정찰대대도 예하에 두었다. 이어 1950년 8월 초에는 미 전략공군사령부 소속의 제98폭격전대와 제307폭격전대가 추가로 파견되어 요코다와 가네다에 각각 주둔했다. 이로써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제22·제92폭격전대가 1950년 10월 24일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5개의 폭격전대와 1개 정찰대대를 예하에 두었다. 이후 제19·제307폭격전대는 1951년 2월에, 제98폭격전대는 1953년 6월에 각각 비행단으로 승격했다. 폭격사령부 소속의 각 전대는 B-29 31대씩을 보유하도록 인가되어 있었으며, 노후기의 정비 대체용으로 각각 2대씩 추가 할당되어 있었다.

B-29는 전략폭격기였지만 참전 초기부터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에서부터 북한지역 전략목표물 폭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은 전략폭격기와 전술항공기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 때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략폭격기들이 적 후방지역의 산업시설, 교량과 철도, 항만과 전력시설 등에 대한 폭격을 담당하고, 전술항공기들이 전선에 근접한 목표물을 공격했다면, 6·25전쟁에서는 전략폭격기인 B-29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그 구분이 희미해졌다.

6·25전쟁 기간 B-29는 미 공군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10개의 항공작

전에 모두 참여했다. 참전 이후 1950년 9월 말까지 B-29폭격기들은 북한에 있는 산업목표물들을 대부분 파괴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그리고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후에는 중국 국경에 인접한 북한 도시들을 비롯해 적 보급로 차단을 위한 교량과 철도조차장 폭격, 적 비행장과 병력집결지 폭격 등을 감행했다.

특히 1950년 8월 왜관 일대의 ‘용단폭격’은 B-29의 위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월 16일 출격 가능한 12개 폭격대대의 B-29 98대가 가로 3마일, 세로 7마일의 표적지역에 총 859톤의 폭탄을 투하했다. 결과는 불명확했지만, 지상군 사령관들은 이 용단폭격으로 유엔군의 사기가 올라간 것에 대해 열광했다.

그러나 1950년 11월 들어 소련의 MiG-15기가 등장하면서 퇴역할 때가 된 B-29는 그 성능면에서 한계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 사이에 극동공군폭격사령부는 F-86과 F-84전투기의 호위에도 불구하고 16대의 B-29기를 잃었다. 이에 극동공군사령부는 B-29기를 주간 폭격 임무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B-29는 폭격 임무 외에도 6·25전쟁 기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B-29의 특수목적 개량형인 KB-29M과 KB-29P가 1951년 7월부터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 제91전략정찰대대 예하 제2과견대가 1951년 가을에 창설되었다. 그리고 RB-29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지 투하 임무를 수행했다. RB-29는 제91전략정찰대대 소속이었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 오후까지 작전 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B-29 슈퍼포트리스는 21,000회의 출격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1만 2,000회(57%)가 도로, 철로, 조차장, 보급소와 같은 공산군 병참선이 표적이었고, 2,800회(13%)가 지상군 지원작전이었

다. 그리고 1,400회(약 7%)의 출격이 북한 산업시설을 목표로 수행되었고, 1,250회(6%)의 출격이 비행장, 700회(3%)의 출격이 병력집결지를 상대로 실시되었다. 전쟁 기간 B-29가 투하한 폭탄량은 16만 7,000톤이었으며, 작전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지역의 항공작전에서 주력이었던 B-29는 6·25전쟁을 끝으로 점차 사라져 갔다. 특수목적 개량형 기종이 1960년 까지 일부 사용되었지만, 이마저도 1960년 6월 21일 완전히 퇴역했다.

참고문헌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극동공군 폭격 사령부와 한반도 항공전』,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 Marcelle S. Knaack, *Encyclopedia of U.S. Air Force Aircraft and Missile Systems : Post-World War II Bombers 1945-197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8).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 Wikipedia, "Boeing B-29 Superfortress", https://en.wikipedia.org/wiki/Boeing_B-29_Superfortress, 2020. 9. 15.

A blue gradient banner with a white diagonal line pattern. On the left, there is a small illustration of a transport aircraft. On the right, the text '수송기' is written in white Korean characters, and 'Transport Aircraft' is written in white English characters below it.

수송기

Transport Aircraft

수송기는 전투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용기이다.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수 및 공정작전, 보급품 및 환자 수송, 약품 및 전단지 살포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6·25전쟁 기간에는 C-46 코만도(Commando), C-47 스카이트레인(Skytrain), C-54 스카이마스터(Skymaster), C-119 플라잉 박스카(Flying Boxcar), C-124 글로브마스터 II (Globemaster II) 등 5개 기종의 수송기가 참전했다.



C-46 코만도

C-46 Commando

개요

미 공군의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로 커티스사에서 제작하였으며, 1940년 3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더글라스사의 C-47 스카이트레인(Skytrain)과 더불어 대표적인 수송기로 꼽히며, 6·25전쟁 초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미국인들을 피난시킨 기종이기도 하다.

연혁 및 제원



한반도 상공을 비행 중인 C-46 코만도(1951년).
© 국사편찬위원회

C-46 코만도(commando)는 미국의 커티스(Curtiss)사가 민간여객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CW-20에서 파생된 쌍발수송기이다. 1937년에 시험 제작된 CW-20은 여객기로 제작되었지만,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다. 대신 미 육군항공대에서 여객기가 아닌 군 수송기로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서 1940년 9월 13일 46대를 주문했다. CW-20의 동체와 화물을 적재하는 문을 확장하고 바닥을 강화하는 개조과정을 거쳐 1942년부터 미 육군항공대에 납품한 것이 C-46A였다. 이때 ‘코만도’라는 이름도 정식으로 갖게 되었다.

C-46 제원

구 분		C-46
승무원		4명
전장/너비		23.27m/32.91m
전고		6.62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2800 2개, 1개 2,000hp
중량	자체	14,700kg
	작전	20,412kg
속도	최대	435km/h
	순항	278km/h
항속거리		5,069km
최대상승고도		7,468m
최대적재중량		5,712kg
무장		없음

출처 : Peter M. Bowers, *Curtiss Aircraft, 1907-1947*, p. 456 ; “Cutiss C-46 Commando Operations Manual”, p. 5, [cdn. cloudflare. steamstatic.com](http://cdn.cloudflare.com/steamstatic.com).

제2차 세계대전 기간 C-46은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공수병력 및 보급품 수송 임무를 수행했다. 유럽 전선에서는 공수부대 병력을 수송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태평양 전선에서는 중국-버마(미얀마)-인도 전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급품 수송에 주로 사용되었다. 1943년 5월에서 1945년 3월 사이에 31차례의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할 만큼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동시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더글라스사의 C-47 스카이트레인 보다 2배에 이르는 화물적재량과 강력한 엔진을 바탕으로 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 등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C-46은 1942년 C-46A가 생산된 이후 1945년 단종될 때까지 일부 부품과 엔진을 교체하면서 C-46G까지 개량형이 나왔으며, 총 3,181대가 생산되었다. C-46은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도 R5C-1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운 용



C-46은 6·25전쟁 기간 공수작전에 사용된 수송기 중 하나였다. 첫 공수작전은 1950년 6월 27일 서울에서 일본으로 미국인들을 수송하는 것이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소속의 C-46 4대와 일본 각지에 있던 C-47 10대가 동원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극동공군의 주요 수송부대인 제374병력수송비행단은 일본 다치카와 공군기지에 C-54 2개 대대,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1개 수송기 대대, 그리고 일본의 여러 기지에 C-46 13대와 C-47 2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쟁 개시 후 몇 주 동안 공수작전은 임기응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의 열악한 활주로 상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

송기 기종이 제한되었다. 특히 대형 수송기인 C-54의 이착륙으로 인해 부산과 대구비행장이 크게 손상되어 1950년 8월 3일부터는 C-46마저 이착륙이 중단되었다. 이때부터 8월 말 비행장 개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공수작전은 C-47이 책임졌다.

한국으로의 공수작전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1950년 9월 10일 전투공수사령부(임시)가 창설되면서부터였다. 일본 아시아에 창설된 사령부는 공수작전 전체를 통제하고 새로 도착해 조직된 부대를 기존의 제374병력수송비행단과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제314병력수송전대, 제1임시병력수송전대, 제6122공군기지전대를 예하에 두었다. 이때 C-46 2개 대대(제47·제48병력수송대대)가 제1임시병력수송전대에 소속되어 공수작전을 전개했다.

전투공수사령부 창설 이후 C-46이 C-119와 더불어 점차 화물적재량을 늘려나가자 일본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공수되는 화물의 총량이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전선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의 후송이 급증하였는데, 이 후송작전에 C-46이 주로 활용되었다. 들것에 실린 환자 30명을 한 번에 후송할 수 있었던 C-46은 환자후송 측면에서 C-47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50년 10월 이후 제1임시병력수송전대 소속의 C-46은 김포비행장에서 38선 이북의 비행장으로 화물을 실어 날랐다. 당시 작전이 가능한 C-46은 16대였으며, 조종사들은 거의 24시간 임무를 수행했는데, 한 달 평균 125시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했다. 북한 비행장에는 야간 조명시설, 항법 보조 및 관제 기구가 없었지만, 조종사들은 공중이나 지상 사고 없이 수송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리고 유엔군이 중공군 참전으로 북한지역에서 전면 철수할 때에는 신안주, 평양, 연포 등지에서 항공철수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연포 철수작전 때 C-46기들은 일본 브래디 기

지(Brady Air Field)에서 연포로, 연포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후 일본으로 귀환하는 방식의 수송작전을 전개했다.

1951년 1월은 C-46의 가장 큰 시련기였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 제8군에 필요한 휘발유와 보급품들을 충주비행장으로 수송하는 작전에서 총 6대가 파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약 600m의 얼어붙은 진흙으로 된 충주비행장의 활주로는 굵은 강둑을 육군 공병들이 서둘러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 C-46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런데도 휘발유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공수사령부는 C-46 수송기들을 투입했다. 육군 공병들이 활주로 길이를 120m가량 연장한 뒤 자갈을 깔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에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착륙 과정에서 열악한 활주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송기들이 큰 피해를 봤다.

1951년 1월 25일 극동공군은 임시로 운영되던 전투공수사령부를 폐지하고 정식으로 제315항공사단을 창설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 이때 C-46 2개 대대가 소속된 제1임시병력수송전대가 1950년 11월에 미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개한 제437병력수송비행단 예하로 흡수되었다. 제437병력수송비행단은 시카고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C-46 수송기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C-46이 제437병력수송비행단 소속으로 공수작전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1951년 3월 23일 경기도 문산지역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공수 투하시킨 ‘토마호크작전(Operation Tomahawk)’이었다. 이 작전에 C-46 53대와 C-119 49대가 참여했다. 이 작전 이후에도 C-46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군수물자 수송, 부상자 후송, DDT 살충제 살포 등의 작전을 전개했다. 그동안 제437병력수송비행단은 1952년 5월 11일에 제315병력수송단으로 부대명칭을 변경했다. 제437병력수송비행단의 C-46은 19개월 동안 6만 2,000톤의 화물, 약 22만 명의 승객, 수천 번의 공중

수송, 2만 3,800번의 출격과 1만 1,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달성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C-46은 한국 공수작전의 절반가량을 단독으로 수행했다. 한국 공군에는 1955년 5월에 도입되었으며, 공수 및 공정작전, 대간첩작전, 환자수송, 약품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1978년에 퇴역했다.

참고문헌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UN공군의 전투수송작전사』(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8).
-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 한국전쟁과 전투공수」,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 Peter M. Bowers, *Curtiss Aircraft, 1907-1947*(London: Putnam & Company, 1979).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1983).
- “Cutiss C-46 Commando Operations Manual”, [cdn. cloudflare. steamstatic.com](http://cdn.cloudflare.com/steamstatic.com).

C-47 스카이트레인

C-47 Skytrain

개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민항기로 개발한 DC-3을 개조하여 제작한 미 공군의 쌍발 프로펠러 경량 수송기로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 6·25전쟁 기간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수송기였다.

연혁 및 제원



서울기지에 대기 중인 C-47 스카이트레인(1951년).
© 국사편찬위원회

C-47 스카이트레인(Skytrain)은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민간여객기로 만든 DC-3에서 파생된 쌍발수송기였다. 미 육군 항공대가 더글라스사의 DC시리즈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36년부터였으며, DC-3을 개조하여 C-47 스카이트레인으로 도입하여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이 1941년 12월 23일이었다. C-47이 DC-3과 다른 것은 기체 바닥이 강화되고 대형화물을 적재하는 문과 화물적재에 필요한 장치들이 일부 추가되었다는 점이었다.

C-47은 화물수송기로 최대 2,722kg의 화물을 적재하거나 완전 조립된 지프 1대 또는 37mm포 1문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병력수송기로 완전군장 한 28명의 군인을 수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료수송기로 14명의 들것 환자와 3명의 간호사를 수용할 수 있었다. 7가지의 기본형이 만들어졌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적어도 22개의 명칭이 부여될 정도로 수송기의 대표 주자였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만 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연합군으로 참전한 국가에 양도되기도 했다. 미 해군에서는 R4D로, 영연방 국가에서는 다코타(Dakota)로 불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C-47은 연합군이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5만 명이 넘는 낙하산병들을 수송하였으며, 벨기에 바스토뉴 전투에서는 포위된 미군에게 탄약과 보급품을 공수했다. 또한 중·일전쟁 시기 인도 공군기지에서 히말라야산맥을 넘는 비행루트를 열어 중국군에게 보급품을 수송하였으며, 과다카날 전투에서는 미 육군항공대의 C-47과 해군의 R4D가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C-47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군사장비 중의 하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수송기였다. 한국에서는 1945년 11월 23일 백범 김구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還國) 시에 타고 온 기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C-47 제원

구 분		C-47D
승무원		4명
전장/너비		19.48m/29.13m
전고		5.18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1830-90D 2개, 1개 1,200마력
중량	자체	8,226kg
	작전	11,793kg
속도	최대	360km/h
	순항	258km/h
최대항속거리		6,116km
최대상승고도		7,315m
무장		없음

출처 : Combat Air Museum(<http://www.combatairmuseum.org/>) ; 'C-47 Skytrain Military Transport', The Boeing Company Homepage.

운 용

C-47은 6·25전쟁 기간 공수작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수송기였다. 첫 공수작전은 1950년 6월 27일 서울에서 일본으로 미국인들을 수송하

는 것이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여러 기지에 흩어져 있던 10대의 C-47기가 동원되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미 극동공군은 예하에 제5공군(일본), 제13공군(필리핀), 제20공군(오키나와)을 두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지역에 남아있던 미국의 공중 수송 자산은 매우 빈약했다. 극동공군의 주요 수송부대인 제374병력수송비행단은 일본 다치카와 공군기지에 C-54 2개 대대,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1개 수송기 대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극동공군은 일본의 여러 기지에 산재하여 있는 C-47기 22대와 C-46기 13대를 소집했다. 그리고 클라크 공군기지의 제21병력수송대대를 일본으로 이동시켰다. 제21병력수송대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C-54를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소속 2개 대대에 양도하고, 일본 전역에서 소집한 C-47과 미 본토에서 보낸 C-47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C-47은 제21병력수송대대의 주력 수송기가 되었으며, 제21병력수송대대는 34대의 C-47기를 보유하고 7월 20일 일본의 아시아 공군기지에서 비행임무를 시작했다.

C-47은 한국의 열악한 활주로 상황으로 중·대형 수송기인 C-46과 C-54가 공수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던 1950년 8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한국으로의 공수작전을 전담하기도 했다. C-47의 수송임무가 증대되면서 제1임시병력수송전대 예하에 1개 대대가 추가로 편성되었다. 한국의 열악한 활주로 상황에도 착륙이 가능하여 전천후 수송기 역할을 담당했던 C-47은 6·25전쟁 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던 1950년 8월 낙동강방어전에서 그것의 존재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이 시기 C-47이 없었다면 유엔군의 공수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6·25전쟁 기간 C-47이 투입된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1950년 10월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순천-숙천 공중 강습 지원, 11~12월 장진호 전투 지원, 1951~1953년 비치코머 작전(Operation Beachcomber) 등을

들 수 있다. 순천-숙천 공중 강습 작전은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 2,860명을 순천과 숙천 지역에 투하하여 주요 도로와 철도를 점령함으로써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 C-47기 40대가 C-119기 76대와 함께 투입되었다. 장진호 전투에서는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해병 제1사단에게 탄약과 의료품들을 공수하였으며, 특히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임무에 집중 투입되었다. 부상자 후송을 위해 미 제21병력수송대대와 그리스 공군의 C-47 조종사들, 그리고 미 제1해병 비행단의 R4D 조종사들이 1950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밖에 완공되지 않고 폭설로 뒤덮인 하갈우리 비행장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착륙하여 8,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비치코머 작전은 한반도 연안의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임무였다. 1951년 여름, 제21병력수송대대의 C-47기들은 레이다 및 무선기지국, 공중구조 헬리콥터, 그리고 해상구조선박 파견대의 기지였던 한반도 연안의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보급품과 병력수송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C-47은 미 공군과 해군뿐 아니라 그리스와 태국 공군에서도 운영한 기종이었다. 그리스는 C-47수송기 7대를 주 전력으로 제13수송단을 구성하여 참전했으며, 태국 공군은 C-47수송기 3대를 미 제21병력수송대대에 배속시켜 참전했다.

쌍발의 경량수송기로 탁월한 성능을 갖춘 C-47은 전 세계 96개 국가가 사용했던 기종으로 우리나라도 6·25전쟁 기간에 도입하여 1954년 퇴역할 때까지 사용하였으며, 최초의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된 기종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UN공군의 전투수송작전사』(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8).
- 대한민국 공군, 『6·25전쟁의 기억 : 6·25전쟁 공군 참전국가 화보집』(계룡: 대한민국 공군, 2010).
-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 한국전쟁과 전투공수』,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 René J. Francillon, *McDonnell Douglas Aircraft Since 1920*(London: Putnam & Company Ltd., 1979).
- Combat Air Museum, <http://www.combatairmuseum.org/>.
- “C-47 Skytrain Military Transport”, The Boeing Company Homepage.





C-54 스카이마스터

C-54 Skymaster

개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민항기로 개발한 DC-4를 개조하여 제작한 미 공군의 4발 프로펠러 중형수송기로 제2차 세계대전은 물론 6·25전쟁 기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수송기였으며, 전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연혁 및 제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C-54 스카이마스터.
© 국사편찬위원회

C-54 스카йма스터(Skymaster)는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민간 여객기로 만든 DC-4에서 파생된 4발 수송기였다. 미 육군 항공대는 1941년 소형수송기인 C-47 스카이트레인을 도입한 후 최대이륙중량을 늘린 중형수송기의 도입을 필요로 했다. 1941년 6월에 미 육군항공대는 더글라스사의 민간여객기 DC-4를 개조한 중형수송기 도입을 결정하고, 그 기종을 C-54 스카йма스터로 명명했다. C-54의 첫 비행은 1942년 2월 14일에 이루어졌다. C-54가 DC-4와 다른 점은 객실 내에 4개의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고 동체의 바닥 강화와 화물적재에 필요한 장치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이였다. 이렇게 개조된 최초의 모델이 C-54A였고, 1943년 2월에 미 육군항공대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C-54 제원

구 분		C-54D
승무원		4명
전장/너비		28.50m/35.84m
전고		8.44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2000 4개, 1개 1,450마력
중량	자체	17,658kg
	작전	28,123kg
속도	최대	443km/h
	순항	310km/h
최대항속거리		6,400km
최고상승고도		6,800m
무장		없음

출처 : René J. Francillon, *McDonnell Douglas Aircraft Since 1920*, London: Putnam & Company Ltd., 1979 ; Combat Air Museum(<http://www.combatairmuseum.org/>) ; 'C-54 Skymaster Military Transport', The Boeing Company Homepage.

C-54는 1942년 C-54A가 생산된 이후 1947년 단종될 때까지 일부 부품과 엔진을 교체하면서 C-54E까지 개량형이 나왔으며, 총 1,164대가 생산되었다. C-54B는 외부 날개에 통합연료탱크가 있어 C-54A의 객실 내 보조연료탱크를 2개로 줄인 특징을 갖고 있었으며, C-54C는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C-54D는 C-54 기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신형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C-54E는 객실 내 보조연료탱크 2개를 완전히 날개 부분으로 이동시킨 것이 특징이었다. C-54는 미 해군에서도 R5D라는 이름으로 운용되었다.

운 용

C-54는 6·25전쟁 기간 첫 번째 미 지상군을 수송한 기종이었다. C-54의 공수작전은 1950년 6월 28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탄약을 수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원비행장 활주로에 있던 C-54 한 대가 파괴되었으며, 착륙 중이던 또 다른 한 대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이 2대의 수송기 손실이 6·25전쟁 중 유일하게 적 공중공격에 따른 손실이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미 극동공군은 예하에 제5공군(일본), 제13공군(필리핀), 제20공군(오키나와)을 두고 있었다. C-54는 극동공군의 주요 수송부대인 제374병력수송비행단 소속의 제6병력수송대대와 제22병력수송대대에서 주로 운용한 기종이었다. 전쟁 발발 당시 제6·제22병력수송대대는 일본 다치카와(立川) 기지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26대의 C-54를 보유하고 있었다.

6·25전쟁 기간 첫 병력공수는 미 제24보병사단 선발대인 제21연대 제1대대였다. 이들은 이른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로 불린 부대였다.

1950년 7월 1일 오전 8시 45분에 이들을 태운 첫 번째 C-54가, 그리고 몇 분 후 두 번째 C-54가 한국을 향해 이륙했지만 부산항 상공에서 기상악화로 회항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에 기상이 호전되면서 미 제 24사단 선발대를 태운 6대의 C-54가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C-54는 전쟁 초기 한국으로의 수송임무를 잠시 수행하다가 곧이어 임무 수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열악한 활주로 상황은 C-54와 같은 중형수송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1950년 7월 말경 낙동강방어선내의 주요 활주로는 K-1(김해), K-2(대구), K-3(포항) 등이 있었지만 C-54가 이·착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 C-47이 8월 말까지 한국으로의 수송임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동안 C-54는 일본 내 다치카와와 아시아를 오가는 화물과 인력 수송에 집중했다. C-54의 한국 공수 임무 수행이 재개된 것은 수영비행장(K-9) 사용이 가능하면서부터였다. 이 무렵 제6·제22병력수송대대는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이동한 제21병력수송대대의 C-54수송기들을 인수했다. 이때 보유한 C-54를 모두 제6·제22병력수송대대에 인계한 제21병력수송대대는 C-47를 주로 운용하는 부대가 되었다. 이후 C-54수송기가 추가 도입되면서 1950년 12월에 제61병력수송전대가 창설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C-54는 미 제10군단 선발대를 비롯해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했다. 또한 북진작전 시기에는 평양과 신안주비행장으로 보급품을 수송했다. 신안주비행장은 압록강에서 가장 가까웠으며, 진흥활주로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신안주비행장은 2,000명의 한국인 노무대가 착륙장을 넓히고 활주로를 연장했다. 6·25전쟁 기간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의 하나도 C-54와 관련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키드리프트 작전(Operation Christmas Kidlift)’이라 불리는 서울지역 고아들의 제주도 후송작전이었다. 총 12대의 C-54가

투입된 이 작전으로 1950년 12월 서울에 있던 1,000명의 고아들이 안전하게 제주도로 후송되었다. 이외에도 일본으로 부상병을 후송하고 교대 병력을 수송하는 것도 C-54가 주로 담당했다. 1952년 C-124가 전선에 보편적으로 투입되기 전까지 C-54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중형수송기의 대표 주자였다.

1952년 제374병력수송단에서 C-54수송기를 운영하던 3개 대대 중 2개 대대가 C-124로의 기종전환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면서 C-54의 승무원들은 더 큰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제61병력수송전대의 C-54는 한국 공수작전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11월에 들어서서는 C-54를 운용하던 5개 대대 중 4개 대대가 미국으로 귀환하고, 1개 대대만이 남게 되었다.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전임무에 투입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 대신 C-46과 C-124가 C-54의 임무를 대체했다.

4발 프로펠러 수송기였던 C-54는 6·25전쟁 기간 많은 적재량과 긴 비행거리를 자랑하면서 화물과 승객 수송기 및 후송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1966년 10월 미국 공군으로부터 C-54 4대를 이양 받아 제5공중기동비행단인 은마부대를 창설했다. 또한 1966년 6월에는 C-47을 대신하여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하여 1973년까지 운용했다.

참고문헌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UN공군의 전투수송작전사』 (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8).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 한국전쟁과 전투공수」,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 (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René J. Francillon, *McDonnell Douglas Aircraft Since 1920*, London: Putnam & Company Ltd., 1979.
Combat Air Museum, <http://www.combatairmuseum.org/>.
'C-54 Skymaster Military Transport', The Boeing Company Homepage.

C-119 플라잉 박스카

C-119 Flying Boxcar

개요

미국 페어차일드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용된 C-82를 발전시켜 1947년 11월에 첫 비행에 성공한 쌍발수송기로 6·25전쟁 기간 C-47과 더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중형수송기였다.

연혁 및 제원



기지에서 대기 중인 C-119 플라잉 박스카(1951년).
© 국사편찬위원회



C-119 플라잉 박스카(Flying Boxcar)는 미국 페어차일드(Fairchild)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C-82 패킷(Packet)을 발전시킨 쌍발수송기였다. C-119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47년 11월 17일이었다. C-119가 C-82와 다른 점은 조종실 위치의 변화, 엔진 강화, 꼬리 날개의 변화, 기체 너비의 연장에 따른 적재량 증가 등이었다. 최초의 모델이 C-119A였으며, 시험 평가 후 1949년 12월에 C-119B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1955년 퇴역할 때까지 총 1,183대가 생산되었으며, C-119A부터 C-119L까지 개량형이 나왔다. C-119는 미 해군에서도 R4Q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수송기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6·25전쟁은 C-119기의 첫 번째 실전 투입된 전쟁이었다.

C-119 제원

구 분		C-119C
승무원		5명
전장/너비		26.37m/33.30m
전고		8.08m/134.4㎡
엔진/출력		Wright R-4360 2개, 1개 3,500마력
중량	자체	18,053kg
	작전	29,030kg
속도	최대	452km/h
	순항	320km/h
전투행동반경		3,669km
실용상승한도		7,300m
무장		없음

출처 : 'C-119C Flying Boxcar', Museum of Aviation Foundation ; 'C-119 Flying Boxcar', Air Mobility Command Museum ; 'Fairchild C-119J Flying Boxcar',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 'C-119G Flying Boxcar', Strategic Air Command & Aerospace Museum.

C-119는 6·25전쟁 기간 처음 실전에 투입된 기종이었다. C-119가 6·25전쟁에 처음 투입된 것은 1950년 7월이었다. 이때 4대의 C-119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극동공군사령부에 보내졌다. 본격적인 수송임무가 시작된 것은 1950년 8월 말 제314수송전대 소속의 C-119 3개 대대가 일본 다치카와 공군기지에 도착하면서부터였다. 제314수송전대는 곧이어 아시아 공군기지로 이동하여 수송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전쟁 초기 C-119는 대구와 부산에 탄약·휘발유·식량 등을 보급했고, C-54, C-46, C-47로는 수송이 불가능했던 트럭, 트레일러, 증기롤러 및 기타 대형화물 수송을 담당했다. 한강에 설치할 부교부품도 C-119가 수송했다. 또한,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의 공중낙하도 C-119의 몫이었다. 이를 위해 C-119 조종사들은 낙하산 강습을 위한 편대비행 훈련을 수시로 실시했다.

6·25전쟁 기간 C-119가 투입된 대표적인 작전으로는 1950년 10월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의 순천-숙천 공중 강습 지원, 11~12월 장진호 전투 지원,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 지원, 1951년 3월 토마호크작전 등을 들 수 있다. 순천-숙천 공중 강습 작전은 제187공정연대전투단 병력 2,860명을 순천과 숙천 지역에 투하하여 주요 도로와 철도를 점령함으로써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 C-119기 76대가 투입되어 이 중 74대가 투하지역에 도달했고 71대가 실제로 병력과 화물을 투하했다. 장진호 전투에서는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해병 제1사단에게 탄약과 의료품을 공수하였으며, 특히 중공군이 파괴한 황초령 계곡의 교량을 대신할 M-2부교 4개를 공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 공군전사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다리(A Bridge from the Sky)’라고 불렀으며, 제314수송전대는 작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부대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에서는 총 84회의 공중 투하 출격 횟수를 기록했고, 400톤이 넘는 탄약을 공수했다. 6대의 항공기가 적의 지상 대공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지평리 전투를 담당했던 미 제23보병연대장은 공중 투하를 ‘하늘이 주신 것(Godsend)’으로 표현했다. 1951년 3월 23일 경기도 문산지역에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을 공수투하시키는 ‘토마호크작전(Operation Tomahawk)’에는 C-119 플라잉 박스카 49대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C-119는 1951년 5월 중공군의 5차공세 때 1,000톤이 넘는 보급품들을 투하했으며,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전단지 살포에도 참여했다.

C-119는 1951년 9월 이후 대형수송기인 C-124가 수송작전에 투입되면서 점차 출격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1951년 11월에 C-119는 6·25전쟁 기간 가장 대규모 공중기동작전 훈련인 ‘과시작전(Operation Showoff)’에 투입되어 일본에서 한국으로 1,000명의 낙하산부대원들을 공수했다. 또한 C-119는 고지에 설치할 무선기지국 장비들을 수송해 한국인 노무자들의 일손을 크게 덜어주기도 했으며, 많은 숫자의 항공기 엔진을 한국으로 수송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엔진은 부피가 크고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에 플라잉 박스카만이 최소한의 피해로 편리하게 이것들을 수송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UN공군의 전투수송작전사』 (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8).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 한국전쟁과 전투공수」,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 (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C-119 Flying Boxcar’, Air Mobility Command Museum.
 ‘C-119C Flying Boxcar’, Museum of Aviation Foundation.
 ‘C-119G Flying Boxcar’, Strategic Air Command & Aerospace Museum.
 ‘Fairchild C-119J Flying Boxcar’,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C-124 글로브마스터 II

C-124 Globemaster II

개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사용된 C-74를 발전시켜 1949년 11월 27일 첫 비행에 성공한 4발 수송기였다. 전차, 불도저, 트럭 등을 분해하지 않고 탑재할 만큼 대용량의 수송기였으며, 6·25전쟁 기간 첫 실전에 배치된 기종이었다.

연혁 및 제원



C-124 글로브마스터와 상공을 비행 중인 C-119 플라잉 박스카(1951년).
© 국사편찬위원회

항공 무기

C-124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는 베를린 공수작전에서 대형수송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C-74 글로브마스터 I 을 모델로 하여 발전시킨 4발 대형수송기이다. C-124가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49년 11월 27일이었다. C-124가 C-74와 다른 점은 동체의 크기가 커져 적재량이 늘고, 조종실 하부에 짐을 싣는 문을 만들어 차량이 자체 선적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였다. C-124는 200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었으며, 최대 3만 4,000kg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다. 최초의 모델인 C-124A가 1950년 5월 미 공군에 인계되었으며,

C-124 제원

구 분		C-124C
승무원		6~7명
전장/너비		39.75m/53.07m
전고		14.18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4360 4개, 1개 3,800마력
중량	자체	45,888kg
	작전	83,915kg
속도	최대	489km/h
	순항	370km/h
항속거리		6,490km
최대상승고도		6,600m
무장		없음

출처 : 'C-124C Globemaster II', Museum of Aviation Foundation ; 'C-124C Globemaster II', Air Mobility Command Museum ; René J. Francillon, McDonnell Douglas Aircraft Since 1920, London: Putnam & Company Ltd., 1979 ; 'C-124 Globemaster II', The Boeing Company Homepage.

이후 더 강력한 엔진과 기상레이다를 장착한 개량형인 C-124C가 생산되었다. 1955년 단종될 때까지 총 447대가 생산되었는데, C-124A형이 204대, C-124C형이 243대였다. 미 공군에서는 C-124를 ‘올드 셰키(Old Shakey)’라고도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수송기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6·25전쟁은 C-124 글로브마스터가 첫 번째 실전 투입된 전쟁이었다.

운 용

C-124는 6·25전쟁 기간 처음 실전에 투입된 기종이었다. C-124가 6·25전쟁에 처음 투입된 것은 1951년 9월이었다. 이때 미 공군무기체계사령부(Air Proving Ground Command)는 시험을 위해 한국으로 C-124 1대를 전개했다. 당시 미 공군무기체계사령부는 공군본부 산하 주요 사령부의 하나로 항공기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새로 제작된 C-124는 그 당시에 운영되던 수송기들과 비교해 4~5배의 화물을 탑재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국의 활주로들이 대형수송기의 중량을 견딜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첫 시험비행에서 C-124는 서울·대구·부산비행장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1951년 10~12월 미 공군무기체계사령부는 C-124를 한국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에 앞서 강도 높은 시험 임무 수행을 계속했다.

1952년 봄, 그동안 C-54를 주요 기종으로 보유했던 제374병력수송비행단에 C-124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C-54에서 C-124로의 기종 전환을 위해서는 승무원과 정비사들을 재교육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제374병력수송비행단의 부대원들은 숙달될 때까지 지상교육과 비행훈련

을 받아야만 했다. ‘큰 새(Big Birds)’라고 불릴 만큼 규모가 대단히 컸던 C-124는 짐을 내리고 신는 동안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흔치 않은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C-124가 한국전선에서 공식적으로 첫 수송임무를 수행한 것은 1952년 7월이었다. 1952년 7월~12월 첫 6개월 동안 C-124는 1,500회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했고 9만 2,000명의 승객과 1만 6,000톤의 화물을 수송했으며, 3,300명의 환자를 후송했다.

C-124가 운영되면서 전체적인 공중 수송 작전은 연쇄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C-54가 점차 줄어들고 대신 그 자리를 C-124가 대체해 나갔으며, 무엇보다도 극동지역 항공교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이었다. 서울과 필리핀 클라크 기지를 무착륙으로 오갈 수 있었기 때문에 미 공군의 극동 지평선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C-124는 부상병 후송과 항공기 부품 수송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다. C-124는 유엔군 부상자뿐 아니라 한국군 부상병 후송에도 사용되었다. 1953년 5월부터 7월까지 한국군 부상자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이들을 후방으로 후송하는 데 C-124가 활용되었다. 가장 많은 숫자의 한국군 부상자들이 이송된 날 중에는 최대 다섯 대의 C-124가 서울과 대구 사이를 오가면서 비행 때마다 100명이 넘는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또한, C-124는 F-86, F-84, B-26 등 항공기들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대대적인 검사와 재조립을 위해 일본으로 공수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C-124는 전투 장비와 화물 수송 이외에도 승객들을 공수하는 데 유용했다. 한 번에 120명에서 160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대 적재량까지 추가적인 우편과 화물을 실어 서울과 도쿄를 왕복하는 고밀도 운항에서 대

단히 효율적이었다. 들것에 실린 환자들도 136명까지 태울 수 있었다.

6·25전쟁에서 첫 선을 보인 C-124 글로브마스터는 전차, 불도저, 트럭 등을 분해하지 않고 탑재 할 만큼 규모가 컸고, 장거리 수송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항공무기 발전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UN공군의 전투수송작전사』(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18).

U.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저/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 한국전쟁과 전투공수』, 『한국전쟁 항공전사(The Air Warfare History of the Korean War)』(계룡: 공군본부(역사기록관리단), 2020).

René J. Francillon, *McDonnell Douglas Aircraft Since 1920*(London: Putnam & Company Ltd., 1979).

‘C-124 Globemaster II’, The Boeing Company Homepage.

‘C-124C Globemaster II’, Air Mobility Command Museum.

‘C-124C Globemaster II’, Museum of Aviation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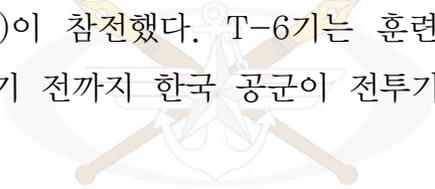


연락기, 훈련기

Liaison aircraft, Trainer aircraft

연락기는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비무장의 소형 항공기이다. 지휘관 및 연락업무요원의 이동, 소규모 화물 운송, 정찰이나 구난 활동 등에 사용되기도 하며, 육군 포병대와 협력하여 포탄의 탄착점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6·25전쟁 기간에는 L-4 글래스하퍼(Grasshopper), L-5 센티넬(Sentinel), L-16 글래스하퍼(Grasshopper), L-19 버드 독(Bird Dog) 등이 참전했다. 이중 L-4와 L-5기가 연락기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훈련기는 조종사들의 훈련을 위해 개발된 항공기로 6·25전쟁 기간에는 T-6 텍산(Texan)이 참전했다. T-6기는 훈련기였지만, 6·25전쟁 초기 F-51을 보유하기 전까지 한국 공군이 전투기 대용으로 사용한 기종이기도 했다.



L-4 글래스하퍼

L-4 Grasshopper

개요

미국 피퍼사에서 1938년 민수용 경비행기로 제작한 J-3 커브(Cub)를 군용 정찰기로 바꿔 생산한 기종이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정찰, 연락, 지상통제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에도 1948년에 미 공군의 원조로 10대가 도입되었다.

연혁 및 제원



이륙을 준비 중인 L-4연락기(1948. 9. 25).
© 국사편찬위원회

L-4 글래스하퍼(Grasshopper)는 미국 피퍼(Piper)사가 민수용 경비행기로 제작한 J-3 커브(Cub)를 군사용 훈련과 정찰기 목적으로 생산한 것이었다. 1938년부터 생산된 커브는 J-1과 J-2를 거쳐 J-3에 이르러 조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았다. 조종이 쉬웠고, 성능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이었다.

미 육군항공대는 1939년에 J-3 커브를 훈련기로 채택했다. 미군 조종사 중 약 80%가 J-3 커브로 초기 비행훈련을 받았을 정도로 J-3의 가치는 대단히 컸다. 그만큼 생산량도 늘어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체인 1940년에 3,016대가 만들어졌고, 이후 전시 수요에 따라 20분에 한 대씩 만들어내는 상상 이상의 생산량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J-3 커브는 훈련기로서뿐 아니라 격추된 공군 조종사나 피격된 해군 장병 등 실종자 수색기로도 크게 활약했다.

L-4 제원

구 분		L-4
승무원		2명
전장/너비		6.83m/10.74m
전고/익면		2.03m
엔진출력		Continental O-170 1개, 65hp
중량	자체	345kg
	작전	550kg
최대속도		140km/h
항속거리		354km
최대상승고도		3,500m

출처 : F. G.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Military Aircraft since 1909* ; Glenn B. Bavousett, *World War II Aircraft in Combat* ; Roger W. Peperell & Colin M. Smith, *Piper Aircraft and their Forerunners*.

J-3 커브는 1942년에 시야 확보를 위해 캐노피를 개조한 개량형이 생산되었으며, 이것을 미 육군항공대에서는 L-4로, 미 해군에서는 NE로 명명했다. 글래스하퍼(메뚜기)는 L-4의 별명이었다. L-4는 250대의 NE를 포함하여 총 5,400여 대가 생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L-4는 연락업무, 정찰, 식량·의료품·탄약 수송, 포병 탄착지점 유도, 사상자 후송 등 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L-4는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되어 J-3 커브로 변신하거나 세계 여러 국가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면허생산을 하기도 했다. 한국도 1948년 9월 13일 미 공군으로부터 10대를 인수받았다.

운 용

L-4는 한국 공군 창설 때 주전력 중 하나였다. 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1,600여 명의 병력과 10대씩의 L-4와 L-5의 전력을 가지고 정식으로 육군에서 분리, 독립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 공군이 보유한 L-4연락기는 8대였다.

L-4기는 비무장 상태였지만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전선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 6월 26일 L-4기는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 방면으로 출격하여 후방석의 관측사가 2개의 폭탄을 손으로 직접 투하하는 방식으로 국군 제7사단을 지원했다. L-4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투하된 폭탄이 총 70발이었다. 6월 27일 폭탄이 고갈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L-4기는 정찰활동으로 전환했다.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에는 왜관, 다부동, 영천, 포항, 영덕 일대를 정

찰하여 유엔 전투기와 폭격기의 출격을 유도하였으며, 지상군 포병부대의 포탄 탄착점을 알려주어 방어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 지상화기에 피격되어 조종사와 항공기 손실이 적지 않았다.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L-4기는 316회의 정찰과 127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했다.

6·25전쟁 기간 L-4기는 공군 정찰대는 물론 육군의 각 군단에서도 공군에서 파견한 L-4파견대가 이를 운용했다. 육군 각 군단에는 L-4기 2~4대씩 배치되었다. 6·25전쟁 기간 파손된 한국 공군의 L-4기는 총 25대였다. L-4는 미 육군에서도 전쟁 초기에 연락업무용으로 소수 운용했지만, 곧이어 L-16 글래스하퍼(Grasshopper)로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1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Glenn B. Bavousett, *World War II Aircraft in Combat*(New York: Arco Pub. Co., 1976).

F. G.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Military Aircraft since 1909*(London: Putnam, 1963).

Glenn B. Bavousett, *World War II Aircraft in Combat*(New York: Arco Pub, Co., 1976).

Roger W. Peperell & Colin M. Smith, *Piper Aircraft and their Forerunners*(Tonbridge, Kent, England: Air-Britain, 1987).

L-5 센티넬

L-5 Sentinel

개요

미국 스티븐사에서 제작한 프로펠러 연락기로 1941년 6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군의 모든 병과와 영국 공군이 연락기로 사용했다. 한국에는 1948년에 10대가 도입되었다.

연혁 및 제원



비행 전 점검 중인 L-5 센티넬(1950. 7. 13).
© 국사편찬위원회

L-5 센티넬(Sentinel)은 미국 스티슨(Stinson)사가 군사용 연락기로 제작하였으며, 1941년 6월 28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나는 지프’라는 애칭을 가진 L-5는 관측임무 수행을 위해 앞좌석에는 조종사가, 뒷좌석에는 관측자가 탑승하도록 좌석을 배치했다. L-5는 1942년 1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총 3,590대가 생산되었으며, 피퍼(Piper)사의 L-4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각광받았던 연락기였다. 후기 모델은 환자수송 또는 화물수송 임무를 전담하도록 기체를 일부 변형한 항공기로 재설계되기도 했다.

L-5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육군항공대, 해군, 해병대가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사용하였으며, 미 육군항공대의 제식명칭 L-5A부터 L-5E는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OY-1로 명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인 1945년 7월에 생산된 L-5G는 OY-2로 명명했다. 영국도 미국에서

L-5 제원

구 분		L-5
승무원		2명
전장/너비		7.34m/10.36m
전고		2.41m
엔진/출력		Lycoming O-435-1, 185hp
중량	자체	702kg
	작전	929kg
최대속도		210km/h
항속거리		676km
최대상승고도		4,816m

출처 : "Stinson L-5 Sentinel", March Field Air Museum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76쪽.

L-5와 L-5B 100대를 도입하여 센티넬 I·II로 지정하여 인도-버마 전선에 투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L-5는 여러 국가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되었다. 한국도 1948년 미 공군으로부터 10대를 무상지원 받았다.

운 용

L-5는 한국 공군 창설 때 L-4기와 더불어 주전력 기종이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한국 공군이 가용할 수 있었던 L-5 연락기는 4대 뿐이었다. L-5기도 L-4기처럼 비무장 상태였지만 1950년 6월 26일 L-4기와 더불어 북한군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 방향으로 출격하여 폭탄을 손으로 직접 투하하는 방식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L-5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25발이었다. 6월 27일 폭탄이 고갈된 후 L-5기는 L-4기와 함께 정찰활동으로 전환했다.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에 L-5기는 36회의 정찰과 12회의 연락임무를 수행했다.

전쟁 초기에는 L-4기에 비해 활동이 미미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L-5기의 정찰과 연락 임무 수행 횟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L-5기의 정찰 및 연락 횟수는 각각 34회와 165회였으며, 1951년 12월부터 1951년 6월까지의 66회와 524회였다. 이때부터 L-5기의 정찰 및 연락업무는 L-4기를 넘어서게 되었다. 6·25전쟁 기간 파손된 한국 공군의 L-5기는 총 15대였다.

L-5기는 한국 공군뿐 아니라 미 육군도 애용한 연락기였다. 6·25전쟁 기간에 미 육군의 보병사단까지 배치되었으며, L-16 글래스호퍼(Glasshoper)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된 연락기였다. 이들은 연락업무,

항공사진 촬영, 차량호송 통제, 식량·의료품·탄약 공중 투하, 통신선 가설, 심리전 전단지 살포, 살충제 살포, 전폭기들의 지상목표물 유도, 포병 탄착지점 유도, 사상자 후송 등 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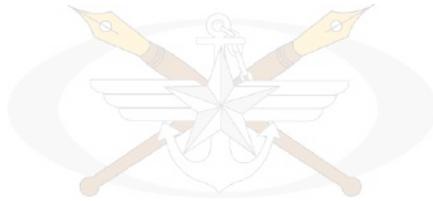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⑬~⑮(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F. G.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Military Aircraft since 1909* (London: Putnam, 1963).

"Stinson L-5 Sentinel". March Field Air Museum. <https://web.archive.org/web/20000915192736/http://www.marchfield.org/l5.htm>, 2020. 9. 27.



L-16 글래스하퍼, L-19 버드 독 L-16 Grasshopper, L-19 Bird Dog

개 요

6·25전쟁 기간 L-4나 L-5 이외에 운용된 연락기로는 L-16 글래스하퍼(Grasshopper), L-19 버드 독(Bird Dog) 등이 있다. 이들 연락기들은 한국 공군에도 소수가 인도되어 6·25전쟁 때 사용되었다. L-17 나비온(Navion)도 참전한 것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제 원

L-16 글래스하퍼(Grasshopper) 제원



L-16A	
승무원	2명
전장/너비	6.58m/10.73m
전고	2.13m
엔진/출력	Continental C-85-12F, 85hp
중량	658kg
최대속도	174km/h
항속거리	467km
최대상승고도	4,191m
주요 활동	L-16 글래스하퍼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에론카(Aeronca)사가 제작한 O-58을 개량한 연락기였다. L-16A(85hp)와 L-16B(90hp)형이 있으며, 6·25전쟁 기간 초기에 사용되던 L-4 글래스하퍼를 대체하여 널리 사용되었다. 관측 및 표적 지시, 구난 임무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 공군에도 총 7대가 도입되어 정찰 및 연락, 구난 활동, 포병부대 포탄 탄착 점 지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출처 : "Aeronca L-16 Grasshopper", Estrella Warbird Museum, <https://www.ewarbirds.org/aircraft/>

L-19 버드 독(Bird Dog) 제원



L-16A	
승무원	1~2명
전장/너비	7.8m/11m
전고	2.6m
엔진/출력	Continental C-470-11, 213hp
중량	1,089kg
최대속도	241km/h
항속거리	982km
최대상승고도	6,187m
주요 활동	<p>L-19 버드 독은 세스나(Cessna)사가 제작한 연락기로 1949년 12월에 첫 비행에 성공하고, 1950년 12월부터 L-19A가 미 육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6·25전쟁은 L-19가 처음 선을 보인 무대였다. L-19는 E형까지 개량형이 생산되었으며, 1962년에 제식명칭을 O-1로 바꿨다. 6·25전쟁 기간에는 L-16 글래스하퍼와 마찬가지로 정찰 및 연락, 구난 활동, 포병부대 포탄 탄착점 지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L-16 글래스하퍼보다 항속거리가 길어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 전쟁 기간 한국 공군도 2대를 도입하였으나 작전 중 크게 파손되었다.</p>

사진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F. G.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Military Aircraft since 1909* (London: Putnam, 1963).
 "Aeronca L-16 Grasshopper", Estrella Warbird Museum, <https://www.ewarbirds.org/aircraft/>, 2020. 10. 8.



T-6 텍산

T-6 Texan

개 요

미국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제작한 2인승 공격용 훈련기로 1935년 4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미 공군과 해군, 캐나다와 영국 공군이 주로 사용했다. 우리에게서는 1950년 5월 국민 성금으로 구매한 ‘건국기’로 잘 알려져 있다.

연혁 및 제원



T-6 건국기 명명식 축하 편대비행(1950. 5. 14)
© 공군본부

T-6 텍산(Texan)은 미국 노스 아메리칸(North American)사가 훈련기로 제작하였으며, 원형기인 NA-16이 1935년 4월 1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미국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면허생산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 다양한 개량형들이 선보였다. T-6은 모델 및 운용 주체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항공대는 AT-6으로, 미 해군은 SNJ로, 영연방 공군은 하바드(Harvard)로 불렀다. 미 육군항공대의 후신인 미 공군은 초기에 AT-6으로 명명하다가 1948년부터 'T-6'이라는 제식명칭을 부여했고, 미 해군도 1962년부터 T-6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T-6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캐나다·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총 15,495대가 생산되었다.

T-6 제원

구 분	T-6
승무원	2명
전장/너비	8.8m/12.8m
전고	3.86m
엔진/출력	PW R-1340-AN-1 1개, 550hp
중량	2,548kg
최대속도	330km/h
항속거리	1,398km
최대상승고도	7,544m
무장	30구경 기관총 2정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78쪽.

비고 : 『공군사』에서는 최대상승고도를 24,750m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24,750ft의 오류인 것으로 보여 m로 수정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T-6은 세계 여러 국가에 판매되었다, 한국도 1950년 5월 캐나다에서 라이선스로 제작한 T-6기 10대를 구매했다. 당시 한국 공군은 30만 달러의 국민성금으로 구입한 T-6기 10대를 ‘건국기’라고 이름 붙였다. 캐나다에서 퇴역해 민간에 넘어간 T-6기 10대를 구매하면서 본체 이외에 항공기 탑재용 기관총 20정과 탄약 5,000발, 1년치 부속품과 연료도 함께 구매했다. 1950년 5월 도입 후 6·25전쟁 초기에는 폭격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이후 주로 정찰, 대지공격, 조종사 훈련용으로 운용되었다.

운 용

6·25전쟁 발발 당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한국 공군이 임시 방편으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던 기종이 T-6기였다. 전쟁 발발 당일 T-6기 10대가 3개 편대로 편성되어 개성·문산 방면과 의정부·동두천·포천 방면, 그리고 춘천 방면으로 적정을 살피기 위해 출격하는 것이 6·25전쟁 발발 후 T-6기의 첫 번째 작전 수행이었다. 이날 T-6기들은 북한군의 남하와 집결 상황을 정찰하고 돌아온 후 육군병기창에서 인수한 30파운드 폭탄(15kg) 2~3개를 싣고 해주·개성·동두천·포천 방면으로 출격해 후방석의 관측사가 손으로 직접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북한군 남하를 지연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방법은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사용했던 전술이었지만, 연락기와 T-6훈련기만을 보유한 한국 공군이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나마 6월 26일부터 T-6기가 급조된 폭탄 걸이에 8개의 폭탄을 장착하고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과 포천으로 출격하여 폭격을 가함으로써 원시적인 공격방법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작전도 6월 27일에 274개의 국산폭탄 전량이 소모됨으로써 전투출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한국 공군의 T-6기는 L형 연락기와 함께 정찰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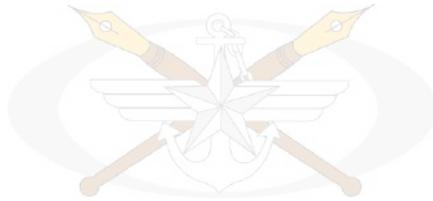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한편, 6·25전쟁 기간 T-6기는 미 공군도 적극 활용한 기종이었다. 미 공군은 지상군에 대해 보다 정확한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전방항공통제기로 T-6기를 운용했다. 미 공군 제502전술항공통제단과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가 T-6기를 운용한 부대였다. 특히 미 공군은 T-6기 후기형으로 장거리 무전기를 장착한 LT-6G를 전방항공통제기로 많이 사용했다.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의 T-6기들은 1955년 한국 공군에 이관되어 훈련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UN공군사』 (상·하)(계룡: 공군본부, 2017).
-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대한민국 공군 정찰비행부대 참전사』 (계룡: 공군역사기록관리단, 2020).
- “무기의 일생 : 전투기 폭격 유도한 LT-6G 모스키토”, 〈국방일보 무기백과〉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헬리콥터는 기체 위에 달린 로터(Rotor, 회전 날개)의 회전에 의해 나는 비행기이다. 1930년경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시험 제작하였으며, 1941년에 미국의 시코르스키사가 실용화했다.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지만, 활주로가 필요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여 지상과 함정 등 어느 곳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며, 인명구조, 통신연락, 화물운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25전쟁에는 미국의 H-5 드래곤플라이(Dragonfly) H-19 치카소(Chickasaw)가 주로 운용되었다.



H-5 드래곤플라이

H-5 Dragonfly

개요

미국 시코르스키사에서 제작한 헬리콥터로 1943년 8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미 공군은 H-5로, 미 해군은 HO3S-1로 명명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연락과 구조, 환자수송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연혁 및 제원



부상병들을 후송하는 H-5 드래곤플라이(1952. 12. 31).
© 국사편찬위원회

H-5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미 육군항공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시코르스키(Sikorsky)사가 제작한 헬리콥터로 1943년 8월 18일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1944년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1945년 2월부터 미 육군항공대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당시 H-5의 제식명은 R-5A였다. 미 해군도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함재용으로 도입했는데, 제식명은 HO2S-1이었다.

R-5A 제작 이후 시코르스키사는 기체 중량과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삼발형의 랜딩기어와 탑승인원을 약간 늘린 개량형의 F-5를 개발하여 1946년 2월 16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미 육군항공대는 이 모델을 R-5F로, 미 해군과 해병대는 HO3S-1로 명명했다. 특히, 미 해군은 항공모함, 순양함, 전함, 쇄빙선 등 여러 함정들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했다. R-5는 영국의 웨스트랜드(Westland)사에서도 면허생산 방식으로 생산하여 영국 공군과 해군에서 사용했다. 1947년 미 육군항공대가 공군으로

H-5 제원

구 분	H-5
승무원	1~2명
전장/너비	12.5m/14.6m
전고	3.7m
로터 지름	14.63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985, 450hp
중량	2,184kg
최대속도	145km/h
항속거리	519km
최대상승고도	4,400m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84쪽.

독립한 후 R-5는 제식명칭이 H-5로 변경되었으며, 1951년까지 3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 미 공군의 H-5F와 해군의 HO3S-1은 적 후방에서 격추된 유엔군 조종사를 구출하고 부상당한 인원을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점차 H-19 치카소(Chickasaw)에 의해 대체되었다.

참고문헌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Norman Polmar & Floyd D. Kennedy, Jr., *Military Helicopters of the World: Military Rotary-wing Aircraft Since 1917*. Annapolis(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1).

F. G.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Military Aircraft since 1909* (London: Putnam, 1963).

Wikipedia, "Sikorsky H-5", https://en.wikipedia.org/wiki/Sikorsky_H-5, 2020. 11. 9.



H-19 치카소

H-19 Chickasaw

개요

미국 시코르스키사에서 제작한 헬리콥터로 1949년 11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미 공군은 H-19로, 미 해군은 HO4S로, 미 해병대는 HRS로 명명했다. 6·25전쟁 기간에는 연락과 구조, 환자수송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초의 헬리콥터이기도 하다.

연혁 및 제원



미 공군 제3항공구조대의 H-19치카소에서 사상자 구조연습을 하는 모습.
© 국사편찬위원회

H-19 치카소(Chickasaw)는 미국 시코르스키(Sikorsky)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헬리콥터로 1949년 11월 10일 시제기가 첫 번째 비행에 성공했다. H-5를 이미 생산한 바 있는 시코르스키사는 개발에 들어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제기 비행에 성공함으로써 헬리콥터 생산에 독보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했다. 미 공군에서는 H-19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하여 도입을 결정하고 1950년 4월부터 시코르스키사로부터 H-19를 인도받았다. 미 해군도 1950년 8월부터 H-19를 구입하여 HO4S로 명명했다. 그리고 미 해병대는 HRS로 명명했다.

H-19 치카소의 특징은 엔진이 조종실 아래와 객실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헬리콥터 회전날개의 상하방향 회전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셋 플래밍 힌지(Offset Flapping Hinge) 적용, 로터 제어를 위한 유압 자동제어 장치 사용 등이었다. 이로써 H-19는 기존 헬리콥터보다 안정성과 수용능력 면에서 크게 개선된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후 엔진성능을 향상시킨 H-19B형이 개발되었으며, 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 모델을 각각 HO4S-3과 HRS-3으로 명명했다.

H-19가 도입되면서 헬리콥터가 진정한 수송 헬리콥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된 개량형 개발로 H-19는 의료후송, 전술통제, 군수지원 등의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해군 함재용 헬리콥터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수용능력은 병력 10명 또는 환자용 들것 8개를 적재할 수 있었다.

H-19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라이선스(License)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미국에서 생산된 수는 1,281대였으며, 라이선스로 생산된 수가 447대였다. 6·25전쟁 기간에는 1951년부터 투입되었으며, H-5 드래곤플라이(Dragonfly)가 수행하던 임무와 기능을 대체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초의 헬리콥터이기도 하다.

H-19 제원

구 분	H-19
승무원	2명
전장/너비	12.9m/16.2m
전고	4.7m
로터 지름	14.63m
엔진출력	Wright R-1300-3, 700hp
중량	3,810kg
최대속도	180km/h
항속거리	611km
최대상승고도	4,572m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84쪽.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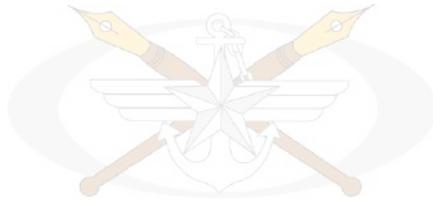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Norman Polmar & Floyd D. Kennedy, Jr., *Military Helicopters of the World: Military Rotary-wing Aircraft Since 1917*. Annapolis(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1981).

Wikipedia, "Sikorsky H-19 Chickasaw", https://en.wikipedia.org/wiki/Sikorsky_H-19_Chickasaw, 2020. 11. 17.



함재기는 군함에서 탑재하거나 운용하는 항공기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항공모함에 탑재한 전투기들은 물론 수상기와 헬리콥터 등 군함에서 운용하는 모든 항공기들을 포함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대표적인 함재기로는 미국의 AD 스카이 레이더(Sky-Raider), F2H 밴시(Banshee), F3D 스카이나이트(Sky-Night), F4U 코세어(Corsair), F7F 타이거 캣(Tiger Cat), F9F 팬서(Panther) 등이 있으며, 영국과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페어리 파이어플라이(Fairly Firefly), 시퓨리(Seafury), 시파이어(Seafire) 등이 있었다. 그리고 수상기로 PB4Y-2, PBM, PBY 등이 참전했다.



AD 스카이 레이더

AD Sky raider

개요

AD 스카이 레이더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제작한 1인승 함재용 프로펠러 공격기로 1945년 4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1951년 화천댐 공격 시에 공중 어뢰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혁 및 제원



1953년 5월 북한지역에 대한 목표물 공격을 마치고 항공모함 벨리 포지함(Valley Forge, CV-45)에 착륙 중인 AD 스카이 레이더.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AD 스카이 레이더(Sky raider)는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5년 3월에 시제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항공모함 탑재형 장거리 뇌격기(Torpedo carrier : 어뢰공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비행기)로 어뢰 공격이 가능하였으며, 1946년 12월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AD 스카이 레이더는 1962년에 A-1 스카이 레이더로 제식 명칭이 바뀌었다. 이때까지 생산된 AD-1~AD-7 스카이 레이더가 각각 A-1A~A-1J 스카이 레이더로 명칭이 바뀌었다.

AD 스카이 레이더 제원

구 분		AD-4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1.93m/15.32m
전고		4.71m
엔진/출력		Wright R-3350 1개, 2,700hp
중량	자체	5,313kg
	작전	9,745kg
속도	최대	474km/h
	순항	365km/h
최대항속거리		2,167km
최대상승고도		7,163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기관포 4문 • 5인치 HVAR 로켓 12발 • 2,000파운드 폭탄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AD-4 Skyraider', "AD/A-1 (AD-4) Skyraider(Korea)", U.S. Navy web site.

전투행동반경이 넓고 폭탄 장착량이 월등하였으며, 저속으로 작전지역을 선회하다가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은 이 공격기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 쓰임새가 탁월하여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표적견인기 등 다양한 개량형들이 나왔다. 6·25전쟁 기간에 처음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AD-4가 가장 많이 참전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스카이 레이더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 7월 3일 평양폭격 때였다. 이날 오전에 제5항공함모전단(CVG-5) 소속 제55공격비행대대(VA-55)의 스카이 레이더 12대가 미 해군 항공모함 밸리 포지(Valley Forge, CV-45)에서 출격했다. 각각의 스카이 레이더는 500파운드 폭탄 2발과 100파운드 폭탄 6발씩 무장하였으며, 평양비행장 폭격으로 격납고 3개와 유류 저장고를 폭파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출격하여 평양 철도조차장을 폭격하여 기관차 15대와 차량기지를 파괴했다.

6·25전쟁 초기 스카이 레이더는 북한지역 폭격 이외에도 남한지역의 교량과 비행장 폭파 및 북한군 보급로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 특히 마산-진주지역에서는 제11항공함모전단(CVG-11) 소속 제115공격비행대대(VA-115)의 스카이 레이더들이 항공모함 필리핀 시(Philippine Sea, CV-47)에서 출격하여 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했다. 또한 스카이 레이더는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기 전에 실시된 인천 주변 지역에 대한 폭격과 상륙작전 이후 미 해병대의 서울진격작전에도 참여했다.

제55·제115공격비행대대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비역으로 전환되었다가 현역으로 복귀한 조종사들로 구성된 제702·제728·제923공격비행대대도 스카이 레이더를 운용하였으며, 미 본토에서 파견된 제2항

공함모전단(CVG-2) 소속의 제65공격비행대대(VA-65)도 스카이 레이더로 무장했다. 제65대대는 항공모함 박서(Boxer)에서 출격했다.

1950년 10월 이후 유엔군의 북진작전기에는 제65·제115대대가 동해안 방면으로 진격하는 한국군 제1군단을 근접항공지원하였으며, 함흥·홍남·성진·청진 등 북한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와 철도 및 교량을 폭격했다. 그리고 1950년 11월에는 혜산진과 신의주 인근의 압록강 교량들을 공격하는데도 참여하였으며, 미 해병 제1사단의 장진호 전투와 홍남철수 작전에도 항공지원을 제공했다.

6·25전쟁 기간 스카이 레이더의 가장 특별한 공격은 1951년 5월 항공모함 프린스턴에서 출격한 제195공격비행대대의 스카이 레이더 8대가 화천댐에 어뢰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 공격으로 화천댐의 수문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 하나는 크게 파손되었다. 그 결과 화천저수지를 이용해 수공작전을 전개하려던 중공군의 계획이 무산되었다.

스카이 레이더는 해군뿐 아니라 해병대에서도 많이 활용한 기종이었다. 미 해병항공대는 제121·제251공격비행대대와 혼성수색비행대대인 제1비행대대에서 주로 운용했다. 제121·제251대대는 일본 또는 한국의 김포기지와 평택기지를 주 기지로 사용하면서 근접항공지원을 비롯해 철도·무기집적소·교량 등의 파괴에 투입되었으며, 제1비행대대의 스카이 레이더들은 수색정찰임무를 수행했다.

함재기인 스카이 레이더는 다양한 개량형이 개발되어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주요 공격기로 사용한 기종이었다. 그 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미 공군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며, 이 모델을 기본으로 A-10이 개발될 정도로 각 군에서 각광을 받았던 기종이었다. 6·25전쟁 기간 F4U 코세어와 더불어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한 가장 우수한 항공기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네이버 블로그, “A-1 스카이 레이더”, <https://blog.naver.com/rectek2/10095445015>, 2020. 11. 16.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NH 96954 USS Valley Forge(CVA-45)”, U.S. Navy web site.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AD-4 Skyraider’, “AD/A-1(AD-4) Skyraider(Korea)”, U.S. Navy web site.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Office of Air Forces History, USAF,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F2H 밴시

F2H Banshee

개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제작한 1인승 함재용 제트전투기로 1947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하였으며, 6·25전쟁 기간에 첫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원산항 상공을 비행 중인 F2H 밴시(1952. 10. 30).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F2H 밴시(Banshee)는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7년 2월 11일에 시제기 XF2D-1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항공모함 탑재형 제트전투기로 1947년 5월 이후 양산에 들어가 1951년까지 총 895대가 생산되었다. F2H-1에서 F2H-4까지 생산되었으며, 폭격기(B), 야간전투기(N), 정찰기(P) 버전이 생산되었다. 그중 F2H-2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에서 첫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했다.

F2H 밴시 제원

구 분		F2H-2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2.25m/13.44m
전고		4.45m
엔진/출력		Westinghouse J34-WE-34 2개, 3,250lbs
중량	자체	5,056kg
	작전	7,094kg
속도	최대	937km/h
	순항	796km/h
최대항속거리		2,370km
최대상승고도		15,088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기관포 4문 • 5인치 HVAR 로켓 8발 • 1,000파운드 폭탄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2H-2 Banshee', "F2H-2 Banshee(Korea)", U.S. Navy web site.

6·25전쟁 기간 밴시는 미 해군과 해병대에서 운용했다. 전쟁 초기부터 투입된 F2H-2는 미 공군의 B-26 또는 B-29 폭격기의 호위전투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 소련제 MiG-15기가 출현하면서 함재기 특성상 느린 속도로 인해 공대공 전투를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밴시의 주된 작전은 MiG-15기가 출현하지 않는 지역에서 유엔 지상군을 위한 근접항공지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6·25전쟁 기간 밴시의 특별한 활약은 정찰 임무 수행에서 나타났다. 정찰기인 F2H-2P는 고고도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해 효용 가치가 컸는데, 적기의 출현지역에서는 미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정찰 활동을 수행했다.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⑪(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2H-2 Banshee', "F2H-2 Banshee(Korea)", U.S. Navy web site.
 Norman Polmar, "Historical Aircraft : The Flying Banshee", *USNI Naval History*, January 2010.

F3D 스카이나이트

F3D Skynight

개요

미국 더글라스사에서 제작한 2인승 함재용 전천후 제트전투기로 1948년 3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 6·25전쟁 기간에 첫 실전에 투입되었으며, 미 해병대에서 주로 운용했다.

연혁 및 제원



비행 중인 F3D-2 스카이나이트.
© U.S. NAVY

F3D 스카이나이트(Skynight)는 미국 더글라스(Douglas)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8년 3월 23일에 시제기 XF3D-1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항공모함 탑재형 2인승 전천후(야간) 제트전투기였던 F3D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날개 중앙이 접히는 직선익 날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미 해군은 이 전투기를 제식으로 채용하면서 스카이나이트라고 명명했다. 초기형인 F3D-1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훈련기로 돌려졌으며, 개량형인 F3D-2가 개발되었다. F3D-2는 1951년 2월에 첫 비행을 하였으며, 후방 경계레이더와 자동조종장치가 추가된

F3D 제원

구 분		F3D-2
승무원		2명
전장/너비		13.87m/15.24m(날개 접었을 때 7.96m)
전고		4.91m(날개 접었을 때 5.06m)
엔진/출력		Westinghouse J34-WE-36 2개, 3,400lbs
중량	자체	6,799kg
	작전	9,695kg
속도	최대	852km/h
	순항	732km/h
최대항속거리		2,213km
최대상승고도		11,186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기관포 4문 • 11.75인치 로켓 2발 • 폭탄 최대 4,000파운드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3D-2 Skynight', "F3D-2 Skynight (Korea)", U.S. Navy web site.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F3D는 F3D-1에서 F3D-3까지 총 256대가 생산되었다. 이중 F3D-2가 237대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6·25전쟁 기간에도 F3D-2가 투입되었다. 1962년 새롭게 재정된 미군 항공기 명명법에 따라 F-10 스카이나이트로 명칭을 바꾸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 스카이나이트는 1952년 9월 미 해병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1952년 11월 2일 밤 공산군 Yak기와의 공대공 전투에서 처음 승리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소련제 최신예 전투기인 MiG-15기를, 12월 10일 밤에는 PO-2기를 각각 격추했다. 특히 MiG기 격추는 항공 전사를 통틀어 야간에 제트전투기를 레이더로 포착해 격추한 첫 사례이다. 미 해병대가 보유한 스카이나이트는 1953년 1월에 이르러 2배로 늘어났으며, 야간 폭격 임무를 가지고 출격하는 미 극동공군의 B-29 폭격기에 대한 호위 임무를 주로 담당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Gordon Swanborough & Peter M. Bowers, *United States Navy Aircraft since 1911* (London: putnam, Second edition, 1976).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3D-2 Skynight', "F3D-2 Skynight (Korea)", U.S. Navy web site.

F4U 코세어

F4U Corsair

개요

F4U 코세어는 미국 보우트사에서 제작한 1인승 함재용 프로펠러 전투기로 1942년부터 1952년까지 여러 개량형으로 총 1만 2,500대 이상이 생산될 만큼 주목을 받은 항공기였다. 독특한 V자형 날개가 특징적이다.

연혁 및 제원



항공모함 박서(Boxer, CV-21)에서 출격 준비 중인 F4U-4 코세어.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F4U 코세어(Corsair)는 미국 보우트(Vought)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38년에 원형 모델을 만든 후 1940년 5월 29일 시제기인 XF4U-1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다른 전투기와 비교해 코세어의 가장 큰 특징은 V자 형태의 양쪽 날개였다. 이러한 날개 형태는 코세어가 직경이 큰 프로펠러를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코세어가 일반 랜딩기어를 장착할 경우에는 이·착륙 때 프로펠러에 손상이 가해 질 수 있었으며, 큰 프로펠러에 비례하게 랜딩기어를 길고 굵게 할 경우에는 랜딩기어의 무게로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창안된 것이 V자형 날개였다. 그리고 코세어의 또 다른 특징은 기체 상부를 비롯해 조종석의 뒤쪽 캐노피와 시트 등받이가 장갑판과 방탄판으로 되어 있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조종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다.

1942년 6월 미 해군이 F4U-1 584대를 주문하면서 양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F4U-1은 함정 착륙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항공모함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되어 전량 미 해병대에 제공되었다. 이에 보우트사는 개량형 개발에 들어갔으며, 1944년 4월에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F4U-1D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F4U-1이 주간공격전투기였다면, F4U-2는 야간에 작전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야간전투기로 F4U-1을 개조한 것이다. 생산량은 극히 적었다. 그리고 F4U시리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F4U-4이다. 기존 F4U와 다른 점은 엔진이 새롭게 교체되고, 3엽이 아닌 4엽 날개를 채택하였으며, 엔진 뒷게 아래에 흡입구가 추가되어 기수의 형상이 변경되었다. F4U-4는 주간전투기, 야간전투기, 사진정찰기 등 A형에서 P형까지 생산되었다. F4U-5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생산된 모델로 F4U 시리즈 중 가장 최신예 전투기로 속도·화력·기동성에서 탁월했으

며, 여러 개량형이 생산되었다. 6·25전쟁에는 F4U-4가 가장 많이 운용되었다.

F4U 제원

구 분		F4U-4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0.30m/12.50m
전고		4.54m
엔진/출력		P&W R-2800-18W 1개, 2,100bhp
중량	자체	4,158kg
	작전	5,627kg
속도	최대	728km/h
	순항	-
최대항속거리		2,407km
최대상승고도		11,704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6정 • 5인치 HVAR 로켓 8발 • 폭탄 : 1,000파운드×2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4U-4 Corsair', "F4U-4 Corsair(WWII & Korea)", U.S. Navy web site.

운 용

6·25전쟁 기간에는 F4U-4가 주로 투입되었다. F4U-4에는 야간전 투기인 F4U-4B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코세어 중 가장 최신 기종으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F4U-5N이 일부 참전했다. 전쟁 기간에 F4U

는 미 해군과 해병대가 운용했다.

미 해군의 F4U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여 북한의 주요 시설물 폭격과 유엔 지상군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미 해군의 F4U-4B는 야간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미 해병대의 F4U기들은 주로 유엔 지상군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의 F4U기들은 상황에 따라 지상에서 출격하여 해군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1950년 12월 장진호에서 철수하는 미 해병 제1사단을 지원할 때 미 해병 제214전투비행대대(VMF-214)의 F4U-4 4대가 연포비행장에서 출격하여 작전을 펼친 후 흥남 앞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항공모함 시실리(Sicily, CVE-118)에 착륙한 경우가 그러했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F4U기들은 F2H-2 밴시나 AD-4 스카이 레이더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1951년 5월 1일, 제192·제193전투비행대대(VF-192, VF-193) F4U 12대가 항공모함 프린스턴의 제195공격비행대대(VA-195) 소속 AD-4 스카이 레이더 8대와 함께 화천댐을 공격하여 중공군의 수공작전계획을 무산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F4U-4는 폭격과 지상군 지원작전 이외에도 수색정찰 임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뒤늦게 한국 전선에 투입된 F4U-5N은 신예 전투기답게 6·25전쟁에서 미 해군의 최초이자 유일한 에이스(Ace)를 배출한 기종이기도 하다. 1953년 7월 17일 제3혼성비행부대(VC-3) 소속의 F4U-5N기 조종사 보테론(Guy P. Bordelon) 중위가 야간에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공산군의 Po-2 복엽기를 격추시켰다. 이것은 그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5번째의 적기 격추였으며, 이것으로 그는 미 해군 유일의 에이스가 되었다.

F-4U는 6·25전쟁 이후에도 초음속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던 1957년까지 미 해군에서 그리고 1970년대 초까지 중소국가에서 주력기로 운용했을 만큼 성능이 매우 우수한 기종이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⑫(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Mark L. Evans & Roy A. Grossnick, *United States Naval Aviation, 1910~2010*, Vol. I · II(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15).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4U-4 Corsair', "F4U-4 Corsair(WWII & Korea)",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431289 Vough F4U-4 Corsair", U.S. Navy web site.





F7F 타이거 캣

F7F Tiger cat

개요

F7F 타이거 캣은 미국 그루만사에서 제작한 쌍발 프로펠러 함재기로 1943년 11월 첫 비행에 성공하고 194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6·25전쟁 기간에는 주로 미 해병대에서 주·야간 공격기로 사용했다.

연혁 및 제원



F7F 타이거 캣.
출처 : 문림당 <세계의 걸작기 No.94>, www.blog.com/mirejet에서 재인용.

F7F 타이거 캣(Tiger cat)은 미국 그루만(Grumman)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3년 11월 2일 첫 비행에 성공한 쌍발 함재기이다.

45,000톤급 신형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에 탑재하려고 계획되었으나 기체가 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또 미 해군에서 F4F나 F6F의 생

F7F 타이거 캣 제원

구 분		F7F-3N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4.10m/15.73m
전고		5.09m
엔진/출력		P&W R-2800-32W 2개, 1개 2,100bhp
중량	자체	7,439kg
	작전	11,723kg
속도	최대	740km/h
	순항	-
최대항속거리		2,567km
최대상승고도		12,435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4정 • 20mm 기관포 4문 • 5인치 HVAR 8발 • 폭탄 최대 4,000파운드(5인치 HVAR 미장착)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Airplane Characteristics & Performance', "F7F-3N Tigercat(Korea)", U.S. Navy web site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690쪽.

비고 : 속도는 『공군사』 참조.

산을 더 중요시하여 생산이 미루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실전에 사용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산이 이어져 여러 파생형과 개량형이 개발되었다. 제식명칭에 따른 주요 개량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F7F-1은 쌍발 전투폭격기로 34대가 생산되었으며, F7F-1N은 1인승 야간전투기였고, F7F-2N은 2인승 야간전투기로 65대가 생산되었다. F7F-3은 엔진이 개선된 1인승 전투폭격기였으며, 가장 많은 수인 189대가 생산되었다. F7F-3N은 야간전투기로 60대가 생산되었으며, F7F-4N은 꼬리에 달린 고리와 해군 장비를 장착한 2인승 야간전투기로 13대가 생산되었다. 6·25전쟁 기간에는 F7F-3형이 운용되었으며, 특히 미 해병 제513전투비행대대의 F7F-3N이 야간전투나 전술정찰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6·25전쟁 기간 활약상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 Mark L. Evans & Roy A. Grossnick, *United States Naval Aviation, 1910~2010*, Vol. I · II(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15).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Airplane Characteristics & Performance', "F7F-3N Tigercat(Korea)", U.S. Navy web site.

F9F 팬서

F9F Panther

개요

F9F 팬서는 미국 그루만사에서 제작한 1인승 함재용 제트전투기로 1947년 10월 첫 비행에 성공하고 1949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6·25전쟁 기간에는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하여 공중엄호와 지상작전 지원을 담당했다.

연혁 및 제원



항공모함 박서함(Boxer)에서 출격해 북한 상공을 나는 F9F-2 팬서(1952. 6. 27).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F9F 팬서(Panther)는 미국 그루만(Grumman)사가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 개발에 들어가 1947년 10월 24일 첫 비행에 성공한 1인승 제트함재기이다.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9월에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2인승 제트기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국내 항공기 제작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루만사에서는 기존의 쌍발 프로펠러 2인승 전투기에 제트엔진을 장착한 시제기 XF9F-1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루만사의 XF9F-1은 경쟁사인 더글라스사의 XF3D-1에 밀려 개발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그루만사는 2인승 제트기 개발과는 별개로 1인승 제트기 개

F9F 팬서 제원

구 분		F9F-2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1.37m/11.58m
전고		3.47m(날개 접었을 때 5.21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J42-P-8 1개, 5,750lbs
중량	자체	4,220kg
	작전	6,457kg
속도	최대	926km/h
	순항	783km/h
최대항속거리		2,176km
최대상승고도		13,228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기관포 4문 • 5인치 HVAR 로켓 6발 • 폭탄 1,000파운드×2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9F-2 Panther', "F9F Panther (Korea)", U.S. Navy web site.

발을 진행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영국제 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시제기를 만들어 미 해군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새로운 시제기는 XF9F-2로 제식명칭이 부여되었으며, 이것이 1949년 9월 F9F-2로 제식 채용되고 팬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F9F는 양산형인 F9F-2시리즈부터 F9F-5시리즈까지 총 1,382대가 생산되었으며, 그 중에는 정찰용 무인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운 용

6·25전쟁 기간에 F9F 팬서는 F9F-2~F9F-5까지 당시 생산된 모든 기종이 미 해군에 의해 운용되었다. F9F가 6·25전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50년 7월 3일 평양비행장 공습 때였다. 이날 공격은 AD 스카이레이더기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공격에서 제51전투비행대대(VF-51) 소속의 F9F 팬서 2대가 북한군 Yak-9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다.

전쟁 기간 F9F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여 공중엄호와 지상작전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1950년 11월 9일, 제111전투비행대대(VF-111) 소속의 F9F기들은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출격한 F4U 코세어와 AD 스카이 레이더기들을 엄호했다. 이 과정에서 MiG-15기와 교전을 벌여 1대를 격추시켰으며, 11월 18일에도 같은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제52전투비행대대(VF-52)의 F9F기가 또다시 MiG기 1대를 격추시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F9F 팬서는 상승력과 기동성에서 MiG-15기에 뒤떨어져 잦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F9F기들은 MiG기 출현지역인 이른바 ‘미그회랑(MiG Alley)’으로의 출격이 중단되기도 했다.

F9F 팬서는 전투기였지만 폭격기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951년 4월 2일 제191전투비행대대(VF-191)의 F9F-2B 2대가 북한 성진의

철도교량 폭격에 참여했다. 미 해군 전사에는 이것이 6·25전쟁 기간 전투기를 폭격기로 사용한 미 해군의 첫 번째 사례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F9F는 항공모함은 물론 미 공군의 B-29 폭격기를 엄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951년 8월 25일에는 항공모함 에섹스함(Essex, CV-9)에서 출격한 F9F기들이 북한지역 폭격 임무를 띤 미 공군의 B-29 폭격기들을 엄호하였으며, 11월 18일에는 제781전투비행대대(VF-781)의 팬서 3대가 항공모함 오리스카니함(Oriskani, CV-34)을 엄호하다가 MiG기들과 조우하여 2대를 격추시키기도 했다.

F9F 팬서가 MiG기와의 조우에서 몇 차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것은 성능에서 MiG보다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종사들의 뛰어난 조종술에 기인한 바가 컸다. 미 해군은 이러한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공군의 F-86 세이버와 같은 후퇴익을 채택한 신형 F9F-6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F9F-6기가 양산되어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6·25전쟁이 끝남으로써 F9F-6기의 6·25전쟁 참전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F9F 팬서는 미 공군의 F-86 세이버나 소련제 전투기 MiG-15기보다 성능에서 떨어졌지만, 항공모함에서 운용된 함재기로서의 우수성은 당대 최고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④(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 Mark L. Evans & Roy A. Grossnick, *United States Naval Aviation, 1910~2010*, Vol. I · II(Washington, D.C.: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Department of the Navy, 2015).
-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Standard Aircraft Characteristics, F9F-2 Panther', "F9F Panther(Korea)", U.S. Navy web site.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80-G-447061 Grumman F9F-2 Panther", U.S. Navy web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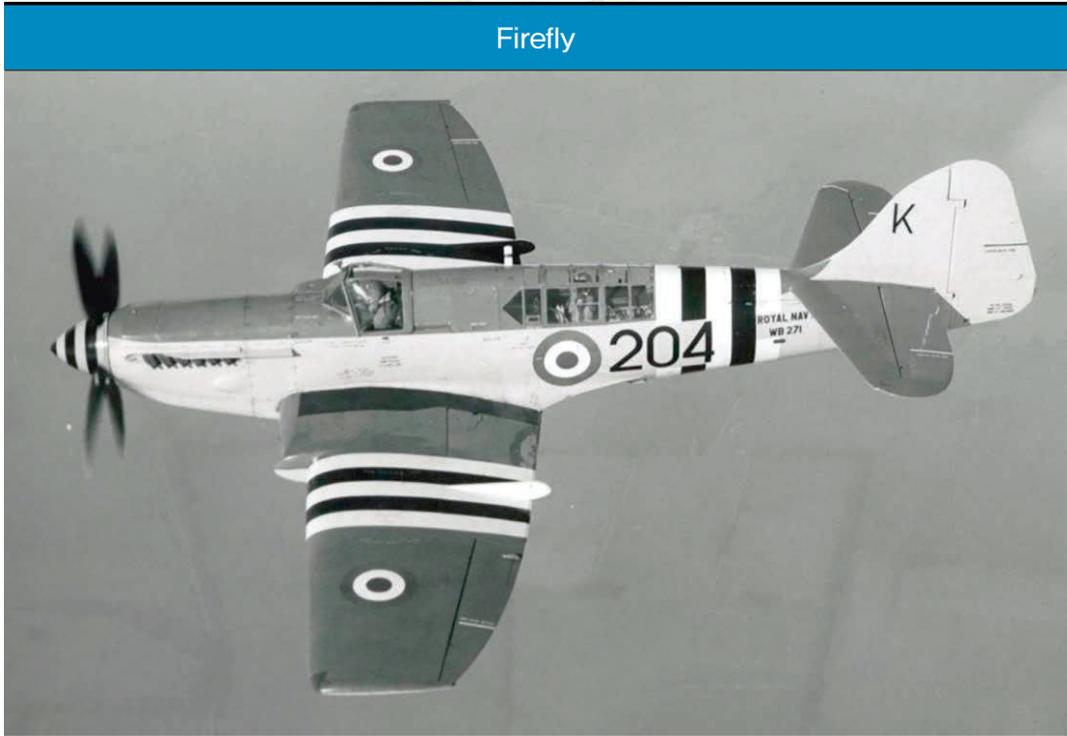
파이어플라이, 시파이어, 시퓨리 Firefly, Seafire, Seafury

개 요

6·25전쟁 기간 영국과 호주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운용한 함재기이다. 슈퍼머린사의 시파이어(Seafire)는 영국 해군이, 페어리사의 파이어플라이(Firefly)와 호커사의 시퓨리(Seafury)는 영국과 호주 해군이 운용했다.

제 원

파이어플라이(Firefly) 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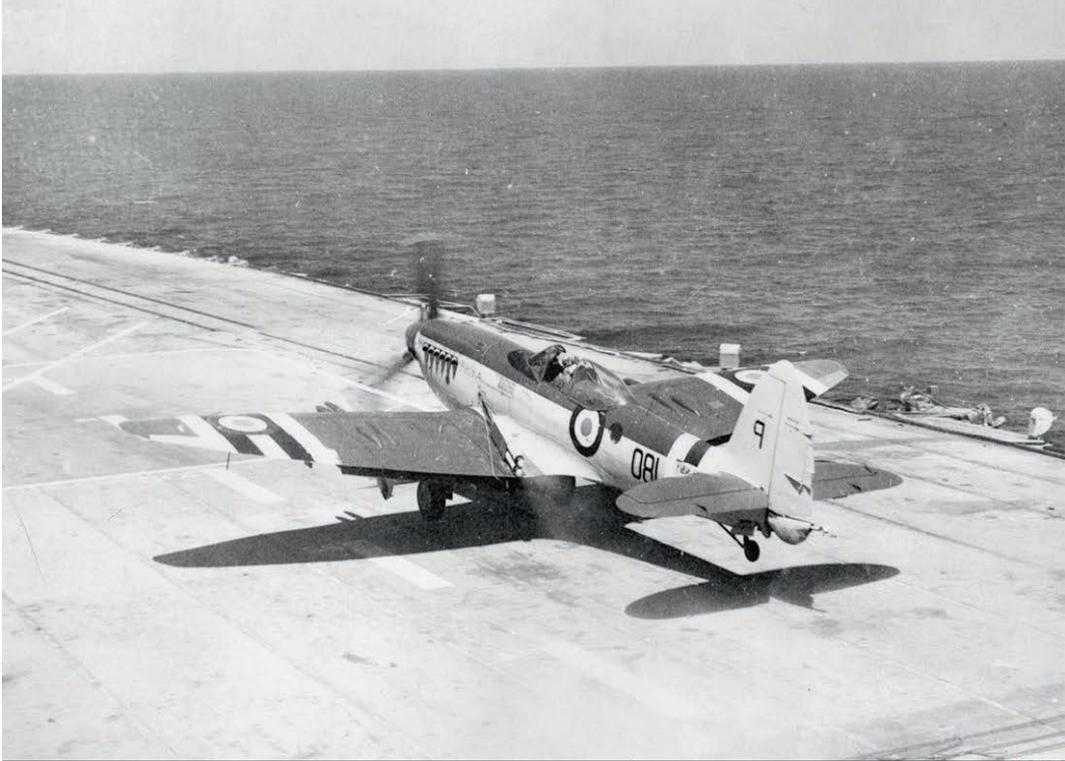
유엔 표식인 검은색과 흰색의 원이 그려진 호주 제817비행대대의 파이어플라이

Firefly	
승무원	2명
전장/너비	11.6m/12.5m
전고	4.4m
엔진/출력	Rolls-Royce Griffen 74 V12 1개, 2,250hp
최대이륙중량	7,301kg
최대속도	621km/h
항속거리	2,408km
최대상승고도	8,656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Hispano Mk V 기관포 4문 • 60파운드 로켓 16발 • 폭탄 최대 2,000파운드 장착 가능
주요 활동	<p>파이어플라이는 영국의 페어리(Fairly)사가 제작한 2인승 단발 프로펠러 함재기로 6·25전쟁 기간 영국과 호주 해군이 운용했다. 영국 해군은 5척의 항공모함이 순환 임무를 수행하면서 파이어플라이를 비롯해 시파이어, 시퓨리를 주요 함재기로 사용했다. 그리고 호주 해군은 항공모함 시드니(HMAS Sydney)에 파이어플라이와 시퓨리로 무장한 비행대대 2개씩을 싣고 참전했다. 시드니의 함재기들은 1951년 10월 4일 첫 출격 후 1952년 1월 25일 마지막 출격 때까지 총 2,366회의 출격횟수를 기록했다. 기간에 파이어플라이는 4대가 손실되었다.</p>

사진출처 : "817 Squadron History", Royal Australian Navy, <https://www.Navygov.au/>
 비교 : 파이어플라이 제원은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1, 691쪽 참조.

시파이어(Seafire) 제원

Seafire(F Mk III)



승무원		1명
전장/너비		9.21m/11.23m
전고		3.49m
엔진/출력		Rolls-Royce Merlin 55 1개, 1,585hp
중량	자체	2,411kg
	최대이륙	3,280kg
최대속도		578km/h
항속거리		748km
최대상승고도		11,000m

Seafire(F Mk III)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구경 기관총 4정 • 20mm Hispano MkV 기관포 2문 • 60파운드 로켓 8발 • 폭탄 500파운드 1개 또는 250파운드 2개
주요 활동	<p>시파이어는 영국의 슈퍼머린(Supermarine)사가 제작한 단발 프로펠러 함재기로 영국 해군이 운용했다. 시파이어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함재기의 필요성에 직면한 영국 해군이 서둘러 슈퍼머린사에 제작을 의뢰해 만들어진 기종이었다. 슈퍼머린사는 새로운 설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존에 제작한 공군의 스피트라이어(Spitfire)를 항공모함용으로 개량했는데, 이것이 시파이어기였다. 총 2,334대가 생산되었으며, 6·25전쟁 기간에는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운용되었다. 항공정찰과 지상군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항속거리가 짧아 작전범위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1950년 말부터 같은 프로펠러 함재기인 시퓨리가 시파이어를 대체했다.</p>

사진출처 : "IWM Picture Catalogue No. A31701", Imperial War Museums, <https://www.iwm.org.uk/>

비고 : 시파이어의 제원은 "Supermarine Seafire", Wikipedia 참조.

시퓨리(Seafury) 제원



승무원		1명
전장/너비		10.57m/11.70m
전고		4.84m
엔진/출력		Bristol Centaurus 18 1개, 2480hp
중량	자체	4,191kg
	최대이륙	6,645kg
최대속도		210km/h
항속거리		1,455km
최대상승고도		10,900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m Hispano Mk V 기관포 4문 • 3인치 로켓 12발 또는 2,000파운드 폭탄

Seafury(FB. 11)

주요 활동

시퓨리는 영국의 호커사(Hawker)사가 제작한 함재기로 영국의 항공모함 트라이엄프(HMS Triumph), 글로리(HMS Glory), 테세우스(HMS Theseus), 오션(HMS Ocean), 유니콘(HMS Unicorn) 등 5개의 항공모함과 호주의 항공모함 시드니(HMAS Sydney)에서 운용한 영연방 국가들의 주력기였다. 영연방 국가의 항공모함들은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항공모함에 탑재된 시퓨리도 한반도 서쪽지역을 주요 작전지역으로 했다. 북한지역 폭격, 공대공 전투, 지상군 근접항공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청천강~압록강 사이의 소위 '미그회랑(MiG Alley)'에서 소련제 MiG-15기와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퓨리는 유엔군이 한국 서해안 지역의 제공 및 제해권을 장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출처 : "HMAS Sydney(III)", Royal Australian Navy, <https://www.Navygov.au/>

비고 : 시퓨리의 제원은 "Hawker Seafury", Wikipedia 참조. 영연방 국가의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이 책의 '콜로서스급 경항공모함', '유니콘급 경항공모함', '마제스틱급 경항공모함'편 참조.

참고문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③~⑪(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201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계룡: 공군본부, 2011).

"HMS Ocean in Korea 1952~1953", Imperial War Museums.

Michael J. H. Taylor, *Jane's Encyclopedia of Aviation*(New York : Crescent Books, 1993).

Royal Australian Navy, "Fairly Firefly AS.5/AS.6", "HMAS Sydney(III)", <https://www.Navygov.au/>

"Supermarine Seafire", "Supermarine Seafire", Wikipedia.

PBM 마리너, PBY 카탈리나

PBM Mariner, PBY Catalina

개요

PBM 마리너와 PBY 카탈리나는 미 해군이 운용한 수상기이다. 수상기는 물 위를 활주하여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6·25전쟁 기간에는 마틴사의 PBM-5 마리너와 컨설러데이티드사의 PBY-5 카탈리나가 운용되었다.

제원

PBM 마리너(Mariner) 제원

PBM-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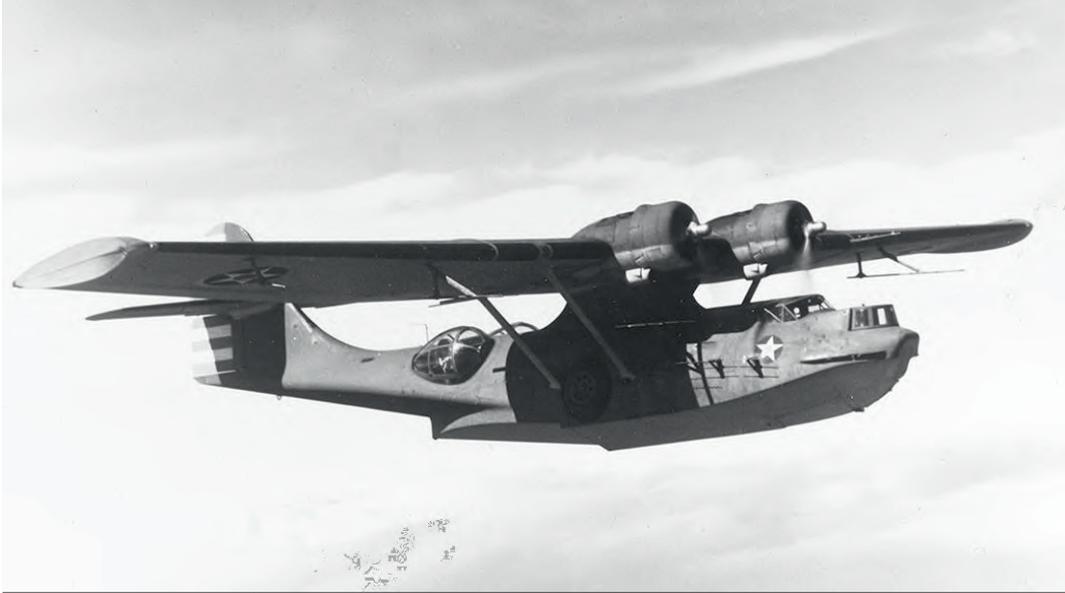
항공 무기

PBM-5		
승무원	7명	
전장/너비	24.11m/35.97m	
전고	7.35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2800-34 2개, 1개 2,100bhp	
중량	자체	16,103kg
	작전	23,181kg
최대속도	370km/h	
항속거리	3,482km	
최대상승고도	6,339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4정 • 폭뢰를 포함한 각종 폭탄 최대 12,800파운드 장착 가능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요 항구 기뢰제거 지원 • 해상 초계 활동 등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PBM Mariner(WWII & Korea)", "80-G-434681 PBM-5 Mariner Patrol Plane", U.S. Navy web site.

PBY 카탈리나(Catalina) 제원

PBY-5A



승무원	8~9명
전장/너비	19.23m/31.70m
전고	6.16m
엔진/출력	Pratt & Whitney R-1830-92 2개, 1개 1,200hp
최대이륙중량	16,066kg
최대속도	290km/h
항속거리	5,517km
최대상승고도	6,339m
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구경 기관총 4정 • 폭뢰를 포함한 각종 폭탄 최대 4,000파운드 장착 가능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륙양용기로 해상 초계 및 구난 활동

출처 :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PBY-6A Catalina(WWII)", "80-G-403256 Consolidated PBY-5A Catalina Patrol Bomber(BU#7248)", U.S. Navy web site.

저 자 : 박 동 찬(朴東燦)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문학박사)
- 주요 저서
 - 『6·25전쟁 주요 전투』 (2017, 공저)
 - 『한권으로 읽는 6·25전쟁』 (2016)
 - 『한국군 건설의 기획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2016)
 -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등 다수

감 수

임 성 채(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군사편찬과장)

이 원 석(공군역사기록관리단 역사편찬과장)

고 한 빈(전쟁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6·25전쟁 주요 무기 I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디자인 국군인쇄창 편집디자인과

인 쇄 국군인쇄창(M21030148)

The Korean Wa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